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중심으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탕 이 잉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탕 이 잉

탕이잉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정확한 변별과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는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말뭉치 기반 연구를 통해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통사·의미·화용적 변별점을 체계화하고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용 자료에서의 문법 항목 중복도와 말뭉치 사용 빈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정된 항목들의 의미적 유사성을 판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어말어미의 위치에서 나타나 주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종결표현으로 쓰이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Ⅱ장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양태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하위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을 재정립하며 이에 속하는 ‘추측’의 개념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과 유형 분류, 그리고 교육의 의의를 논의하고 비교 항목 간의 다차원적 변별 정보 구성의 중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측’ 문법 항목들을 변별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변별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 제시된 문법 정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에 대해 한국어 말뭉치에 기반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해 보았다. 통사적 차원에서는 주어 인칭, 어미 후행, 문장 유형, ‘-(으)면’ 선행절 등 제약과 어휘·표현 공기의 측면에서 변별점을 살펴보았다. 의미적 차원에서는 추측 행위의 구성소인 ‘추측 근거’, ‘추측 방법’, ‘추측 결과’ 등 측면에서 이들 문법 항목이 변별되는 지점을 포착하였다. 화용적 차원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

이 실제 담화에서 공손·불손 전략으로 쓰이는 양상과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2명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합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에 의해 체계화된 문법 지식과 학습자의 문법 지식 사이의 접면과 상이함을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며 문법 항목들을 변별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에서 생성된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과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 가지는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한국어 경험만으로 형성된 지식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전이되지 못하는 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능동적인 변화, 언어 현상에 대한 원인 탐구, 의미에서 화용적 기능으로의 용법 확장, 그리고 용어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 등 여러 모습도 관찰하게 되었다.

Ⅴ장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와 학습자의 변별 양상에 기반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논의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교수학적 변화의 과정과 단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선정·구성과 맥락화·개인화로 나누어 개별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 비교 항목의 선정과 내용 구성 원리, 변별 정보와 용례의 제시, 활동 설계 등 측면에서 내용 구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을 도출하고 내부자적 관점으로 학습자들의 변별 양상을 고찰하고 학문적 지식과 학습자의 문법 지식의 접면과 상이함을 찾아냄으로써 교육 내용의 구안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어 문법 교육, ‘추측’ 문법 항목, 유사 문법 항목, 양태, 말뭉치 기반 연구, 집합적 사례연구

학 번 : 2018-31622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사 ····· 5

2.1.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 5

2.2.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관한 연구 ····· 8

3. 연구 방법 및 절차 ····· 13

Ⅱ.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 24

1. 인식양태로서의 '추측' ····· 24

1.1. 한국어 양태의 개념, 범주 및 하위유형 ····· 24

1.2. 한국어 인식양태의 의미영역 ····· 28

1.2.1. 확실성 정도 ····· 28

1.2.2. 정보의 출처 ····· 30

1.2.3. 정보의 내면화 ····· 32

1.3. '추측'의 개념적 의미 ····· 34

2.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항목 ····· 38

2.1.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및 분류 ····· 38

2.1.1.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 38

2.1.2. 유사 문법 항목의 분류 ····· 40

2.2.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의의 ····· 43

2.3.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비교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 ····· 45

2.3.1. 교육용 비교 항목의 선정 ····· 45

2.3.2. 교육용 비교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 ····· 46

3.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기준 ····· 48

3.1.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변별 기준: 이론적 연구 검토 ····· 48

3.1.1. 통사적 변별 기준 ····· 48

3.1.2. 의미적 변별 기준 ····· 61

3.1.3. 화용적 변별 기준 ····· 71

3.2. 교육 내용으로서의 변별 기준: 교육용 자료 분석 ····· 75
3.2.1. 통사 정보 ····· 76
3.2.2. 의미 정보 ····· 80
3.2.3. 화용 정보 ····· 91
3.3. 소결론 ····· 94

Ⅲ. 말뭉치 기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점의 체계화 ·· 97
1. 분석 기준 ····· 97
1.1. 통사적 분석 기준 ····· 97
1.2. 의미적 분석 기준 ····· 99
1.1.1. 추측 근거 ····· 99
1.1.2. 추측 방법 ····· 102
1.1.3. 추측 결과 ····· 105
1.3. 화용적 분석 기준 ····· 110
2. 분석 결과 ····· 112
2.1. 통사적 변별점 ····· 112
2.1.1. 주어 인칭 제약 ····· 112
2.1.2. 어미 후행 제약 ····· 120
2.1.3. 문장 유형 제약 ····· 123
2.1.4. '-(으)면' 선행절 제약 ····· 126
2.1.5. 어휘·표현 공기 제약 ····· 128
2.2. 의미적 변별점 ····· 131
2.2.1. 추측 근거 ····· 131
2.2.2. 추측 방법 ····· 140
2.2.3. 추측 결과 ····· 147
2.3. 화용적 변별점 ····· 150
2.3.1.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 ····· 150
2.3.2.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 169
2.4. 소결론 ····· 171

Ⅳ. 집합적 사례연구 기반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 양상 ····· 176
1. 연구 실행 과정 ····· 176
1.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 176
1.2. 자료 수집 및 분석 ····· 180
2. 다차원적 변별점에 따른 학습자의 변별 양상 ····· 184
2.1.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 184
2.1.1. 주어 인칭 제약: 명제 주어 ····· 184
2.1.2. 어미 후행 제약: '-었-', '-더-', '-네/구나', '-지' ····· 194
2.1.3. 문장 유형 제약: 일반의문문 ····· 203
2.2.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 208
2.2.1. 추측 근거 ····· 208
2.2.2. 추측 방법 ····· 225
2.2.3. 추측 결과: 확실성 정도 ····· 234
2.2.4. 추측 결과: 주관성 ····· 242
2.3. 화용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 248
2.3.1.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 ····· 248
2.3.2.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 259

Ⅴ. 학습자 변별 양상에 기반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 내용 구안 ····· 262
1. 교육의 목표 ····· 262
2.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교수학적 변환 ····· 266
3.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 ····· 270
3.1.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및 위계화 ····· 270
3.1.1. 개별 항목의 선정 ····· 270
3.1.1. 개별 항목 교수 순서의 위계화 ····· 276
3.2.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교육 내용 구성 ····· 278
3.2.1. 비교 항목의 선정 ····· 279
3.2.2. 비교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 282
4. 교육 내용의 맥락화 및 개인화 ····· 285

4.1. 맥락화를 위한 명시적 변별 정보와 용례 제시 ····· 285
4.1.1. 비교 항목에 대한 명시적 변별 정보 ····· 286
4.1.2. 맥락 속에서의 변별점 이해를 위한 용례 ····· 289
4.2. 개인화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 설계 ····· 292

Ⅵ. 결론 ····· 295

참고문헌 ····· 299
부록 ····· 319
Abstract ····· 343

표 목 차

<표 Ⅰ-1> 연구 방법 및 절차 ····· 13
<표 Ⅰ-2> 언어사용역별 연구 말뭉치의 정보 ····· 15
<표 Ⅰ-3>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서의 '추측' 문법 항목과 항목별 중복도 ····· 16
<표 Ⅰ-4> '추측' 문법 항목의 말뭉치 출현 빈도 ····· 20
<표 Ⅱ-1> 선행연구: '추측'의 개념 ····· 36
<표 Ⅱ-2> 선행연구: '유사 문법 항목'의 용어와 개념 ····· 38
<표 Ⅱ-3> 의미적 유사성의 범위 설정 ····· 41
<표 Ⅱ-4> '유의 문법항목'의 첫 번째 조건 내용 ····· 42
<표 Ⅱ-5> 선행연구: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 제약 ····· 52
<표 Ⅱ-6> 선행연구: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 제약 ····· 53
<표 Ⅱ-7> 선행연구: 의문문 사용 제약 ····· 54
<표 Ⅱ-8> 선행연구: 감탄문 사용 제약 ····· 56
<표 Ⅱ-9> 선행연구: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 59
<표 Ⅱ-10> 선행연구: 비한정 부사와의 공기 양상 ····· 60
<표 Ⅱ-11> 선행연구: 1인칭 표현과의 공기 양상 ····· 60
<표 Ⅱ-12> 선행연구: 추측의 방법 ····· 68
<표 Ⅱ-13> 선행연구: '공손' 실현 양상 ····· 72
<표 Ⅱ-14> 선행연구: 언어사용역적 특성 ····· 75
<표 Ⅱ-15> 한국어 교재: 주어 인칭에 대한 명시적 정보 ····· 77
<표 Ⅱ-16> 한국어 교재: 어미 후행에 대한 명시적 정보 ····· 78
<표 Ⅱ-17> 한국어 교재: 개별 '추측' 문법 항목에 대한 명시적 의미 정보 ·· 80
<표 Ⅱ-18> 교육용 자료: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목록 ····· 87
<표 Ⅱ-19> 한국어 문법서: '-겠- : -(으)ㄹ 것이다'의 변별 정보 ····· 88
<표 Ⅱ-20> 교육용 자료: '-(으)ㄴ가/나 보다 : -(으)ㄴ/는 모양이다 :
-(으)ㄴ/는 것 같다'의 변별 정보 ····· 89
<표 Ⅱ-21> 한국어 교재: 화용적 기능에 대한 명시적 정보 ····· 91
<표 Ⅱ-22> 한국어 교재: 언어사용역에 대한 명시적 정보 ····· 93
<표 Ⅲ-1> 통사적 분석 기준 ····· 98
<표 Ⅲ-2>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근거의 정보 유형화 ····· 102

<표Ⅲ-3>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방법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104
<표Ⅲ-4> 양태부사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아마(도)', '어쩌면'의 사전 정의 ····· 105
<표Ⅲ-5>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 ····· 107
<표Ⅲ-6>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결과-주관성 ····· 110
<표Ⅲ-7> 화용적 분석 기준 ····· 112
<표Ⅲ-8> 통사적 변별점: 상위 주어 인칭 및 외현 ····· 112
<표Ⅲ-9> 통사적 변별점: 명제 주어 인칭과 동일 주어 여부 ····· 114
<표Ⅲ-10> 통사적 변별점: 동일 주어 여부에 따른 심리술어와의 결합 ···· 116
<표Ⅲ-11> 통사적 변별점: 선어말어미 '-었-', '-더-' ····· 120
<표Ⅲ-12> 통사적 변별점: 종결어미 '-네, -구나/군, -지' ····· 122
<표Ⅲ-13> 통사적 변별점: 평서문과 의문문 ····· 123
<표Ⅲ-14> 통사적 변별점: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 ····· 124
<표Ⅲ-15> 통사적 변별점: '-(으)면' 선행절 ····· 126
<표Ⅲ-16>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양태부사 ····· 128
<표Ⅲ-17>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비한정 부사 ····· 129
<표Ⅲ-18>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1인칭 표현 ····· 130
<표Ⅲ-19> 의미적 변별점: 추측 근거 ····· 131
<표Ⅲ-20> 의미적 변별점: 추측 근거-지각 정보 ····· 132
<표Ⅲ-21> 의미적 변별점: 추측 방법 ····· 140
<표Ⅲ-22> 의미적 변별점: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 ····· 147
<표Ⅲ-23> 화용적 변별점: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 ····· 150
<표Ⅲ-24> 화용적 변별점: 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 ····· 160
<표Ⅲ-25> 화용적 변별점: 상대방 체면 손상을 통한 불손 전략 ····· 167
<표Ⅲ-26> 화용적 변별점: 매체와 격식성 ····· 169
<표Ⅲ-27> 화용적 변별점: 네 가지 언어사용역 ····· 170
<표Ⅲ-28> 말뭉치 기반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 ····· 172
<표Ⅳ-1> 집합적 사례연구 참여자 정보 ····· 178
<표Ⅳ-2> 한국어 학습 배경 및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연구 참여자 구분 ····· 179
<표Ⅳ-3> 면담에 제시된 과제 목록 및 수행 과정 ····· 180
<표Ⅳ-4> 연구 참여자별 면담 일정 및 시간 ····· 182
<표Ⅳ-5>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1인칭 명제 주어 제약 ····· 185

<표Ⅳ-6>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겠-', '-(으)ㄹ 것이다'의 명제 주어 제약의 인식 양상 ····· 191
<표Ⅳ-7>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 제약 ····· 195
<표Ⅳ-8>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 제약 ····· 198
<표Ⅳ-9>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일반의문문 사용 제약 ····· 203
<표Ⅳ-10>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ㄴ가/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추측 근거 ····· 209
<표Ⅳ-11>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의 추측 근거 ····· 226
<표Ⅳ-12>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방법-추측 근거와 추측 내용의 관계 ····· 216
<표Ⅳ-13>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 ··· 235
<표Ⅳ-14>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결과-주관성 ····· 242
<표Ⅴ-1>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목표 ····· 265
<표Ⅴ-2> 한국어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단계 ····· 266
<표Ⅴ-3> 한국어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 ····· 268
<표Ⅴ-4> 한국어 교재: '추측' 문법 요소가 포함된 문법 항목 ····· 271
<표Ⅴ-5>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구성 ····· 275
<표Ⅴ-6>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말뭉치 사용 빈도 ····· 276
<표Ⅴ-7>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내적 난이도 ····· 277
<표Ⅴ-8>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교수 순서 위계화 ····· 278
<표Ⅴ-9> 개별 항목의 위계화에 따른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 281

그 림 목 차

<그림Ⅰ-1>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을 위한 말뭉치 분석 예시 ····· 21
<그림Ⅱ-1>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정도 ····· 30
<그림Ⅱ-2> ‘유사한 의미’의 양상 ····· 40
<그림Ⅱ-3> 의미적 유사성의 판단 과정 ····· 43
<그림Ⅱ-4> 추측 행위 구성소에 따른 의미적 변별 기준의 분류와
그 관계 ····· 95
<그림Ⅲ-1> 퍼스(Peirce)의 추론 과정 ····· 103
<그림Ⅲ-2>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 ····· 107
<그림Ⅲ-3> 탄도체의 잠재력 약화에 따른 주관화 ····· 108
<그림Ⅳ-1>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근거 ····· 225
<그림Ⅴ-1> 추측 방법에 대한 도식화 ····· 28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이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언어로 표현한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확실히 알거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이처럼 미연 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한 인식과 같이 추측은 인간의 인식세계에 편재하는 것으로서 범언어적으로 표상화된다.

한국어에서 추측[1]은 그 실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문법적인 수단으로서의 '추측' 문법 항목은 그 수효가 상당하다. 그중에서도 주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문법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 문법 항목은 문장 구성에서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추측'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범주에 속하면서도 미묘한 세부 의미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대표적인 '유사 문법 항목'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추측' 문법 항목들이 목표 문법으로서 초급 단계부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급 단계에 걸쳐 배정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학습자가 배우게 될 유사한 '추측' 문법 항목이 많아진다. 모국어 화자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바람에 학습자들은 상황에 맞게 '추측' 문법 항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 오류를 범하거나 자기에게 익숙한 특정 문법 항목만을 선호하여 다른 문법 항목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인 학습자도 역시 예외적이지 않다.[2]

---

1)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실제적인 인지적 활동으로서의 추측이 언어화된 것을 작은 작은따옴표가 딸린 '추측'으로 표시한다.

2)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지식 양상에 관한 연구는 2.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특성 항목만의 습관적인 사용 경향이 강하다는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문제는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올바른 변별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문법 항목 간의 변별을 위한 교육 내용을 고안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 결과물로서의 학문적 지식(Scholarly Knowledge)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추측' 문법 항목의 변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언어공동체의 실제 언어 사용으로부터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보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연구마다 서로 변별을 위해 세워진 기준이 다르며 동일한 기준인데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개별 '추측' 문법 항목에 대한 정보만으로 해당 문법 항목이 다른 문법 항목과 구별되는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목표 문법 항목과 비교될 만한 선수 학습된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교육도 특정한 두세 개의 문법 항목만을 중심으로 의미적 차이를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제대로 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유용한 이론적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법 정보가 오직 이론적 연구 결과물을 단순화하는 수준에서 제시되며 유의미한 학습을 돕는 정보의 맥락화와 개인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아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급까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인데도 '추측' 문법 항목들에 대한 적절한 사용은 커녕 어떠한 '추측' 문법 항목을 배웠는지조차 상기할 수 없으면서 매우 기초적인 문법 항목만을 즐겨 쓰는 모습을 보인다.

> ㉯: 지금까지 제 기억에서 추측을 표현하는 문법은 '-을 것 같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문법을 배우고 이 문법이 추측의 의미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추측을 하는 상황이라면 다 이 문법을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할 때 당연히 제가 가장 잘 아는 문법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문법을 생각하지 않겠죠. (다른 문법 항목을) 배웠더라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이 있는 걸 고려하지 않죠. 뭐 근거라든지 조건 같은 거. 그냥 제가 쓸 줄 아는 그 문법만 써요. (㉯-4-MC)[3]

3) 이는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중·고급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한국에서 광고홍보학과 학부 재학 중인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에서의 일련번호 '㉯'는 연구 참여자, '4'는 면담 차례 수, 'MC'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 지식을 학습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전이하게 하는 교육 내용의 고안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어 학습자는 전달된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바탕으로 재구조화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은 지식은 실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지 않는(김호정, 2010) '죽은 지식'으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 연구자에게 체계화된 학문적 지식을 한국어교육의 장에서 교육 내용으로 변환할 때 그러한 교육 내용을 대면하는 학습자에게서 필요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는 한국어 문법교육학자의 몫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그간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는 정량적 측정을 통해 설계된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정답률이나 모국어 화자와의 응답 분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변별 능력이 부족함을 밝히고 그것을 해당 교육의 부재에 비롯된 결과로 치부하며 정답률이 낮거나 집단 간 응답 양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대증적 처치로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무엇을 가르칠 내용으로 선정하며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환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었는지가 문제시된다. 가령, 어떤 연구자가 학습자들이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에 따라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이곳의 물이 (깨끗하다).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네요.'와 같은 선다형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가 각각 전자와 후자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의해 학습자들이 '-(으)ㄴ가/나 보다'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나, 그들이 '-(으)ㄴ가/나 보다'가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추측에 쓰이는 점에서 '-(으)ㄴ/는 것 같다'와 구별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후행발화에 표현된 근거 정보에 대한 지각없이 주관적인 추측에 따라 '-(으)ㄴ/는 것 같다'를 선택하였을 수도 있고, 그러한 지각이 전제됐다고 하더라도 근거 정보가 추측 발화에 선행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으)ㄴ가/나 보다'를 배제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학습자의 지식 양상을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서 학습자가 실제로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변별하도록 의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변별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별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김은정 외, 2007: 3). 결국 학습자에게 분석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분리된 자료만으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박민신, 2018: 416). 따라서 문법 지식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교육 내용의 구안은 인식주체로서의 학습자의 문법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 즉 '학습자의 이해를 이해하기'(이관희, 2015)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학문적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변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온전한 변별적 인식과 적절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인식양태로서의 추측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및 선정, 교육의 의의를 논의하며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기존 변별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한국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기존의 변별 기준을 검증하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인 변별점을 체계화한다.

셋째,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어떻게' 변별하는지와 '왜' 그렇게 변별하는지의 양상을 세밀하게 고찰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낸다.

넷째, 이상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적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구안의 방향을 논의한다.

2. 연구사

2.1.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가 유사 문법 항목의 체계에 대한 연구에 의해 본격화되는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의 일이지만, 그전부터 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에서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둘 이상의 문법 항목을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박은희(2019)에서 분석한 대로 유사 문법 항목을 한국어교육의 맥락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문법 항목 간 변별점을 찾는 내용학적 연구와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방안으로 마련하는 연구를 아우르는 교육 내용의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 연구, 그중에서도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로 종결 위치에서 나타나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4] 이들 연구는 '의지', '가능성', '후회', '희망', '완료'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 범주의 문법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교육을 위한 유사 문법 항목의 특성 비교에 중점을 두는 연구와 비교의 결과를 실제적인 교육 방안으로 고안한 연구로 나누어 소개한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선행연구나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문법 항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유사 문법 항목을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박숙영(2006)과 장채린(2017)에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겠-', '-(으)르게', '-(으)르래', '-(으)르 것이다'를 중심으로 각각 의지 정도와 결심시, 청자의 의중 인식, 청자의 의중 부합 등 관점에서 이들 항목의 의미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말뭉치 용례에 기반한 김형복·김문기(2021)에서는 '당연' 또는 '가능성'으로 범주화되던 '-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일쑤이다', '-기 쉽다'의 교체 양상을 살핌으로써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 차이를 밝혔다. 한편으로 문장을 통한 의미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사 문법 항목의 담화·

4)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2.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화용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윤은경(2006)과 허경행(2011)에서는 형태·의미적으로 비슷한 '-(으)ㄹ래'와 '-(으)ㄹ게'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자에서는 두 문법 항목이 쓰이는 화용적 기능과 기능별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화용적 기능을 비교하며 후자에서는 문법 항목 간의 기본적인 의미 차이와 이로부터 확장되는 화용적 기능을 논하였다. 김효신(2007)에서는 담화 분석을 통해 완료 표현 '-고 말다'와 '-어 버리다'의 담화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정윤(2014)에서는 의지 표현 '-르게', '-르 거야', '-르래', '-려고'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비교하였다. 권영은(2008)에서는 후회 표현 '-었더라면 -었을 텐데'류, '-었더라면 -(으)ㄹ걸', '-었어야 하다'의 화용적 특성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소수의 문법 항목을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상의 논의들과 달리 남신혜(2016)과 리옌(2017)에서는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문법 항목들을 목록화하고 각각 11개 가능성 표현과 10개 의도·희망 표현의 표현별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 후 표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에서 그러한 문법 항목들을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하위분류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될 만하다. 이를테면 남신혜(2016)에서는 "의미·기능 상 매우 유사한" '-(으)ㄹ 법하다'와 '-(으)ㄹ 만하다'를 한데 묶고 두 문법 항목의 언어사용역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리옌(2017)에서는 "모두 '약한 의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ㄹ/을까 싶다'와 '-ㄹ/을까 보다'를 쌍으로 짜서 두 문법 항목이 가지는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밝혔다. 이는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된 항목들인데도 다시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외에 강현화 외(2017)에서는 담화 기능에 따른 조사, 연결표현, 종결표현의 유사 문법 항목의 전반적인 분류와 다원적인 변별점의 기술을 시도한 것으로서 유사 문법 항목 연구의 본격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방안의 구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에 더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거나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김형복·김문기(2011)에서는 '요구'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의미·통사적 차이를 지니는 '-게 하다'와 '-도록 하다'에 대해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고찰하고 문법 항목의 위계화, 비교 학습, 항목 간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스스로 인식 도모 등 측면에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

다. 김효신·노지현(2019)에서는 ‘계속’이라는 상적 의미를 가지는 ‘-고 있-’과 ‘-어 있-’에 대해 결합하는 동사에 의한 의미적 차이와 문법화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바탕으로 도입과 제시 부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다르게 학습자 현재의 지식 양상에서 교육적 근거를 찾는 논의로서, 김서형(2007)과 성채민(2009)에서는 각각 학습자 말뭉치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표현과 의지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최애넝(2012)에서는 학습자 작문 자료 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사용 오류와 이해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종예(2015)와 윤세미(2019)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지 표현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사용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의 대부분은 개별 문법 항목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법 항목 간의 차이에 따른 비교 교육 내용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성채민(2009)과 최애넝(2012)는 이와 차별된다. 그런데 두 논의에서 ‘-(으)르게, -(으)르 것이다, -겠-’, ‘-었으면 좋겠다, -었으면 하다, -기 바라다’ 등과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문법 항목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명확치 않다. 또한 학습자의 지식 양상에 대한 외부적인 분석만으로 과연 학습자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법 항목들을 혼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외부적인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박민신(2017ㄱ)과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박선영(2020)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각각 이유 표현과 의지 표현의 문법 선택 기제인 세부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과 문법 지식의 구성 양상을 깊이 고찰하였다. 두 논의는 문법 선택의 관점에서 의미 범주 기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와 출발점이 다르다. 하지만 같은 의미 범주에 해당되는 문법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변별이 발화 의도에 따른 문법 항목의 적절한 선택의 관건이자 전제인 점에서 유사 문법 항목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는 박민신(2017ㄱ)에서 문법 항목 간 용법의 대조적 인식을 학습자의 정교화 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과 박선영(2020)에서 ‘공유 의미’와 ‘의미 차이’로 구성된 ‘유사 문법’을 목표 문법 항목의 선택 기제의 일부로 구성하는 것에서 확인될 수 있다. 두 논의는 유사 문법 항목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교육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학습자 문법 지식의 양상에 대한 내부적인 고찰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종결표현으로 쓰이는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러한 연구 중의 대부분은 비교 항목의 변별적 교육에 비해 의미 범주 기반의 문법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부자적 관점에서만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을 파악하고 있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2.2.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는 전나영(1999)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어학 분야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여러 문법 형태의 변별[5]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간에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 절에서는 국어학적 연구의 흐름을 간략히 개관한 뒤[6]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를 자세히 살펴서 이들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또는 문제점을 밝힌다.

초기의 국어학적 연구는 '양태추정소'라고 불리는 '-겠-'과 '-ㄹ 것-'의 의미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까지 특히 활발하였다. 하나의 기준에 따른 두 문법 형태의 의미 변별에 집중하는 이 시기의 연구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해당 변별 기준의 타당성이 금시에 다른 연구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이기종(1993)에서 기존 논의들의 한계점으로 연구 대상의 제한성과 의미 변별에 대한 단층적 접근을 피력하였음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 대상을 복합 구성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변별 기준을 검토하면서 문법 형태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연구와, 의미적 차이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의미적

---

5) '유사 문법 항목'은 한국어교육학적 용어이자 개념으로서 국어학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학적 연구를 살피거나 검토할 때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국어학적 연구는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기준 설정과 이에 따른 변별점 규명이 그 주된 논의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Ⅱ장의 3.1.절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차이에 비해 문법 형태 간의 통사적 차이는 대부분 국어학적 연구에서 그것이 의미적 차이를 방증해 주는 증거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화용적 차이는 소수 연구에서 '완곡어법(또는 화법)'으로 언급되기만 하거나 몇몇 연구에서 관련 논의가 국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만큼 주목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언어유형론에서의 '증거성', '의외성'의 개념이 국어학 분야에 도입됐음으로써 원래 인식양태의 의미 범주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던 문법 형태 중의 일부를 '추론 증거성 표지' 또는 '의외성 표지'로 거론하는 연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적 변별을 위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국어학적 연구의 양적인 팽창, 변별 기준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변별의 체계화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한국어 교육문법을 구축하는 데 튼튼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언어공동체의 실제 언어 사용 사건이 아닌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가공한 예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직관에 의한 주관적 분석이 행해짐으로써 변별 기준의 설정과 변별 결과가 합의되지 않는 것도 역시 한국어문법교육학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는 교육 내용의 구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연구이며, 또 하나는 교재 분석이나 학습자 지식 양상을 통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지점을 찾아서 이에 대한 처방으로 교육 내용 또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교수법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문법 항목들의 통사·의미적 차이를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로서 전나영(1999)에서는 화자의 확신 정도에서 '짐작'의 의미를 가지는 5개 표현의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김춘애(2010)에서는 판단 유형, 추측 근거, 확실성 정도의 면에서 '-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의 의미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담화문법의 관점에서 문법 항목 간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서 황주하(2013, 2015)에서는 드라마 대본 분석을 통해 '-것 같다', '-을 것이다', '-겠-'이 쓰이는 상황 유형과 상황별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김상경·장은경(2015)에서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비/격식적 상황에 따른 '-겠-'과 '-ㄹ 것이-'의 용법을 확인함으로써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두 표현은 객관적 근거 유무와 발화 현장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연(2019)에서는 화용적 차이에 주목하여 '개연' 추측 표현들을 양태 강도와 주체 추측 여부에 따라 나누고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표현들의 언어사용역과 맥락의 차이를 말뭉치 기반 계량적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통사적 차이에 중점을 두는 연구로서 탕이잉·진영하(2021)과 탕이잉(2022)에서는 각각 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양태 부사와의 공기 양상과 주어 인칭 제약을 말뭉치를 통한 계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이러한 통사적 차이가 보여 주는 표현 간의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을 다원적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이지연(2018)에서는 19개의 추측 문법 항목을 양태 강도에 의해 하위분류한 후 강도가 동일한 문법 항목들의 형태·의미·화용적 변별성을 밝혔다.

교육 내용이나 교수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위논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교육용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배열 등을 논의함으로써 교수·학습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주는 연구이다. 이효정(2004)에서는 추측 표현을 포함한 한국어 양태 표현을 전체적으로 의미유형화하고 의미적 유사성을 지니는 표현들의 의미, 빈도, 제약을 살피며 교수 순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혜(2005)에서는 한국어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문법의 원리와 교수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추측 표현에 적용하여 교재에서의 항목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항목의 배열순서, 기술안, 수업 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이선영(2006)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실린 추측 표현들의 의미 특성을 살피고 말뭉치를 통해 사용 빈도와 시제, 인칭 결합 양상을 확인하며 교재에서의 제시 실태를 파악한 후 추측 표현의 위계성, 의미 설명, 표현 간 비교 등을 중심으로 교재 구성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윤혜진(2011)과 이상숙(2021)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 추측 표현의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선행연구, 교육용 자료의 항목 중복도, 말뭉치에서의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교육용 항목의 선정과 등급화를 다루는 데 공통적이며 후자는 진일보하여 표현별 특성을 고찰하고 단계별 교수 모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문법 항목의 변별이나 이에 교재 분석을 더하여 교육 내용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그중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연구로서 추측 표현의 의미 기능적 차이를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재기술하는 이윤진·노지니(2003), '-겠-'과 '-(으)ㄹ 것이다'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고 교육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강현주(2010), 증거성 관점에서 추론 증거성 표지가 가지는 정보 획득 방식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교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진관초(2013), 추측 표현의 의미 자질과 확장된 특수 용법을 밝히고 교육 내용의 기술 원리와 나선형 교육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황주하(2018),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 기술 원리를 세우고 '-ㄹ 것 같다'와 '-나 보다'에 대한 비교 기술 방안을 구체화하는 탕이잉(2020), 그리고 추측 표현들이 실제 담화 맥락에서 완곡어법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교육방안으로 구안하는 성미선(2009)와 말뭉치 실현 빈도와 비율을 중심으로 추측 표현의 화행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정미진(2017)이 있다.

이와 달리 교수법이나 수업 모형에 주목한 연구로는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에 대해 어휘 의미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전기호(2006)과 TTT 모형에 따른 교수 방안을 만련하는 이준호(2010), '-겠-'과 '-(으)ㄹ 것-'에 대한 의식 고양 과제의 초급용 수업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류혜진(2013),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의 교수 방안에 입력 기반 과제를 적용한 효과를 실증하는 유상(2020), OHE 모형을 초·중급 고빈도 추측 표현의 교수·학습에 도입하는 허지이·박경남·박선희(2021)이 있다. 이외에 교육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여 다루는 노지니(2004)에서는 추측 통어적 문법소의 의미 기능적 차이와 '공손' 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피며 삼단계 기술안과 담화 분석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변별점 고찰과 교재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지식 양상에 근거하여 교육적 조치를 마련하는 연구이다.[7] 이러한 연구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점을 토대로 구성한 설문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 결과(선은희, 2003; 강비, 2014; 강민경, 2016 등) 또는 모국어 화자의 수행 결과와의 차이(엄녀, 2010; 유민애, 2012; 하흔흔, 2016 등)를 정답률이나 응답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학습자가 생산한 쓰기 자료(유창, 2011; 정단화, 2011)나 모국어 화자와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김세령, 2010)를 바탕으로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빈도와 오류 양상을 파

7) 여기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식 양상에 대한 연구만 살핀다.

악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특정한 문법 항목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 학습자 지식의 현 상태를 추론하고 모국어의 영향, 관련 교육의 부족이나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유추하며 정확한 교육 내용의 마련, 교재의 보완, 교육 방식의 변화 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가 그동안 국어학적 연구 못지않게 많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중의 절대다수는 이론문법을 한국어 문법 교육의 장에서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교수·학습에 유용한 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구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이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지니기도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대부분 연구에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교육용 자료에서의 문법 제시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불충분’, ‘공손 기능에 대한 제시 부재’, ‘실제성을 가지는 예문 결여’ 등과 같이 문법 정보의 유무나 충분 여부의 표피적인 수준에 머물러 이론문법에서 교육문법으로의 변환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교육 내용으로서 구축한 문법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다’ 등과 같이 단지 이론적 연구 성과에 대한 요약적 간결화에 불과하며 지식 내면화를 추동하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의미적 특성을 비롯하여 특정한 측면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통사·의미·화용적 차원에서의 변별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화용적 기능의 차이를 비중 있게 다루는 연구가 더욱 찾아지기 어렵다. 이는 국어학 연구에서 ‘-겠-’이나 ‘-(으)ㄹ/ㄴ/는 것 같다’를 비롯한 개별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화용적 특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거나 한국어 공손(또는 완화) 표현의 일종으로서 ‘추측’ 문법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문법 항목의 선정을 위한 사용 빈도 확인 또는 의미 분석을 위한 용례 참고로만 말뭉치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말뭉치에 기반하여 기존의 변별 기준과 변별 결과의 타당

성을 점검하면서 문법 항목들의 변별점을 귀납적으로 도출해 내는 연구가 극히 드물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언어 현상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그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수용, 재정리의 수준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연구마다 다양한 변별 기준 가운데 적당하다고 나름 판단한 기준을 선택하는 바람에 변별 기준과 결과의 불일치가 가중되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학습자가 주어진 선택항에서 제시된 문항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변별 기준에 의해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해석하였음으로써 학습자가 실제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어떻게 변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자적 이해가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일부 연구(유민애, 2012; 강비, 2014; 하흔흔, 2016)에서는 선택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지만, 그것은 과제 수행 중이나 직후가 아닌 양적 분석이 끝난 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별 문항에 대해 몇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연구자 중심적인 접근법은 교육 내용의 고안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가 무성하기는 하나 연구 내용과 방법 면에서 획일적이며 동질적인 연구들이 반복되어 온 모습이 확인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지점을 찾아내고 중국인 학습자의 변별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이론적 단계', '실증적 단계', '실천적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구 방법 및 절차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이론	Ⅱ장	·양태의 개념 및 하위부류 논의 ·인식양태의 의미영역 재정립 ·'추측'의 개념적 의미 규명	·문헌 연구	·양태, 증거성, 의외성 관련 선행연구 ·'추측' 문법 항목 관련 선행연구

적		・한국어교육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정립 및 교육의 의의 규명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비교 항목의 선정 및 다차원적 변별 정보의 제시	・문헌 연구	・유사 문법 항목 관련 선행연구 ・유의어, 유사 어휘 관련 성행 연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변별 기준 검토	・문헌 연구 ・교육용 자료 분석	・'추측' 문법 항목의 변별에 관한 선행 연구 ・한·중 한국어 교재, 한국어 사전/문법서
실증적	Ⅲ장	・변별을 위한 분석 기준의 설정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 도출	・말뭉치 기반 연구: 절충적 분석 방법	・'모두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언어사용역으로 재구성한 연구용 말뭉치
	Ⅳ장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 양상 확인	・집합적 사례연구	・면담 전사 자료 ・과제 수행 결과 ・연구 참여자용 학습 자료
실천적	Ⅴ장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교육 내용 구안 방향 논의		・문법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 관련 선행연구 ・말뭉치 기반 연구 및 집합적 사례연구 결과

실증적 단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변별 결과를 점검하고 이들 항목 간의 다차원적 변별점을 정밀히 포착하기 위해 '말뭉치 기반 연구(corpus-based research)'[8]를 진행한다. 또한 언어사용역의 차이가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중요한 구분점이 되기(양명희, 2016) 때문에 언어사용역별로 말뭉치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언어사용역은 '특정한 언어 사용 상황과 관련된 변이'(Biber·Conrad·Reppen, 1998: 135)로서 그 구별이 매우 세밀한 것일 수도 있고 보다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세밀한 구분은 분석 작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사용 경향의 차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언어사용역을 적절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배진영·손혜옥·김민국, 2013: 50; 손혜옥, 2016ㄴ: 252).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탕이잉(2022: 114)에서 '모두의 말뭉치'[9]를

8) '말뭉치 기반 연구'는 기존 언어학 이론이나 분석의 틀에 기대어 연구자가 연역적으로 세워 놓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이론적 전제만을 바탕으로 말뭉치에 나타난 분석적 결과만을 통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말뭉치 주도 연구(corpus-driven research)'와 대응된다(남길임, 2011: 76).

바탕으로 ‘매체’와 ‘격식성’에 따른 ‘비격식적 구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문어’, ‘격식적 문어’의 네 가지 언어사용역으로 재구성된 약 400만 어절 규모(언어사용역별 약 100만 어절)의 연구 말뭉치를[10] 사용하였다.[11] 연구 말뭉치의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언어사용역별 연구 말뭉치의 정보

언어사용역		해당 말뭉치 유형	파일 수 (건)	크기 (어절 수)
매체	격식성			
구어	격식적	구어 말뭉치(공적대화, 공적독백)	997	1,008,555
	비격식적	일상 대화 말뭉치	740	1,003,030
문어	격식적	신문 말뭉치, 문어 말뭉치(잡지: 비평; 보고서; 공문 등)	255	1,000,896
	비격식적	문어 말뭉치(책상상: 소설, 동화 등)	24	1,000,655
합계			2016	4,013,136

연구 항목으로서의 ‘추측’ 문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용 ‘추측’ 문법 항목 목록의 추출과 의미적 유사성 판정에 따른 유사 문법 항목의 분류를 진행하였다. 목록 추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한 기준으로 교수·학습 현장의 실제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용 자료(교재, 문법서)에서의 문법 항목 중복도[12](김호정 외, 2012; 이현정·최영롱, 2015)와 실용성을 반영한

9) ‘모두의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8월 25일에 공개한 것이며 신문기사와 책 2만 188종, 음성 대화와 메신저 대화, 방송자료, 영화나 드라마 대본, 블로그·게시판 자료 210만 건 등이 공개되어 있는 대규모 말뭉치이다.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down)’에 접속하여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10) 연구 말뭉치의 재구성 절차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언어사용역에 해당하는 말뭉치 유형을 확인하고 각 말뭉치의 폴더에서 샘플 파일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파일을 대상으로 100만 어절로 재조정한다. 모두의 말뭉치는 키(Key)와 값(Value)이 쌍을 이루는 ‘JSON’ 파일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파이선(python 3.9.1)을 활용하여 구어나 문어 내용만을 포함하는 ‘form’ 부분을 추출하고 텍스트 파일(.txt)로 송출한 후 말뭉치 분석 도구인 ‘AntConc 3.5.8’을 통해 어절 수를 계산한다(탕이잉, 2022: 114).

11) Ⅱ장에서 살피겠지만 선행연구를 통해서 ‘추측’ 문법 항목들은 주로 ‘매체’와 ‘격식성’에서 뚜렷한 분포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사용역과 관련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과정 적용 연구’(2017: 13-14)에서는 ‘문어와 국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4급)’ 등과 같이 등급별 한국어교육의 총괄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말뭉치가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2) 이현정·최영롱(2015: 123)에 따라 각 교재는 중요도에 대한 교육 기관의 기준과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을 토대로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배열하고 있으므로 교재 중복도

말뭉치 출현 빈도(방성원, 2004; 윤혜진, 2011; 박민신, 2017ㄱ)를 사용하였다. 교육용 자료에서의 항목 중복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4종 한국어 교재와 3종 사전(또는 문법서)[13]에서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 기술 메타언어[14]를 살핌으로써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15]

<표 Ⅰ-3>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서의 '추측' 문법 항목과 항목별 중복도

문법 항목	A	B	C	D	G	H	I	중복도
-겠-	○	○	○	○	○	○	○	7
-(으)리-					○			1
-(으)리라					○	○		2
-(으)려나					○			1
-(으)ㄹ까(요)	○			○		○	○	4
-(으)ㄹ 것이다	○	○	○		○	○	○	6
-(으)ㄹ걸(요)	○		○	○	○	○	○	6
-(으)ㄹ/ㄴ/는 것 같다	○	○	○	○	○	○	○	7
-(으)ㄹ/ㄴ/는 듯(이)						○	○	2
-(으)ㄹ/ㄴ/는 듯하다	○	○	○		○	○	○	6

가 높을수록 해당 문법 항목의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 중복도는 한국어교육용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3) 목록 추출에 사용된 한국어 교재와 사전, 문법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2015), 서울대 한국어 1~6, 문진미디어: 투판즈.
B.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2010),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C.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8-2021), (새)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D.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2012), 이화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G.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H.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하우기획출판.
I. 이희자·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14) '추측' 문법 항목을 되도록 누락 없이 찾아내기 위해 '추측', '추정', '짐작' 등 메타 용어로 기술되거나 "'그러할 것이다'의 뜻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와 비슷한 뜻이다" 등 표현으로 기술된 문법 항목을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Ⅱ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추측'의 개념적 의미에 의해 가능성의 정도가 아닌 존재 유무만 나타내는 "어떤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쓴다", "가능성이 있는 일임을 나타낸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기술된 문법 항목은 제외한다.

15)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서 관형사형 어미 등에 따른 다양한 변이형이나 관련형으로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정비한 후 하나의 대표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으)ㄹ/ㄴ/는 듯싶다						○	○	2
-(으)ㄹ/ㄴ/는 성싶다	○					○	○	3
-(으)ㄹ/ㄴ/는 모양이다	○		○	○	○	○	○	6
-(으)ㄴ가/나 보다	○	○	○	○	○	○	○	7
-(으)ㄴ가/나 싶다					○	○		2
-(으)ㄹ까 보다	○				○		○	3
-(으)ㄹ까 싶다							○	1
-(으)ㄹ까 하다	○					○	○	3
-지 싶다						○	○	2
-(으)ㄹ꼬					○			1
-(으)ㄹ지						○	○	2
-(으)ㄹ는지					○			1
-(으)ㄹ지(도) 모르다			○	○	○		○	4
-(으)ㄹ 줄 알다/모르다	○			○		○		3
-(으)ㄹ 법하다	○					○		2
-(으)ㄹ 테지만							○	1
-(으)ㄹ 테고					○		○	2
-(으)ㄹ 텐데(요)	○	○	○	○	○	○	○	7
-(으)ㄹ 테니(까)	○		○	○	○	○	○	6
-기 쉽다					○			1
-기 십상이다	○				○	○		3
-아/어/여 보이다	○		○	○	○	○	○	6
-어서인지					○			1
합계	17	6	12	11	22	22	22	-

그 결과, 교육용 자료마다 각각 6개부터 22개의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합쳐 34개의 '추측' 문법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중복도가 5 이상[16]인 문법 항목만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겠-', '-(으)ㄹ 것

16)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으로서 교육용 자료의 중복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를 보면 5종 교재에서 모두 제시된 항목(하흔흔, 2016), 5종 교재 중 3종 이상의 교재에 제시된 항목(박민신, 2017ㄱ), 8종 자료 중 5종 이상의 자료에서 제시된 항목(이진주, 2021),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아 단지 낮은 중복도를 보이는 항목만을 제외하는 등(윤혜진, 2011; 강비, 2014 등)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적어도 5종 중의 3종 즉, 중복도가 60% 이상이어야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문법서나 사전, 한국어 교재를 구분하지 않고 총 7종의 교육용 자료 중 5종 이상(71.43%)의 자료에 제시된 '추측' 문법 항목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다', '-(으)ㄹ걸(요)',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 텐데(요)', '-(으)ㄹ 테니(까)', '-아/어/여 보이다' 총 10개가 이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아/어/여 보이다'는 시각 정보를 그대로 진술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도 쓰일 수 있으며 추측이 그 주된 의미가 아닌 시각 정보의 피상성에서 파생된 것(노지니, 2004: 48)이라는 점에서 '추측' 문법 항목이라고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9개 문법 항목의 말뭉치 출현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말뭉치 분석 프로그램인 앤트콘크(AntConc 3.5.8)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컨코던스(Concordance) 도구에서 정규표현식(Regex)의 기능을 통해 언어사용역별로 이들 9개의 문법 항목이 쓰인 모든 용례를 텍스트(.txt) 파일로 송출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16.45) 파일(.xlsx)로 변환하고 동일한 문법 항목의 용례들을 하나의 시트(sheet)에 통합하였다. 이때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테니(까)', '-(으)ㄹ걸(요)' 등은 다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시 말뭉치 파일에서 해당 문법 항목의 용례가 사용된 맥락을 확인하여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만을 선별하였다.[17] 이

17) '-겠-'과 '-(으)ㄹ 것이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연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그동안 '-겠-'의 의미에 대한 기존 견해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다양한 의미들을 하나의 원초적인 의미에 귀결시키는 '종합적인 견해(단의어설)'와 그러한 의미들을 모두 인정하는 '분석적인 견해(다의어설)'로 대립되며, 의미 분류에 있어서도 상이함을 보인다.

종합적 견해	남기심(1972): 미확인/미정; 신창순(1975): 추단; 성기철(1976): 미결/추량; 이기용(1978): 추정; 임홍빈(1980): 대상성; 김차균(1981): 불확실; 박옥숙(1987): 불확실성; 김미선(1990): 미확인; 임칠성(1991): 비확정; 전혜영(1995): [발화 태도의 비확정/미확정]; 임재진(1999): 미루어 앎;
분리적 견해	최현배(1937): '올적(미래)', '할 수(가능)', '미룸(추측)'; 서정수(1977): 불확실한 추정, 확고한 결정(의도); 장경희(1985): [결과 짐작/짐작], [의도], [능력], [가능성을 포함한 내적 상태 발생], [의견], [공손], [요청]; 임동훈(2001), 고광모(2002): 미래/예정 추측, 가능, 의도; 박재연(2006): 인식 양태적 용법(추측, 공손, 극단적 표현), 행위 양태적 용법(의도), 특수용법(능력, 기동상, 계획된 미래); 다카치(2011): 양태적 의미(추측, 의지, 가능), 시간적 의미(미래, 계획된 미래, 임박한 상황), 상적 의미(인식의 결과), 화용적 의미(공손); 전혜자(2013): 의지의 전달, 예고,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표현, 발화시에 주체가 놓인 상태의 표현

초기에 종합적 견해가 상당히 선호됐지만 오늘날에는 분리적 견해가 대세이다. 본

연구는 양태 요소의 다의성이 자연스러운 현상(박재연, 2006)이며 '-겠-'의 다양한 의미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의 설정이 어렵다(다카치, 2011)는 관점에 동의하여 분리적 견해를 따른다. 하지만 '예정/미래', '능력/가능' 등은 '추측'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한국어교육학적 연구(강현주, 2010; 김은경, 2015 등)에서 '추측'으로 파악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동훈(2001)에서는 아래 문장 (ㄱ), (ㄴ), (ㄷ)에서의 '-겠-'을 서술어가 동작주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할 때 동작주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동작주에게 주어져 있다는 '능력', 특정한 동작주가 부각되지 않을 때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해석하였으며, 그러한 의미가 일반화되면서 차츰 '추측'의 뜻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박재연(2006)에서는 이러한 '-겠-'의 의미는 '-ㄹ 수 있-'의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화자 주어에게 존재하는 '능력'을 표현한다고 파악하였다. 반면 조일영(1994: 236)에서는 '-ㄹ 수 있-'의 뒤에 '-겠-'이 붙을 수 있기에 '-겠-'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김미선(1990: 37)에서는 아래의 문장은 '-ㄹ 수 있-'에 비해 '-ㄹ 수 있겠-'이 쓰이는 문장에 더 가까운 어조를 띠므로 이때의 '-겠-'은 '가능'이라기보다 '가능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일영(1994)의 견해는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ㄹ 수 있-'의 뒤에 붙은 '-겠-'은 워낙 '능력'이 아닌 '추측'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아래 문장에서의 '-겠-'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그러한 '-겠-'을 '-ㄹ 수 있겠-'과 동일한 것으로 '가능'과 '추측'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보는 김미선(1990)의 견해는 더욱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ㄱ.나도 이런 문제를 풀겠다.(장경희 1985: [능력])

ㄴ.약을 먹었더니 이제 좀 살겠다.(박재연 2006: [능력]; 다카치 2011: [가능])

ㄷ.노래 못 부르겠어?(임동훈 2001: [능력/가능]; 박재연 2006: [능력])

이어서 '피곤해 죽겠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겠-'은 '현재의 상태', '가능성을 내포한 내적 상태 발생', '극단적 표현', '임박한 상황' 등 의미로 다루어지며 전형적인 '추측'과 구분된다. 하지만 박재연(2006: 110)에서 설명하였듯 이때 화자가 실제로 죽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될 만큼 괴롭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겠-'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손'은 '추측'의 불확실성을 빌려 화자의 확실한 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므로 '추측'에서 파생된 화용적 기능이다. 이는 '-겠-'뿐만 아니라 여러 '추측' 문법 항목이 '공손'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 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창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등과 같은 문장에서의 '-겠-'도 '공손'의 기능으로 쓰이지만 각각 명제에 표현된 행위의 가능성을 청자에게 물어봄으로써 허락을 구하는 것과 청자의 의도에 대한 물음을 통해 요청이나 부탁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가능'과 '의도'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여러 논의에서 '공손'이나 관용표현으로 다루어진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의 '-겠-'이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해 '에라 모르겠다!', '알겠어 알겠어!' 등과 같이 전혀 공손성을 드러내지 않는 발화에서의 '-겠-'은 아예 설명될 수 없다. 이에 비해 '-겠-'을 '-게 되었-'과 연관된 것으로 어떠한 상태에 막 접어들었음을 표현하는 '기동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박재연(2006: 126-127)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이 열차는 영산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문장에서 '예정/미래', '계획된 미래'의 의미로 파악된 '-겠-'도 있다. 이때 '-겠-'은 화자의 태도가 아닌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된 일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함을 의미하기(다카치, 2011) 때문에 '추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9개 ‘추측’ 문법 항목의 말뭉치 출현 빈도는 아래 <표 Ⅰ-4>와 같다.

<표 Ⅰ-4> ‘추측’ 문법 항목의 말뭉치 출현 빈도(200만 어절 기준 정규화)

추측 문법 항목	구어		문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겠-	5130	23.15%	2735	22.91%
-(으)ㄹ 것이다	1908	8.61%	4400	36.85%
-(으)ㄹ/ㄴ/는 것 같다	13693	61.78%	2616	21.91%
-(으)ㄹ걸(요)	29	0.13%	36	0.30%
-(으)ㄴ가/나 보다	496	2.24%	228	1.91%
-(으)ㄹ/ㄴ/는 모양이다	19	0.09%	413	3.46%
-(으)ㄹ/ㄴ/는 듯하다	117	0.53%	950	7.96%
-(으)ㄹ 텐데(요)	671	3.03%	257	2.15%
-(으)ㄹ 테니(까)	100	0.45%	306	2.56%
합계	22164	100.00%	11940	100.00%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가 모두 1% 미만(김세령, 2010; 이상숙, 2021)으로 나타난 ‘-ㄹ걸(요)’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서 이지용(2017)에 따라 나머지 8개 문법 항목에 대한 의미적 유사성을 판정하였다. 그 결과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듯하다’는 문장 내에서 주로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하며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종결표현으로 쓰이는 공통적인 통사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 ‘-(으)ㄹ 텐데(요)’와 ‘-(으)ㄹ 테니(까)’는 주로 연결어미로서[18] 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겠-’의 의미를 ‘추측’, ‘의지/의도’, ‘가능/능력’, ‘예정/미래’, ‘기동상’으로 파악하며, ‘추측’은 ‘전형적인 추측’과 이로부터 파생된 ‘공손’과 ‘극단적 표현’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한편 ‘-겠-’에 비해 ‘-(으)ㄹ 것이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으)ㄹ 것이다’의 의미는 대체 ‘추측’, ‘의도’, ‘예정’, ‘미연의 사물/어떤 용도나 기능을 하는 사물’ 등을 들 수 있다(서정수, 1978; 박재연, 2018 등). 본 연구에서는 ‘추측’의 의미만 다룬다.

18) 말뭉치에서 8개 ‘추측’ 문법 항목이 연결표현으로 쓰이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 텐데	-(으)ㄹ 테니(까)

결의 기능과 그에 따른 의미가 일차적으로 적용되므로(노지니, 2004) 앞의 6개 항목과 그 의미적 유사성의 정도가 약한 점에서 본 연구의 변별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였다.[19] 따라서 최종적으로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6개 '추측' 문법 항목을 변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묶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라고 일컫는다.

말뭉치에 기반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빈도나 분포와 같은 계량적이고 귀납적인 분석 결과를 언어학적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검증하는 질적 분석, 즉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활용한 절충적 연구 방법(홍혜란, 2018: 476)을 사용한다. 그런데 모든 말뭉치 용례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언어사용역별로 도출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빈도를 20만 어절 단위로 환산한 후, 이미 정리된 엑셀 파일(xlsx.)에서 무작위로 해당 수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용 파일로 새로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용례는 총 6550개이다.[20] 분격적인 분석 작업은 분석용 엑셀 파일에서 Ⅱ장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기준에 따라 추출된 용례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입하면서 진행하였다. 분석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Ⅰ-1>과 같다.

선행문	후행문	말뭉치 파일명	언어 사용역	추측 근거		추측 방법	상위 주어		명제 주어	선행 용어	심리 술어 Y/N	선어말 어미 후행		종결어미		의문문		양태 부사 공기	비한정 부사 공기	1인칭 표현	'-(으)면' 선행절 (Y/N)	화청자 관계		공손/분손전략
				지각/지식	세부유형	연역/가추	인칭	외현 Y/N	인칭			었	더	구나/내	지	(Y/N)	일반/수사					힘	친밀감	
그 사람은 자기에겐 녹취록이 있다고 밝혔고 그래서 에스엘에서는 바로 인정을 해버리지. 그래서 사실 사람들 반응은 이게 뭐냐 반박도 안 하고 녹취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해버리냐 그리고 사실 나도 아 뭔가 심각했나 보다 녹취록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	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는데 또 다른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했더라? name이 뭐 전해지면은 길은 사람이라 했나 뭐 그런	SDRW2000002002.txt	비격식 구어	지각	간접	가추	1	N	3	있다	N										+	-	
아니 과일같은 경우에는 한 장사 한 상자씩 산다거나 뭐~ 양말도 사실 매일 레일 신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한꺼번에 막 백 켤레씩 산다 막 이런 백 켤레요? 분도 똑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은 예. 아니면 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신 편인	가 봐요? 예 저는 과일같은 거 살 때도 필요한 것만 사구요	SBRW1900000058.txt	격식적 구어	지각	간접(타인 선행 발화)	과인	1	N	2	어다	N					의문문	확인					-	중립	청자 정보 영역 존중

<그림Ⅰ-1>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을 위한 말뭉치 기반 분석 예시

두 번째 실증적 단계로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깊이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에

비율(%)	17.97	7.28	29.83	20.66	1.52	5.79	68.75	70.20

19) 의미적 유사성에 따른 유사 문법 항목의 분류는 2.1.2.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20) 문법 항목별 용례 수는 각각 '-(으)ㄹ/ㄴ/는 것 같다'각 3265개, '-겠-'이 1580개, '-(으)ㄹ 것이다'가 1263개, '-(으)ㄹ/ㄴ/는 듯하다'가 213개, '-(으)ㄴ가/나 보다'가 143개,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86개이다.

한국어 문법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중간언어의 형태로 나름대로 자신의 문법 지식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 지식, 기 학습한 문법 지식, 실제 의사소통 경험 등 그들 내에 이미 존재하던 지식을 기초로 개인적인 내적 작용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생성해 단다(김호정, 2010; 박민신, 2018). 따라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에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용과 주체적인 사고에 대한 내부자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아닌 학습자의 관점에서의 '이해(understanding)'에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 방법(김신혜, 2020: 10)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중에서도 '어떻게(how)'와 '왜(why)'에 관련된 문제에 가장 적절한(Yin, 2014: 65) '사례연구(case study)'를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도구로 사례를 분석하는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 그리고 개별 사례 간의 중요한 일치점에 주목하여 여러 개의 도구적 사례연구가 진행되는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21]로 구분될 수 있다(Stake, 1995: 23-24).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개인이지만 교육 내용의 구안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서 어느 특정한 한 명의 학습자가 아닌 여러 학습자들의 변별 양상에 공통적이면서 상이한 특징을 포착하는 목적에는 '집합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

집합적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여러 사례에 대해 동일한 절차들을 반복하는 '재현 논리(logic of replication)'를 바탕으로 '사례 내(within-case) 분석'과 '사례 간(cross-case) 분석'을 거쳐 사례들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찾는 것이다(김윤정·변경가, 2018). 그러한 점에서 집합적 사례연구는 여러 자료원을 사용하는 '자료원 삼각화(data source triangulation)'를 충족함으로써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2](김신혜, 2020: 158).

---

21) '복합적 사례연구'(Creswell, 2013), '비교적 사례연구'(Stake, 1995), '다중 사례연구'(Yin, 2014) 등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2) '삼각화(triangulation)'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이다(김신혜, 2020: 167).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 대한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연구자에 의해 체계화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에 비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변별점과 이에 따른 변별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23] 그 결과는 Ⅴ장에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방법으로서 덴진(Stake, 1995: 169-171 재인용)에서는 '자료원 삼각화', '연구자 삼각화', '이론적 삼각화', '방법론적 삼각화'를 제안하였다.

23) 집합적 사례연구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Ⅳ장 1.절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Ⅱ.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인식양태로서의 ‘추측’

1.1. 한국어 양태의 개념, 범주 및 하위유형

양태(modality)는 그 개념과 체계, 그리고 하위유형에 있어서 학자마다 입장이 다르다. 양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 452)’를 표현하는 범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이 정의를 원용한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정의를 보면 양태를 의미 범주로 보는 논의(고영근, 1986 등)도 있고 문법 범주로 보는 논의(장경희, 1985; 박재연, 2006 등)도 있다. 이는 양태와 서법의 관계에 대한 이견과 용어상의 혼란과 관계가 있다.

‘서법(mood)’은 원래 인구어에서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과 같이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어떤 태도가 동사의 굴절(inflection)로 실현되는 통사적 범주(Jespersen, 1924: 313-324)를 가리킨다. ‘양태’라는 용어는 본래 언어철학에서 명제와 양태를 나타내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연구하는 ‘양태논리(modal logic)’에서 사용되던 것인데 이후 언어학자들에게 자연언어의 의미 분석에 적용되었으며 1970년대에 와서야 안정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이선웅, 2001: 317).

서법의 정의가 일부 국어학적 연구에서 수용됨으로써 한국어의 서법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로 실현되는 문법 범주로 논의되었다. 그러한 ‘화자의 태도’는 고영근(1965)와 서정수(1996)에서 ‘서법적 의미’라고 불렸다.[24] 그 후 이러한 서법적 의미를 일컫

24) 고영근(1965)에서는 설명, 의문, 감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실현되는 ‘직설법, 회상법, 원칙법, 추측법, 확인법’을 서법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서정수(1996)에서는 문장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정신적 태도가 모든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문법

는 용어로 ‘양태’가 도입되었다. 고영근(1986)에서는 서법 범주에 결부되어 있는 의미 범주를 ‘양태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의미는 서법, 문체법, 연결어미 등의 굴절부, 어휘적 범주, 어순이나 어조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 ‘-겠-’, ‘-리-’ 등과 같이 일정한 활용형으로 표시된 문법 범주는 서법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선웅(2001)에서는 서법 범주나 어휘적 수단에 의해 실현되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양태’에 대응되는 문법 범주를 ‘양태법’이라고 부르며 그중 종결어미로 실현된 통보양태는 전통적으로 ‘서법’이라 불리던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서법을 의미 범주로서의 양태의 문법적 실현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달리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등의 의미를 양태로, 진술, 의문 등 문장종결법을 서법으로 파악한 할리데이(Halliday, 1970)을 비롯하여 양태와 서법을 서로 독립된 범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장경희(1985, 1998)에서는 종래 서법의 대상이 되어 온 ‘화자의 명제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한국어의 경우 ‘대명제의 인지적 태도’와 ‘대청자의 통보적 태도’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지적 태도와 이에 대응되는 문법 범주는 각각 ‘양태’와 ‘양태법’이라고 부르고 통보적 태도가 실현된 문법 범주는 ‘의향법(즉, 서법)’이라 함으로써 양태와 서법을 명확히 구별 지었다.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는 박재연(1999, 2006)에서는 전통적인 ‘mood’의 개념적 성격이 한국어 양태의 관련 현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이유로[25] ‘서법’ 대신 ‘양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와 같은 단일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국어 양태 체계를 다루었다. 임동훈(2003, 2008)에서는 가능성, 필연성 등과 관련된 개념적 양태와 이것이 문법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 것을 각각 ‘양태성’과 ‘(문법적)양태’라고 불러 ‘서법’과 구분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비슷하지만 ‘우언적 구성’도 한국어 양태 체계에서 포함시키는 점에서 차별된다.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서법’은 전술한 ‘대청자의 통보적 태도’를 가리키는 문장 유형(sentence type) 범주의 명칭으로 사용되며 ‘양태’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정착되었다. 이러한 의미범주로서의 양태는 어미나 우언적 구성 등 형태론적

범주를 서법으로 설정하였다.

25) 자세한 내용은 박재연(2006: 20-23)을 참고할 것.

인 방식, 부사나 형용사 등 어휘적 방식, 어순 등 통사론적 방식, 그리고 강세나 억양 등 음운론적 방식으로 두루 실현될 수 있다(김지은, 1998: 22).

양태의 유형 분류도 학자마다 상이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종류(인식/의무/평가/감정양태 등)', '태도의 대상인 명제가 정보에 관한 것인가 사건 또는 행위에 관한 것인가(명제양태, 사건/행위양태)', '명제에 대한 태도의 주체가 누구인가(화자중심/행위자중심 양태 등)'의 방법에 따라 양태를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양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양태(deontic modality)의 하위범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도 인식양태의 범주적 지위가 비교적 확고한 것이다(박재연, 2006; 임동훈, 2008). 양태의 분류가 본 연구의 주요 논제가 아니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추측이 인식양태에 속하는 것도 분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태의 하위유형에 있어 인식양태와 관련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인식)양태 의미의 지향성 문제이며 이는 양태 범주의 범위 설정과도 연관된다.

양태 의미의 지향성이란 양태 의미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는 양태 의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한다(문병열, 2007). 양태의 정의에서 볼 때 양태의 의미가 '화자 지향성[26]'을 가지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아래 (1)에서와 같이 의도를 가지는 주체, 추측을 하는 주체,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가 화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1) 가. 철수는 유학을 가려고 해. (박재연, 2003: 255)
나. 철수는 영희가 학교에 안 갈 것 같았다. (박재연, 2006: 60)
다.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임동훈, 2008: 227)

이때 화자는 단지 그러한 양태의 의미가 명제 주어에게 존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역할만을 한다. 일찍이 라이언스(Lyons, 1977: 798-799)에서는 인식양태를 '주관적 인식양태'와 '객관적 인식양태'로 나누며 전자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절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에 대한 화자의

26) '화·청자 지향성'(박재연, 2003, 2006) 또는 '담화 참여자 지향성'(문병열, 2007)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구심(reservations)을 나타내는 데 비해 후자는 “나는 그렇게 말한다(I-say-so)”와 같이 단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손혜옥(2016ㄱ)에서는 동일한 양태 표지라도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면서 양태 의미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와 화자가 아닌 경우를 각각 주관적 양태와 객관적 양태라고 불렀다.[27]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양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손혜옥(2016ㄱ)에서는 라이언스(Lyons, 1977)의 견해를 받아들여 동일한 요소의 주관적 용법과 객관적 용법 사이의 중의성 해소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객관적 양태까지 인정하여 양태의 범위를 보다 느슨하게 설정하였다. 한편 박재연(2003, 2006)에서는 바이비 외(Bybee et al., 1994)의 양태 문법화 경로[28]를 바탕으로 의미의 지향성은 단지 양태 형식이 문법화 정도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성격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문법화가 이미 완료되어 화·청자 지향성을 지닌 단일 문법소를 ‘전형적인 양태’로, 아직 문법화 중이며 주어 지향성을 띤 우언적 구성을 ‘준-양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태관을 수용하여 양태를 정적이 아닌 그 실현 형식의 문법화 과정에 의한 ‘주어 지향’에서 ‘화·청자 지향’으로의 의미 변화를 포괄하는 동적인 의미범주로 본다.[29] 앞서 양태의 개념에서 말하는 ‘화자’라는 것도 역시 양태 의미의 주체로서의 화·청자와 문장 주어를 아우르는 것으로 넓게 이해한다.

두 번째로는 일부 논의에서 ‘증거양태’(이기갑, 2006; 문병열, 2007 등)와 ‘놀라움, 감탄’ 등을 포함하는 ‘감정/정감양태’(박병선, 2000; 이선웅, 2001 등)를 양태의 하위범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성’과 ‘의외성’ 체계와 (인식)양태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1.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론부터 밝히자면 본 연구에서는 이효상(Lee, 1991), 임동

27) 손혜옥(2016ㄱ)에서 제안한 ‘주관적 양태’는 박재연(2006)에서의 ‘화·청자 지향적 양태’와 동일한 개념이다. ‘객관적 양태’는, ‘약사 말대로 영호는 항생제는 거르지 않고,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문장에서와 같이 그 양태 의미의 주체가 화자나 주어가 아닌 ‘약사’일 수도 있으므로(손혜옥, 2016ㄱ: 58)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화·청자가 아닌 문장 주어의 지시 대상임을 일컫는 박재연(2006)에서의 ‘주어 지향적 양태’와 다른 것이다.

28) 바이비 외(Bybee et al., 1994: 241)에서는 우언적 구성의 문법화에 따라 그것에 의해 표현된 행위자 지향적 양태도 다른 양태의 유형으로 변화해 가면서 이들 구성도 점점 굴절 형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통시적 경향성을 제안하였다.

29) 바이비(Bybee, 1985: 191-196)에서 시사한 바대로 양태의 개념과 문법적 실현 방식에 대해 하나의 간단명료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며 양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양태의 문법화 경로에 대한 통시적 고찰에서 나올 것이다.

훈(2003), 박재연(2006, 2018) 등의 관점을 따라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는 증거성과 '정보의 내면화'와 관련하는 의외성은 양태와 별개의 문법 범주나 그 하위범주로서의 독자적 자격을 지닌다고 보기가 어려워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에 해당한다고 본다.

1.2. 한국어 인식양태의 의미영역

인식양태란 명제로 표현된 사건이나 사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영역은 전통적으로 '확실성(certainty) 정도'[30]로 다루어져 왔다. 이외에 '정보의 출처(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내면화(assimilation)' 등은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31]

1.2.1. 확실성 정도

확실성 정도는 일반적으로 '확실성(certainty)'[32],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의 3단계(Lyons, 1977: 800; Bybee, 1985: 165-166)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정도에 대해 박재연(2006: 81)에서는 확실성을 '완전한 확신'으로, 개연성을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으로, 가능성을 '50% 미만의 확신'으로 정의하였으며, 박진호(2011ㄴ: 3)에서는 확실성을 '명제가 확실하게 참임'으로, 개연성을 '거짓일 확률보다 참일 확률이 높음'으로, 가능성을 '참일 확률이 0보

30) '확신의 정도', '확신도', '확신성의 정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31) 박재연(1999, 2006)에서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도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에 포함시켰는데 임동훈(2003: 149, 2008: 236)에서는 그러한 화자의 가정은 양태보다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자의 지식 상태를 추정하고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문장 구조로 실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32) 확실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필연성(necessity)'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강소영(2002: 225)에서 '필연성'의 개념은 철학적인 기반에 기초한 것으로 가능세계에서 참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참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연언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 높음'으로 제시하였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는 참일 확률이 0이라는 것을 가능성의 의미에서 명확히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이지연(2018: 42-43)에서는 '가능성'의 의미를 '1-49%의 확률'을 나타내는 '가능성1'과 '0-100%의 확률을 나타내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전체'를 의미하는 '가능성2'로 구별하고 '가능성1'만을 인식양태로의 가능성으로 인정하여 '0' 확률을 제외하였다.[33] 그러나 '-ㄹ 수 있다/없다'와 같이 참일 가능성의 정도라기보다 가능성의 '존재 유무'(안주호, 2004ㄴ)[34] 즉, '가능성2'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을 인식양태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는 논의(이효정, 2004; 이미혜, 2004; 남신혜, 2016 등)도 많다. 또한 '-ㄹ 리가 없다'는 명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0'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고(이미혜, 2004; 남신혜, 2016), 역으로 명제 내용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100%의 믿음을 나타내는 점에서 '확실성'에 해당될 수도 있다(이효정, 2004; 다카치, 2014; 이지연, 2018).

한편 손혜옥(2016ㄱ)에서는 한국어 인식양태의 '필연성'은 주로 '틀림없다' 등과 같이 어휘 형태에 의해 표현되며 영어의 'must'가 가리키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한국어 인식양태 표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인식양태 표지를 '개연성'과 '가능성'으로 분석하며 필연성의 의미영역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개연성'과 '가능성'으로 보는 문법 항목[35]은 종래 추측의 의미로 다루어져 온 것들이므로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을 추측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듯하다. 또한 한국어에서 'must'와 대응하여 '확실성'이나 '필연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법 항목으로 '-(으)ㅁ에 틀림없다'를 들 수 있으며(이기갑, 2006; 박진호, 2011ㄱ; 이지연, 2018) 그 외에 '-(으)ㄹ 것이다의 용법 중 'must'에 해당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문병열, 2007: 49-50). 따라서 한국어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에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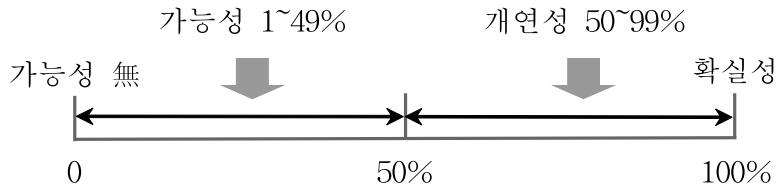
---

33) 이지연(2018)에서는 '가능성2'의 '-(으)ㄹ 수 있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건 양태(의무, 허락, 능력 등)에 해당한 것으로 '-(으)ㄹ 수 있다'의 인식양태의 의미는 사건 양태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34) 안주호(2004ㄴ: 194)에서는 가능성을 표현했다는 것을 가능성이 있고 없음이라는 존재에 대한 표현과 가능성이 많고 적음이라는 정도에 대한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35) 손혜옥(2016ㄱ)에서 다루는 가능성 인식양태 표현은 '-은지/을지 모르다'가 있으며, 개연성 인식양태 표현은 '-겠-', '-으리-', '-은가/나 보다', '-은/을 모양이다', '-은/을 것 같다', '-은/을 듯하다', '-을 것이다'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실성 정도에 대한 기존의 삼분적 구분을 따르되 '가능성'은 '정도성'과 '존재 유무'로 나누고 사건이나 사태가 참일 확률이 '0'이라는 것, 즉 가능성의 부재도 확실성 정도의 일부로 본다.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정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Ⅱ-1>과 같다.



<그림Ⅱ-1>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정도

1.2.2. 정보의 출처

'정보의 출처'는 곧 '증거성'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명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구했는지, '정보를 얻은 방법'을 명시화하는 문법 범주(정경미, 2016: 40).[36] 증거성과 인식양태는 각각 그 개념적 주안점이 다르게 놓여 있지만 명제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출처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으로(Dendale·Tasmowski, 2001: 342; 임동훈, 2003: 141, 2008: 223) 두 의미 범주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36)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보의 출처'가 '근거의 출처'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어제 가 보니 그가 이미 갔더라.'에서는 명제 내용이 화자의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인 데 비해 '비가 오나 보다.'에서는 그 명제 내용이 '추측의 근거 + 화자의 내적 추론'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그러나 '근거의 출처'는 그 추론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의 근거 정보가 어디에서 얻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비를 맞는 직접적인 현장 경험, 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제 들은 일기예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측에 관한 연구와 증거성에 관한 연구에서 각각 '-(으)ㄴ가/나 보다'를 '간접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과 '추론 증거성 표지'로 보는 것은 각자의 초점이 다른 데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정보의 출처를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추측'의 의미영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증거성 연구에 의하면 '추론'이라는 증거성 유형은 '추론하여 얻은 정보'로서 '추측의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성을 (인식)양태와 연관되는 범주라고 인정하는 견해에만 주목한다.[37]

우선, 증거성을 광의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를 (인식)양태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거나 인식양태의 상위어(hypernym)로 보는 관점이다. 체이프(Chafe, 1986: 262)에서는 증거성의 개념을 증거 자체의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지식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모든 것과 관련시키며 증거의 의미와 화자가 가지는 지식의 신뢰성(reliability)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매틀록(Matlock, 1989: 215)에서는 인식양태의 일부를 표현하는 언어적 요소로서 증거성은 화자의 정보 근원과 그 정보에 대한 화자가 가지는 확실성 정도를 코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증거성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 이는 다시 증거성을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보는 것과 인식양태와 구별된 별도의 양태 범주로 보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팔머(Palmer, 1986: 51)에서는 전언(hearsay)이나 보고(report) 또는 감각(senses)에 의한 증거(evidence)와 같은 증거성(evidentials)이 인식양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단(judgement, 즉 정보의 확실성 정도와 증거성을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윌레트(Willet, 1988: 52)에서는 의미범주로서의 증거성은 기본적으로 양태라고 하고 더 나아가 양태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별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증거성은 인식양태의 일부라고 하였다.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우웨라·플룬갼(Auwera·Plungian, 1998)에서는 증거성과 인식양태는 서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추론적 증거성(inferential evidentiality)은 바로 두 범주 사이의 접면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적 필연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논의로 이효상(Lee, 1991: 62, 2015: 252)에서는 기본

37) 증거성을 양태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주로 보는 논의(Jakobson, 1971; De Haan, 1999; Aikhenvald, 2004; Strauss, 2005; 송재목, 2009; 정인아, 2010; 김진웅, 2012; 정경미, 2016 등)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는 모두 '정보의 출처'만 가리키는 독립된 문법 범주로 증거성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 한국어 학계에서 증거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는 학자가 별로 없었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서야 관련 연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증거성 표지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한국어가 증거성 체계의 유형 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더 산발적인 부호화 체계를 보이는지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Givón, 1982, 1984), 체이프(Chafe, 1986)의 논의를 바탕으로 증거가 화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일수록 화자가 해당 상황의 진리성(truth)에 대해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성과 확실성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설명하였으며, 증거성을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인지체계로 통합시키는 인식과정으로서의 인식양태에 관여하는 범주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임동훈(2003: 141-142)에서도 화자 자신이 획득한 정보가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느냐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으로 해당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보의 출처와 확실성 정도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각, 전언' 등 근거를 인식양태의 특수한 하위부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박재연(2006, 2018)에서는 확실성 정도와 증거가 서로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나며 넓은 의미의 화자 인식론과 관련되므로 증거를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증거성은 인식양태와 구별된 것이지만 여전히 양태의 하위범주로 보는 관점이다. 와이먼(Wymann, 1996: 17)은 두 의미범주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불구하고 증거성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서의 가능성 또는 필연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이를 인식양태와 별개의 양태 범주로 처리하였다. 팔머(Palmer, 2001: 8)에서는 인식양태와 증거성의 근본적인 차이로 두 범주 각각은 화자가 명제의 사실적 위상(factual status)에 대한 판단과 화자가 가지는 증거를 표시하는 것임을 밝히고 증거성을 인식양태에서 분리시켜 '증거 양태'로 설정하며 둘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위범주인 '명제 양태'를 제안하였다.

1.2.3. 정보의 내면화

'정보의 내면화'는 화자가 어떤 정보를 자기 자신의 지식체계에 얼마나 내면화하였는가를 가리킨다(박재연, 1999: 203). 그중 아직 화자의 기존 인식체계에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내는 '새로 앎(unassimilated information)'은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의외성'의 개념으로 논의된다. 의외성은 '화자에게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DeLancey, 2001: 369-370)으

로 기존에 증거성의 부차적인 의미로 간주되었으며 델랑시(DeLancey, 1997)에 의해 증거성과 독립적인 범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조용준, 2016: 252).

의외성과 (인식)양태의 관계에 대한 기존 견해도 학자마다 다르다. 우선 의외성을 양태와 독립된 범주로 보는 관점으로는 델랑시(DeLancey, 2001: 379-380)이 그 대표적이다. 이 논의에서는 증거성, 의외성, 양태 세 범주가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하나의 명제가 '이상적인 지식 상태에서 일탈하는(deviate from an ideal of knowledge)' 다양한 방식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정경숙(2012: 998)에서도 이 세 범주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틀에서는 이들 범주 각각은 독립된 것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외성을 인식양태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 일찍이 장경희(1985, 1995)에서는 한국어의 인식양태[38]를 인지 방법과 인지 시점에 따라 분류하며 인지 시점에는 '처음 앎'과 '이미 앎'의 하위 양태 유형이 존재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효상(Lee, 1991: 65)에서는 인식과정과 화자의 정신 또는 인지체계에서의 정보의 내면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종래 증거성 표지로 처리되었던 요소 중의 일부가 증거의 근원 자체를 나타내기보다는 표현된 상황에 대한 화자 발화시의 다양한 정신적 상태(mental statuses)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증거성과 같이 '내면화'를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박재연(1999 등)에서는 인식양태를 넓은 의미에서 파악하여 의외성을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으로 다루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증거성이나 의외성을 (인식)양태와 분리시키는 관점은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이들 범주의 개념적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며, 증거성이나 의외성을 인식양태의 하위범주로 보는 관점은 확실성 정도, 증거성, 의외성 모두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 입각하여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

첫째, 어떤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증거성과 의외성의 범주

38) 장경희(1985, 1995)에서는 '인지 양태'라는 용어로 양태 전반을 가리키는데 '명제의 사실성을 화자의 주관적인 인지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는 정의와 해당 문법 항목을 보면 인식양태에만 해당하는 것이다(박재연, 1999: 202).

설정에 대한 기존 관점이 달라지는 점이다(Dendale·Tasmowski, 2001: 342-343). 한국어의 경우는 박진호(2011ㄴ: 21)에서 언급하였듯 증거성과 의외성이 꽉 짜인 필수적인 문법 범주로서 존재하는 언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어에서 의외성이나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부차적으로 지니는 문법 요소가 많지만 유일한 의미성분으로 지니는 것은 거의 없다.

둘째, 확실성 정도와 증거성, 의외성이 서로 엉켜 있으면서 넓은 의미의 화자 인식론과 연관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박재연, 2018: 36). 이효상(Lee, 2015: 253-25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겠-', '-(으)ㄴ가/나 보다', '-(으)ㄹ 것이다' 등 표현은 증거성의 면에서 각각 '추론적 추리', '귀납적 추리', '추정'을 나타내지만 화자가 이들 표현을 통해 진술된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수 없기에 증거성보다 불확실성(uncertainty)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처리 방식이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유사 문법 항목을 위한 교육문법 기술의 편리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다. 그간 '추측'의 의미로 다루어져 온 문법 항목 가운데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증거성 논의(송재목, 2007; 송경안, 2009; 정인아, 2010; 정경미, 2016 등)에서 '증거성 표지'로 다시 파악되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문법 항목들을 '증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으)ㄹ 텐데', '-(으)ㄹ걸(요)', '-(으)ㄹ/ㄴ/는 것 같다' 등을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의미 범주에 대한 재분류일 뿐 문법 항목들 간의 의미적 변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3. '추측'의 개념적 의미

그동안 '추측'의 개념을 일컫는 용어는 '추측, 추정, 추론, 추량, 짐작'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국어학적 연구에는 이러한 용어, 특히 유의관계를 이루는 '짐작'과 '추측'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구(장경희, 1985; 이기종, 1993, 2001; 이혜용, 2003 등)가 있고 이들 용어의 의미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추측'을 그 상위 범주로 상정하는 연구(안주호, 2004ㄱ; 한명주, 2008)도 있다. 한편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로서 노지니

(2004)와 유민애(2012)에서는 ‘짐작’과 ‘추측’의 의미적 변별은 ‘추측’의 의미영역을 세분화하는 데 유용하되 한국어 교육문법을 기술하는 데 그 필요성을 문제시하였으며 학습자 이해 용이성, 의미영역의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짐작’과 ‘추측’의 상위 개념으로 ‘추측’을 대표어로 선정하였다. 이는 메타용어만으로 ‘짐작’과 ‘추측’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 범주를 먼저 구분한 뒤 각 범주에 속하는 문법 항목들의 의미를 변별하기보다 하나의 포괄적인 상위 범주를 설정하고 원래 의미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변별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 문법 항목을 비교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이들 의미영역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를 하나의 용어로 상정하는 입장을 따른다. 또한 ‘추측’과 ‘짐작’이 한자어라는 점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중국어 단어와 대응하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추측’을 ‘추측’과 ‘짐작’의 상위 의미 범주를 대표하는 용어로 선정한다.[39]

다음으로 ‘추측’의 구체적인 개념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이 ‘추측’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

> 추측(推測): 「언어」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일.
>
>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정의를 통해 언어화된 ‘추측’은 ‘단정’과 대조된 것으로 인식의 ‘불확실성’을 표현한다고 알 수 있다.[40] 또한 인식의 대상은 이미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사태 모두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추측’의 개념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측’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

39) 중국 베이징언어대학교 말뭉치 센터(BCUL Corpus Center)에서 개발한 중국어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推测’(추측, 11580회), ‘推理’(추리, 8335회), ‘推論’(추론, 2986회), ‘斟酌’(짐작, 2508회)’이 사용 빈도의 상위 4위로 나타난다.

40) 이기종(1993: 27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확실한 것은 사태에 대한 인식이지 추정문은 이미 판단으로 성립한 이상은 판단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

<표Ⅱ-1> 선행연구: ‘추측’의 개념

연구	‘추측’의 개념
이기용(1978)	일종의 믿음이며, 어떤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가능함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 짐작에는 완전한 근거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차균(1981)	불확실에 그 근원이 있으며 표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무의지적인 선택 작용이다. 「가능」은 「추량」을 앞서 나타나는 심리 작용이므로 「가능」 없는 「추량」은 있을 수 없다.
차현실(1986)	미확인 또는 미확정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
이필영(1998)	불확실한 앎의 태도.
이효정(2004)	자신이 경험했지만 명제 내용을 확실히 알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즉 ‘내가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꼈지만 확실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확실성/+지각]의 의미 범주.
노지니(2004)	인간의 사고 과정의 일부로서 화자가 명제 실현의 확실성에 의문을 느끼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 범주.
염재일(2005)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접적 증거 등을 사용하여 추측하는 것.

<표Ⅱ-1>에서 보이듯이 기존 정의들의 공통점으로 인식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미확인’된 것이며 그러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태도를 ‘불확실성’으로 보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란 사태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어 믿음의 정도가 약할 때의 인식세계를 말한다(이기종, 1993: 273).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은 확실성을 전제로 즉, 사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전제로 하며(이기용, 1978: 46) 그 사태가 아직 사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도 그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미확인된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안명철(1983: 23, 48)에서는 화자의 인식세계를 ‘인식적으로 투명한 세계(Wt)’와 ‘인식적으로 불투명한 세계(Wo)’로 나누며 화자가 Wo의 사건, 즉 ‘미확인’된 사건이 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Wo에서 발생하리라고 또는 발생했으리라고 화자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확인’된 사건이나 사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

은 추측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다.[41] 그러한 근거가 '미확인'된 사건이나 사태가 참임을 증명해 주는 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화자의 인식이 또한 확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측'의 개념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2) **'추측'의 개념적 의미:** 화자가 충분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의미 범주.

화자가 인식하는 명제 사건이나 사태가 사실에 근접해 있는 정도가 바로 '확실성 정도'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추측'이 '확실성 정도'의 어느 영역을 할당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추측'의 의미를 넓게 보는 안주호(2004ㄱ)에서는 '-(으)ㄹ 것이다'를 '확실성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확실성'의 정도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추측'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100%의 믿음을 의미하는 '확실성'이 '추측'에 해당될 수 없다. 이기종(1993)과 노지니(2004)에서 '개연성'과 '가능성'만을 '추측'으로 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노지니(2004: 46-47)에서는 가능성의 존재만을 드러내는 것을 '추측'의 의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성'도 배제하여 '개연성'만 '추측'의 의미 범주로 인정하는 논의(이미혜, 2004; 이효정, 2004 등)가 있다. 이들 논의는 역시 가능성의 의미를 정도성이 아닌 존재 유무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핵심적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입각하여, '추측'이 '확실성 정도'라는 의미의 연속선상 차지하는 영역은 '0 확률'을 표시하는 '가능성 無'와

41) 이는 <표Ⅱ-1>에서 이기용(1978), 김차균(1981), 이효정(2004), 염재일(2005)의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측 행위를 이루는 데 판단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필수적인 전제인 것은 성기철(1976: 208), 김규철(1988: 8)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100% 확률’을 표시하는 ‘확실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라고 본다.

2. 한국어 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항목

2.1.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및 분류

2.1.1.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

‘유사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용어인데 한국어 문법교육 내용 연구에 힘입어 점차 학술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양명희, 2017: 255).

아래 <표Ⅱ-2>에서 보듯이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가 일찍이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법을 논의하는 김제열(2001)에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유사 문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후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개념과 내용 기술 원리를 논의하는 김재욱(2003)은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여겨지며 ‘유사 문법 항목’ 대신 ‘비슷한 의미 범주의 문법 형태’와 같은 표현으로 이를 기술하였다.

<표Ⅱ-2> 선행연구: ‘유사 문법 항목’의 용어와 개념

연구	용어	개념
김제열(2001)	유사 문법 형태/문형	한국어의 문법 형태나 문형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재욱(2003)	비슷한 의미 범주의 문법 형태	비슷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들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 의미차이를 잘 구별할 수 없는 문법 형태들.
진정란(2005)	유의 표현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 표현들. 유의 관계를 보이는 문법 표현들.
이준호(2010)	유의 문법	의미나 기능이 유사하지만 통사적 제약이나 화용적 쓰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의 문법.
유해준(2015)	유사 기능 문법	같은 의미 범주의 기능을 가진 문법 항목.
양명희(2016)	유사 문법 항목	의미와 용법이 비슷하여 자주 오류를 보이는 문법 항목.
양명희(2017)	유사 문법	의미나 기능뿐 아니라 형태가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문법.
이지용(2017)	유사 문법 항목	문법 항목 사이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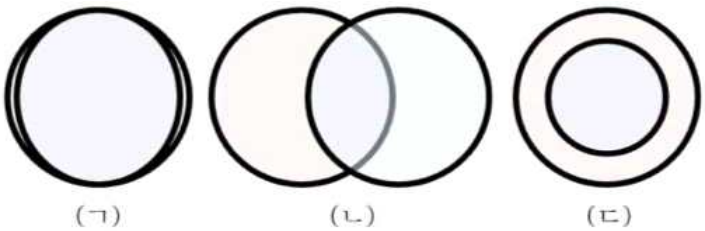
		래될 수 있는 항목.

한편 진정란(2005)와 이준호(2010)에서는 ‘유의’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9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온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하던 ‘유의어’나 ‘유의 관계’라는 용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준(2015)에서는 ‘유사 기능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기의 ‘기능’은 의미 기능과 문법적 기능을 가리킨다. 그 후 ‘유사 문법’을 한국어 문법 항목 기술 필드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2012~2015)와 이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2016)의 발간에 따라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가 많은 학문적 논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문법 항목이 보다 많으며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먼저 의미에 주목하고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을 선택하는 것(김재욱, 2003)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사 접사를 논의한 구본관(2017: 55)에서 지적하였듯 제2언어나 외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적 유사성 못지않게 형태적 유사성에 의한 혼동도 많을 것이다. 이처럼 유사성의 다층위적인 성격에 입각하여 이지용(2017: 40-58)에서는 문법 항목 간 ‘음운’, ‘형태’, ‘의미’, ‘통사’와 같은 문법 항목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비교할 때 각각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유사성’의 개념을 이러한 문법 항목 자체가 가지는 ‘발생적 측면에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사성에 대한 이지용(2017)의 관점은 양명희(2017), 박은희(2019) 등 여러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지용(2017: 42)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이라는 용어를 유사한 부류의 문법 항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그것을 문법 항목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초래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유사성’에 지나치게 주목하다 보면 유사성의 개념에 차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사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42] ‘유의 문법항목’을 논의하는 최수정(2022)에서 아래 <그림Ⅱ-2>와 같이 제시한 ‘유사한 의미’

(즉, 유의관계)의 양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사성’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인 ‘공통성’과 구분되는 부분인 ‘차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림Ⅱ-2> ‘유사한 의미’의 양상(최수정, 2022: 52)

학습자들은 바로 ‘차이성’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공통성’만을 인식하여 유사 문법 항목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거나, ‘차이성’의 존재만을 알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법 항목의 사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 문법 항목은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동을 느끼며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변별해 내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거나 사용 회피를 하게 하는 문법 항목’이라고 정의한다.

2.1.2. 유사 문법 항목의 분류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려면 어떠한 유사성에 의해 어떠한 문법 항목들이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항목의 선정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지용(2017)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 문법 항목으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성의 범위를 한정하고 유사성 유형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의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양명희, 2016; 이지용, 2017; 유해준, 2018 등)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이

42) 양명희(20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이가 없이 교체되어 사용되는 문법 형태라면 굳이 유사 문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2017)은 유사성 판정에 따른 유사성 유형 분류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이 논의에서는 학습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크게 '(형태)통사적 유사성'과 '(통사)의미적 유사성'으로 유형화하며 이에 따라 유사 문법 항목을 '형태유사군', '의미유사군', '복합유사군'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의미적 유사성'과 이에 따른 '의미유사군'에 주목한다. 의미적 유사성의 범위 설정에 대해 이지용(2017)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3>과 같다.

<표Ⅱ-3> 의미적 유사성의 범위 설정(이지용, 2017: 67-70)

유형	범위
(통사)의미적 유사성	• 문법적 기능 유사성 전제: 동일한 계열 관계 즉, 문장 내에서의 교체 가능 여부 • 의미 기능의 유사성 여부: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문법 구조와 형태가 특정 상황에서 지니는 특정한 의미 • '은/는, 이/가', '을, 에', '에, 부터' 등과 같이 문법 범주가 다른 항목이지만 의미 기능의 유사성을 지니며 문장 내에서의 분포가 같은 경우

<표Ⅱ-3>에서 보듯이 의미적 유사성의 전제로 문법적 기능의 유사성이 요구된다. 문법적 기능의 유사성이란 문법 항목들이 문장 내에서 같은 계열 관계에 있어 서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이지용, 2017: 26). 이는 '의미유사군'을 연구하는 최수정(202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문장에서 동일한 분포와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것을 '유의 문법항목'[43]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간주하며 아래 <표Ⅱ-4>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43) 최수정(2022: 50)에서 '유의 문법항목'의 개념을 문장에서 동일한 분포와 문법적 기능을 가지며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둘 이상의 문법항목이라고 정의하였다.

<표Ⅱ-4> ‘유의 문법항목’의 첫 번째 조건 내용(최수정, 2022: 51-52)

조건	문장에서 동일한 분포와 문법적 기능 가짐	해당 문법범주
구체적 내용	1) 체언 뒤에 붙어 격을 표시하거나 다른 체언과 접속시키거나 뜻을 더함.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2) 어간의 뒤에 붙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함.	연결어미, 연결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성
	3) 후행 요소를 요구하는 동시 어간 뒤에 붙어 청자에 대한 태도나 시간적 상황을 나타냄.[44]	선어말어미, 그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성
	4) 어간 뒤에 붙어 문장을 종결함.	종결어미

두 논의를 통해서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법 항목이 문장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교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문법 항목들이 동일한 문장에서 서로 바꿔 쓰일 수 있는지를 통해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하는(이지용, 2017: 136-137)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 (3가)와 (3나)에 쓰이는 문법 항목들은 모두 ‘추측’을 표현하지만 각각 <표Ⅱ-4>에 제시된 2)와 3)에 해당되어 서로 다른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교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45]

(3) 가. 곧 비가 올 텐데/올 테니까 우산 가져가.
나. 곧 비가 오겠어/올 거야/올 것 같아/올 듯해/오나 봐/올 모양이야.

하지만 이러한 교체 가능이라는 전제는 이지용(2017: 67)에서 강조하였듯 모든 맥락에서 완벽하게 교체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미세한 의미 차이, 제약 차이 그리고 상황적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44)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하는 우언적 구성 중의 대부분이 양태 표현으로서 청자가 아닌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듯하다.

45) 실은 ‘-ㄹ 텐데’와 ‘-ㄹ 테니(까)’가 종결표현으로서 (3나)에 쓰일 수도 있으며 문장 (3나)에 쓰이는 문법 항목 중의 일부가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3가)에 쓰일 수도 있어 이들 문법 항목이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문법 항목은 한국어교육에서 각각 ‘연결어미/표현’과 ‘종결어미/표현’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이 일차적인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3가)에 쓰이는 두 문법 항목을, (3나)에 쓰이는 여섯 문법 항목을 각각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강현화 외(2017)과 최수정(2022)에서의 분류를 들 수 있다.

곧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이지용(2017: 136-138)에서 제안한 의미적 유사성의 분석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여섯 개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적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① 문장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② 공통된 의미 기능이 존재하는가?	③ 교체 시 변화가 동반되는가?
⇓	⇓	⇓
yes 선어말어미 기능/ 종결표현	yes '추측'	yes 의미·통사·화용적 변화

<그림Ⅱ-3> 의미적 유사성의 판단 과정

2.2.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의의

유사 문법 항목은 특히 중·고급 단계에서 문법 학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문법에 대한 선택이 습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 문법 항목의 차이를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직관이 없는 한국어 학습자는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배우게 될 유사 문법 항목이 많아지므로 이들 문법 항목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변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경우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이 '언어 내 전이(interlingual transfer)'[46]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어 오류가 생긴다.

㉮: '내일 갈게요', '갈 거예요' 다 써요. 근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쓴 적이 있

46) 브라운(Brown, 2001: 260-264)에서는 오류의 원인으로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의 장', '의사소통 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는 주로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언어 내 전이'는 기학습된 형태가 선행 경험으로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남아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많아진다고 하였다.

어요. 제가 '갈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한국인 친구한테 말할 때 친구가 여기 좀 이상하다고 여기 '갈게요'를 쓰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갈 거예요'라고 말하면 약간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친구가. (㉮-1-A)[47]

위와 같이 학습자가 '-(으)ㄹ 것이다'와 '-(으)ㄹ게(요)'가 모두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두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인식이 부재하는 바람에 상황에 적절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의 정확성[48]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오류 생산에 비해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학습자가 자기에게 익숙한 매우 한정적인 수의 초급용 문법 항목만을 선택하고 다른 문법 항목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심각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진정란, 2005; 노미연, 2010; 양명희, 2014 등)에서 언급된 바도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학습자의 솔직한 고백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증될 수 있다.

㉰: 근데 구분 못하면은 아마 제일 위험하지 않은 거 선택할 거예요.
연: 위험하지 않은 거?
㉰: 그냥 오류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 용법이 제일 많은 거. 예를 들면 조건을 표현하는 거들 중에 '면'이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거죠. 뭐 '다면', 그리고 뭐 그런 거들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제약이 거의 없는 거 선택할 거예요 아마. (㉰-1-A)

㉱: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을 좀 철저하게 이해하는 그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만약에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이라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가장 쉬운 걸 선택하거든요. 뭐 다른 문법으로 바꿔 써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제일 자신감이 있는 걸 쓸 거예요. (㉱-1-A)

이러한 사용 회피로 인해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의

47) 번호 'A'는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의 유형을 의미한다. 과제 A는 한국어 학습 경험에 관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면담에서는 특정 질문에 국한하지 않아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였다.

48) '정확성'은 통사적 측면에서의 '적법성'과 담화 상대방, 상황, 발화 의도에 따라 적절한 문법 항목을 선택하는 사용의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모두 포함한다(강현화 외, 2017: 12).

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발화를 생산해 내지 못함으로써 표현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회피 경험이 굳어지면 학습자가 고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며 언어 발달이 멈추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은 학습자의 표현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그 교육적 효율성을 가지며(이지용, 2017: 42) 이를 통해서 언어 숙달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은 서로 다른 단원이나 단계에서 산발적으로 학습된 문법 항목들을 한데 묶어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파편적인 문법 지식을 정교화하여 문법 항목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기억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박은희, 2019: 466).

> 연: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이 어떤 유사 문법이 있는지,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정리해 주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 ㉮: 네! 왜냐면 이렇게 직접 정리하면은 사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A)

위와 같은 면담 내용을 통해 이러한 효율성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수 학습된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교육은 정보의 공백을 변별성으로부터 유추하여 메울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박민신, 2018: 429).

2.3.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위한 비교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

2.3.1. 교육용 비교 항목의 선정

유사성에 의한 유사 문법 항목의 분류를 제외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행 작업은 실제 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쌍을 이루는 비교 항목의 선정이다.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은 유사 문법 항목의 가장 전형적인 부류이며 형태적 유사 문법 항목에 비해 그 수효가 훨씬 많다. 그런데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된 부류에는 5개 이상의 문법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유', '의지', '추측'의 유사 문법 항목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목표 문법 항목을 교육할 때마다 이와 유사한 모든 선행 항목들을 목표 항목과 함께 묶어서 변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명

희 외(2015: 13)에서의 지적대로 3개의 문법 항목 이상을 비교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모든 항목에서 다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변별 정보가 복잡하기만 하므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선수 학습한 문법 항목 중의 어느 것을 목표 문법 항목과 비교 항목으로 짜서 변별적 교육을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지용(2017)에서는 문법 사전에 제시된 비교 항목들을 추출하고 일련의 기준과 전문가 검증에 따라 최종 280쌍의 비교군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지만 비교군 가운데 어떤 항목들을 묶어 제시할지는 교육 단계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연구자에게 직접 밝혀졌다. 또한 한 비교군 가운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비교군에 해당되는 항목들 가운데 어떠한 유사성에 의해 비교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예컨대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겠어요, -을 거예요'와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49], -는 듯하다, -는 모양이다'의 두 가지 비교군이 제시되었는데 각각 다른 비교군에 통합되는 '-ㄹ 거예요'와 '-을 것 같아요'를 한데 묶어 비교하는 한국어 교재가 있다.[50]

결국은 교육을 위한 비교 항목의 선정은 유사 문법 항목 자체가 지니는 유사성 정도와 그러한 항목으로부터 혼동을 느끼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유사성 정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이라 해도 이들 문법 항목은 내포 의미와 같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사성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사성 정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교 항목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문법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지점에서 유사성을 느껴 차이점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2.2. 교육용 비교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1991: 280)의 '형태-의미-화용'이라는 '삼차원 문법의 틀(a three-dimensional grammar framework)'은 한국어

49) '-는 것 같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이형태들을 통합한 대표형이다.
50) 한국어 교재에서 비교 항목을 선정하는 양상은 3.2.절에서 자세히 살피겠다.

문법 교육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차원적인 문법 기술이 보편화되었다(박민신, 2017ㄱ). 그러므로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다차원적인 변별 정보의 기술은 이러한 삼차원 틀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의 제시는 의미적 차이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통사·화용적 차이에 대한 변별 정보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하였듯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이 아닌 차이점이 교사와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항목이라도 그 사이에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유해준, 2015). 또한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교육의 목표는 문법 항목 간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별한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통사·화용적 차이를 인식시켜야 한다.

일찍이 한국어 유의어에 대한 연구에서 유의어의 다층적인 변별 정보 제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유현경·강현화(2002: 263)에서는 유사 어휘군에 대한 형태·통사·화용적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한 바가 있다. 또한 박재남(2002)에서는 유의어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어의 공통된 의미가 아닌 의미 차이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미·화용·통사의 세 관점에서 의미 차이를 설명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정보를 구성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이후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 내용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여러 논의에서는 다차원적인 변별 정보의 제시를 구성 원칙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진정란(2005: 184-185)에서는 표현력과 고급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유의 표현이 가지는 통사적인 환경의 차이와 화용·의미적 차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신혜(2016)에서는 개별 문형의 의미·통사적 특성이나 제약, 사용역 정보, 특정 언어 표현과의 공기 정보 등이 해당 문형의 특성에 모두 해당하며 교수·학습 내용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문형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항목들을 묶어 그들을 비교·대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지용(2019: 389)에서는 통사, 의미, 화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특성을 제시하는 것을 한국어 교육용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을

위한 첫 번째 원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의미적 유사 문법 항목이라고 해서 의미에 대한 변별이 꼭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어에 대한 논의인 한송화(2003: 28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어휘력 향상에 있어서 유의어 사이의 상세한 변별적 의미에 대한 교수는 오히려 어휘 학습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이보다는 유사한 의미의 변별적 사용 양상이 교수되어야 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논의로서 김재욱(2003: 172-174)에서는 의미적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법 형태에 대해 오히려 문법적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모든 비교 항목 간의 세 영역 낱낱에 대한 모든 변별 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항목 간의 유표적인 변별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기준

3.1.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변별 기준: 이론적 연구 검토

3.1.1. 통사적 변별 기준

통사적 형식은 의미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진(김진해, 2006) 만큼 ‘추측’ 문법 항목도 그 통사적 특성이 이들 항목의 의미적 특성과 맞물린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추측’ 문법 항목 간의 통사적 변별점을 이들 항목 간의 의미적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다루거나 그러한 의미적 차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석해 왔다.

3.1.1.1. 주어 인칭 제약

(1) 상위 주어

추측 행위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추측 주체가 실재한다. 그런데 추측이

언어화될 때는 의미론적으로 존재하는 그 주체가 모든 '추측' 문법 항목이 쓰이는 문장(이하 '추측문')에서 '상위 주어'로서 통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칭 제약과 더불어 '추측' 문법 항목의 상위 주어 '표면화'(차현실, 1986) 또는 '외현'(엄정호, 2005) 제약에 대한 기존 견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측문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알 수 없는 화자의 내면적 사고 작용을 나타내므로 추측 주체가 발화 상황 속의 화자와 일치되어 문장 구조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지은, 1998; 안주호, 2004ㄱ). 하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쓰이는 문장에는 추측 주체가 1인칭으로 따로 상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추측' 문법 항목과 비교된다. 이에 대하여 이필영(1998)에서는 심리적 경험 주체인 '나는'을 문장에 나타내는지 여부를 '추측' 문법 항목의 주·객관성을 가리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4)에서와 같이 '나는'과 잘 어울리는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주관적 성격이, 그렇지 못한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ㄹ 것이다'는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고 구분하였다.

(4) 나는 철수가 안 {올 것 같다/듯하다/*모양이다/??것이다}.

(이필영, 1998: 190)

또한 이 논의에서는 추측 주체의 제약이 주·객관성 의미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주관적 표현은 그 주체가 화자 자신만으로 제한되는 데 비해 객관적 표현은 화자 외에 청자나 제3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여 아래 (5)에서와 같이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객관적인 표현인 반면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ㄹ 것이다'는 주관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상위 주어 '나는'의 외현 제약에 의한 결론과 서로 모순이 된다.

(5) 가. 너는 누가 {이길 것 같냐/듯하냐/*모양이냐/*것이냐}?
나. 영희는 철수가 {범인일 것 같다/듯하다/*모양이다/*것이다}.[51]

(이필영, 1998: 191-192)

이에 대하여 손혜옥(2016ㄱ)에서는 주관적 양태와 객관적 양태의 관점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주관적 양태뿐만 아니라 제3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화자가 제3자로서의 추측 주체가 추측을 하는 사태를 청자에게 알리기만 하는 것으로서 단정의 성격을 가진다. 앞서 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칭 상위 주어의 외현과 3인칭 주어의 실현은 해당 양태 요소가 아직 문법화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며 주어 지향성과 화자 지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명제 주어

추측문에서는 상위 주어가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는 반면 명제 내용의 주어는 화자 자신일 때 문장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동일 주어 제약'을 가진다(김정혜, 1997). 이는 화자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일이나 상황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명제 주어가 반드시 1인칭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차현실(1986)에서는 아래 (6가)와 같이 사태가 화자 자신의 일일지라도 화자가 행동한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재인식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와, (6나)와 같이 사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서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화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 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갔었나 봐/간 것 같애}.
나. 내가 {가게 되나 봐/될 것 같애}. (차현실, 1986: 22-23)

이와 달리 김정혜(1997)에서는 추측문의 명제 주어가 '추측' 문법 항목에

51) 예문 (5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필영(1998:192)에서 제시한 예문 '영희는 철수가 범인일 {것 같은, 듯한, *모양인, *것인}-가 보다.'를 수정한 것이다.

선행하는 서술어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고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아래 (7)에서와 같이 서술어가 '아프다', '보이다' 등 화자만이 느낄 수 있는 내적 사태를 나타내는 감각동사나 심리동사일 때 명제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해당 사태가 내적 경험의 대상이므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쓰일 수 있으나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ㄴ가/나 보다'는 그렇지 못하며 명제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사태를 근거로 '-(으)ㄹ/ㄴ/는 모양이다'나 '-(으)ㄴ가/나 보다'로 표현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7) 가. 나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다/듯하다/*모양이다}.
나. 철수는 안경을 쓰니까 좀 잘 보이는 {*것 같다/*듯하다/모양이다}.
(김정혜, 1997: 59-60)

한편으로 손혜옥(2016ㄱ)에서는 '추측' 문법 항목에 따라 비동일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양상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주목될 만하다. 차현실(1986)과 김정혜(1997)에서 밝힌 상황을 제외하며 이 논의에서는 비현실 또는 반사실 상황에서의 추측과 화자가 자신 현재의 상황을 관찰하여 추측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8) 가. 이번 일에 실패한다면 (나는) 기분이 몹시 {우울하겠다/우울할 거야/*우울하나 봐/*우울할 모양이야}.
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엄청 {*슬프겠다/*슬플 거야/슬픈가 봐/슬픈 모양이야}. (손혜옥, 2016: 131)

이 논의에 의하면 (8가)와 같이 비현실 상황에서의 추측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지만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주어 인칭과 관계없이 해당 추측 상황에 워낙 잘 쓰이지 않는다. (8나)와 같이 화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상황을 재인식한 경우에는 '-겠-'과 '-(으)ㄹ 것이다'가 쓰일 수 없다. 그러나 화자의 내적 사태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인 '슬프다'가 서술어로 쓰이는 (8나)에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앞서 김정혜(1997)에서의 논의 결과와 반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마다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논의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추측' 문법 항목이 받는 명제 주어 인칭 제약은 사용 맥락, 서술어의 특성, '추측' 문법 항목이 가지는 추측 근거의 특성 등과 두루 관계가 있음을 대체적으로만 알 수 있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명제 주어 인칭 제약에 가지는 변별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3.1.1.2. 선어말어미 후행 제약

선행연구에 의하면 '추측' 문법 항목들은 의미적 특성상 선어말어미 '-겠-'의 후행에 공통적인 제약을 가지는 데 비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과거 지각 경험'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에는 차이가 난다.

선어말어미 '-었-'은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건이나 사태가 기준시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 문법 항목에 결부되면 화자의 추측이 발화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아래 <표Ⅱ-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으)ㄹ 것이다'와 '-(으)ㄴ가/나 보다'에 '-었-'이 후행하는 양상에 대해 의견이 보인다.

<표Ⅱ-5> 선행연구: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 제약

연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안명철(1983)	×	×			○	
김정혜(1997)			×	○	○	○
이필영(1998)		×		?	○	○
전나영(1999)		×	×	○	○	
박재연(2006)	×				○	○
한명주(2008)		○		○		○
한정한·정희숙(2011)			×	○	○	○
다카치(2014)		○	×	○	○	○
손혜옥(2016ㄱ)	×	○	○	○	○	○
명정희(2018)		×	○	○	○	○

전나영(1999)에서는 ‘-었-’의 후행이 가능한 ‘추측’ 문법 항목은 추측 내용에 대한 화자가 갖는 확실성이 약하므로 이미 밝혀진 결과와 화자 과거의 추측과 맞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확실성 정도로 설명하였다. 한편 문법화 과정의 진행 정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박재연(2006)에서는 ‘-겠-’은 화·청자 지향적 양태의 특성인 수행성을 보유해서 반드시 화자 현재의 추측을 나타내는 데 비해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는 여전히 주어 지향적 양태의 특성인 서술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조용언의 활용을 허용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추측을 기술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는 한정한·정희숙(2011)의 설명대로 ‘-었-’의 후행이 심하게 제약될수록 해당 문법 항목의 문법화 과정이 더욱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추측’ 문법 항목들이 가지는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는 아래 <표Ⅱ-6>에서 보이듯이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문법 항목이 모두 ‘-더-’의 후행을 허용한다는 데에 일치한다.

<표Ⅱ-6> 선행연구: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 제약

연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안명철(1983)	○	×				○
김정혜(1997)			○	○	○	○
이필영(1998)		×		○	○	○
한명주(2008)		×		○		○
다카치(2014)		×	○	○	○	○
손혜옥(2016ㄱ)	○	×	○	○	○	○
명정희(2018)		×	○	○	○	○
박재연(2018)	○	×			○	○

‘-더-’는 시제·상적 의미, 증거성, 의외성 등 의미성분을 복합적으로 지닌다. ‘-(으)ㄹ 것이다’의 ‘-더-’ 후행 제약에 대해서 박진호(2011ㄴ)과 손혜옥(2016ㄱ)에서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관점에서 그것이 ‘-(으)ㄹ 것이다’의 의미적 특성이 ‘-더-’가 가지는 ‘직접 지각 경험’의 증거성 의미와 의외성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다카치 토모나리(2014)에서는 그러한 제약은 '-(으)ㄹ 것이다'의 문법화 과정이 다른 '추측' 문법 항목보다 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가늠하였다. 또한 박재연(2018)에서는 '-(으)ㄹ 것이다'보다 문법화가 덜 진전된 '-(으)ㄹ/ㄴ/는 것 같다' 등도 '-더-'의 후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으)ㄹ 것이다'는 문법화 과정에서 형식 변화가 '-(으)ㄹ/ㄴ/는 것 같다' 등에 비해 더 진전된 듯 보이지만 의미면에서 추측의 의미가 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 통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신 '-(으)ㄹ 것이다'가 일반적 지식을 근거로 한 추측에 쓰인다는 의미적 특성에 대한 기존 견해에서 보았을 때 의외성이나 문법화에 비해 추측 근거의 특성이 그 제약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이는 실제 언어 자료에 의한 입증이 요구된다.

3.1.1.3. 문장 유형 제약

선행연구에 의하면 '추측' 문법 항목은 추측의 의미가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과 관련되는 의미적 특성상 사태를 나타내는 평서문에 잘 쓰이고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지 않는 데 공통적이지만 의문문과 감탄문에서는 그 사용 양상이 다르다.

다음 <표Ⅱ-7>은 의문문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판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7> 선행연구: 의문문 사용 제약

연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이남순(1981)	○	특수 의문문				
안주호(2004ㄱ)			유사의문문	유사의문문	○	○
한명주(2008)		?		○		○
한정한·정희숙(2011)			×	×	○	○
다카치(2014)		○	×	×	○	○
박재연(2018)	○	수사/자문				

		의문문				
이지연(2018)	○	×	×	×	○	○

이들 연구는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의문문 사용에 이견이 보인다. 이남순(1981)과 박재연(2018)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가 화자가 청자에게 묻는 일반적인 의문문에서 쓰이기가 어려우며 아래 (9)와 같이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의미상 평서문인 수사의문문이나 '-은가'가 사용된 자문(自問)의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가. 대청마루에 풍경 걸어놓고, 여름에 수박 먹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박재연, 2018: 120)

이와 달리 다카치 토모나리(2014)에서는 의문문에서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래 (10)과 같이 이 논의에서 제시된 말뭉치 용례를 보면 이는 청자에게 답을 요구한다기보다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문의 성격이 강한 듯하다.

(10) 가정은 어떻게 변하며 주변 친구나 후배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다카치 토모나리, 2014: 280)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해서는 두 문법 항목이 의문문에서 제약받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안주호(2004ㄱ)에서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린 진술문이 되는 유사의문문에서 두 문법 항목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 한명주(2018)에서는 아래 (11가)를 제시하면서 의문문에서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1) 가. 비가 {온/올} 모양이니? (한명주, 2008: 159)
나. *비가 {온/오는/올} 모양이냐? (다카치 토모나리, 2014: 181)

그러나 (11가)와 극히 비슷한 예문인 (11나)를 바탕으로 다카치 토모나리(2014)에서는 한명주(2008)과 반대로 판단한 바가 있다. 이는 개인마다 언어에 대한 용인가능성이 다를 수 있는 데 비롯되며 문법 항목의 사용이 연구자 개인이 아닌 언어공동체의 사용 양상에서 관찰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다음 <표Ⅱ-8>은 감탄문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판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8> 선행연구: 감탄문 사용 제약

연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한명주(2008)		○		○		○
한정한·정희숙(2011)			○	○	○	○
다카치(2014)		×	○	○	○	○
박재연(2018)	○	×				

이들 연구는 '-(으)ㄹ 것이다'의 사용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라진다. 다카치 토모나리(2014)와 박재연(2018)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추측의 의미로 감탄문에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한명주(2008)에서는 아래 (12)와 같은 예문에 의해 감탄문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12) 철수는 집에 갈 것이구나! (한명주, 2008: 157)

그런데 이러한 예문도 역시 실제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며 선·후행 맥락이 결여되어 이때의 '-(으)ㄹ 것이다'가 추측의 용법으로 쓰이는지 [예정]의 용법으로 쓰이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서로 불일치를 보이는 변별 결과에 대하여 실증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문문의 경우는 일반 의문문과 특수 의문문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이들 문법 항목의 의문문 사용 제약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3.1.1.4. '-(으)면' 선행절 제약

선행연구에서는 '-(으)면' 선행절의 명제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화자가 가정하는 것으로 후행절에 표현된 명제 내용의 실현을 위한 전제라고 보며 '추측' 문법 항목이 그러한 후행절에 쓰일 때 받는 제약에 의해 이들 항목을 변별하였다.

그런데 논의마다 그러한 제약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전나영(1999)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삼아 추측할 때 화자가 그 추측의 결과에 대해 크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성 정도가 보다 약한 '-(으)ㄹ 것이다'가 후행절에 쓰일 수 있는 반면 '-겠-'의 사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진 만큼 '-겠-'이 '좋다'와 결합하여 '-(으)면 좋겠다'의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사실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겠-'의 사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된 명제를 추측 근거로 삼는 것은 곧 추측 결과의 낮은 확실성이 이어진다는 전제가 문제시된다.[52]

이와 달리 노지니(2004)와 성호현(2018)에서는 비현실 또는 반사실 명제를 근거로 판단할 때 화자의 내적 추론 과정, 즉 화자의 주관이 반드시 개입되기 때문에 강한 주관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추측' 문법 항목이 '-(으)면'의 후행절에 쓰이는 데 받는 제약을 주관성이라는 의미적 특성과 연관시켰다. 노지니(2004)에서는 아래 (13가)에서 보이듯이 주관성이 가장 약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사용이 어색하다고 구분하였으며, 성호현(2018)에서는 (13나)에서와 같이 '-(으)ㄹ 것이다'에 비해 '-겠-'의 허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겠-'에 비해 '-(으)ㄹ 것이다'의 주관성이 강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13) 가. 우유를 3일 안으로 다 안 먹으면 {상할 것이다/상할 듯하다/상할 것 같다/*상할 모양이다/*상하나 보다}. (노지니, 2004: 96)

52) 다음 3.1.2.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측 근거는 추측 결과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나. 만약 면허를 땄으면서 차도 사지 못한다면 아파트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되겠다}. (성호현, 2018: 682)

그런데 (13나)에서 '-겠다'의 사용은 어색하지만 '-지'와 결합하는 '-겠지'의 사용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또한 인지주체의 내면적 행위로서 추측 자체가 주관성을 지니며(이필영, 2012: 118) 선행연구에서 주관성이 가장 약하다고 판단되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추측을 이루기 위해 화자가 자신이 보거나 들은 정보를 자신의 인식체계에 있던 배경 지식과 비교하는 내적 추론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적 명제에서 내적 추론의 개입과 이에 의한 주관성의 판단으로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에 비하여 '추측' 문법 항목들이 추측 근거에서 가지는 의미적 차이에서 '-(으)면' 선행절 제약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명정희(2018)의 견해가 보다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에서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외부적 지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자의 상식이나 논리적 추론과 같은 내부적 근거에 의해 결론을 추측하는 '-(으)면'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추측' 문법 항목과 변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의 설명력과 변별 결과의 정확성은 역시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하는 검증이 요구된다.

3.1.1.5. 어휘·표현 공기 제약

양태부사는 의미적 특성상 특정 어미나 문장 형식과 공기 관계를 보인다(고영근·구본관, 2018: 133). 이에 양태부사와의 공기 여부가 '추측'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아래 <표Ⅱ-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마다 판단 결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별 방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다.

<표Ⅱ-9> 선행연구: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

견해	연구	양태부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확실성 정도 변별 가능	이기용 (1978)	틀림없이	○	○				
		아마	×	○				
	안주호 (2004ㄱ)	틀림없이/확실히		○	×	×	○	○
		아마도/어쩌면		?	?	×	○	○
	노지니 (2004)	틀림없이/분명히					○	×
	이미혜 (2005)	틀림없이		○			?	×
	성미선 (2009)	틀림없이	○	○			○	×
		아마도	×	×			○	○
	엄녀 (2010)	틀림없이		○	×		×	
		어쩌면			×		×	
확실성 정도 변별 불가	전나영 (1999)	아마	○	○	○	○	○	○
	김해연 (2011)	틀림없이/분명히/확실히					○	
		어쩌다					○	
	손혜옥 (2016ㄱ)	확실히	○	○				
		아마	○	○				
	이지연 (2018)	틀림없이	○	○	○	○	○	○
		아마	○	○	○	○	○	○

반대 의견을 가지는 논의들은 하나의 양태 부사와 여러 ‘추측’ 문법 항목, 또는 서로 확실성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양사 부사와 하나나 여러 ‘추측’ 문법 항목이 두루 공기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이외에 ‘왠지’, ‘어쩐지’와 같은 비한정 부사(배주채, 2020)와의 공기 관계도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 변별을 위한 기제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Ⅱ-10>을 통하여 이들 논의는 비한정 부사에 대한 의미 파악, 공기 관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해석에 상이함을 보인다고 확인할 수 있다.

<표Ⅱ-10> 선행연구: 비한정 부사와의 공기 양상

연구	비한정 부사	의미	공기 해석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이혜용 (2003)	왠지/ 어쩐지	추측 근거 (느낌)	확실성 정도				×	○	?
노지니 (2004)	어쩐지	추측 근거 부재	주관성 정도		×	×	×	○	○
이미혜 (2005)	왠지 모르게	추측 근거 (느낌)	확실성 정도	×		×	×	○	○
엄녀 (2010)	왠지/ 어쩐지	추측 근거 (느낌)	확실성 정도			×	×	○	?
손혜옥 (2016ㄱ)	왠지	추측 근거 부재	확실성 정도	×	×	×	×	○	○
강현화 외(2017)	왠지	불확실성	확실성 정도	×	×	×	×	○	○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으로는' 등과 같이 추측 주체가 화자 자신임을 표명하는 1인칭 표현과의 공기 관계가 선행연구에서 '추측' 문법 항목의 주관성 의미를 판단하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래 <표Ⅱ-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기 관계에 대한 판단, 특히 '-겠-'과 '-(으)ㄹ 것이다'에 있어 이견을 보인다.

<표Ⅱ-11> 선행연구: 1인칭 표현과의 공기 양상

연구	공기 해석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서정수 (1978)	추측 근거 (화자의 주관)	○	×				
김동욱 (2000)	서술태도 (주체추측)			×	×	○	○
안주호 (2004ㄱ)	추측 근거 (주관적 믿음)		○	×	×	○	○
이미혜 (2005)	추측 근거 (화자의 사고)	×		×	×	○	○
한명주 (2008)	서술태도 (주체추측)		○		×		○
성미선	주관적 가치	?	○	×	×	○	○

(2009)	판단 개입						
이지연 (2018)	서술태도 (주체추측)	○		?	?		
명정희 (2018)	추측 근거 (주관적 생각)		×	×	×	○	○

이상과 같이 어휘나 표현과의 공기를 통해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적 차이를 찾는 이러한 연구는 탕이잉·진영하(2021)에서 지적하였듯이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 주관적 분석과 제한된 수의 연구 항목에 의한 판단, 그리고 공기 여부 중심의 공기 양상 분석 등 여러 한계를 가진다.

3.1.2. 의미적 변별 기준

3.1.2.1. 추측 근거와 확실성 정도

인식양태의 전형적인 의미영역으로서 확실성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적 변별 기준으로 거론되어 왔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추측 근거는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하위기준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근거 유형의 분류가 다르며 크게 '주·객관성', '직·간접성', '현장성(내면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

서정수(1978)과 이기용(1977, 1978)은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에 따라 '-겠-'과 '-(으)ㄹ 것이다'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최초의 시도인 듯하다. 전자는 '객관성의 강약'을 변별 기준으로 삼아 '-(으)ㄹ 것이다'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추정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겠-'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화자의 주관적 확신을 나타내는 강한 짐작이라고 함으로써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후 안정아(2003)에서는 서정수(1978)과 같은 입장으로 '-(으)ㄹ 것

이다'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치는 것 즉,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추측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겠-'과 '-ㄹ 터이다'보다 확신성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추측 근거의 성격을 주·객관성으로 나누고 단순히 이것만으로 화자가 가지는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종(1993: 283)에서 지적하였듯 근거에 대한 화자의 수용 태도에 따라서 진술 태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주·객관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추측한 사실의 확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지연(2018: 112)에서도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한 추측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추측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측 근거의 주관성 여부를 양태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으로 안주호(2004ㄱ)에서는 근거가 주관적인 믿음인가 객관적인 증거인가에 의해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ㄴ가/나 보다'는 발화 내적 근거를 통한 객관적 표현,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등은 화자의 직접 경험에 의한 주관적 표현이라고 구분한 다음, 객관성이 미약해서 단언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ㄴ가/나 보다'의 확실성 정도가 보다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주관적인 근거→주관적인 추측→객관성이 부족함→낮은 확실성 정도'와 같이 선행 요소를 후행 요소의 성격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지니(2004)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자의 내적 추론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한 주관성을 드러내는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관성이 강하거나 객관성이 강하거나 모두 확실한 추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객관성으로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이남순, 1981: 183).

(2) 추측 근거의 직·간접성

전나영(1999: 176)에서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 구분이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화자 자신이 보거나 들은 정보'[53], '화자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정보', '문장 주어의 내부에 있는

정보', '화자의 느낌' 등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정보에 근거하는 추측에 쓰일 수 있는지에 의해 '-겠-, -(으)ㄹ 것이다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으)ㄹ/ㄴ/는 것 같다'와 같이 문법 항목 간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였다.

이어서 김동욱(2000)에서는 근거 정보의 종류가 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추측 근거로 삼는 정보를 '직접적 정보', '간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로 분류하였다.[54] 그런데 이러한 분류에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간접적 정보'는 화자의 시각, 청각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직접적 정보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또한 화자가 과거에 직접 체험한 것은 '직접적 정보'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인식세계에 내면화될 수 있는 점에서 역시 '내재적 정보'로 볼 수도 있다. 여러 후속 연구(이혜용, 2003; 한명주, 2008; 엄녀, 2010 등)에서 김동욱(2000)의 근거 분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직접적 정보나 간접적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의 확실성 정도가 내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측'의 그것보다 높다고 공통적인 결론을 밝혔다.

한편으로 강소영(2002)에서는 기본(Givón, 1982)에서 제안한 확실성 정도를 구분 짓는 요인[55]을 바탕으로 추측 근거가 화자의 직접 경험인지가 의미 변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의해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각각 화자의 직접 경험이나 지각 가능한 것, 타인의 증명에 의해 얻어낸 이론상 진인 사실, 제삼자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한 추측에 쓰이는 것으로서 '-겠- > -(으)ㄹ 것이다 >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같이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였다. 이후 유민애(2012)에서는 김동욱(2000)과 기본(Givón, 1982)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구어에 빈번히 쓰이는

53) 이는 화자가 신문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얻은 것임을 전나영(1999: 177)에서 제시한 예문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4) 김동욱(2000: 184-185)에서 '간접적 정보', '직접적 정보', '내재적 정보'를 각각 '신문, 방송, 활자나 타인의 이야기 등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시각, 청각, 촉각 등 화자 스스로의 고유한 인지기능을 통해서 외부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화자 자신의 기억, 감정, 직감 등 본래 화자자신의 인식세계에 내재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55) 기본(Givón, 1982)에서는 명제에 결부될 수 있는 인식양태의 의미를 확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물(화자>청자>제삼자)', '지각(시각>청각>그 밖의 지각 능력>느낌)', '직접성(지각 가능성>추론 가능성)', '인접성(가까운 것>먼 것)' 등을 제시하였다(강소영, 2002: 226; 재인용).

‘추측’ 문법 항목들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중의 대부분은 추측 근거를 단지 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56] 이는 추측 근거만으로 다양한 ‘추측’ 문법 항목들의 확실성 정도를 변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

(3) 추측 근거의 현장성

추측 근거로 삼는 정보를 현장성과 연관시켜 보는 것은 성기철(1976, 1979)에서부터였다. 이 논의에서는 근거의 주·객관성이라는 변별 기준을 문제시하고 추측 근거가 현장 경험인지 과거 경험인지에 따라 전자를 근거로 하는 ‘-겠-’은 후자를 근거로 하는 ‘-(으)ㄹ 것이다’에 비해 높은 개연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57]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는 전나영(1999)에서는 추측 근거가 과거에 있는 것보다 발화 현장에 있을 때 화자가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으)ㄹ 것이다’에 비해 ‘-겠-’의 확실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별 기준은 여러 후속 연구(이미혜, 2005; 강현주, 2010; 김상경·장은경 2015 등)에서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58] 이와 비슷한 견해로 이선경(1986)에서는 언술행위 이론에 입각하여 ‘-겠-’은 추측 근거가 언술 장면에 나타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그 근거가 미리 구축되어 언술 장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 논의에서 확실성 정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겠-’은 화자가 ‘결과를 안다’는 가치의 유효화를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제시하는 데 비해 ‘-(으)ㄹ 것이다’는 단지 긍정적 가치를 선택할 뿐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술

---

56) 이혜용(2003)과 유민애(2012)에서는 ‘추측의 근거’와 ‘인지 방법(판단 방법)’을, 엄녀(2010)에서는 ‘추측의 근거’와 ‘주관성 정도’를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57) 이에 대해서 안명철(1983: 58)에서는 발화시의 경험만으로 불투명한 세계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없으며 현재 구름이 꼈다는 사실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오기 쉽다’는 과거 경험을 통해 ‘비고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지 그 자체가 어떤 추정을 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58) 그중 이미혜(2005)에서는 ‘-겠-’과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현장 지각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으)ㄹ 것이다’는 과거 직·간접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나타내며,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추측 근거에 제한이 없음을 분석하였다.

을 통해 '-겠- > -(으)ㄹ 것이다'와 같이 확실성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의 '현장성'이 아닌 '내면화'의 관점에서 '추측'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논의가 있다. 임동훈(2008)에서는 '-겠-'과 '-(으)ㄹ 것이다'가 각각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와 내면화된 정보에 기반을 둔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차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며 손혜옥(2016ㄱ)에서는 일곱 개의 '추측' 문법 항목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였다.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얻은 추측 근거가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정보일 것(손혜옥 2016ㄱ: 64, 박재연 2018: 139)이라는 점에서 '내면화'와 '현장성'은 단지 표현적으로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의 현장성 또는 내면화 여부는 '-겠-'과 '-(으)ㄹ 것이다'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한 기준으로서 박재연(2018)에서 평가된 바가 있다.

실은 근거의 직·간접성, 주·객관성, 현장성 또는 내면화의 분류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지각한 정보, 간접적 정보 그리고 발화 현장에서 얻은 정보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정보인 데 비해 내재적 정보나 화자에게 내면화된 정보는 화자의 인식세계에 있는 것으로 주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추측 근거에 의한 확실성 정도의 구분은 근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추측 근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확실성 정도를 구별하는 논의(노지니, 2004; 다카치 토모나리, 2014; 손혜옥, 2016ㄱ; 이지연, 2018)도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추측' 문법 항목과 '왠지', '어쩐지' 등 부사와의 공기 여부가 추측 근거의 유무를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느낌, 직감, 과거 경험 등과 같이 화자의 인식세계에 내재하는 정보는 밖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무릇 추측에는 반드시 근거가 뒤따른다는(이기종, 1993: 281) 논리에서 충분히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59]

59) 알란(Alan, 1985)에서는 '경험(experiential)', '추론(inference)', '전언(hearsay)', '생각(thought), 믿음(belief), 가상(fantasy)'의 네 가지 근거의 출처를 제시하였으며, 김은경(2015)에서는 화자의 경험, 지식, 느낌 등이 추측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3.1.2.2. 추측의 주·객관성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에 드러나는 태도가 보다 주관적인가 아니면 객관적인가 하는 점에서 '추측'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주관성 또는 객관성의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추측 근거의 차원에서 추측의 주·객관성을 해석하는 논의로서 서정수(1978), 성광수(1984), 안주호(2004ㄱ)가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은 추측의 주·객관성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반해 김동욱(2000)에서는 추측 근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화자의 서술태도라는 측면에서 추측의 주·객관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화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주인(主人)된 태도를 취하는 [주체추측]을 나타내며,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화자가 제삼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객체추측]을 나타낸다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별 기준은 여러 후속 연구(이혜용, 2003; 한명주, 2008; 엄녀, 2010; 유민애, 2012; 이지연, 2018 등)에서 수용되었다.

실은 이러한 추측 대상에 대한 화자가 취하는 태도는 일찍이 차현실(1986)에서 엿보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화자의 내적 직관이든 외적 상황이든 간에 양상술어 '같다'와 '싶다'가 모두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인식 양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관적인 판단'이라 하는 것은 곧 김동욱(2000)에서의 '주체적 서술태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추측의 주·객관성이 화자의 내적 추론 과정의 개입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논의도 있다. 노지니(2004)에서는 래내커(Langacker, 1987)의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을 추측의 인식 과정에 대입시켜 주·객관성의 개념을 추측 근거와 과정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주관적 추측'이란 화자의 내면 근거와 외부 근거를 모두 인식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내적 추론을 추측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이며, '객관적 추측'이란 화자의 주의가 추측 근거에만 집중되므로 자신의 내적 추론이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내적 추론의 개입 여지가 존재하므로 추측 근거가 주관성의 관점에서 본 추측 과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호현(2018)에서는 주관성을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겠-'은 발화시의 경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추론 과정이 거의 생략되는 반면 '-(으)ㄹ 것이다'는 기득 정보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화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관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구분하였다.

한편 이기종(2001)에서는 래내커(Langacker, 1985)가 제안한 '주관화' 개념을 토대로 주관화를 언어 기술에 반드시 화자가 참조되어야 하는 현상으로서 화자와 사태 사이의 상호 영향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주관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화자와 인식 대상(근거, 사태)의 위치와 이에 따른 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으)ㄹ/ㄴ/는 것 같다 > -(으)ㄹ/ㄴ/는 듯하다> -겠- > -(으)ㄹ 것이다 > -(으)ㄴ가/나 보다 >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같이 '추측' 문법 항목들의 주관화 정도를 변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노지니(2004)와 성호현(2018)에서 밝혀진 결과와 부분적으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측의 주·객관성은 추측 근거나 과정, 추측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는 복잡한 문제이며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노지니(2004)에서 직접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주관성에 대한 판단은 단지 '주관성'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에 의한 것일 뿐이며 실제적인 언어 현상을 그 기준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3.1.2.3. 추측 과정 또는 방법

'추측' 문법 항목은 추측의 과정 또는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되기도 하였다. 일찍이 장경희(1985)에서는 아래 (14)와 같은 예문으로 '-겠-'은 원인적 근거에서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의 추측을 나타내는 데 반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14) 가. ㄱ: 팔이 아직도 아파요.
ㄴ: 그럼 병원에 가야겠다.
나. ㄱ: 나는 병원에 가야 해.
ㄴ: 팔이 아직도 아픈가 보구나/아픈 모양이구나.

(장경희, 1985: 48-49)

이를 발전시켜 장경희(1995)에서는 '-겠-'에 의한 추측은 인과 법칙에 의한 논리적 추론 과정으로 확실성을 보장받는다고 함으로써 추측의 과정을 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서 장경희(1998)에서는 인과관계에 따른 '-겠-'의 추측 과정은 원인으로서 결과를 야기하는 힘을 지닌 물리적 사태라는 추측 근거를 한정한다고 하여 추측의 과정과 근거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김지은(1998: 160)에서는 아래 (15가)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가 원인적 근거에서 결과를 추정하는 데에도 쓰여 그 추측 대상과 근거와의 관계가 늘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실은 장경희(1985)에서는 '-겠-'이 '-지'와 결합하여 결과로서의 근거에서 그 원인을 추론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아래 (15나)를 통해 직접 설명한 바가 있다.

(15) 가. ㄱ: 건물에 금이 갔어.
ㄴ: 무너지려나 봐.
나. ㄱ: 순이는 오늘 지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ㄴ: 기차가 연착했겠지. (장경희, 1985: 49)

이는 특정한 '추측' 문법 항목이 특정한 하나의 방법에 따른 '추측'에만 쓰이는 절대 규칙보다 추측 방법에 따른 상대적인 사용 경향을 가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 후의 연구는 추측 방법과 추측 근거, 주관성, 확실성 등 의미적 요소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도 하였는데 그 견해를 간추리면 다음 <표Ⅱ-12>와 같다.

<표Ⅱ-12> 선행연구: 추측의 방법

연구	추측 근거	추측 방법	확실성	주관성	항목
이혜용 (2003)	내재적 정보	직관, 느낌에 의한 추리	막연	-	-(으)ㄹ/ㄴ/는 것 같다
	직접적 정보	'A이면 B이다'의 단순 추리	개연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간접적 정보	사고 과정에 체계적 단계가 필요한 논리적 추리	확연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유민애 (2012)	직접적/내재적 정보	감각적인 방법에 의한 짐작	낮음	-	-(으)ㄹ/ㄴ/는 것 같다, -겠-
	간접적/직접적 정보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친 내적 추론	높음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성호현 (2018)	현장 경험	직관성 추정	-	약	-겠-
	기존 정보, 과거 경험	추론적 추정	-	강	-(으)ㄹ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견해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추측의 방법은 인과관계와 같은 논리가 아닌 '직관, 느낌', '감각' 등 추측 근거에 의해 유형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추측 근거와 방법의 관계에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추측 방법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 추측 근거와 방법은 그 유형이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과연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나 직접적 정보를 근거로 할 때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연구에서 설정되는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A이면 B이다'의 단순 추리는 어떤 전제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논리성을 지니기도 한다. 넷째, 확실성이나 주관성은 추측 근거나 방법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겠지만 온전히 개념적으로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엄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1.2.4. 기타 의미적 변별 기준

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변별 기준 외에는 개별 논의에서 설정되는 기타 기준도 있으며 이를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먼저 사태 파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논의로서 성호현(2018)이 있다. 이 논의에서는 추측의 형식을 화자 자신의 판단에 초점이 놓이는 '진정 추정'과 목전의 사태나 증거 자체의 인식에 초점을 놓이는 '의사 추정'으로 구별하며 '-(으)ㄹ 것이다'는 진정 추정에, '-겠-'은 '의사성 진정 추정'[60]에, '-(으)ㄴ가/나 보

60) 이는 진정 추정이면서 부분적으로 의사 추정의 용법도 있음을 의미한다(성호현, 2018: 676).

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 등은 ‘의사 추정’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성호현(2018: 676)에서 제시한 예문과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측 근거의 현장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에 따라 ‘추측’ 문법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남순(1981, 1995)에서는 화자 혼자만의 배제적인 판단을 나타내는가 화자 자신의 판단이 청자의 판단과 일치하리라는 가정 하의 포괄적인 판단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겠-’과 ‘-(으)ㄹ 것이다’를 구분하였다. 김규철(1988)에서는 ‘-겠-’은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되거나 청자의 의식에 없다고 화자가 가정한 ‘신정보’에 근거한 추측, ‘-(으)ㄹ 것이다’는 화·청자에게 이미 존재하거나 청자의 의식에 있다고 화자가 가정한 ‘주어진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구별하였다. 두 논의에 대해서 이기종(1993)에서는 청자의 판단까지 화자가 알 수 없으므로 발화상 화·청자가 공유하는 것은 판단이 아닌 정보라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고창운(1991)에서는 추측 근거와 청자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가정에 따라 ‘-겠-’과 ‘-(으)ㄹ 것이다’를 각각 화자가 갖고 있는 근거를 청자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추정과 청자가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추정에 쓰이는 것이라고 변별하였다. 그러나 고창운(1991)에서의 변별 결과는 김규철(1988)과 이기종(1993)에서의 그것과 상반된다.[61] 이러한 근거의 분류는 그것이 화자 자신만 아는 것인지 화·청자가 공유하는 것인지에 따른 점에서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과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의외성의 의미를 부수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의해 ‘추측’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논의로서 박진호(2011ㄴ)과 손혜옥(2016ㄱ)이 있다. 전자에서는 ‘-구나’, ‘-네’와의 결합 여부에 의해 ‘-겠-’이 추측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어 의외성을 가지는 반면 ‘-(으)ㄹ 것이다’가 그렇지 않

61) 고창운(1991)과 이기종(1993)에서는 ‘A: 걔 언니가 작년 미스코리아야. B: 그러면, 걔 언니는 참 (ㄱ)예쁘겠다./(ㄴ)*예쁠 거야.’와 같은 예문에 대해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였다. ‘걔 언니가 예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화맥에서 드러나 있는 근거 ①(‘걔 언니가 작년 미스코리아다’)과 그렇지 않은 근거 ②(‘미스코리아는 예쁘다’)가 필요한 것은 두 논의에서 일치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추측 결과에 대해서 전자에서는 발화 (ㄱ)은 B가 A도 근거②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발화 (ㄴ)은 B가 A가 근거②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용된다고 한 반면 후자에서는 A가 근거②를 갖고 있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ㄱ)을 발화하는 반면 근거②가 A의 의식에 존재하리라는 믿음으로 (ㄴ)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다고 밝혔다. 후자에서는 추측 근거의 내면화에 상관없이 '-겠-'은 '새로 앎'을 관습적으로 가지는 데 반해 '-(으)ㄹ 것이다'는 추측 근거가 화자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그 추측의 내용도 발화시에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잘 읽히지 않아 '이미 앎'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등 우언적 구성이 가지는 의외성 의미에 대해서는 두 논의에서 모두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아 추론하기만 하였다.

3.1.3. 화용적 변별 기준

'추측' 문법 항목들에 대한 변별은 의미·통사적 특성과 같은 언어 내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의사소통 목적, 화·청자 관계, 매체, 격식성 등과 같이 언어 외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다.

3.1.3.1. '공손' 또는 '완곡어법'

'추측' 문법 항목은 불확실한 앎이라는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므로 그것이 사용되는 발화가 단언보다 상대방의 체면[62]을 위협하는 발화수반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공손'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공손/공손성(politeness)', '완곡어법/화법(euphemsim)' 등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공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공경하거나 상대방에게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태도적 또는 사회 현상적 개념이며[63], '완곡어법'은 상대방에게 불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나 표현을 피하고 보다 우회적인 단어나 표현으로 말하는 표현방법을 말한다(허상희, 2010).

그러나 다음 <표Ⅱ-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추측' 문법 항목들이 '공손'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는 분분하다.

---

62) '체면(face)'은 브라운·레빈손(Brown·Levinson, 1978, 1987)에서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협력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여 공손의 원리를 실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체면은 일종의 공적인 이미지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63) 이러한 태도적 공손을 표현하는 모든 언어적 장치들은 공손 표현 또는 언어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손에 대한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추측' 문법 항목은 일종의 공손 표현 또는 공손 전략이 될 수 있다.

<표Ⅱ-13> 선행연구: '공손' 실현 양상

연구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
이혜용 (2003)		의견 제시 (거절, 권유, 사과 등)	의견 제시 (조언, 충고, 사과)		의견 제시(동의)/ 확인/책임 회피	
노지니 (2004)		생산적 실현 (의견 제시/반대 의견 제시)		제한적 실현 (정확한 정보 요구 불필요, 결례될 수 있는 평가 내리기)		×
이미혜 (2005)	기능 적음	부담 줄이기				기능 적음
성미선 (2009)	쓰일 수 있음 (거절, 의견, 제안, 요청; 평가 등)			쓰이기 어려움		
엄녀 (2010)		의견 제시(거절, 제안)/ 책임 회피/체면 손상 완화		체면 손상 완화 (잘못을 지적하기)		×
유민애 (2012)	×	부정/거절/ 책임 완화		책임 완화		×
황주하 (2013, 2015)	상대방 감정 공감하기	마지못해 동의하기/ 완곡 표현/ 의례적 인사말				상대방 안심 시키기
손혜옥 (2016ㄱ)	의견 제시					×
정미진 (2017)		(반대)의견 제시/ 거절		의견 제시/ 관심 표시		

이러한 상이한 견해는 '공손'의 개념에 대한 제한된 이해,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 사건을 통한 귀납적 분석이 아닌 연구자의 직관에 기반한 판단 등 한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재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책임 회피'나 '책임 완화'를 화자가 사과할 때 자신에게 있는 책임이나 명제 진위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줄이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일견 화자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공손과 다른 듯하다. 그러나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도 공손이 실현될 수 있어 사과는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윤정화, 2014: 117). 하지만 화자는 상대방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

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이해영, 1996). 따라서 사과할 때 '추측' 문법 항목을 통해 공손과 화자 체면 유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64] 둘째, 대부분 연구에서 '-(으)ㄹ 것이다'를 공손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손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지만 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황은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어 대화뿐만 아니라 일정한 독자를 상정하는 문어 텍스트도 이에 해당된다. 그중 신문, 학술적 텍스트 등 격식적 문어에서 '-(으)ㄹ 것이다'가 명제 내용의 판단을 유보하여 공손을 실현하는 일종의 헤지(hedge)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추측' 문법 항목들이 공손 표현으로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그 쓰임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3.1.3.2. '강세어법'

'완곡어법'과 반대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조하고자 할 때도 '추측' 문법 항목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한 앎이 아닌 부정적 확신을 가지고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박옥숙(1987)에서는 '-겠-'은 '불확실성'이라는 기본 의미로 인해 '완곡어법'과 '강세어법' 두 가지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며, 전자는 긍정적인 해석을 유도하는 반면 후자는 부정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광호(1996)과 전혜영(2002)에서는 아래 (16)과 같은 문장들이 부정적 의미나 빈정되는 말투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단지 억양이나 의문사와 같은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아 '-겠-'이 강세어법으로

64) 물론 명확한 응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자가 지나치게 책임을 회피하면 상대방에게 무책임으로 느껴지므로 공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화자 자신의 체면 유지라기보다 그러한 무책임의 응대에 대해 돌아올 상대방의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체면 손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미진(2014: 11)에서 설명하였듯 대화자가 상대방과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체면 상실은 다른 한 쪽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으로는 상대방의 체면 유지가 결국 화자 자신의 그것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사용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16) 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가겠니?
나. 누가 그걸 알겠니? (박옥숙, 1987: 122-123)

이에 대해서 이혜용(2003)에서는 수사의문문이 특성상 '강조'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추측' 문법 항목 자체가 강세어법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수사의문문이 '추측' 문법 항목과 공기하여 쓰이는 경향성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박옥숙(1987)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추측' 문법 항목은 적절한 맥락에서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단정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강세어법'이라고 하며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등이 강세어법으로 쓰이는 양상을 비교하였다. 한편 이기종(2001: 137-8)에서는 의문 형식의 '-겠-'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 형식을 빌어 역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화맥에 따라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청자를 고려한 공손한 의견 진술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제시하였다.

'추측' 문법 항목이 공손을 표현하거나 완곡어법으로 사용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행해지는 데에 비해 '불손(또는 비공손)'이나 강세어법의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런데 사회적 행위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만 할 수 없듯이 언어행위 역시 공손을 지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이영래, 2006: 108).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1.3.3.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최근에 들어 언어사용역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들의 화용적 변별점을 찾는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들 논의는 언어사용역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의 사용 경향을 살펴보는 데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말뭉치에 기반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도 아래 <표Ⅱ-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다.

<표Ⅱ-14> 선행연구: 언어사용역적 특성

연구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배진영 외 (2013)	대화, 소설	신문, 학술				
손혜옥 (2016ㄴ)	구어, 소설 비/격식성	문어(소설, 신문, 학술), 격식성	구어, 소설 비격식성	소설	구어, 소설 비격식성	문어(소설, 시문, 학술)
강현화 외 (2017)		격식성	구어, 비격식성		구어, 비격식성	문어
이지연 (2019)	구어, 비격식성	문어(학술), 격식성	구어, 비격식성	문어, 비격식성	구어, 비격식성	문어(소설, 신문, 학술) 비/격식성

그런데 이들 논의에는 지적될 만한 부분이 있다. 먼저 강현화 외(2017)을 제외한 논의에서는 모두 비버 외(Biber et al., 1999)에 따라 언어사용역을 '구어', '소설', '신문', '학술'로 구분하였으나[65] 연구 결과를 보면 '추측' 문법 항목들은 주로 매체와 격식성에 있어서 그 분포 차이를 보이며, 격식적 문어로서의 '신문'과 '학술'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연구 항목에 따른 언어사용역의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논의에서는 언어사용역에 따른 '추측' 문법 항목의 분포 차이 기술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차이와 이들 문법 항목의 의미적 차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겠-'과 '-(으)ㄹ 것이다'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추측' 문법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5) 비버(Biber et al., 1999: 15-16)에서는 '대화(conversation)', '소설(function)', '신문(news)', '학술 산문(academic prose)' 네 가지 주요 언어사용역을 설정하여 영어의 문법적 자질의 사용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언어사용역은 언어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변이들이며 다양한 변이를 대표할 만큼의 충분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2. 교육 내용으로서의 변별 기준: 교육용 자료 분석

이 절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3.1.절에서 검토한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변별 기준 가운데 무엇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며 그것이 학습자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맥락화, 개인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66] 이를 위해서 Ⅰ장에서 문법 항목 추출을 위해 참고한 4종 한국어 교재와 3종 문법서(또는 사전) 외에 중국에서 개발한 2종 한국어 교재를 추가하며[67] '의미 정보', '통사 정보', '화용 정보'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명시적인 정보로서의 '문법 규칙'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칙의 실행을 보여 주는 암시적인 정보도 교육 내용이 되(김호정, 2010)기 때문에 문법 정보의 맥락화와 개인화를 위한 예문이나 모범 대화문, 그리고 연습 문제도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

3.2.1 통사 정보

한국어 교재는 보통 '기능/주제 중심 교수요목'으로 구성되며 주제마다 선정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조직된다.[68] 교재에서 개별 문법

---

66) 교재에 제시된 문법 정보는 그것이 학습자에게 이양되기까지 교사에 의한 2차적 변환을 거쳐야 해서 그러한 변환 양상이 바로 가르쳐진 내용의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는 교육 내용이므로 적극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학습자의 지식 체계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재가 갖는 권력으로 인해 이는 교사 주도의 2차 변환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박민신, 2019: 141). 한편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의한 1차적 변환의 결과로서 교수·학습을 위한 문법서나 사전에 제시된 문법 정보가 또한 2차 변환 과정에서 일종의 참조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교수학적 변환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된다.

67) 한국에서 개발한 교재는 문법 기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부록이나 문법 참고서와 같은 부교재가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보조적 자료도 함께 살핀다. 중국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유쌍옥(2016: 204)의 교재 사용 현황에 의해 중국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초·중·고급 교재가 모두 갖추어진 시리즈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北京大學出版社(2009-2015), 大學韓國語 1-6
F.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2009-2011), 基礎韓國語 1-4, 高級韓國語 1, 2

68) 한국의 교재에 비해 중국의 교재는 '문법(구조) 중심 교수요목'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한 문법 항목이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 동시에 제시하고 그중의 하나

항목을 중심으로 문법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지식의 정교화와 체계화를 위한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정보가 찾아지기 어렵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 통사 정보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를 위한 변별 정보에서는커녕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정보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 <표Ⅱ-15>는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개별 문법 항목의 주어 인칭[69] 정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Ⅱ-15> 한국어 교재: 주어 인칭에 대한 명시적 정보

출처	통사 정보
A	• -겠-: 1인칭 주어와 쓰인 'V-겠'의 경우 화자의 의도/의지를 나타냄.
C	• -겠-: 1인칭 주어에 쓰이지 않음. • -ㄹ 거예요: 2, 3인칭 주어에 쓰임. 1인칭에 쓰이면 의도/계획을 나타냄
D	• -겠-: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2, 3인칭으로 쓰임.
E	• -겠-: 2인칭-V/A-겠, 意向/推測(의문문, 형용사); 3인칭-V/A-겠, 推測(평서문)

교재에 제시된 주어 인칭 정보는 '-겠-'이나 '-(으)ㄹ 것이다'만에 집중된다. 이는 두 문법 항목이 '의지'로 쓰이기도 하며 의미에 따라 주어 인칭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재마다 제시된 정보에 차이가 난다. 교재 A와 교재 C에서는 1인칭 주어에 따라 '의지'와 '추측'의 의미가 명확히 갈려지듯 절대적인 규칙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데 비해, 교재 D에서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일종의 경향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교재 E에서는 주어 인칭과 더불어 선행용언과 문장 유형도 포괄하여 이에 따른 '-겠-'의 쓰임을 표로 제시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하였듯 '-겠-'과 '-(으)ㄹ 것이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1인칭 주어에 대한 추측에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단계가 올려감에 따라 일반적인 용법에서 보다 주변적인 용법으로 교육을 점차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가지는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교재에서는 2, 3인칭이나 '비', '영화' 등 비인간 주어가 쓰이는 예문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재 B에서는 연습 과제를 통해 '-(으)ㄴ가/

를 위주로 연습시키며 나선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문법이 배열된다(이미혜, 2005).

69) 이는 '명제 주어'이며 '상위 주어'에 대한 정보는 교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나 보다'가 1, 2, 3인칭 주어에 대한 추측에 모두 쓰일 수 있음을 학습자에게 보여 주며 주어 인칭에 따른 사용 맥락을 이해하고 익히게 한다.

교재에 제시된 명시적인 어미 후행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16>과 같다. 여기서는 선어말어미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의외성'을 판단하기 위한 통사적 기준으로 다루어진 종결어미 '-지', '-네', '-구나'의 후행 정보도 함께 살핀다.

<표Ⅱ-16> 한국어 교재: 어미 후행에 대한 명시적 정보

출처	명시적 정보
A	・-것 같네요: 깨달음을 나타낼 때 쓰임(3A-4: 비교 정보)
B	・-겠더라: 그때 당시의 어떤 추측을 나타냄(4-15: '-더라')
C	・-겠지요: 의미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4-1-6)
D	・-겠군요: 미래형이나 들은 말로 누군가의 상황이나 행동을 추측함을 나타낼 때 사용(2-1-5; '-(는)군요': '-네요'와 교체 가능) ・-(으)ㄴ가/나 보다: '보다'는 과거형 '봤다'로 쓰일 수 없으며 현재 시제만으로 사용. (3-2-9)

<표Ⅱ-16>에서 보이듯이 교재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교재마다 선정된 교육 내용도 다르다. 선어말어미의 후행은 교재 B와 교재 D에서만 해당 정보가 찾아질 수 있으며 전자는 중급 후반에서 문법 항목 '-더라'를 다룰 때 '-겠더라'의 결합을 제시하며, 후자는 '-(으)ㄴ가/나 보다'의 통사 정보로서 '-었-'과의 결합 제약을 제시한다. 그런데 명시적 정보에 비해 '진행하지 못하나 보더라고요.', '아는 문제도 틀린 것 같았어요.', '몸이 안 좋은 듯했습니다.' 등과 같이 입력에 의한 암시적 정보가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종결어미 후행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교재 C에서 '-겠지요'를 개별 문법 항목으로 중급에서 제시하는 것과 교재 A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와 '-네요'의 결합 정보를 '-(으)ㄴ가/나 보다'와의 비교 정보에서 제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교재 C에 제시된 관련 예문은 모두 '-을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겠지요'가 쓰이는 것으로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 것이다'에 대한 초급에서의 제시와 동일하다. 이는 초급에서 배운 '어떤 정보를 듣거나 관찰한 후' 추측함을 나타내는 '-겠-'의 쓰임을 중급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와 비슷한 쓰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의적 설명 없이 예문만으로

‘-겠지요’를 보여 주는 것은 학습자가 세 문법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서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가 ‘-겠-’과 같이 ‘-지요’와 결합할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재 A에서의 제시는 마치 ‘-네요’와의 결합을 ‘-(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 것 같다’의 차이로 부각하여 학습자에게 ‘-(으)ㄴ가/나 보다’가 ‘-네’와 결합 불가하다고 잘못 전달한다.

이론적 연구에서 통사적 변별 기준으로 논의되던 문장 유형, 어휘나 표현의 공기, ‘-(으)면’ 선행절의 제약은 ‘-(으)ㄹ 것이다’가 ‘아마’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교재 A와 교재 B에서의 명시적 정보를 제외하면 모든 교재에서 입력 정보를 통해 암시적으로만 전달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교재에서는 초급에서 ‘-(으)면’, 중급에서 ‘-다면/라면’, ‘-었다면’, ‘-었더라면’ 등을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예문으로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특히 ‘-(으)ㄹ 것이다’가 후행절에 쓰이는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재 C에서는 <보기> ‘늦게 일어나서 기차를 타지 못했다. → 일찍 일어났다면 기차를 탔을 거예요.’와 같이 ‘-아서’가 이끄는 선행절에 표현된 원인 사태가 후행절에 표현된 결과 사태를 가져왔음을 나타내는 문장을 ‘~ -었다면 ~ -었을 거예요.’의 형태로 바꿔 쓰는 특정 연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두 문법 항목이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 패턴의 사용에 대한 자동화를 도모하는 동시 초급에서 학습한 ‘-(으)ㄹ 것이다’가 원인적 결과에 따른 결과의 추측에 쓰인다는 의미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서 G에서 아래 예문과 같이 1인칭 표현과의 공기 여부를 통해 비교 항목이 근거의 주·객관성에서 가지는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눈에 띈다.

-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나 봐요.(×)/하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제시는 다차원적 차이의 연결을 통해 단순한 형태 제시를 넘어 비교 항목의 통사적 차이의 원인으로 의미적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2.2. 의미 정보

교육용 자료를 살핀 결과, 의미 정보가 통사 정보에 비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문법 정보뿐만 아니라 비교 항목에 대한 변별 정보도 의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교재에서는 변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때 유사 문법 항목 간 의미적 차이가 개별 항목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 절에서는 개별 문법 항목과 유사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3.2.2.1. 개별 '추측' 문법 항목

다음 <표Ⅱ-17>은 교재에 제시된 개별 문법 항목의 명시적 의미 정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Ⅱ-17> 한국어 교재: 개별 '추측' 문법 항목에 대한 명시적 의미 정보

항목	A	B	C
-겠-	• **말하는 당시의 상황/상태를 보고** 추측함(2A)	•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함(2)	• **어떤 정보를 듣거나 관찰을 통해** 추측함(2-1)
-(으)ㄹ 갓이다	•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2A)	• 화자의 추측(1)	• 화자의 추측(2-1); • -었을 것이다: 일어난 일에 대한 추측(3-1)
-(으)ㄹ/ㄴ/는 것 같다	•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추측함[현재: A-(으)ㄴ/V-는/N-인 것 같다; 과거: V-(으)ㄴ 것 같다] • A/V-(으)ㄹ 것 같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2A)	• -(으)ㄹ 것 같다: 현재/미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2) • -는/(으)ㄴ 것 같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추측**(2)	• -ㄹ/을 것 같다: 추측(1-2) • -은/는 것 같다: 추측(1-2) • -었던 것 같다(4-1)
-(으)ㄴ가/나 보다	• **어떤 사물/상황을 보고** 동작, 상태를 짐작함(3A)	• 어떤 **상황을 목격하여** 추측함(3)	• 화자가 **본 것으로부터** 추측함(3-1) • -려나 보다(4-2)
-(으)ㄹ/ㄴ/는 모양이다	• **주변 상황/분위기 등을 보고** 추측함(3B)	-	• 화자가 **보거나 들은 것에 근거**하여 추측함(3-2)
-(으)ㄹ/	• 어떤 사실/상황에 대해	• 선행하는 사건이나 조	•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ㄴ/는 듯하다	추측함(4A)	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4)	**개입**된 짐작/추측(5-2)
항목	D	E	F
-겠-	• **당시의 어떤 상황/상태**를 근거로 추측함(1-2)	• 將來，或說話者的意志，或對某一事情的推測(1)	-[70]
-(으)ㄹ 잣이다	• 미래에 일어날 사건/행위, 문장 주어의 의지(1-2)	• 与“겠”基本相同，說話者的意志、意向或對某件事的推測(1)	• 陳述句里表示話者的意志。還可以表示推測(1)
-(으)ㄹ/ㄴ/는 것 같다	• **여러 상황을 통해** 행위/상황을 추측함(2-1) • -는 것 같다: **확고한 근거**에 따른 생각(2-1) • -(으)ㄹ 것 같다: (현재 시제) **불확실한 근거**에 따라 **자신 없이** 추측함(2-1)	• -(으)ㄹ 것 같다: 推測，“也許、可能、好像要...似的，大概”(1) • -았던 것 같다: “過去好像...”(3) • -는/(으)ㄴ/(으)ㄹ/던 것 같다: 說話人的推測或不确定，“好像、恰似”(4)	• ‘-ㄴ/은/는/ㄹ 것 같다’: 表示推測(1)
-(으)ㄴ가/나 보다	•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추측함(3-2)	• **有依据的推測**，“看起來好像...”(2)	• 推測、估計、料想(4) • -려나 보다(5)
-(으)ㄹ/ㄴ/는 모양이다	• **주변 상황/분위기를 근거로** 추측함(2-2)	• 對某种情况的猜測，“看樣子好像...”(3)	-
-(으)ㄹ/ㄴ/는 듯하다	-	• 선행하는 동작/상태일 것 같다는 뜻의 추측(4)	• 推測或感覺，“似乎、好像、也許、可能”等(2)

교재에서 개별 항목에 대한 명시적 의미 정보를 제시하는 데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법 항목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보다 짧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두르러진다. 이는 교육문법의 ‘단순성’ 원칙에 부합하지만 ‘불확실한 근거’, ‘주관적인 판단’ 등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의 쓰임이 정보 전달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71] 둘째, 학습자의 목표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 교재는 학습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의미를 기술하는 반면, 중국 교재는 의미에 대한 설명적 내용 없이 문법 항목의 의미와 대응할

70) 교재 F에서는 ‘-겠-’을 ‘상대방 의도 묻기’, ‘상태’, ‘미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추측’에 대한 기술이 부재한다.

71) 스완(Swan, 1994)에서는 교육문법을 기술하는 여섯 가지 원칙으로 진실성(truth), 한계성(demarcation), 명확성(clarity), 단순성(simplicity), 개념적 친숙성(conceptual parsimony), 관련성(relevance)을 제시하였다.

수 있는 중국어 번역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한다.[72] 이는 모국어를 통해 목표어에 대한 학습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推測(추측)'이라는 단일 어휘나 '也許', '可能', '好像' 등 '아마'의 뜻을 나타내는 일련의 어휘가 제시되기만 함으로써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이 어떠한 추측 상황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셋째, 교재에서는 추측 근거, 주관성, 확실성의 면에서 개별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근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화자가 보거나 듣거나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함에 쓰인다고 알 수 있다. 반면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의 근거 속성에 대한 제시가 부재하는데 이들 문법 항목이 근거가 요구되지 않거나 근거에 제한되지 않는 추측에 쓰이는 인상이 전달된다. 그리고 '-겠-'은 근거의 현장성이라는 특성이 교재 A, B, D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확실성은 '-(으)ㄹ/ㄴ/는 것 같다'(B, D)와 '-겠-'(F)에 대한 정보에서, 주관성은 '-(으)ㄹ/ㄴ/는 것 같다'(B)와 '-(으)ㄹ/ㄴ/는 듯하다'(C)에 대한 정보에서만 엿보일 수 있다. 넷째, 대부분 교재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를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나누어 개별 제시하는데 이를 의미적으로 구별하여 기술하는 교재(A, B, D)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재(C)도 있다. 전자는 각각 '말하는 사람의 추측 :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주관적인 추측 : 불확실한 추측', '불확실한 근거에 따른 추측 : 확고한 근거에 따른 추측' 등과 같이 의미 차이를 나름 설명하는데 그러한 설명은 역시 큰 모호성을 지닌다.

이처럼 명시적 의미 정보를 통해 '추측' 문법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추측을 표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들 문법 항목의 구체적인 의미적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어서 학습자의 이해와 사용을 돕기 위해 교재에 제시된 예문과 연습 문제를 보겠다. '-겠-'에 대해서 한국 교재는 추측 근거의 현장성을 아래와 같이 예문을 통해 보여 주는 데 일치한다. 특히 교재 B에서는 문장 형식의 예문에 대해 사용 맥락에 관한 정보를 괄호에 덧붙여 '현재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강화해 준다. 또한 교재 A와 D에서는 그림을 사

72) 한국 교재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고려해서 보통 초급 교재가 학습자의 모국어로 구성되며 모국어로 문법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용하여 담화 맥락을 가시화하고 있다.

・하늘이 어두워요. 곧 비가 오겠어요./이 삼계탕이 맛있겠어요./와, 맛있겠어요.
(see the food being served just now)
・가: 우리 집 근처에 바다가 있어요. 나: 맛있는 생선을 많이 먹겠네요.

한편 이들 교재에서는 모두 연습 부분에서 친구 간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주어진 <보기>와 필요한 내용을 사용하여 교체 연습을 하거나 대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화자가 상대방이 말한 자신의 상황을 듣고 상대방에 대해 추측할 때 '-겠-'이 쓰이는 방법적 지식을 익히게 한다. 이와 달리 중국 교재에서는 '-겠-'의 추측 의미가 중요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맥락화와 개인화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재 E에서는 '-겠-'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동시에 제시하고 '추측'에 관한 예문과 연습은 극히 적은 편이다. 교재 F에서는 '추측'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없지만 '미래'를 다룰 때는 '바람이 불다/춥다→바람이 불어서 춥겠어요.'와 같이 문장 만들기의 연습으로 '추측'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겠-'이 '-어서'로 표현되는 원인적 근거에서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의 추측에 쓰인다는 추측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다. 그러나 명시적 정보와 암시적 정보의 불일치는 학습자가 혼란에 빠지거나 '추측'을 '미래'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교재에서는 '-(으)ㄹ 것이다'와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으)ㄹ 것 같다'를 유사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교재에서는 '-(으)ㄹ 것 같다'가 '-(으)ㄹ 것이다'와 같이 단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술된다. 한국 교재에서는 예문과 연습을 통해 두 문법 항목이 '추측'을 나타내는 '-ㄹ까요?'의 대답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공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73] 이들 교재는 '-ㄹ까요'를 선행 항목으로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 중의 하나를 같은 과에서 배치하며 다른 항목은 이들과 다른 단계나 단원에서 제시한다.[74] 교재 A에서는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에 관한 예

73) 이에 대해서 교재 A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74) 한국에서 개발한 4종의 교재에서의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A	B	C	D
-(으)ㄹ까요?	-(으)ㄹ 것이다(1-11)	-을 것 같다(1-2-1)	-(으)ㄹ 거예요(1-2-9)

문으로 '-ㄹ까요?' 질문과 두 문법 항목이 쓰이는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많이 제시한다. 교재 B, C, D에서는 '-ㄹ까요'를 다룰 때 '-ㄹ까요?' 질문과 기 학습한 '추측' 문법 항목이 쓰이는 대답으로 구성된 대화를 제시하며, 후행 항목으로 배우는 다른 '추측' 문법 항목을 다룰 때는 똑같은 패턴의 예문을 제시한다. 또한 두 문법 항목이 쓰이는 대답은 주로 '눈이 올 것 같아요.'와 같이 바로 '추측'을 나타내거나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와 같이 '-아서'나 '-(으)니까'의 후행절에 쓰여 결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주 쓰이는 두 문법 항목이 '-겠-'처럼 추측 근거가 발화시 상대방의 선행발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으)ㄹ 것 같다'에 대해 교재 C에서는 화·청자가 날씨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교체 연습이 설계되는데, <보기>('가: 날씨가 흐리군요. 나: 네, 비가 올 것 같아요.')를 통해서 '-(으)ㄹ 것 같다'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근거로 추측하는 데 쓰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사 문법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항목들이 공유하는 맥락이 나타나 개별 항목에 대한 교육만으로 개별 항목의 특성이 오히려 모호해지며 항목 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교재 B에서는 '주관적인 추측'이라고 '-(으)ㄹ 것 같다'의 의미를 기술하며 '제 생각에는'이 쓰이는 예문 하나만 제시함으로써 1인칭 표현과의 공기로 '주관적'이라는 개념을 맥락화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습자가 이러한 형태에 주목하고 의미와 관계지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대부분 교재에서 유사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교재 F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들은 추측 근거의 측면에서 두 항목의 의미 특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어떤 상황을 보고 추측함이라는 특성은, 대부분 교재에서 '영화가 끝났나 봐요. 사람들이 극장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와 같이 근거로서 화자가 본 상황이 추측 발화의 선·후행 발화에 나타나거나 '호명 씨 표정이 밝은 걸 보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와 같이 '-(으)ㄴ/는 걸 보니'가 이끄는 선행절에 근거가 나타나

-(으)ㄹ 거예요(2A-5)	-(으)ㄹ까요	-을까요?/ㄹ까요?	-(으)ㄹ까요
-(으)ㄹ 것 같다(2A-7)	-(으)ㄹ 것 같다(2-3)	-을 거예요(2-1-6)	-(으)ㄹ 것 같다(2-1-7)

는 두 유형의 예문에 의해 부각된다. 심지어 교재 C와 교재 E에서는 '-(으)ㄴ/는 걸 보니(까)'를 개별 항목으로 설정하고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 사이에 배치하며 관련 예문은 모두 기 교육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 것 같다'가 후행절에 쓰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 문법 항목이 해당 맥락에서 서로 교체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된다. 한편 교재 A와 교재 C에서는 그림을 보고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연습으로 학습자에게 이러한 근거의 특성을 익히게 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교재 D와 교재 E에서는 명시적 정보부터 추측 근거의 존재를 강조하고 근거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는 듯하다. 관련 예문은 대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추측 근거가 화자가 직접 본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것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재 E에서는 '왜'가 쓰여 어떤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과 원인에 대한 추측이 요구되는 대답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예문 또는 대화 완성하기의 연습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추측 방법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심어 준다. 언급할 만한 것은 두 교재는 문법 정보를 학습자에게 점차적으로 제공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교재 D의 경우는, 주교재에서 그림과 질문으로 구성된 도입과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이 직접적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데 사용됨을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한 뒤, 부교재에서 자세한 문법 설명과 대량의 대화 예문을 통해 목표 항목이 타인을 통해 얻은 간접적 정보를 근거로 하는 추측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사용 맥락을 확장하여 정보를 보충해 준다.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으)ㄴ/는 것 같다'가 대부분 교재에서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와 유사한 것으로 제시된다. 앞서 살펴본 세 항목이 모두 '-(으)ㄴ/는 걸 보니(까)'의 후행절에 쓰일 수 있는 것 외에, 교재 A, D에서는 세 문법 항목에 대해서 그림을 보고 추측하도록 하는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통해 이들 항목이 공유하는 사용 맥락을 보여 준다. 이뿐만 아니라 교재 F에서는 <보기>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집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와 같이 '-(으)ㄴ/는 것 같다'를 '-(으)ㄴ가/나 보다'로 대체하여 문장을 고쳐 쓰도록 하는 연습이 설계되고 있다. 이들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습이 학습자가 새로 배운 문법 항목을 자신의 중간언어 체계와 제대로 통합하는 구조화 과정을 추진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초급부터 '-(으)ㄴ/는 것 같다'를 숙지해 온 학습자가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 한편 교재 C에서는 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맥에 드러나지 않는 단문 예문('동생이 아픈 것 같아요.')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개별 항목부터 '-(으)ㄴ/는 것 같다'를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와 구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곧 다루겠지만 교재 A, B에서는 '추측'과 더불어 '완곡'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으)ㄴ/는 것 같다'의 특성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듯하다'에 대해서 살펴본다. 교재 A, B, E에서는 앞서 <표Ⅱ-17>에서 보이듯 비슷한 의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실 또는 선행하는 상황, 사건에 대한 추측이라는 정보 기술을 통해 '-(으)ㄹ/ㄴ/는 듯하다'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교재에 제시된 예문을 보면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ㄴ/는 것 같다'와 같이 '-(으)ㄴ/는 걸 보니(까)'의 후행절에 '-(으)ㄹ/ㄴ/는 듯하다'가 쓰이는 예문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교재 C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추측'이라고 주관성의 측면에서 의미 특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 전통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일본에 와 있는 듯해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추측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대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예문과 이러한 사용 맥락에 관한 연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그 의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실은 '-(으)ㄹ/ㄴ/는 듯하다'의 이러한 쓰임은 교재 B와 E에서 제한된 한둘 예문에서도 포착될 수 있다. 특히 교재 E에서는 '-(으)ㄹ/ㄴ/는 듯하다'를 '비유'와 '추측'으로 나누며 '비유'의 의미를 초급에서 먼저 제시한다. 그런데 '추측'과 '비유'의 뚜렷한 구분이 어려우며, '천동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 곧 폭우가 내릴 듯하다.'와 같이 '추측'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문이 '비유'에 관한 것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으)ㄹ/ㄴ/는 듯하다'가 '비유'로 쓰이는 용법에 대해 교재 E에서는 '-(으)ㄹ 것 같다'가 쓰인 문장을 '-(으)ㄹ/ㄴ/는 듯하다'로 바꿔 쓰는 연습이 제공됨으로써 두 문법 항목이 동일한 용법을 가지는 것은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은 '주말이라서 차가 막힐 것 같군요.'와 같이 추측으로 해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교재 A에서는 '그림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보세요.'와 같은

연습 문제의 설명과 연습을 통해 '-(으)ㄹ/ㄴ/는 듯하다'가 관찰된 행동을 바탕으로 그 행동의 발생 원인을 추측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추측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주목될 만하다.

3.2.2.2.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다음 <표Ⅱ-18>은 교육용 자료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해 선정된 비교 항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Ⅱ-18> 교육용 자료: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목록

출처	비교 항목					
A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B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D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는 것 같다		
F		-(으)ㄹ/ㄴ/는 것 같다 -ㄹ 거예요				
G	-을 것2- -겠-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을 모양이다 -을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H	-ㄹ 거예요 -겠어요			-는 모양이다 -는 것 같다		
I	-겠- -ㄹ 것이-		-(으)ㄴ가/나 보다 -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비교 항목의 선정에 나타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료마다 선정된 비교 항목에 차이가 있는 동시 교재에서 비슷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

ㄹ/ㄴ/는 것 같다' 중의 두 개나 이 세 항목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한 교재에서의 비교는 모두 중급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세 문법서가 '-겠-'과 '-(으)ㄹ 것이다'를 비교 항목으로 선정하는 데 공통적이며 교재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초급에서 학습되는 두 문법 항목에 대한 비교가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제한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교재 F는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를 비교 항목으로 선정하여 변별하는 유일한 교재로서 눈에 띈다. 이는 F가 중국어로 편집된 교재로서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으로 자료에 제시된 의미적 변별 정보를 보겠다. 우선 '-겠-'과 '-(으)ㄹ 것이다'에 대해 문법서에 제시된 명시적 변별 정보는 다음 <표Ⅱ-19>와 같다.

<표Ⅱ-19> 한국어 문법서: '-겠- : -(으)ㄹ 것이다'의 변별 정보

출처	-겠-	-(으)ㄹ 것이다
G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씀.	주로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씀.
H	현재 상황과 관련됨.	현장성이 약함.
I	추측을 나타낼 때 상대방도 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	추측을 나타낼 때 상대방이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

<표Ⅱ-19>에서 보이듯이 문법서는 각각 추측 근거의 주·객관성, 현장성,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 항목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자료 집필진이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다양한 변별 기준 가운데 타당하다고 나름 생각한 기준을 선택하는 결과인데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는 교사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한편, 의미적 차이를 맥락화하기 위해 이들 문법서에서는 비교 항목의 교체에 따라 동일한 문장이 쓰일 때 그 맥락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동일한 맥락에 비교 항목이 쓰이는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명제로 기술된 의미적 차이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 아래와 같이 문법서 G에서의 설명을 보자.

· 오후에 비가 오겠다. →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을 보거나 갑자기 허리가 아

파 오는 것을 느끼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 오후에 비가 올 거야. → 객관적 정보인 일기예보를 아침에 듣고 나와서 하는 말.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제삼자가 제공해 준 일기예보가 객관적이며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이 주관적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세계의 현상으로서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이 왜 주관적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가 쉽다. 이외에 '일반적인 사례'란 무엇인가,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곧 비가 올 것이다'라는 상식이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어서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에 대해 교재 F에서 제시된 변별 정보를 보자. 이 교재에서는 전자가 '과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에 근거하는 추측'에 쓰이는 반면 후자가 '현장의 직감적 경험(直覺經驗)에 근거하는 추측'에 쓰인다는 것과 같이 추측 근거의 면에서 비교 항목을 변별한다. 그러나 관련 예문은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거예요.' 등과 같이 고립된 문장으로 구성되며 비교 항목이 교체되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만큼 근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현장의 직감적 경험'과 '과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이라는 추측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따라 비교 항목의 사용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비교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또한 부재한다.

다음 <표Ⅱ-20>은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 '-(으)ㄴ/는 것 같다'에 대해 교육용 자료에 제시된 변별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20> 교육용 자료:
'-(으)ㄴ가/나 보다 : -(으)ㄴ/는 모양이다 : -(으)ㄴ/는 것 같다'의 변별 정보

출처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	-(으)ㄴ/는 것 같다
A	간접 경험만으로 짐작할 때 사용.		간/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짐작할 때 모두 사용.
	간접 경험만으로 짐작할 때 씀.		
B	화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나타낼 때 쓰지 않음.		화자가 경험한 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
D	간접 경험하거나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만 사용.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느낌, 생각을 말할 때 사용.

		주변 상황에 근거하여 대략 추측할 때 사용.	화자의 경험을 자신감 없이 말할 때 사용.
G	간접 경험, 단서를 가지고 추정할 때만 사용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확신 없이 이야기할 때도 사용
		주변 상황, 분위기 등을 보고 그것을 통해 짐작할 때 씀.	
	객관적인 사실, 정보 등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사용.		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지식에 근거하여 추측할 때 사용.
H		화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추측함.	화자의 주관적 추측이 개입되어 있음.
I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측할 때 사용		자신이 직접 경함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거나 우회적으로 말할 때 사용.

변별 정보를 언뜻 보면 이들 자료에서 추측 근거의 직·간접성과 주·객관성을 기준으로 비교 항목을 변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료 B와 I에서는 추측하는 내용이 되는 사태나 사건이 화자가 경험한 것인지, 즉 명제 내용의 특성을 변별 기준으로 한다. 문법서 G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 주관적인 경험'과 같이 근거의 주·객관성에 의해 구분하는 반면 문법서 H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변별이 아닌 '객관적 사실 : 주관적 추측 개입'과 같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개별 항목의 의미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자료 A, D, G에서 추측 근거와 명제 내용의 측면에서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와 '-(으)ㄴ/는 것 같다'의 의미 특성을 기술하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변별 정보를 통해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세 문법 항목의 의미적 차이에 비해 오히려 '-(으)ㄹ/ㄴ/는 것 같다'가 '완곡'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두 문법 항목과 구별되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 A, G, I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의 사용 맥락이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그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들 문법 항목을 비교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학습자가 '-(으)ㄹ/ㄴ/는 것 같다'만 사용하면 된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들 자료에서는 전술한 두 가지 방식으로 변별 기준을 맥락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교재에서의 맥락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과 같이 교재 A와 D에서 제시된 예문을 보자.

- (신발만 보고) 발이 큰가 봐요./큰 모양이에요./큰 것 같아요.
  (발만 보고) 발이 큰가 봐요.(×)/큰 모양이에요.(×)/큰 것 같아요.(○)
- 어제 프랑크가 본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모양이에요.(○)
  어제 제가 본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모양이에요.(×)

괄호에 제시된 맥락을 보면 신발을 보든지 발을 보든지 모두 화자가 직접 보는 것으로 각각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75] 교재 D에서 제시된 둘째의 예문으로 '화자의 경험을 말하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첫째의 예문을 통해 단지 '영화'를 본 사람이 '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 유의적 설명이 결여되어 화자가 어떠한 '주변 상황'에 근거하여 추측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표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문법서에서 '주·객관'의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재에서는 모두 '직·간접'의 관점에서 비교 항목을 변별한다. 이는 교재에서 '주·객관'의 개념적 추상성으로 인한 난해를 피하려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 항목의 변별 정보가 교재에서 개별 문법 항목의 문정 정보의 일부로만 제시되며 학습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화를 위한 연습이나 과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3.2.3. 화용 정보

다음 <표Ⅱ-21>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화용적 기능에 대해 교재에서 제시된 명시적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21> 한국어 교재: 화용적 기능의 명시적 정보

항목	A	B	C
-겠-	• **공감** 표현하기 (2A-8: 학습 목표)	• -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 **의견/제안**을 나타냄.(2-8) • **기분/감정을 말하기**	•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안**할 수 있다. (3-1-7)

75) Ⅳ장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분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가 있다.

		(2-9: 학습 목표)	
-(으)ㄹ 것이다	• 생각을 **완곡**하게 말할 때 사용.(2A-5)	• 상대방 **격려/위로하기** (2-9: 학습 목표)	• 상황에 맞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4-1-6)
-(으)ㄹ/ㄴ/는 것 같다	• 생각/의견을 **완곡**하게/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2A-4) • 생각/의견을 **겸손**하게 말할 때도 많이 사용.(2A-7)	• 자신의 감정을 더 **완곡**하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2-4)	•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 관람을 **제안**할 수 있다.(3-1-7)
항목	D		E
-겠-	• **요구**하기(3-1-1) • **부탁**하기(3-1-4) • **조언**하기(4-10)		-
-(으)ㄹ 것이다	• **격려**하기(2-2-15) • **안심시키기**(3-1-4) • **용기 주기**(3-2-15)		• 語气比'-겠-'溫和一些。(**부드러운 말투**)(1-13)
-(으)ㄹ/ㄴ/는 것 같다	• **완곡**하게 말하기(3-1-2) • **추천**하기(3-1-3) • **부탁**하기(3-1-4) • **단점 말하기**(3-1-5) • **좋은 점 말하기**(3-1-6) • **거절**하기(3-2-13)		-

정보 제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교재에서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의 기능에만 시선이 모아지고 선행연구에서 다루던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기능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부재한다. 둘째, 정보의 구성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교재 A, B, E에서는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초급에서 목표 문법 항목의 기능 정보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반면 교재 C와 교재 D에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나타내는 선수 학습된 문법 항목이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중급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 기능 중심의 내용 구성은 문법의 일회적 학습을 피하고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기학습된 문법 항목의 의미부터 다양한 기능으로의 확장 양상에 대한 나선형 학습[76]이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보의 제시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교재 C와 교재 D에서는 '제안', '격려' 등 구체적인 화행으로 기능 정보를 제시하는 데 비해 교재 A와 교재 B에서는 '-겠-'의 '공감' 기능이나 '-(으)ㄹ 것이다'의 '위로' 기능을 제외하여 '완곡'을 '추측'과 함께 의미 정보에서 다루며 담화 상황에 따라 '완곡'에 의한 의사소통 목적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중

76) 나선형 학습이란 하나의 문법 항목이 여러 단원에서 단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학습자는 여러 단원에 걸친 학습을 통해서 이 문법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뜻한다(김재욱, 2009).

‘-(으)ㄹ 것이다’가 ‘완곡’으로 쓰일 수 있다는 교재 A의 제시가 ‘단언 기능’이라는 선행연구의 견해와 반대되는데, 이 교재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완곡’으로 쓰이는 담화 상황과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명시적·암시적 정보가 부재한다. 넷째, ‘추측’ 문법 항목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형태가 개별 항목으로 설정되지만 형태의 의미만 명시되는 것은 대부분이다. 예컨대, 교재 E에서 ‘-(으)면 좋을 것 같다’ 등을 개별 항목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직역되는 중국어를 의미 정보로 제시하기만 하며, 대부분 교재에서 관용표현 ‘-(으)면 좋겠다’를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와 달리 교재 D에서는 이들 관용표현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는 것을 예시 발화로 보여 준다.

한편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 교재에서는 입력 정보를 통해 기능 정보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교재 A에서는 ‘먹을 음식을 한 가지만 가져오면 좋겠어요. 고향 음식을 만들어 오면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은 읽기 내용을 통해 ‘희망’의 의미로 배웠던 ‘-(으)면 좋겠다’와 목표 문법 ‘-(으)ㄹ 것 같다’가 ‘요청’ 기능으로 쓰이는 것을 보여 주며, 교재 E에서는 모범 대화문을 통해 초급에서 배웠던 ‘-겠-’과 ‘-(으)ㄹ 것이다’가 각각 ‘수술 받느라 힘들었겠어요.’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더 편할 거야.’와 같이 ‘공감’과 ‘위로’의 기능으로 쓰이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하여 언어사용역에 관한 명시적 정보가 교재에서 찾아지기 어렵다. 그러한 정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Ⅱ-22>와 같다.

<표Ⅱ-22> 한국어 교재: 언어사용역에 대한 명시적 정보

출처	언어사용역 정보
A	•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공식적인 상황이나 글**에 더 적절함. ‘-(으)ㄴ가/나’보다는 좀 더 비공식적인 의미가 있어서 **말할 때** 더 적절함. (3B-12, 비교 정보) • -(으)ㄹ/ㄴ/는 듯하다: ‘-는 것 같다’의 **문어적인 표현**.(4A-9)
E	• -(으)ㄹ 것이다: 多用于口語。(**구어**에 많이 쓰임.)(1-13)

주목될 만한 것은 <표Ⅱ-22>에서와 같이 A에서 언어사용역 분포를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으로 비교 정보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 항목의 변별을 위한 교육 내용을 의미적 변별에 국한하는 다른 교재들과 대조된다. 한편 언어사용역에 관한 암시적 정보는 교재에 제시된 예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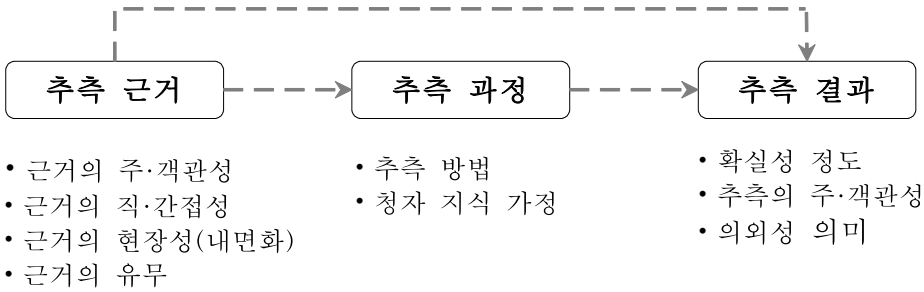
나 대화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교재 A에서는 '-(으)ㄹ/ㄴ/는 듯하다'에 대해 제시된 예문이 모두 이 문법 항목이 문어에 쓰이는 종결어미 '-다', '-(으)ㅁ' 등을 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언어사용역 정보를 전달하고 익히게 한다.

3.3. 소결론

지금까지 '추측' 문법 항목들의 변별을 위해 이론적 연구에서 설정되어 온 다양한 기준과 변별 결과를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가 교육 내용으로서 교육용 자료에서 선정·구성·제시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이론적 연구가 풍성하게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당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지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추측' 유사 문법 항목 사이의 다차원적인 변별점은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이에 대한 총체적인 안내도가 그려지지 못하였다. 둘째, 이들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적 변별 기준을 모색하며 통사적 특성을 그 하위기준으로 활발히 논의하는 데 비해 화용적 변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셋째, 연구마다 설정된 변별 기준이 다르며 동일한 기준으로도 서로 상이하거나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 이는 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분석이 주관적 연구 방법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고 본다. 특히, 주관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연구자의 개념적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언어 현상으로 명시화되지 못하였다. 통사적 변별 결과의 불일치도 역시 이와 같은 원인이다. 문법은 '사용-기반(usage-based)'이므로 실제 사용 사건에 기반한 '아래에서 위로' 접근해야 한다(임지룡, 1998).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추측' 문법 항목들이 변별 기준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여 이들 항목이 해당 변별 기준에서 상보적인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언어의 분질이 간과되었다. 결국 문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더 뚜렷한' 또는 '덜 뚜렷한' 경향이다(Kettemann, 1999: 106). 다섯째, '추측' 문법 항목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하나의 변별 기준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인식행위로서의 '추

측'이 언어화될 때 추측의 근거, 방법, 화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그 의미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얽혀 있으며 그간의 구체적인 상효작용 양상이 명확히 밝혀지기가 어렵다. 앞서 검토한 의미적 변별 기준은 '추측 근거', '추측 과정', '추측 결과'의 추측 행위의 구성소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Ⅱ-4>와 같다.



<그림Ⅱ-4> 추측 행위 구성소에 따른 의미적 변별 기준의 분류와 그 관계

이론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추측' 문법 항목의 교육 내용은 각 한국어 교육 기관 주도 교육 과정의 자체적인 설계로 인해 그것의 선정, 구성, 제시에 상이함을 많이 보이는 것은 의외가 아니다.

그러한 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이론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재에서도 유사 항목은 물론이고 개별 항목의 교육 내용도 의미 정보를 위주로 구안되고 통사·화용 정보가 주목받지 못한다. 둘째, 비교 항목 중심의 명시적 변별 정보가 교재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바람에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이 개별 항목 교육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문법 항목이 누적되면서 개별 항목 교육으로 항목 간 차이가 모호해지고 유사성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셋째, 중급에서 학습하는 목표 항목 '-(으)ㄴ가/나 보다'나 '-(으)ㄴ/는 모양이다'와 초급에서 학습하는 '-(으)ㄴ/는 것 같다'는 비교 항목으로서 대부분 교재에서 그 변별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초급에서 학습하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한 교재에서만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 문법서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가 비교 항목으로 선정되는 만큼 그 변별이 교재에서 도외시된다. 넷째,

교재에서는 추측 근거가 개별 항목의 의미적 특성과 비교 항목의 의미적 변별 기준으로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이론적 연구 성과가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화되지 못하는 반면 문법서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연구 성과가 두루 수용되어 교육 내용의 불일치가 두드러진다. 다섯째, 개별 문법 항목의 특성이나 사용을 보여 주는 암시적 정보가 많이 구성되기도 하지만 명시적 설명이나 특정 형태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형태와 의미를 제대로 결합하는 것을 도모하기 어렵다. 여섯째, 개별 문법 항목의 의미 정보나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 정보가 제한적이며 고정된 패턴을 갖추는 예문만으로 맥락화되는데 이에 의한 학습자의 온전한 이해가 역시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일곱째, 연습이나 과제는 목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단원에서 설계되며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그것이 부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목표 문법 항목의 사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연습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은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효율적인 교육 내용의 구안을 위해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기존 변별 결과의 검증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 심층적인 고찰을 통한 학습자 변별 양상의 파악이 그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Ⅲ. 말뭉치 기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점의 체계화

1. 분석 기준

1.1. 통사적 분석 기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통사적 분석 기준은 Ⅱ장에서 선행 연구에서 거론되던 통사적 변별 기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 <표Ⅲ-1>과 같이 마련한다. 이는 각 '추측' 문법 항목이 문장 내에서 갖는 제약과 이와 공기하는 어휘나 표현의 두 가지 하위 요소를 포함한다.

먼저, 제약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주어 인칭 제약, 선어말어미 후행 제약, 문장 유형 제약, 그리고 '-(으)면' 선행절 제약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고찰한다. 그중 주어 인칭 제약에는 명제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명제 주어 인칭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심리술어[77]로 쓰이는 제약이 포함된다. 문장 유형 제약의 경우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해 줄 가능성이 있으면서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판단을 보이는 의문문과 감탄문의 사용 제약에 초점을 맞춘다. 의문문의 사용 제약은 형식·의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반의문문과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지만 의미적인 조건에서 벗어나는 수사의문문으로(박영순, 1994: 105-107) 나누어 분석한다.[78]

---

77) 심리술어란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인 문장의 서술어이며 주관 용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유현경, 2000). 심리술어에는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심리형용사'('싫다', '슬프다' 등), 경험주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에 느끼는 감각 상태를 서술하는 '감각형용사'('아프다', '춥다' 등), 경험주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서술하는 심리자동사('겁나다', '신나다' 등)와 감각자동사('쑤시다', '보이다' 등), 그리고 명제에 대한 경험주의 판단을 나타내는 '판단형용사'('좋다', '괜찮다' 등)가 있다. 심리술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동(1989), 김홍수(1993), 유현경(1998, 2000), 한송화(2000) 등을 참고할 것.

78) 박영순(1994: 105-107)에서는 의문문의 성립 조건을 형식적인 면과 의미론적인 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런데 ‘-구나’, ‘-네’로 종결되는 문장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사용 제약을 감탄문이라는 문장 유형 제약으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박재연(2013: 87)에 따라 ‘-구나’와 ‘-네’는 청자에 대한 전달 기능과, 아래 (17)에서와 같이 유사의문문에 쓰여 화자의 앎을 표현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의 어미라고 할 수 없다.

(17) 가. 너 피곤하구나?
나. 영희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네? (박재연, 2013: 87, 각주 11)

이에 비해 ‘-구나’와 ‘-네’를 ‘증거성’이나 ‘의외성’ 또는 ‘새로 앎’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그러한 종결어미들과의 결합 제약을 문장 유형이 아닌 ‘종결어미 후행 제약’에 포함시킨다. 이와 더불어 ‘이미 앎’의 의미 속성을 가지는 종결어미 ‘-지’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후행하는 제약을 또한 ‘종결어미 후행 제약’의 하나로 본다.

한편으로 공기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양태부사, 비한정 부사, 1인칭 표현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공기 양상을 계량적으로 확인한다.

<표Ⅲ-1> 통사적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세부 내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상위 주어	1인칭/2인칭/3인칭 제약 및 외현 양상
		명제 주어	1인칭(복수)/2인칭/3인칭(비인간 주어) 제약 양상; 인칭에 따른 심리술어와의 결합 양상
	어미 후행 제약	선어말어미	‘-었-’, ‘-더-’의 후행 양상
		종결어미	‘-구나’, ‘-네’, ‘-지’와의 결합 양상
	문장 유형 제약		의문문(일반 의문문과 특수 의문문)에 쓰이는 양상
	‘-(으)면’ 선행절		‘-(으)면’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의 후행절에 쓰이는 양상
공기	양태부사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히, 아마(도), 어쩌면’과의 공기 양상
	비한정 부사		‘왠지, 어쩐지’와의 공기 양상
	1인칭 표현		‘내가 생각하기에는’ 등과의 공기 양상

1.2. 의미적 분석 기준

의미적 분석 기준은 전술했던 추측 행위의 구성소인 ‘추측 근거’, ‘추측 방법(즉, 추측 과정)’, ‘추측 결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1.2.1. 추측 근거

추측 근거를 유형화하기 전에 추측을 이루기 위한 근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래 (18)과 같은 예문을 보자.

(18) 가. ㄱ: 오늘 지각했어.
ㄴ: 기차가 연착했나 보군요. (장경희, 1995: 201)
나. 저렇게 심하게 싸우는 걸 보니, 곧 이혼하겠다. (최성호, 2005: 495)

선행연구에 따르면 (18가)와 (18나)는 각각 상대방 발화로부터 얻은 간접적인 정보와 시각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정보에 근거한 추측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8가)에서는 청자가 평소에 기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과 청자가 과거에도 기차의 연착으로 지각한 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18나)에서는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 지각 정보 외에 ‘부부가 싸우면 이혼한다’와 같은 화자 자신의 경험적 일반화(최성호, 2005)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당 추측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화자의 배경 지식으로서 문맥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근거’라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추측 근거’가 아닌 ‘추측의 출발점’일 뿐이다. 정경미(2016)의 설명대로 대부분의 추측은 어떤 하나의 근거가 추측의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실과 비교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상기하면서 추측 근거를 유형화해 보겠다. 김동욱(2000)에서는 정보 획득 경로의 직·간접성에 따라 아래 (19)와 같이 추측 근거가 되는 정보를 분류하였다.

(19) 추측 근거가 되는 정보 유형 분류(김동욱, 2002):
직접적 정보: 시각, 청각, 촉각 등 화자 스스로의 고유한 인지기능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간접적 정보: 신문, 방송, 활자나 타인의 이야기 등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내재적 정보: 화자 자신의 기억, 감정, 직감 등 본래 화자 자신의 인식세계에 내재하는 정보.

그중에서 직접적 정보와 간접적 정보는 정보 획득 경로에 제삼의 매개체가 있느냐에 따라 구분되지만 결국 화자의 시청각 등으로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지각 정보'에 해당된다. '슬프다', '아프다', '춥다' 등과 같이 내재적 정보에 분류된 화자의 감정, 느낌 또는 감각은 화자 본인이 내적으로만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또한 '지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 전술한 '경험적 일반화'와 같이 이미 화자의 인식세계에 내면화된 정보는 내재적 정보의 일종임이 분명하다. 정경미(2016)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지식 정보'라고 보았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추측 방법의 유형이 추측이 지각 정보에서 시작되는지 아니면 지식 정보에서 시작되는지와 관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경미(2016)에 따라 추측 근거를 크게 '지각 정보'와 '지식 정보'로 분류한다.

하지만 범위 설정에 따라 각 부류에 해당되는 정보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정경미(2016)에서는 매체나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배운 학교 지식과 동일한 원리로 축적되는 점에서 그것을 지식 정보로 보며 지식의 통용 범위를 최대한으로 좁혀서 기억도 지식 정보로 간주하였다.

(20) 아이: (새로 산 신발을 신고서 한참 걷다가) 아빠! 발이 아파요.
아빠: 그래? 신발이 작은가 보다. (정경미, 2016: 117)

그런데 위의 예문 (20)에서 상대방인 아이의 선행발화와 같이 발화 현장에서 지각하는 정보를 지식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9] 이러한 정보가 '경험적 일반화', '학교 지식', '기억' 등과 같이 화자

의 인식체계에 내재하고 있던 정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화자의 과거 지각이나 경험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형태로 존재하는 기억으로서 지식 정보로 보는 것이 무방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게 잡히면 아래 (21)과 같이 근거 정보가 분명히 화자의 기억이면서도 직·간접적 지각 정보인 용례[80]들이 모두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로 인해 추측 근거에서 드러나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이 간과될 수 있다.

(21) 가. 그 쪽갈비집 거기도 체인인가 봐. 내가 지난주에 영월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거기도 쪽갈비집 들어갔는데 그 메뉴하고 똑같아.
나. 소석의 그림에 단단히 반한 모양이야. 여기서 팔리지 않는 것들을 모두 사가겠다고 했대.

우리가 추측할 때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를 문장에 명백히 밝혀 두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인식에 있던 정보를 '지식 정보'로 보되, 화자가 과거에 지각한 정보가 기억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입수 경로가 화맥에 명시되는 경우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으로 파악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근거 정보의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구분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보다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정보의 유형화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Ⅲ-2>와 같이 추측 근거가 되는 정보를 유형화한다.

---

79) 증거성의 관점을 취하는 논의로서 정경미(2016)에서는 추론 증거성 표지가 근거 유형과 관계없이 추측 방법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각 정보와 지식 정보에 대한 이 논의에서의 범위 설정은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할 경향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게 추측 근거를 적절하게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80)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설명을 위해 제시되는 말뭉치 용례에 대해 'SDRW2000000434.txt'와 같이 출처 말뭉치의 파일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Ⅲ-2>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근거의 정보 유형

유형		내용
지각 정보	직접적	화자가 시각, 청각 등 고유 인지기능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얻은 정보
	간접적	화자가 신문, 방송, 타인 등 제삼의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얻은 정보
	내적	화자의 느낌, 감정, 직감 등 본인의 내적 감각으로만 지각될 수 있는 정보
지식 정보		학교 지식, 자연의 이치, 인지상정, 사회적 고유 관념, 문화적 통념 등 인류 전체에게나 문화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 화자의 믿음, 신앙, 가치관; 과거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일반화된 경험적인 인식; 기억의 형태로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

1.2.2. 추측 방법

아래 예문 (22)를 통해 같은 유형의 근거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추측 방법도 문법 항목도 다르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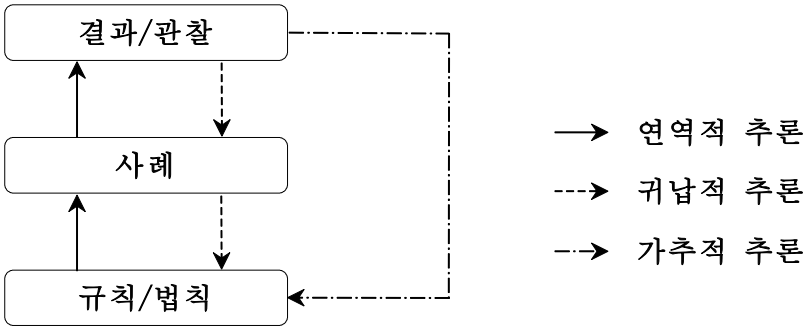
(22) 가. (주사기의 모양을 보고) 저 주사 아프겠다.
나.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의 반응을 보고) 저 주사 아픈가 보다.
(정경미, 2016: 62)

(22가)와 (22나)가 모두 화자의 일반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지각 정보를 근거로 하는 추측을 나타낸다. 그런데 (22가)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주사기로 주사 맞을 때 아프다'는 일반적 지식을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상황에 적용하고 '주사 아프겠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22나)에서는 주사를 맞는 환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러한 지각 현상을 '사람이 주사를 맞을 때 아파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인다'는 기존 경험과 비교하여 그 원인을 추측하는 것이다.

논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추론'[81]을 '연역적(deductive) 추론'과 '귀납적(inductive) 추론'으로 구분한다. 미국 철학자 퍼스(Peirce)는 이에 새로운

81) 논리학 용어인 'inference'는 '추론'으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된다. 이를 감안하여 세 가지 추론의 유형을 지칭할 때 그대로 '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틀어 '추측 방법'(또는 과정)이라고 기술할 때는 '추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추론 유형인 '가추적(abductive) 추론'을 추가하며 세 가지 유형의 추론 과정을 아래 <그림Ⅲ-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Ⅲ-1> 퍼스(Peirce)의 추론 과정(이형석, 2014: 31)

<그림Ⅲ-1>에서 보이듯이 '연역'[82]은 기존의 이론이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서 전체에 대해 사실인 것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는 '편유편무의 법칙(principle of all or noting)'에 의한 것이다. 반면 '귀납'은 개개의 사례로부터 공통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자연의 제일성(uniformity)'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가추'는 관찰된 현상을 이와 비슷한 과거의 경험 또는 일정한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인과율(causality)'에 의한 것이다(이성범, 2001; 이형석, 2014). 이에 따르면 앞서 (22가)와 (22나)는 각각 '연역'과 '가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들로부터 귀납적으로 찾아내는 공통된 규칙이 그러한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귀납은 가추와 공통점을 지니면서 연역과 대조를 이룬다. 이뿐만 아니라 이성범(200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추와 귀납은 모두 희미한 앎의 상태를 기초로 한 추측으로서 그 결과가 확률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며 확실한 앎에서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과 차별된다. 이러한 공통점에 입각하여 퍼스(Peirce)는 귀납과 가추를 아우르는 상위 유형인 '종합적(synthetic) 추론'을 설정하였다(Flach·Kakas, 2000).

한편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림Ⅲ-1>에서와 같이 연역

82) 기술의 편의상 세 유형의 추론 과정을 각각 '연역', '귀납', '가추'로 약칭한다.

이 원리나 규칙 등 지식 정보에서, 귀납과 가추가 관찰된 상황이나 결과와 같은 지각 정보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추측 방법은 추측의 시작 근거와 연관된다. 이는 추측의 확실성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확실성에 있어서 연역은 그 결과가 필연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해 주는 데 비해 귀납과 가추는 그렇지 못한다(최성호, 2005; 이성범, 2001; 정경미, 2016). 하지만 정경미(2016)에서 강조하였듯 언어 표현에서와 논리학에서의 '추론'은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다. 화자가 일정한 전제에서 필연성에 의해 도출하는 결론이 논리학적 영역에서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논리적으로 필연성을 가진 결론이 아니지만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본인이 가지는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연역적 추론의 결론일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Ⅲ-3>과 같이 추측 방법을 유형화한다.[83] 주의해야 할 것은 '추측 시작 근거', '추측 결과의 확실성'과 같은 특성은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유형의 추측 방법이든 간에 지식 정보와 지각 정보 모두가 추측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근거의 우세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정경미, 2016: 104).

<표Ⅲ-3>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방법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추측 방법의 유형		추측 시작 근거	추측 결과의 확실성
연역적 추론	연역	지식 정보	필연성
가추적 추론	가추(귀납)	지각 정보	개연성

83) 정경미(2016)에서 한국어 화자가 귀납과 가추를 표현할 때 동일한 문법 항목을 선택하는 이유로 가추를 귀납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귀납으로 설명되는 예문이 모두 가추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귀납은 '-(으)ㄴ/는 것 같다'와 '-(으)가/나 보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가추를 상위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더 적절하다고 본다.

1.2.3. 추측 결과

1.2.3.1. 확실성 정도

전술하였듯이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 정도가 추측 방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가지는 추측 방법의 특성이 이들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아마(도)', '어쩌면' 등 양태부사와의 공기도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태부사는 인식양태부사로서 확실성 정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들 양태부사의 확실성 정도 차이와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의 공기 양상을 바탕으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사이의 확실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마찬가지로 양태부사 간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구분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그러한 양태부사의 사전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84]

<표Ⅲ-4> 양태부사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아마(도)', '어쩌면'의 사전 정의(손남익, 2014)

양태부사	의미	제약
틀림없이	[+기준],[-상충],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다	-
확실히	[+확연], 틀림없이 그러하게	-
분명(히)	[+정확],[+사실],[+확실]; 틀림없이 확실하게	-
아마(도)	[+가능],[+추측]([+강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개연성이 높을 때 쓰는 말. '틀림없이'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말.	{ }-{추측성 문장}
어쩌면	[+예상],[-분명]; 확실하지 아니하지만 짐작하건대	-

사전 정의에 의하면 다섯 개 양태부사를 일차적으로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 아마(도), 어쩌면'과 같이 확실성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각 집단에서의 양태부사들 간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기가

84)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 부사사전』 등 여러 사전에 제시된 정의 내용이 『부사 사전』에서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렵다.

한편으로 아래 (23)과 같이 두 개의 양태부사가 한 문장에 쓰이는 중첩 현상이 말뭉치 용례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추측'과 '믿음'의 함의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이기용(1978: 59-61)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23) 가. 어쩌면 오늘 저녁에라도 공고문을 아마 뗄 수 있을 거예요.
나. 아마 이분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분명 해피엔딩일 거예요.
다. 아마 최형은 배우기만 했으면 틀림없이 교수가 되었을 거야.

(23가)에서 '어쩌면-아마', (23나)에서 '아마-분명', (23다)에서 '아마-틀림없이'의 위치가 바뀌면 해당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추측'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함의하는 반면 '믿음'은 추측을 함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의관계가 이필영(1998: 186)에서 제안한 확실성을 더해 가는 인지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서 '틀림없이>아마', '분명>아마>어쩌면'과 같이 확실성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히'는 그 확실성 정도의 차이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보유하며 세 양태부사를 '상'이라는 확실성 정도 영역으로 묶고자 한다. 이외에 '아마(도)'와 '어쩌면'을 각각 '중'과 '하'의 정도 영역으로 규정한다.[8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변별하기 위한 기준을 아래 <표Ⅲ-5>와 같이 설정한다.

85) 지금까지 인식양태부사의 의미 특성에 관한 연구, 특히 유의어 의미 변별에 대한 연구(장영희, 1997; 정영교, 2011; 박은정, 2015 등)가 매우 드문 편이며 의미 차이에 대한 구분은 모두 확실성 정도에만 시선이 모아진다. 그러한 연구는 양사부사의 교체로 가져오는 뉘앙스의 차이로부터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의해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거나, '추측' 문법 항목과 양태부사 중 어느 한 부류의 확실성 정도가 이미 확정된 전제 하에 그들의 공기 관계에 의해 다른 한 부류의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결과의 설명력과 분석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같이 인식양태부사도 확실성 정도 외에 판단 근거, 주관성 등 여러 의미 자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변별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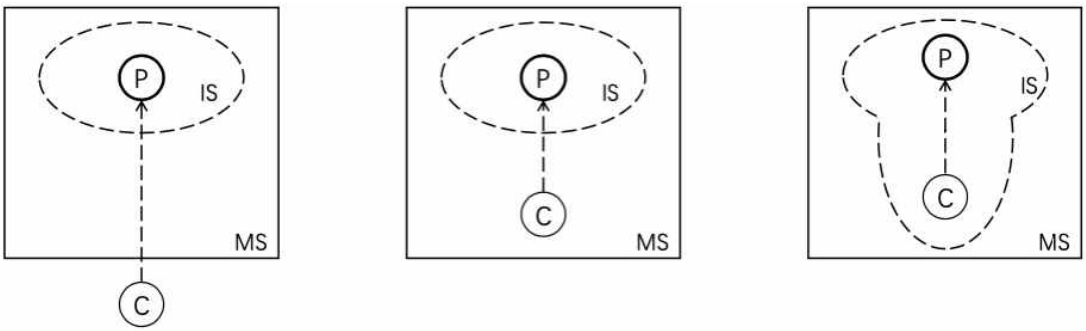
<표Ⅲ-5>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

판단 기준		확실성 정도
추측 방법	연역적 추론 방법	↑
	가추적 추론 방법	
양태부사와의 공기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
	아마(도)	
	어쩌면	

1.2.3.2. 주관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언어의 의미에 있어 '주관성(subjectivity)'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언어 표현의 의미가 기술된 장면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화가 아니라 그러한 장면을 화자가 표현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Langacker, 1991). 해석 기제의 하나인 '주관화(subjectification)'는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해석으로부터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의 전이를 가리키며(Langacker, 1999) 이를 통해 언어 표현의 주관성이 증가한다.

주관화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관찰 배열'과 '탄도체의 잠재력 약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래내커(Langacker, 1999)는 아래 <그림Ⅲ-2>와 같이 '무대 모형'을 적용하여 시지각적 은유를 통해서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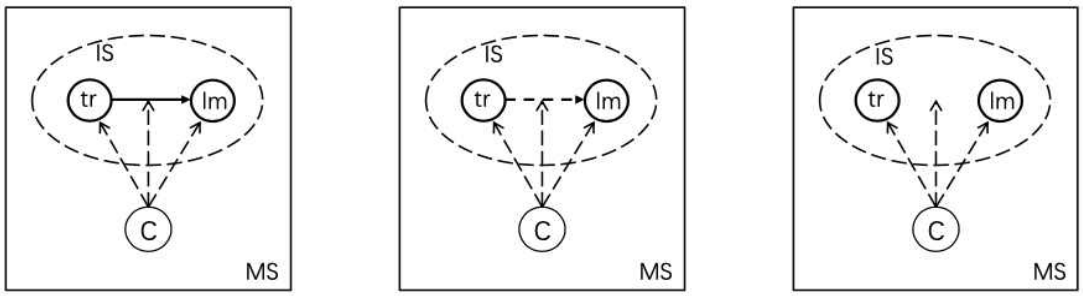


<그림Ⅲ-2>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탕이잉, 2022: 109)

<그림Ⅲ-2>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찰자(C=화자)가 무대(IS=언어 표현)

에서 떨어져 최대 관찰 범위(MS=개념 복합체) 밖에 위치하며 자신을 지각하지 않아 관찰 대상(P=언어 표현의 초점)에만 집중한다. 이때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되므로 관찰 대상은 최대의 객관성을 가진다. 즉, 언어 표현의 의미가 최대한 객관적이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는 많든 적든 간에 언제나 화자 '자아'의 표현 성분이 있기 마련이므로(한향화, 2016: 49), 화자가 장면을 해석할 때는 두 번째 단계와 같이 최대 관찰 범위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비명시적인 참조점으로 상정하거나 셋 번째 단계와 같이 무대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점차 접근해 감에 따라 관찰 대상은 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여 화자가 언어 표현에 들어갈수록 언어 표현의 주관성 의미가 증가한다.

한편, 래내커(Langacker, 1999)는 다음 <그림Ⅲ-3>과 같이 탄도체(tr)가 지표(lm)를 겨냥하는 잠재력의 약화에 따른 주관화를 설명하기도 하였다.[86]



<그림Ⅲ-3> 탄도체의 잠재력 약화에 따른 주관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24)와 같이 영어 'be going to'에 관한 예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24) a. Sam is going to mail the letter.
b. If Sam isn't careful he's going to fall off the ladder.

86) '주어-목적어'의 구별과 같이 언어 표현에서는 현저성에 의해 1차적 현저한 참여자인 탄도체(trajector)와 2차적 현저한 참여자인 지표(landmark)가 구별된다. 보통 탄도체는 행위자, 경험자 등 어떤 행위를 행하는 더 활동적인 대상이 되며 지표는 그러한 행위의 기준이 된다. '잠재력(potency)'이란 지표 과정의 발생을 가져오는 영향이 있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힘을 뜻한다(Langacker, 1991).

c.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I just know it.

(김종도·나익주, 2001: 451-453)

(24a)에서는 'be going to'가 '미래'의 의미로 쓰여 편지를 부치는 지표 과정의 실현을 지향하는 잠재력의 소재지가 순전히 탄도체로서의 주어에 있다. 이는 <그림Ⅲ-3>의 (1)과 같이 실선 화살표로 표시된 '탄도체-지표'의 객관적 관계가 화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객관적인 바탕을 제공한다. 그러한 객관적 바탕이 약화해질 때는 (24b)에서는 'be going to'가 추측으로 쓰여 주어가 떨어진다는 지표 과정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의 소재지가 온전히 주어에 있지 않으며 '-(으)면' 선행절에 표현된 가정적 상황, 즉 외적인 환경으로 분산된다. 이때 (2)와 같이 객관적 바탕이 점선으로 표시되듯 희미해진다. 마지막으로 (24c)에서는 지표 과정의 실현에 책임지는 소재지가 더 이상 주어나 어떤 특정한 객관적 요소에도 얽매이지 않아 온전히 화자에 있다. 이때 (3)과 같이 '탄도체-지표'의 관계는 화자의 해석에 내재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이다. 이처럼 탄도체의 잠재력 약화에 따라 해당 사건이나 장면을 해석하는 화자의 역할이 강해짐으로써 언어 표현의 주관성 의미가 증가한다.

요컨대 관찰 배열이든 탄도체 잠재력 약화든 언어 표현의 주관성 의미는 본질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흔적을 언어 표현에 남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추측' 문법 항목의 쓰임은 화자 자신을 비명시적인 참조점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관성을 지닌다. 그런데 화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추측'을 더 또는 덜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 통사적 기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화자 자신을 발화에 명시화하는 1인칭 (상위/명제)주어와 1인칭 표현의 사용이다(이수련, 2010; 함계임, 2016). 이를 통해서 화자가 화자임과 동시 추측의 주체와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건이나 사태의 주체임을 명시하여 주관화가 실현된다. 둘째, 정서나 감각을 나타내는 심리술어의 사용이다(이기동, 1989). 셋째, 추측 근거를 화맥에서 명백히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근거의 명시를 통해 '추측'을 일으키려는 잠재력이 온전히 화자에 있지 않아 객관적 요소인 추측 근거로 분산되므로 '추측'의 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 반대로는 주관성의 의미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이러한 통사적 기제에 가지는 제약이나 사용

경향성에 의해서 이들 문법 항목의 주관성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주관성의 판단 기준을 다음 <표Ⅲ-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Ⅲ-6> 의미적 분석 기준: 추측 결과-주관성

판단 기준		주관성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	1인칭 상위/명제 주어의 명시	↑
	1인칭 표현과의 공기	
	심리술어의 쓰임	
탄도체 잠재력 약화에 따른 주관화	추측 근거의 비명시	↑

1.3. 화용적 분석 기준

화용적 분석 기준은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과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듯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일종의 완곡어법으로 쓰여 상대방의 체면을 배려해 주는 공손의 태도를 나타날 수 있으며, 강세어법으로 쓰여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상대방의 체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불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표현은 반드시 공손을 나타내거나 불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지위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과 화·청자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을 포함하는 화·청자 관계[87], 그리고 대화의 장면 등이 있다(허상희, 2010; 윤정화, 2014). 화·청자가 처음 만나거나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이인 경우 또는 서로 친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는 공손 표현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친밀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게 불손이 되는 표현은 힘의 요인이 배제된 친밀한 관계에게 불손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손과 불손의 실현이 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영래, 2006; 허상희, 2010). 따라서 '추

87) 허상희(2010)에 따라 '친밀감'은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로서 화·청자가 서로 잘 알고 정서적 교감이 강한 친밀한 관계와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닌 중립적 관계,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 관계로 이어진 친밀감이 결여된 관계로 구분된다.

측' 유사 문법 항목이 공손이나 불손 전략으로 쓰이는지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상황 의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공손 전략으로 쓰일 때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손의 실현 유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브라운·레빈손(Brown·Levinson, 1987)에서는 공손을 체면위협행위로부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길호(1994)에서는 한국어의 공손 전략을 상대방의 체면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것과 말하는 사람의 체면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올려주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정화(2014)에서는 한국어 공손 표현의 쓰임을 주요 논의 대상에 따라 상대방을 높이는 '존중'과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유형화하였다. '존중'은 유지하려는 체면의 종류가 어떠한지에 따라 재분류되며 '겸손'은 화자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손상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겸손을 실현하는 것이다.[8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공손 전략을 크게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방 존중 전략'과 화자 자신의 체면 손상으로 상대방에게 겸손을 드러내는 '화자 겸손 전략'으로 나눈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대방 존중 전략'이나 '화자 겸손 전략'으로 쓰이는지 그 전략의 세부 유형은 말뭉치를 통해서 확인하여 귀납적으로 정리한다.

한편, 불손 전략도 공손 전략과 같이 하위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이영래, 2006). 하지만 말뭉치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불손 전략으로 쓰이는 양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세밀한 유형 분류가 항목 간 차이를 드러내는 데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중요한 변별점이 되는 것으로 언어 사용역에 따른 사용 경향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인지체계

88) 정확하게 윤정화(2014)에서는 공손 기능에 따라 공손 표현을 '존중 공손 표현', '겸손 공손 표현', '존중과 겸손의 공손 표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존중과 겸손의 공손 표현은 하나의 발화에서 존중과 겸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과, 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밀한 유형 분류는 한국어 공손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필요하지만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공손 실현 양상을 비교하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화자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주요 논의 대상이 화자라는 점에서 겸손 공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 논의 대상에 따라 '존중과 겸손의 공손 표현'을 존중 또는 겸손 공손 표현 어느 한 부류에 할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사용역에 관한 지식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사용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포착할 수 있다(홍혜란, 2016: 19). 언어사용역은 Ⅰ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매체와 격식성에 따라 ‘비격식적 구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문어’, ‘격식적 문어’ 네 가지로 나눈다. 이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즉 언어사용역별 사용 빈도를 계량적으로 확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하기 위한 화용적 분석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Ⅲ-7>과 같다.

<표Ⅲ-7> 화용적 분석 기준

분석 기준	세부 내용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 양상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이 사용되는 공손/불손 전략의 유형, 유형별 실현 빈도와 화·청자 관계의 특성([힘], [친밀감])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언어사용역별 분포율

2. 분석 결과

2.1. 통사적 변별점

2.1.1. 주어 인칭 제약

2.1.1.1. 상위 주어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쓰이는 문장에서 추측의 주체가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상위 주어의 인칭 및 외현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8> 통사적 변별점: 상위 주어 인칭 및 외현

상위 주어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화자	1인칭	3229	98.90	1558	98.61	1263	100.00	207	97.18	143	100.00	86	100.00
	외현	11	0.3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청자	2인칭	36	1.10	22	1.39	0	0.00	0	0.00	0	0.00	0	0.00
	외현	14	0.4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제3자	3인칭	10	0.31	0	0.00	0	0.00	6	2.82	0	0.00	0	0.00
	외현	10	0.31	0	0.00	0	0.00	6	2.82	0	0.00	0	0.00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1인칭 상위 주어, 즉 추측의 주체가 화자인 데 활발히 쓰이며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상위 주어를 1인칭으로 한정하는 반면 ‘-(으)ㄹ/ㄴ/는 것 같다’는 2인칭과 3인칭 상위 주어도 허용하고 ‘-겠-’과 ‘-(으)ㄹ/ㄴ/는 듯하다’는 각각 2인칭과 3인칭 상위 주어만을 허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1인칭과 3인칭 상위 주어는 평서문에서만, 2인칭 상위 주어는 청자의 추측을 묻는 일반의문문에서만 가능하다.[89] 하지만 상위 주어의 외현은 오직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쓰이는 용례에서만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선행연구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으)ㄹ/ㄴ/는 듯하다’도 ‘-(으)ㄹ/ㄴ/는 것 같다’와 같이 상위 주어 인칭과 외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과 달리, 실제로 ‘-(으)ㄹ/ㄴ/는 듯하다’가 평서문에 쓰이는 말뭉치 용례에서는 1인칭 상위 주어의 외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으)ㄹ/ㄴ/는 듯하다’가 일반의문문에 쓰이는 말뭉치 용례 자체를 발견하지 않았다. 이는 이 문법 항목이 상호작용성이 강한 구어에 잘 쓰이지 않는 언어사용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25) 가. 난 우리가 솔직히 이 상태로 봐서는 적어도 20대까지는 계속 볼 것 같아.
나. 너 정신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미친 것을 알 것 같니?
다. 문주는 자신의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라. 서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사방에서 덮치는 듯했다.

(25)에서 ‘나’, ‘너’, ‘문주’와 ‘서현’은 각각 추측의 주체가 화자, 청자, 제삼자임을 표시하는 상위 주어로서 문장에 등장한다. 상위 주어가 3인칭인

89) 2.1.3.절에서 다루겠지만 수사의문문과 자문의문문은 의미적으로 청자의 추측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추측의 주체가 여전히 화자이다.

경우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쓰이는 용례가 모두 소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설에서 저자가 전지적인 시각으로 작중인물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추측을 서술할 수 있는 특성과 직결된다. 또한 두 문법 항목이 이러한 용법을 가지는 것은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문법 항목이 아직 문법화 과정의 진행 중이므로 '주어 지형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1.1.2. 명제 주어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쓰이는 문장에서 명제 주어의 인칭과 동일 주어 여부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9> 통사적 변별점: 명제 주어 인칭과 동일 주어 여부

명제 주어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인칭	1823	55.83	696	44.05	131	10.37	55	25.82	29	20.28	5	5.81
2인칭	230	7.04	165	10.44	123	9.74	10	4.69	24	16.78	16	18.6
3인칭	1212	37.12	729	46.14	1009	79.89	148	69.48	90	62.94	65	75.58
동일 주어	1823	55.83	696	44.05	131	7.37	55	25.82	29	20.28	5	5.81
비동일 주어	1442	44.17	894	56.58	1132	89.63	158	74.18	114	79.72	81	94.19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으)ㄹ/ㄴ/는 것 같다'를 제외한 문법 항목들은 동일 주어에 비해 비동일 주어에 분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0] 또한 명제 주어 인칭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심리술어로 쓰이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먼저 서술어가 심리술어가 아닌 경우를 살펴본다. 이때 '-겠-'과 '-(으)ㄹ 것이다'는 화자 자신의 미래 상황을 추측할 때 동사와의 결합에 제약받지만, 아래 (26가)와 (26나)와 같이 피동 표현 '-게 되다'와 결합하거나 (26다)와

90) '-(으)ㄹ/ㄴ/는 것 같다'의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이 문법 항목이 가지는 추측 근거의 의미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26라)와 같이 가능성 표현 '-(으)ㄹ 수 있다'와 결합하여 화자의 의지가 명제 사태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1인칭 주어가 가능하다.

(26) 가. 저도 언젠간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겠죠.
나.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 그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명제 주어가 1인칭일 때 '-겠-'과 '-(으)ㄹ 것이다'가 동사와 결합하면 '추측'이 아닌 '의지'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이다.

반면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아래 (27)과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화자 자신의 미래 행위를 추측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27) 가. (제가) 매일 아침 아홉 시를 기다릴 듯해요.
나. 확실히 제가 했던 쪽으로는 (제가) 다시 안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1인칭 주어의 미래 행위에 대한 추측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1] 이는 미래 상황이 현재 또는 과거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문법 항목은 아래 (28)과 같이 1인칭 주어의 현재나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2]

(28) 가. 제가 정말 튀기는 거는 정말 좋아하나 봐요.
나. 그날 제가 옷을 되게 좀 좋은 걸 입고 갔었나 봐요.
다. 제가 머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

91) 선행연구에서 '내가 가게 되나 봐.'와 같은 예문이 제시된 바 있으나 말뭉치에서는 해당 용례를 발견하지 않았다.

92) 이론적으로는 '-(으)ㄴ가/나 보다'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한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당 말뭉치 용례가 찾아지지 않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1인칭 주어가 쓰이는 용례가 모두 화자의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화자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는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비해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듯하다'는 아래 (29)와 같이 화자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추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가. 제가 처음부터 수평적인 회사에 있었다면 일도 더 열심히 잘했겠죠?
나. 신해철 씨가 없었다면 전 연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나는 거기를 다시 한번 간다면 스네이프 지팡이를 샀을 것 같아.
라. 이 부 시작하면 (제가) 강원도 진입할 듯해요.

이와 대조적으로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문법 항목이 가추적 추론 방법에 의한 '추측'에 쓰이는 것으로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추측에 요구되는 연역적 추론 과정과 어울리지 않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서술어가 심리술어인 경우를 보겠다. 심리 상태나 감각은 경험주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술어를 취하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와 동일해야 한다(유현경, 2000).[93] 이러한 제약은 '추측'을 나타내는 요소와 함께 쓰일 때 해소될 수 있다(유형경, 1998). 다음은 동일 주어 여부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심리술어의 결합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0> 통사적 변별점: 동일 주어 여부에 따른 심리술어와의 결합

명제 주어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동일 주어	531	16.26	371	23.48	20	1.58	11	5.16	0	0.00	0	0.00
비동일 주어	33	1.01	81	5.13	31	2.45	13	6.10	10	6.99	11	12.79

93) 이러한 동일 주어 제약으로 인하여 심리술어 구문에서 경험주를 담당하는 주어가 잘 생략되는 특징이 있다(유현경, 1998: 241).

말뭉치 분석을 통해 서술어가 심리술어일 때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화자가 명제 주어로 쓰이지 않는 반면 나머지 문법 항목들은 제약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의 경우는 동일 주어에 분포하는 비율이 다른 문법 항목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화자(또는 저자)가 외적으로 드러난 경험주의 사태를 지각하여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가.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가 봐. 그래서 엄마가 쪼금만 큰 소리로 또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하냐고...
나. "사람들이 아무리 바로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하지만 꺽쇠 엄마는 꺽쇠를 내보내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30가)에서는 화자가 '아빠'의 반응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그것이 '싫다'는 '아빠'의 심적 상태를 추측한다. (30나)에서는 저자가 작중인물인 '꺽쇠 엄마'의 발화로부터 '싫다'는 그녀의 심적 상태를 추측한다.

이에 반해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으)ㄹ 듯하다'는 동일 주어이든 간에 모두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주어인 경우, 이들 문법 항목은 '괜찮다', '좋다' 등 판단형용사와 결합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가. 나는 이제 청주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어.
나. 굳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다. 카르스트 지형이나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아.
라. 어쩌면 이러한 범부의 어두움이야말로 이별의 고통에 대한 원인적 내용으로 간주해도 (나는) 좋을 듯하다.

이때 (31)에서와 같이 화자가 '-(으)ㄴ/는 것도'나 '-아/어도'로 이룩된 절에 표현된 명제 내용에 대해 그것이 '괜찮다'거나 '좋다'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한다.

한편 ‘-겠-’, ‘-(으)ㄹ 것 같다’는 ‘좋다’ 등 심리형용사와 결합하여 화자가 가지던 전제를 조건으로 상정되는 가정적인 사실에 적용하고 자신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겠-’은 극히 높은 분포율(18.54%)을 보이며 심리형용사 ‘고맙다’나 ‘감사하다’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94]

(32) 가. 나는 외동 혹은 둘째까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 나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
다. (나는) 여러분이 좋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2)에서 화자는 ‘-(으)면’이 이끄는 절에 표현된 사태의 실현을 전제로 하며 그것에 대한 ‘좋다’거나 ‘고맙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또한 ‘-겠-’과 ‘-(으)ㄹ 것 같다’는 아래 (33)에서와 같이 ‘심리술어 + -아/어(서) + 죽-’과 결합하여 화자 자신의 내적 감각으로부터 죽는다는 사태에 대한 ‘추측’을 통해 심시술어로 표현되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유사성을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33) 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문센을 못 가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애요.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는 아래 (34)에서와 같이 다양한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화자의 현재나 과거, 또는 가정적 상황에서의 심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두루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으)ㄹ/ㄴ/는 것 같다’만이 지니는 특징이며 이 문법 항목이 추측 근거에서 가지는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95]

---

94) 김미선(1990)과 같이 ‘-(으)면 감사하/고맙겠다’에서의 ‘-겠-’이 ‘의지’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고맙다’는 형용사이며 ‘감사하다’는 ‘-어서’, ‘-(으)면’ 등과 같이 쓰일 때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기능한다. 따라서 ‘-(으)면 감사하/고맙겠다’에서의 ‘-겠-’의 의미는 ‘의지’라기보다 ‘추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95) ‘-(으)ㄹ/ㄴ/는 듯하다’는 언어사용역의 제약으로 인해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화자 자신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다.

(34) 가.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니까 (저는)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나. 오히려 저는 산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날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좀 제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라. 내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

비동일 주어인 경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는 아래 (35)와 같이 화자가 지식 정보로부터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때 세 문법 항목은 모두 보다 낮은 분포율로 나타났다.

(33) 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겠죠.
나. 돌아가실 때는 시원하실 거예요. 내리막이잖아요.
다. 5월달 같은 경우는 다들 어려우니까 걔네들도 힘들 것 같아.

또한 '-겠-'과 '-(으)ㄹ 것 같다'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로부터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겠-'은 '-(으)ㄹ/ㄴ/는 것 같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4.11%, 0.34%)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6) 가. (친구의 경험을 듣고) 너 참 속상했겠다.
나. (청중이 보내 준 사연을 읽고) 아유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애요.

(36가)에서 화자는 친구인 상대방이 해당 사태를 겪었을 때 속상했다는 심적 상태를 추측하며, (36나)에서 라디오 아나운서인 화자는 사연을 보내준 청중이 서운하다는 심정을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는 듯하다'는 소설에서 저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지적 시각에서 해당 인물이 내적 지각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가. 예진은 가쁜 호흡이, 힘찬 숨결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듯했다.
나. 종이는 잠시 동안 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7가)와 (37나)에서 저자는 경험주로서의 작중인물인 '예진'과 '종이'가 자신의 내적 지각으로부터 가쁜 호흡과 힘찬 숨결이 느껴지는 것과 소리가 들리는 묘사한다.

2.1.2. 어미 후행 제약

2.1.2.1. 선어말어미 '-었-', '-더-'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선어말어미 '-었-'과 '-더-'의 후행에 분포하는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1> 통사적 변별점: 선어말어미 '-었-', '-더-'

선어말어미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었-	182	5.57	0	0.00	11	0.87	78	36.62	0	0.00	31	36.05
-더-	58	1.78	16	1.01	0	0.00	5	2.23	2	1.14	2	2.33

말뭉치 분석을 통해 '-겠-'과 '-(으)ㄴ가/나 보다'는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으)ㄹ 것이다'는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으)ㄹ/ㄴ/는 것 같다'는 '-었-'이 후행하는 용례가 네 개의 언어사용역에 두루 분포하는 반면 나머지 세 문법 항목은 해당 용례가 모두 비격식적 문어에서 발견된 것이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었-'의 후행 제약에 가지는 차이는 이들 문법 항목의 문법화 진행 정도와 언어사용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자신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용법이 특히 소설과 같은 비격식적 문법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사용역에 선호되는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었-'의 후행에 극히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어말어미 '-더-'는 '-(으)ㄹ/ㄴ/는 듯하다'의 뒤에 올 때는 '-더니'[96]의 연결형으로 쓰이는 반면 나머지 다섯 개 문법 항목 뒤에 올 때는 '-더라(고)'의 종결형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용 맥락이 모두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표현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더-'가 '감각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라는 증거성 의미를 가지는 것(박진호, 2011ㄴ)을 보여 준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더-'가 [과거시제]의 의미를 지니는 점에서 '-었-'과 동일하지만 화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었-'과 차별되는 것이다(전휘, 2020: 118). 이러한 감각 경험과 경험시 기준의 의미로 인해 '-겠-'과 '-(으)ㄴ가/나 보다'가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더-'의 후행을 허용한다. 또한 '-(으)ㄹ 것이다'가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점에서 '-더-'와 의미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더-'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38) 가. 근데 약초 같은 향이 강해가지고 못 먹는 분도 있겠더라고.
나.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한 것 같더라.
다. 아기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지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원장이나 그런 측에서 학대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라. 길이 다 묵어버렸더라. 저 재를 넘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더라.
마. 기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일어서서 나갔다.

(38)에서 각각은 화자(또는 저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짬뽕이 나는 약초 향을(38가), 기사의 내용을(38나, 38다), 길이 묵어버린 상황을(38라), '기숙'의 행동이나 표정을(38마) 지각하고 그 시점에 그러한 정보로부터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태를 추측하였음을 나타낸다.

2.1.2.2. 종결어미 '-네', '-구나', '-지'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

96) '-더니'는 화자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라 상황에 뒤이어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쓰인다(국립국어원, 2005: 352).

<표Ⅲ-12> 통사적 변별점: 종결어미 '-네', '-구나', '-지'

종결어미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네	53	1.62	73	4.62	0	0.00	3	1.41	5	3.50	3	3.53
-구나/군	24	0.74	61	3.86	0	0.00	6	2.82	6	4.20	6	7.06
-지	6	0.18	375	23.73	0	0.00	4	1.88	11	7.69	9	10.59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다섯 개 문법 항목은 모두 종결어미 '-네', '-구나', '-지'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ㄹ 것이다'가 이러한 제약을 가지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문법 항목들이 이들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우선, 다섯 개 문법 항목이 '새로 앎' 또는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는 '-네', '-구나'와 같이 쓰이는 맥락은 모두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39) 가. (사진을 보고)우와 진짜 파란 하늘에 소나무가 탁 있네요.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네요.
나.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어머, 듣고 보니 진짜 맞는 말이네요. 힘들 때 쉬어가는 지혜! 인생에선 정말 필요하겠네요.
다. 유진아, 나는 지금 세상의 끝지점에 와 있는 듯하구나.
라.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군요.
마. (윤영이 황급한 모습을 보고)이런, 윤영 양이 착각을 한 모양이군.

(39)에서 각각은 화자가 시각으로 얻은 직접적 지각 정보(39가, 39마),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얻은 간접적 지각 정보(39나, 39라), 그리고 화자가 내면적으로 지각한 정보(39다)에서 출발하여 추측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으)ㄹ 것이다'가 '-네', '-구나'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것은 '-(으)ㄹ 것이다'가 지각 정보가 아닌 화자의 인식체계에 내재하던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의미적 특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새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다섯 개 문법 항목이 '이미 앎'의

의미를 가지는 '-지'와 같이 쓰이는 맥락은 모두 추측 시작 근거가 정보 유형에 무관하게 화·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40) 가. 반지름이 오백 미터니까 지름으로 하면은 일 킬로가 되겠죠.
나. 대서 가장 큰 더위라는 이름답게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게 오늘도 꽤 더울 것 같죠?
다. 글쓴이 아마도 선행으로 받은 기쁨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하죠?
라.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보죠?
마. 요즘 언론 노조 파업을 하는 걸 보면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40가)에서 지름과 반지름에 대한 수학 지식, (40나)에서 대서라는 절기에 대한 자연 지식과 같이 화자가 가지던 지식 정보가 추측 시작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화·청자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40다)에서 아나운서가 청중들에게 읽어 준 글 내용, (40라)에서 상대방의 선행발화, 그리고 (40마)에서 언론 노조 파업이라는 사실도 역시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근거 정보이다.

2.1.3. 문장 유형 제약

다음은 평서문과 의문문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3>에서 보이듯이 이들 문법 항목은 모두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일 수 있으며 의문문보다 평서문에 분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3> 통사적 변별점: 평서문과 의문문

문장 유형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서문	3208	98.25	1294	81.90	1251	98.97	210	98.59	125	87.41	79	91.86
의문문	61	1.87	286	18.10	13	1.03	3	1.41	18	12.59	7	8.14

하지만 아래 <표Ⅲ-1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분포하는 양상에 큰 차이가 났다.

<표Ⅲ-14> 통사적 변별점: 일반의문문과 수사의문문

의문문 유형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	36	1.10	22	1.39	0	0.00	0	0.00	0	0.00	0	0.00
수사	25	0.76	262	16.65	13	1.03	3	1.41	18	12.59	7	8.14

말뭉치 분석을 통해 '-(으)ㄹ/ㄴ/는 것 같다'와 '-겠-'을 제외한 네 개의 문법 항목은 모두 수사의문문에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97]

이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수사의문문에 쓰이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도록 한다. 우선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다섯 개 문법 항목은 아래 (41)에서와 같이 '-지'와 결합하여 화자가 자신의 추측을 전달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확인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데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1) 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꼭 의무인 것은 아니겠죠?
나. 대서 가장 큰 더위라는 이름답게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게 오늘도 꽤 더울 것 같죠?
다. 글쓴이 아마도 선행으로 받은 기쁨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하죠?
라.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나 보죠?
마.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잊어버린 모양이지?

그중에서 '-겠-'과 '-(으)ㄴ가/나 보다'는 '-지'뿐만 아니라 '-네', '-구나' 등 종결어미들과 결합하여 확인의문문에 쓰이기도 한다. 이외에 특이한 것으로서 아래 (42다)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가 종결어미 '-어'를 취하는 형태로 확인의문문에 쓰일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7) 선행연구에서는 '-(으)ㄹ/ㄴ/는 듯하다'가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말뭉치에서 해당 용례를 발견하지 않았다. 말뭉치 분석 범위의 한계를 배제하기 위해 전체 말뭉치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1106개의 용례에서 '-(으)ㄹ/ㄴ/는 듯하다'가 의문문에 쓰이는 용례가 5개이며 그중 일반의문문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42) 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시면 또 나오셨겠군요?
나. 인제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에서 선수로 활동을 한 거였나 보네요?
다. 어머 기사님 티비에스 에프엠 자주 들으시나 봐요?

'-겠-'과 '-(으)ㄹ 것이다'는 아래 (43)과 같이 부정부사 '얼마나'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며 '한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의문문(고영근·구본관, 2018)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때 '-(으)ㄹ 것이다'는 독백의 성격을 가지는 의문형 어미 '-은가'[98]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 일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나. 정신적인 사랑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향기를 발할 것인가?

이러한 감탄의문문을 제외하며 '-(으)ㄹ 것이다'는 아래 (44)와 같이 어미 '-은가'와 결합하여 자문(自問)의 형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술의 기능을 하는 자문의문문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 어머니는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는 명제 내용을 부정하는 반어의문문에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겠-'만 가지는 특징으로서 부정소 '-지 않-'과 결합하여 반어의문문에 쓰이는 것(65회, 4.11%)임을 확인하였다.

(45) 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네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두셨을 것 같니?
나. 제 방송도 안 듣는 사람이 남의 방송을 듣겠습니까?
다. 이게 다양성이지 않겠습니까?

(45)에서 화자가 실제로 '아버지가 네가 타락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45가), '그러한 사람이 남의 방송을 듣지 않는다'는 것(45나), '이게 다양성

98) 박재연(2005: 114)에 따라 어미 '-은가'가 쓰이는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독백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성격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다'라는 것(45다)과 같이 명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2.1.4. '-(으)면' 선행절 제약

다음은 '-(으)면' 선행절의 쓰임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5> 통사적 변별점: '-(으)면' 선행절

'-(으)면' 선행절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409	12.53	515	32.59	342	27.08	10	4.69	2	1.40	1	1.16

말뭉치 분석을 통해 '-(으)면'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에서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비해 그 분포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측문에서는 '-(으)면' 선행절의 명제 내용이 하나의 추측 근거가 되는데 그것이 화자의 지각 정보인지 가정적 상황인지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였다.[99]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이는 문장에서는 '-(으)면' 선행절의 명제 내용이 아래 (46)에서와 같이 화자가 얻은 지각 정보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6) 가. 요즘 언론 노조 파업을 하는 걸 보면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나. 와 그게 녹을 정도면은 미국도 진짜 덥나 보네.

99) '-(으)면' 선행절의 명제 내용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명제 내용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각 정보	41	1.26	5	0.32	6	0.48	4	1.88	2	1.40	1	1.16
비현실 상황	318	9.74	475	30.06	231	18.29	5	2.35	0	0.00	0	0.00
반사실 상황	50	1.53	35	2.22	105	8.31	1	0.47	0	0.00	0	0.00

이에 비해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가 쓰이는 문장에서는 '-(으)면' 선행절의 명제 내용이 지각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 상황,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화자가 전제로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 정보를 '-(으)면' 선행절에 표현되는 가정적 사실에 적용한 결과를 연역적으로 추측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아래 (47)과 같은 용례들은 비현실 상황을 가정적 사실로 상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7) 가. 고3 되면 운동이고 뭐고 없겠죠.
나. 택시를 타면 10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한 5000원 정도 나올 거야.
다. 이 부 시작하면 강원도 진입할 듯해요.

이와 달리 아래 (48)과 같은 용례들은 실재할 수 없는 반사실 상황이 가정적 사실로 상정되는 경우에 속한다. 이때 화자가 '만약 A가 B라면 C가 D이다'라는 논리에서 가능한 사태의 결귀를 이끌어 내므로 강한 논리성이 수반된다(이기종, 2001: 156). 이러한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가 다른 문법 항목보다 훨씬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사실 상황을 전제로 한 논리적 추측에 선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8) 가. 제가 처음부터 수평적인 회사에 있었다면 일도 더 열심히 잘했겠죠?
나. 신해철 씨가 없었다면 전 연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같이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라. 두 형사가 실제로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될 듯해요.

한편으로 '-겠-'은 그것이 쓰이는 문장에서 '-(으)면' 선행절이 실현될 때 후행절에서 '좋다'나 '되다'와 결합되어 '-(으)면 좋겠다', '-(으)면 되겠다'의 형태로 다양한 공손 전략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100)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 것이다'도 '-(으)면 좋다/되다'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겠-'에 비해 그 사용 빈도가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2.3.1.절에서 다룬다.

(49) 가. 빨리 마스크 벗고 학교 나갔으면 좋겠어.
나. 소개하고 싶은 이웃은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가)에서 화자는 비현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제로 가정적 사실에 적용하여 추측함으로써 자신의 바람을 표현한다.[101] (49나)에서 화자는 '청중들이 자신의 이웃을 소개하고 싶을 때 관련 이야기를 제보해 주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가정적 사실을 바탕으로 결과 사태를 추측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 수행에 대한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2.1.5. 어휘·표현 공기 제약

2.1.5.1. 양태부사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양태부사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아마(도)', '어쩌면'과 공기하는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6>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양태부사

양태 부사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틀림없이	2	0.06	0	0.00	9	0.71	0	0.00	0	0.00	0	0.00
확실히	17	0.52	1	0.06	1	0.08	1	0.47	0	0.00	0	0.00
분명(히)	12	0.37	10	0.63	49	3.88	1	0.47	0	0.00	0	0.00
아마(도)	74	2.27	19	1.20	101	8.00	9	4.23	4	2.80	6	6.98
어쩌면	11	0.34	2	0.13	6	0.48	1	0.47	0	0.00	0	0.00

말뭉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양태부사의 몇 가지 공기 양상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들 문법 항목은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어쩌면'과 공기할 수 있는지에 차이를 가지는 반면 '아마(도)'와

101) '-었으면'에서의 '-었-'은 시제와 관계가 없으며 '-었으면' 선행절은 반사실 상황이 아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비현실 상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현실 상황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낸다(손세모돌, 1989: 186).

공기할 수 있는 데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문법 항목은 모두 '아마(도)'와 가장 강한 강도로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둘째의 공기 양상은 '아마(도)'가 전형적인 추측 양태부사(장영희, 1994; 손남익, 2014: 720)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전나영(1999: 18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문법 항목이 확실히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아마(도)'와만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여러 양태부사와 두루 공기할 수 있는 나머지 네 개의 문법 항목과 대조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102] 넷째, '-(으)ㄹ 것이다'는 '분명(히)'와 공기하는 강도가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5.2. 비한정 부사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비한정 부사와 공기하는 양상에 대해 정리하는 표이다.

<표Ⅲ-17>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비한정 부사

비한정 부사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왠지	15	0.46	0	0.00	0	0.00	2	0.94	0	0.00	0	0.00
어쩐지	3	0.09	0	0.00	0	0.00	4	1.88	0	0.00	0	0.00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만 비한정 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두 문법 항목이 비한정 부사와

102) 탕이잉·진영하(2021)에서 '-(으)ㄴ가/나 보다'가 '확실히'와 공기한다고 밝힌 바를 고려하여 전체 말뭉치에서 다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으)ㄴ가/나 보다'가 '확실히'와 공기하는 경우를 여전히 발견하지 않으며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확실히'와 공기하는 경우는 한 번만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분석 말뭉치의 유형 또는 규모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양태부사 '확실히'는 전제 말뭉치에서 285회로 나타나며 구어(204회, 71.58%), 특히 비격식적 구어(179회, 62.81%)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곧 다루겠지만 '-(으)ㄴ가/나 보다'도 구어에서 선호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800만 어절 규모의 일반대화 말뭉치를 분석한 탕이잉·진영하(2021)에서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공기하여 쓰이는 맥락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서 그러한 공기 양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비한정 부사와 공기할 때는 모두 화자의 상상, 느낌, 감각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 가. 그 사연에 왠지 이 노래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 왠지 여기 스튜디오에도 그 김치찌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다. 밤을 새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라. 어쩐지 기운이 넘치는 듯합니다.

(50)에서 화자가 자신이 사연을 듣고 나서 느끼는 것(50가), 머릿속의 상상(50나), 졸리지 않는 느낌(50다), 자신의 내적 감각(50라)에서 출발한 추측을 나타낸다. 이처럼 비한정 부사와의 공기에 있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에 보이는 제약의 차이가 이들 문법 항목이 내적 지각 정보라는 추측 근거의 면에서 가지는 차이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2.1.5.3. 1인칭 표현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추측 주체인 화자를 나타내는 1인칭 표현과 공기하는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8> 통사적 변별점: 어휘·표현 공기-1인칭 표현

1인칭 표현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제/내 생각에(는)	16	0	0	0	0	0
제 생각으로(써는)	1	0	0	1	0	0
제 생각은	1	0	0	0	0	0
제/내가 생각하기에(는)	2	0	0	0	0	0
제가 생각할 때는	1	0	0	0	0	0
제/내가 보기에(는)	4	1	0	1	0	0
제/내가 볼/봤을 때(는)	4	2	3	0	0	0
제가 보니까	1	0	0	0	0	0
합계(비율%)	30(0.92)	3(0.19)	3(0.24)	2(0.94)	0(0.00)	0(0.00)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제외한 네 개의 문법 항목은 모두 화자가 추측 주체임을 나타내는 1인칭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으며[103] 그 가운데 매우 큰 차이가 아니지만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1인칭 표현과 공기하는 비율이 '-겠-'과 '-(으)ㄹ 것이다'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에 비해 '-(으)ㄹ/ㄴ/는 것 같다'가 다양한 1인칭 표현과 두루 공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띄었다.

2.2. 의미적 변별점

2.2.1. 추측 근거

다음은 추측 근거[104]로 삼는 정보 유형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19> 의미적 변별점: 추측 근거

추측 근거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각	1442	44.17	683	43.23	15	1.19	179	84.04	133	93.00	86	98.84
지식	1823	55.83	897	56.77	1248	98.81	34	15.96	10	0.70	1	1.16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는 지식 정보에,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지각 정보에 보다 높은 분포율을 보여 선명한 대립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식 정보에 있어서 '-(으)ㄹ 것이다'는 '-

103)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말뭉치에서 검색한 결과 '-(으)ㄴ가/나 보다'와 1인칭 표현('내가 보이엔', '내가 볼 때는')의 공기는 2번으로 나타나며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1인칭 표현('내가 생각하기에')의 공기는 한 번만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104) 계속 강조해 왔듯이 여기에서 '추측 근거'라고 하는 것은 추측의 시작으로서의 근거 정보를 말한다.

(으)ㄹ/ㄴ/는 것 같다', '-겠-'과 뚜렷한 분포 차이를 가지며,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극히 낮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서 '-(으)ㄹ/ㄴ/는 듯하다'와 비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각 정보의 하위 유형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율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Ⅲ-20>과 같다.

<표Ⅲ-20> 의미적 변별점: 추측 근거-지각 정보

지각 정보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접	449	14.36	228	14.43	2	0.16	108	50.70	63	44.06	65	75.58
간접	301	9.22	398	25.19	13	1.03	24	11.27	59	41.26	19	22.09
내적	672	20.58	57	3.61	0	0.00	47	22.07	11	8.39	1	1.16

<표Ⅲ-20>에서와 같이 직접적 지각 정보에 있어서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ㄹ 것이다'는 각각 가장 높고 낮은 분포율로 나타나며,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것 같다'와 '-겠-'은 각각 비슷한 분포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적 지각 정보에 있어서 문법 항목마다 서로 다른 분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지각 정보에 있어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그 분포율이 서로 비슷하고 다른 문법 항목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며 '-(으)ㄹ 것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극히 제한된 분포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제약을 더 받는 것에서 덜 받는 것으로의 순서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으)ㄹ 것이다'는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그 사용이 크게 제약되며 특히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는 해당 용례가 두 개만으로 나타나 그 사용이 극히 제한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는 '-(으)ㄹ 것이다'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화자의 인식체계에 내면화된 다양한 지식 정보가 추측 근거로 작용한다.

(51) 가. 내가 제일 처음 키웠던 게 아마 금붕어일 거야. 그때 가족끼리 마트 가 가지고 동물들 있는 데 보다가 금붕어를 보고 내가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사줬거든.
나. 만약에 혈압 약을 한 가지 종류를 먹고 있었다면 그 하나를 반 알로 줄이면 될 겁니다.
다. 유명한 노래니까 아실 거예요.
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51가)에서 '아빠가 금붕어를 사 줬던' 화자의 기억, (51나)에서 의사로서의 화자가 가지는 의학적 전문지식, (51다)와 (51라)에서 '유명한 노래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이 화자의 경험적 일반화가 추측 근거가 된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소설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105] 아래 (52)에서와 같이 저자나 작중인물이 어떤 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으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쓰이는 것이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 항목이 간접적 지각 정보에 비해 직접적 정보에 더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것을 설명해 준다.

(52) 차는 정말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 서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퀴를 지탱하는 축이 부러진 모양이었다.

또한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근거 정보가 반드시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드러나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106]

(53) 가. (윤영이 황급한 모습을 보고) 이런, 윤영 양이 착각을 한 모양이군.
나.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 이제야 정말 정신이 든 모양이구나.
다. 자기 성장 집단에 참가했던 분들이 아마 잘들 살고 계신 모양입니다. 왜냐면 그 후로 얼굴을 못 뵙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5) 언어사용역 분포에 관한 내용은 2.3.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106) 이러한 결과는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ㄴ가/나 보다'가 명백한 근거가 제시된 화맥에 사용된다는 이기종(2001: 111)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라. 소석의 그림에 단단히 반한 모양이야. 여기서 팔리지 않는 것들을 모두 사 가겠다고 했대.

(53가)와 (53나)에서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가 당연히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53다)와 (53라)에서 '많은 분들이 못 뵙는' 것과 '모두 사가겠다'는 타인의 이야기가 모두 화자가 발화 이전에 획득한 지각 정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다. 이때 화자는 해당 정보를 화맥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이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내적 지각 정보와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일 때도 확인되었다.

(54) 가. 제가 머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 가족들과 함께 꽃을 꺾어서 전을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 기억이 커서도 나는 걸 보니 굉장한 추억이었던 모양입니다.

(54가)에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내적 지각 정보와 (54나)에서 가족과 꽃전을 만들었다는 기억[107]이 모두 화자 자신에게만 갖고 있는 정보지만 화맥에 명시됨으로써 마치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일종의 사실과 같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마찬가지로 '-(으)ㄴ가/나 보다'도 추측 근거가 지각 정보이든 지식 정보이든 간에 모두 화맥에 명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5) 가. 왜 안 드세요? 맛이 없나 보죠?
나. 그 쪽갈비집 거기도 체인인가 봐. 내가 지난주에 영월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쪽갈비집 들어갔는데 그 메뉴하고 똑같아.
다. ㄱ: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주신 적이 없는데.
ㄴ: 우리는 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 제가 웹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청하 씨 닮게 모습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청하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07) 기억은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남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내지 않으면 화자밖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점에서 내적 지각 정보와 비슷하다.

마. 나도 그런 조금 판타지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바. 나도 사실 그 독학 여해 프로그램의 망원시장을 갔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땐 몰랐나 보다.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쌀 맛 장난 아니었어. 나는 쌀이 너무 신기해서 쌀을 먹었단 말이야.

(55가)와 (55나)에서 직접적 지각 정보, (55다)와 (55라)에서 간접적 지각 정보, (55마)에서 내적 지각 정보, (55바)에서 화자의 기억이 시작 근거가 되며 정보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상황 맥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으)ㄹ/ㄴ/는 듯하다'는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비슷하게 소설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서 아래 (56)에서와 같이 저자나 작중인물이 어떤 장면에 대한 지각으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가. 유진은 다시 입에 손을 대고 웃음을 참는 듯했다.
나. 아침부터 살짝 문을 열어놓은 사장실에서 울려 나오는 사장의 목소리에 종이는 민정에게 물어봤지만 민정도 종이만큼이나 아는 건 없는 듯했다.

또한 '-(으)ㄹ/ㄴ/는 듯하다'는 저자가 내적 지각으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거나 작중인물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손혜옥, 2016ㄱ)에서 작중인물 자신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특징적으로는 추측된 사태가 아예 실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57) 가. 그때마다 멍하니 초점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땐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나. 맞잡은 손에서 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종이는 오늘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솟는 듯했다.

(57가)에서 저자가 아버지의 눈빛을 볼 때의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심장이 녹아내리는 실재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만큼 저자가 그렇게 느낀다고 나타낸다. (57나)에서 저자가 작중인물인 '종이'의 내면에 들어가 '종이'의 느낌으로부터의 그녀의 추측을 기술하는 것이다.

언어사용역의 제약으로 인해 '-(으)ㄹ/ㄴ/는 듯하다'가 구어에서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직접적 지각으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되는 경우가 찾아지지 않았다. 근거가 내적 지각 정보일 때는 '-(으)ㄹ/ㄴ/는 듯하다'가 실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만큼 화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특징이 있다.

(58) 왠지 여기 스튜디오에도 그 김치찌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58)에서 아나운서로서의 화자는 청중이 보내 준 글을 읽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자극으로부터 김치찌개의 냄새가 스튜디오에 풍기는 실재하지 않는 상황을 추측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듯하다'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분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59)에서와 같이 경험적 일반화(59가), 화자의 가치관(59나), 한글에 대한 문화적 통념(59다)이 추측의 시작 근거가 된다.

(59) 가. 올해는 별다른 선거가 없지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과열될 듯하다.
나. 두 형사가 파트너가 되거나 실제로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될 듯해요.
다. 대한민국 정신의 뿌리가 한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겠-'은 추측 시작 근거가 지각 정보인 경우 그 정보가 발화 현장에서 얻은 것이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08] 이러한 점에서 주로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으)ㄹ 것이다'와 '-겠-'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근거의 현장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추는 아가씨들을 보고) 아유 저 아가씨들 춥겠네.

108) 말뭉치 분석 결과 '-겠-'이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용례와 비(非)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용례는 각각 676개(42.78%)와 7개(0.44%)로 나타났다.

나. ㄱ: (전략) 여자애 해적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정부가 되게 못 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야.
ㄴ: 음~ 재밌었겠다.

(60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는 '아가씨들'이 춤추는 것과 (60나)에서 영화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선행발화는 모두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지각 정보이다. 이때 '-(으)ㄹ 것이다'가 쓰이게 되면 (60가)에서는 발화시와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에 '아가씨들'이 추울 것이라는 뉘앙스가 나며, (60나)에서는 재미있었다는 추측이 상대방의 선행발화가 아닌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겠-'은 추측 시작 근거가 내적 지각 정보인 경우, 아래 (61)에서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내적 지각의 결과로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문센을 못 가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한편 '-겠-'은 화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 정보에서 시작한 추측에도 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겠-'은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잘 쓰이는 점에서 '-(으)ㄹ 것이다'와 구분되지만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잘 쓰이는 점에서 '-(으)ㄹ 것이다'와 유사성을 가진다.

(62) 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척하지만 쪼금은 받았겠지.
나. 내일 페스티발 송 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반지름이 오백 미터니까 지름으로 하면은 일 킬로가 되겠죠.
라. 아르바이트를 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해본 사람도 못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봤을 거야.

(62가)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기억, (62나)에서 화자의 믿음, (62다)에서 수학 지식, (62라)에서 보편적 인식 등 화자의 인식체계에 내재한 정보가 추측 시작 근거로 기능한다.

하지만 이때 '-겠-'이 쓰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성이 보일 수 있었

다. 첫째, 전제인 화자의 믿음을 가정적 사실에 적용한 결과로서 '좋다', '감사하다'와 같이 화자의 정서를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겠지'로 쓰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화·청자에게 기지정보가 되는 사태를 추측하는 것이다. 셋째, '-겠지만'으로 이끄는 선행절에서 당위적 사실을 나타내며 후행절에서 이를 전제로 '-(으)ㄹ/ㄴ/는 것 같다'나 '-(으)ㄹ 것이다'를 통해 새로운 사태를 추측하는 것이다(이기종, 2001: 133-134).

'-(으)ㄹ/ㄴ/는 것 같다'는 근거 유형에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 맥락이 앞서 살펴본 다섯 개 문법 항목의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자신만이 독자적으로 쓰이는 맥락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으)ㄹ/ㄴ/는 것 같다'는 아래 (63)과 같이 비격식적 문어에서 저자나 작중인물이 상황에 대한 지각으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거나 작중인물의 내면을 관찰하여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으)ㄹ/ㄴ/는 듯하다'와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가. 사내는 준수가 아닌 것 같았다. 옷차림도 달랐고 몸집도 달랐다.
나. 윤영은 심장이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았다.

한편 '-(으)ㄹ/ㄴ/는 것 같다'는 아래 (64)에서와 같이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직·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64가, 64다)과 발화 이전에 얻은 직·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64나, 64라)에 두루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가. 와, 사람 정말 많다.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나. 죽음을 두려워 않는 걸 보니 분명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주머니가 말하던 민수라는 친구 때문입니까?
라. 기상일보를 보면 일단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더운 편이 아닌 것 같아.

또한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사용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으)ㄹ/ㄴ/는 듯하다'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만큼 화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며, '-

겠-’과 같이 지각의 결과로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이 될 만큼 자신의 심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내적 지각 정보에서 출발하여 미확인된 사태를 추측하거나 자신의 현재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도 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5) 가. 춘장 냄새가 스튜디오로 막 감도는 것 같다.
나. 가슴이 답답해서 거의 숨막혀 죽을 것 같다.
다. 머리가 너무 아파! 약 탄 술을 마신 것 같아.
라. 그 광고가 굉장히 저는 와닿아서 보험을 들 것 같아요.
라. 무릎이 시려오는 것 같아.

(65가)에서 화자는 청중이 보내 준 글을 읽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자극으로부터 춘장 냄새가 스튜디오로 감도는 실재하지 않는 상황을 추측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며, (65나)에서 화자는 심심하다는 내적 지각으로부터 죽는다는 상황을 추측함으로써 자신이 매우 심심한 내적 상태를 표현한다. (65다)에서 화자는 머리가 아프다는 내적 지각으로부터 미확인된 상황을 추측한다. (65라)에서 화자는 단순히 무릎이 시리다는 자신의 감각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도 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 가. 그날 하루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좀 제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그나마 조금 잘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가면 학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 내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
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 회사원으로서는 행동기준이 상식적인 것이고 이제 와서 이러한 것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66)에서 화자의 기억(66가), ‘경제학과 공부를 하는 데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보편적 인식(66나),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66다), 화자의 믿음(66라), ‘행동기준이 회사원에게 상식적인 것이다’라는 문화적 통념(66마) 등과 같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 정보가 추측 시작 근거로 기능한다.

2.2.2. 추측 방법

다음은 연역적 추론 방법과 가추적 추론 방법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21> 의미적 변별점: 추측 방법

추측 방법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역	1154	35.34	1576	99.75	1262	99.92	42	19.72	0	0.00	0	0.00
가추	2111	64.66	4	0.25	1	0.08	171	80.28	143	100.00	86	100.00

<표Ⅲ-21>에서와 같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추측 방법에 의해 세 가지 집단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말뭉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와 '-겠-'은 각각 가추와 연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 것이다'는 각각 '-(으)ㄴ가/나 보다', '-겠-'과 추측 방법의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겠-'과 '-(으)ㄹ 것이다'가 매우 제한되는 특정적인 상황에서 가추에 쓰일 수도 있음을 관찰하였다. 한편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모두 두 가지 추측 방법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추측 방법에서 무표적이지만 연역보다 가추에 더 높은 빈도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측 방법에 따른 분포를 앞서 살펴본 추측 시작 근거에 따른 분포와 종합해 보면 분석 기준에서 제시한 추측 방법과 추측 시작 근거 사이의 연관성이 다시금 확인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추측 시작 근거가 되는 정보 유형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쓰일 때 추측 방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핀다. 우선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시각 근거가 어떤 유형의 정보이든 간에 근거가 되는 결과 사태로부터 그 사태의 발생 원인을 추측하는 가추적 추론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67가), (67

나), (67다)가 각각 직접적, 간접적,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해당하며 (67가)를 예시로 가추적 추론 방법을 삼단논법(최성호, 2005)으로 표현하면 아래 (67가')와 같다.

(67) 가. 차는 정말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 서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퀴를 지탱하는 축이 부러진 모양이었다.
나. ㄱ: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주신 적이 없는데.
ㄴ: 우리는 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다. 나도 그런 조금 판타지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67가') 결과: 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지각)
원리: 바퀴를 지탱하는 축이 부러지면 그렇게 된다. (경험적 지식)

결론: 그러므로 바퀴를 지탱하는 축이 부러진다. (결과의 원인)

이러한 추측 방법에 따라 (67나)에서는 화자가 추측한 사태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로부터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태의 원인이 되며, (67다)에서도 역시 화자가 자신이 내적으로 지각한 결과 사태의 원인이 되는 사태를 추측한다. 특히 (67다)와 같이 추측을 표현하는 선행발화와 근거가 되는 사태를 표현하는 후행발화 사이에 '그래서'라는 접속부사가 삽입되는 용례가 말뭉치에서 낮지 않은 사용 비율(13.29%)로 나타나는 것은 관찰되었다.

두 문법 항목이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일 때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아래 (68)은 화자의 기억으로부터의 추측에 해당하며 (68가)에서 취하는 추측 방법을 표현하면 (68가')와 같다.

(68) 가. 나도 사실 그 독학 여해 프로그램의 망원시장을 갔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땐 몰랐나 보다.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쌀 맛 장난 아니었어. 나는 쌀이 너무 신기해서 쌀을 먹었단 말이야.
나. 가족들과 함께 꽃을 꺾어서 전을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 기억이 커서도 나는 걸 보니 굉장한 추억이었던 모양입니다.

(68가') 결과: 나는 독학 여행을 갔을 때 쌀 맛의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먹었다. (기억)
원리: 젤라또 아이스크림에 대해 몰라서 그때 그렇다. (지식)

결론: 그러므로 나는 그때 몰랐다. (결과의 원인)

(68나)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꽃전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나'에게 굉장한 추억이었기 때문에 커서도 기억나는 것과 같이 화자가 근거로 삼는 결과 사태의 원인을 추측한다. 여기에서 '-는 걸 보니'의 쓰임으로 선행절에서 표현된 근거 사태와 후행절에서 표현된 추측 사태가 '원인-결과'의 논리관계를 이룬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는 걸 보니'에 의해 근거와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추측된 사태가 아니라 추측 행위 자체이다. 왜냐하면 추측 방법의 논리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추측 행위가 근거를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겠-'과 '-(으)ㄹ 것이다'는 매우 제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겠-'이 쓰이는 (69가), (69나), (69다)가 각각 직접적, 간접적,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낸다. (69나)를 예시로 추측 방법을 표현하면 (69나')와 같다.[109]

(69)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추는 아가씨들을 보고) 아유 저 아가씨들 춥겠네.
나. (영화에 대한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듣고) 음~ 재밌었겠다.
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문센을 못 가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69나') 대전제: 나는 A, B, C 특징을 가지는 영화가 재미있다. (지식+감정)
소전제: 상대방은 A, B, C 특징을 가지는 영화를 보았다. (지각)
결 론: 그러므로 상대방이 본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결과)

(69나')에서와 같이 화자의 추측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얻은 지각 정보에서 시작했지만 자신이 가지던 지식을 그 지각 사태에 적용하고 도출한 사태는 지각 사태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 이와 같이 (69가)에서는 화자가 '추운 날씨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춥다'는 경험적 일반화를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춘다'는 지각 사태에 적용해서 '아가씨들'이 춥다는 결과 사태를 추측한다. (69다)에서는 힘들다는 화자의 내적 지각 사태와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죽는

109) '-(으)ㄹ 것이다'가 워낙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제약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힘든 상태가 가져올 결과를 추측한다.

'-겠-'과 '-(으)ㄹ 것이다'에 의한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도 연역적 방법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이기종(2001: 15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측 근거의 하나로서 전제적 사실을 나타내는 선행절에 '-(으)면', '-(으)니까' 등 연결어미가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래 (70)은 모두 화자의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70가)를 예시로 추측 방법을 표현하면 (70')와 같다.

(70) 가. 신해철 씨가 없었다면 전 연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반지름이 오백 미터니까 지름으로 하면은 일 킬로가 되겠죠.
다. 나는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

(70가') 대전제: ①저는 신해철 씨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었다. (사실)
②그러므로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 (사실)
소전제: 신해철 씨가 없었다. (가정적 사실)

결 론: 그러므로 저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

(70나)에서는 화자가 '지름이 반지름의 두 배이다'라는 학교 지식을 '반지름이 오백 미터다'라는 이미 아는 사실에 적용하고 지름의 길이를 도출한다. (68다)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가지던 정보인 '나는 해외여행이 좋다'는 것과 가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겠다는 결과 사태를 연역적으로 추측한다.

이상과 같이 '-겠-'과 '-(으)ㄹ 것이다'에 의한 추측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첫째, (70나')에서와 같이 심리술어가 쓰이는 연역적 추측에는 시작 근거의 정보 유형과 동일 주어 여부에 무관하게 화자의 감정, 감각 등 심리적 호소력이 근거 정보의 일부로 추측 과정에 개입한다(김흥수, 1993; 이필영, 2012). 둘째, (70가')에서와 같이 반사실 상황을 전제로 한 추측의 경우는 화자가 지식 정보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전제 사실로부터 그 사실과 반대된 상황에 대한 사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추측 상황에 비해 논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겠-'과 '-(으)ㄹ 것이다'는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그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을 추측하는 가추에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 '-겠-'에 의한 가추의 모든 용례에서는 '-겠-'이 '-

겠지'의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장경희(1985)에서의 견해를 입증해 주었다. 반면 '-(으)ㄹ 것이다'는 '추측'으로 쓰일 때 '-지'와의 결합이 제약되어 '-(으)ㄹ 거지' 대신 '-(으)ㄹ 거야'의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1) 가. ㄱ: 어, 이게 뭐지?
ㄴ: 누가 포도주 먹다가 흘린 거겠지.
→ 흘린 걸 거야/흘린 건가 보지/흘린 건 모양이지.
나. ㄱ: 팀장들이 보이지 않는데?
ㄴ: 쉬고 계시겠지.
→ 쉬고 계실 거야/쉬고 계시나 보지/쉬고 계시는 모양이지.
다. (어젯밤에 무서운 장면을 보았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악몽을 꾼 걸 거야. → 꾼 거겠지/꾼 건가 봐/꾼 건 모양이야.

(71가), (71나), (71다)는 각각 화자가 지각 정보로부터 바닥에 검붉은 얼룩이 있는 원인, 팀장들이 보이지 않는 원인, 상대방이 밤에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추측하는 경우이다. 이때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사용도 가능하며 '-지' 뿐만 아니라 '-어', '-다' 등 종결어미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말뭉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겠-'과 '-(으)ㄹ 것이다'에 의한 가추의 맥락은 화자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지각한 결과 사태로부터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현재나 과거의 사태를 추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을 취할 때는 연역적 추측에 쓰이며 관형사형 어미 '-ㄹ/을'을 취할 때는 가추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0] 이러한 연구 결

110)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이러한 추측 방법의 적용 구분은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어미는 시제·상적 의미 외에 양태적 의미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심재기(1981: 340-350)에서는 '-은'과 '-을'은 인식양태의 측면에서 각각 실질적 상태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가리키는 판단의 [+결정성]과, 실질적 상태가 아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가리킨 [-결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필영(1998: 181-183)에서는 '-은'은 사태를 지각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 쓰이는 반면 '-을'은 지각보다 추리를 통해 인지하였을 때에 쓰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필영(1998: 184)에서는 그러한 사태의 실재성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확실성이 있어서 대체로 '-은'이 '-을'보다 확실성이 강하

과가 정경미(2016)에서의 주장을 실증해 주었다. 두 문법 항목의 이러한 특정은 다른 제약적 요인을 배제한 상황에서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는 듯하다'가 앞서 살펴본 가추의 용례에서, '-(으)ㄹ 것 같다'와 '-(으)ㄹ 듯하다'가 앞서 살펴본 연역의 용례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가지는 특징적인 용법에 중점을 두고 추측 방법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72)와 같이 화자가 자신이 내적으로 지각한 정보로부터 미확인된 사태를 추측하는 경우이다.

(72) 가. 머리가 너무 아파! 약 탄 술을 마신 것 같아.
나. 그 광고가 굉장히 저는 와 닿아서 보험을 들 것 같아요.
다. 왠지 여기 스튜디오에도 그 김치찌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라. 그날 하루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좀 제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72가)와 (72나)는 화자가 아프다는 내적 감각과 광고가 마음에 와 닿는 느낌과 같은 내적 지각 정보에서 시작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추측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며 이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도 다르게 취해진다.

(72가') 결과: 나는 머리가 아프다. (내적 지각)
원리: 약을 탄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 (지식)

결론: 그러므로 나는 약을 탄 술을 마셨다. (결과의 원인)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유하고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하나는 이러한 확실성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연역이 가추에 비해 결과의 확실성이 강하다는 추측 방법의 특성과 반대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아래와 같이 말뭉치에서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으)ㄹ/ㄴ/는 것 같다'와 양태부사의 공기 양상이 또한 '-(으)ㄴ/는'이 '-(으)ㄹ'보다 확실성이 강하다는 것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이다.

	분석 말뭉치		전체 말뭉치	
	-(으)ㄴ/는/던	-(으)ㄹ	-(으)ㄴ/는/던	-(으)ㄹ
틀림없이	0.00%	0.06%	0.01%	0.05%
분명히	0.09%	0.28%	0.12%	0.21%
확실히	0.31%	0.09%	0.31%	0.07%
어쩌면	0.15%	0.12%	0.10%	0.06%

(72나') 대전제: 나는 어떤 광고가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상품을 사겠다. (지식)
소전제: 그 보험 광고가 굉장히 와 닿는다. (내적 지각)

결 론: 그러므로 내가 그 보험을 들 것이다. (결과)

위와 같이 (72가)에서는 화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적 지각으로부터 그러한 지각 사태가 일어난 원인으로서 약을 탄 술을 마신다고 가추적으로 추측하는 데 반해, (72나)에서는 화자가 광고가 마음에 와 닿는 느낌으로부터 그것을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여 그러한 느낌이 가져올 결과를 연역적으로 추측한다.

다음으로 아래 (73)과 같이 화자가 내적 지각으로부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추측 방법을 표현하면 다음 (73가'), (73나')와 같다.

(73) 가. 왠지 여기 스튜디오에도 그 김치찌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합니다.
나. 무릎이 시려오는 것 같아.

(73가') 결과: 나는 스튜디오에서 김치찌개 냄새를 맡았다. (머릿속 자극)
원리: 어떤 냄새가 어떤 공간에 풍기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지식)

결론: 그러므로 김치찌개 냄새가 스류디오에 풍긴다. (결과의 원인)

(73나') 결과: 나는 어떤 느낌이 생긴다. (내적 지각)
원리: 무릎이 시려올 때 그러한 느낌이 생긴다. (지식)

결론: 그러므로 나는 무릎이 시려온다. (결과의 원인)

위와 같이 (73가)와 (73나)는 모두 화자가 내적으로 지각한 결과 사태로부터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추측하는 가추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래 (74)와 같이 '-(으)ㄹ/ㄴ/는 것 같다'가 '-었던 것 같다'의 형태로 화자가 기억으로부터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심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의 추측 방법을 표현하면 (74')와 같다.

(74) 그날 하루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좀 제가 우울했던 것 같아요.

(74') 결과: 저는 그날 하루가 마음이 무거우면서 우울했던 기억이 난다. (기억)
원리: 인간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 있다. (지식)

결론: 그러므로 제가 그날 마음이 무거우면서 우울했다. (결과의 원인)

위와 같이 (74)에서는 화자가 가추적 추론 방법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기억이 존재하는 원인으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추측한다.

2.2.3. 추측 결과

2.2.3.1. 확실성 정도

이 절에서는 추측 방법과 양태부사와의 공기 양상에 의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변별해 본다. 우선 추측 방법에 있어서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지각된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태를 유추하는 가추에만 쓰이는 반면 '-겠-'과 '-(으)ㄹ 것이다'는 특정 맥락을 제외하며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두 가지 추측 방법에 두루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추측 방법의 특성에 의해 '-겠-'과 '-(으)ㄹ 것이다'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비해 확실성 정도가 높은 편이며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확실성 정도에서 무표적인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태부사의 확실성 정도에 의해 구분된 '상', '중', '하' 정도 영역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를 살펴보겠다. 앞서 확인했던 공기 양상을 바탕으로 분포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 <표Ⅲ-22>와 같다.

<표Ⅲ-22> 의미적 변별점: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분포율: %)

확실성 정도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상	0.98	0.63	4.67	0.94	0.00	0.00

중	2.27	1.20	8.00	4.23	2.80	6.98
하	0.28	0.13	0.63	0.47	0.00	0.00

<표Ⅲ-22>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실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가 '상', '중', '하'의 정도 영역에 두루 분포하는 점에서 이들 문법 항목은 확실성 정도의 차이가 있는 양태부사와 함께 쓰여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다양한 정도의 확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신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전나영(1999)의 견해가 타당한 것임을 보여 준다. 둘째,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가 '중>상>하'의 순으로 영역별 분포율을 보이는 점에서 이들 문법 항목은 대체로 '하'에 비해 '상'과 '중'의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데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확실성 정도 '상'에 있어서 '-(으)ㄹ 것이다'가 다른 세 항목에 비해 분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 문법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상'의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확실성 정도 '중'의 영역에만 분포하는 점에서 이들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가 '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기준에 따른 확실성 정도의 판단 결과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연역에 쓰이지 않는 것이므로 확실성 정도 '상'에서 분포하지 않는 결과에 문제가 없다. 반면 주로 연역에 쓰이는 '-겠-'과 '-(으)ㄹ 것이다'도 확실성 정도 '하'에서 분포율을 보이는데 가추에만 쓰이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이러한 정도 영역에 분포하지 않는 것은 의외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와 논리학에서의 '추측'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 방법에 따른 결론의 확실성 정도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언어는 결국 사용자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므로 연역적 추론 방법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논리학에서 필연성을 갖추는 것일지라도 언어의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확실성 정도가 낮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3.2. 주관성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주관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주관성을 구분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은 그 쓰임 자체가 추측 주체인 화자를 비명시적인 참조점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띤다. 하지만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각각의 통사·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그 쓰임에 의한 ‘추측’이 더 또는 덜 주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의 기제로는 화자가 추측 주체임을 문장에서 표명하는 1인칭 상위 주어의 외현과 1인칭 표현의 공기, 화자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심리술어의 쓰임, 화자가 추측 대상 사태의 주체임을 문장에서 나타내는 1인칭 명제 주어의 명시 등이 있다. 이러한 기제의 실현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주관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1인칭 상위 주어의 외현 제약과 1인칭 표현과의 공기 양상을 통해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가 강한 주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1인칭 명제 주어의 제약을 통해서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는 강한 주관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 ‘-(으)ㄹ 것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약한 주관성, 즉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나타낸다고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심리술어와의 결합 양상에 의해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가 더 강한 주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탄도체 잠재력 약화에 따른 주관화의 기제로는 추측 근거의 비명시화가 있다. 이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주관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근거가 되는 정보가 반드시 화맥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명제 사태의 실현을 겨냥하는 힘이 외부로 분산됨으로써 ‘추측’의 주관성 의미가 매우 약한 편이다. 둘째, ‘-(으)ㄹ 것이다’는 전제적 사실이 추측 근거의 하나로서 ‘-(으)면’ 선행절에 의해 화맥에 명시되는 경향이 강하여 명제 사태의 실현에 관여하는 힘이 온전히 화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의한 ‘추측’의 주관성 의미가 또한 약한 편이다. ‘-겠-’은 ‘-(으)면’ 선행절과 함께 쓰이는 비율이 ‘-(으)ㄹ 것이다’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때 ‘좋다’, ‘감사하다’ 등 심리술어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주관성 의미

가 강한 것이다. 셋째, '-(으)ㄹ/ㄴ/는 것 같다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화자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관성 의미를 보다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ㄴ/는 듯하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주관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주관성, 즉 상대적으로 강한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주관화 기제의 실현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제외한 네 개의 문법 항목은 무조건 강한 주관성 또는 강한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일 뿐이다.

2.3. 화용적 차원

2.3.1.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

2.3.1.1.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사용될 때 전략의 유형과 유형별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23> 화용적 변별점: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

상대방 존중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행위 수행 부담 완화	152	4.66	168	10.63	10	0.79	0	0.00	0	0.00	0	0.00
정보 영역 존중	42	1.29	0	0.00	0	0.00	4	1.88	12	8.39	1	1.16
부정적 의도 완화	20	0.61	0	0.00	0	0.00	2	0.94	0	0.00	0	0.00
공감하기	11	0.34	65	4.11	0	0.00	0	0.00	0	0.00	0	0.00
위로하기	0	0.00	0	0.00	28	2.22	0	0.00	0	0.00	0	0.00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용되는 전략의 유형과 유형별 사용 비율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문법 항목 가운데 ‘-(으)ㄹ/ㄴ/는 것 같다’는 ‘위로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로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다양한 전략적인 용법을 가지는 것이며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정보 영역 존중’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인 용법에 보다 큰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서 유일하게 ‘위로하기’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문법 항목과 명확히 차별된다. 이외에 ‘-겠-’은 ‘행위 수행 부담 완화’와 ‘공감하기’의 전략으로 쓰일 때, ‘-(으)ㄴ가/나 보다’는 ‘정보 영역 존중’으로 쓰일 때 그 사용 비율이 해당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문법 항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쓰이는 양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법 항목 간의 화용적 변별점을 밝히도록 한다.

(1) 행위 수행 부담 완화

화자가 상대방에게 요청, 명령, 제안 등과 같이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기대하는 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소극적인 체면[111]을 위협하게 된다(김혜련·전은주, 2013). 이때 화자는 행위 수행 여부를 상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함으로써 행위 수행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며 상대방의 체면을 배려하려고 한다.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는 부담 완화의 전략

111) 브라운·레빈손(Brown·Levinson, 1978, 1987)에서 체면을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적극적 체면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환영받기를 바라는 것이며, 소극적 체면은 화자가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으로 쓰일 수 있는데 사용 비율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으)ㄹ 것이다'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문법 항목이 행위 수행 부담 완화의 전략으로 쓰이는 것은 '소망 표현하기', '제안하기', '의무 진술하기', '허용하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2] 첫째, 화자는 이들 문법 항목을 '-(으)면 좋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 사항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요구를 추론하게 하여 직접적인 행동 부과가 주는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때 '-겠-'은 '좋다' 외에 '감사하다', '고맙다'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75) 가. 우리는 이때까지 마라탕 하면은 이것저것 우리가 골라가지고 만들어 주는 그런 집을 많이 갔잖아. 근데 그쪽은 다 넣어서 직접 만들어주시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 다음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나. 혹시 이분의 지갑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다.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 페스티발 송 음원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가)에서 화자는 친구인 상대방에게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고 요청하는 것을 자신의 소망 사항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75나)에서 아나운서는 청중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자신의 희망 사항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75다)에서 화자는 방송에서 청중에게 축제에 와 달라는 요청을 '와 주세요'와 같은 직접 요청이 아닌 자신의 희망 사항으로 간접적으로 말한다. 또한 (75다)와 같이 단순히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와 같은 감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손세모돌, 1989: 187). 이때 화

112) 유형별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의 분포 양상은 다음과 같다.

행위 수행 부담 완화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소망 표현하기	-(으)면 좋-	30	0.92	77	4.87	0	0.00
	-(으)면 감사하-/고맙-	0	0.00	12	0.76	0	0.00
제안하기	-는 게/것도/어도 좋-/괜찮-	63	1.93	11	0.70	6	0.48
의문 진술	-어야 (되/하-)	26	0.80	20	1.27	2	0.16
허용하기	-어도/(으)면 되-	32	0.98	39	2.47	2	0.16

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수행이 화자에게 감사한 일이 될 것임을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화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신이 화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윤정화, 2014: 74).

둘째, 화자는 이들 항목을 '-는 게/것도/어도 좋다/낫다/괜찮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요청을 서로 또는 상대방을 위한 제안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대방 자신이 명제 내용에 언급된 행위의 수혜자가 된다고 느끼게 하며 부담을 완화시킨다(정효은, 2008: 22; 박소연, 2018: 79).

(76) 가. ㄱ. 그리고 또 전주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유명하니까 또 맛집 탐방 이런 콘셉트로 또 한 번 여행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ㄴ. 전라도에 진짜 나는 다시 가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여수 바다를 꼭 보고 싶거든. 물론 부산 밤바다도 예쁘긴 하지만 새로운 밤바다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 관련해서 펀딩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정말로 미대를 원한다면 책도 읽으셔야 돼요. 책도 미술사하고 그다음에 철학과 어떤 그 역사에 관한 책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쫌 몇 권이라도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76가)에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로서의 화·청자는 각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요청을 서로를 위한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76나)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의 요청을 제안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76다)에서 교육 본부장으로서의 화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응시나 면접 준비생인 청중을 위한 제안으로써 책을 읽어두는 것과 같은 자신 요구를 이끌어낸다.

셋째, 화자는 이들 문법 항목을 의무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야 하다/되다'와 결합하여 마치 해당 행위가 화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추측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화자의 의도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 발화수반력의 강도를 약화할 수 있어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준다(이선명, 2009; 김해연, 2011).

(77) 가. ㄱ: 나는 이제 늙어 가고 있어요. 이제 곧 총장이 될 겁니다. 이미 내정되었다는 연락이 있었지요. 지금으로서는 학내 일도 바쁘답니다.
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김 교수가 없으니 박 교수님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수리 터널 사차로에는 도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다는 현장제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 ㄱ: 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ㄴ: 실천.
ㄱ: 네. 실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넷째, 화자는 이들 문법 항목을 허용을 나타내는 '-(으)면/어도 되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행위 요구를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가 화자의 요구를 추론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한다(구현정, 2004; 김혜련·전은주, 2013).

(78) 가. 어떤 대학들은 이렇게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이런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인재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둘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짧은 문자나 무료 메시적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약에 혈압 약을 한 가지 종류를 먹고 있었다면 그 하나를 반 알로 줄이면 될 겁니다.

(78가)에서 화자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입학 준비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허락하는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78나)에서 화자는 청중들이 사연을 보내 주는 데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함으로써 상대방이 화자의 요구를 추론하도록 한다. (78다)에서 의사로서의 화자는 청중들이 약을 반 알로 줄일 수 있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2) 정보 영역 존중

화자는 상대방에 관한 상황에 대해 발화할 때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보 영역

을 침범하지 않고 공손을 드러내기도 한다.[113] 말뭉치 분석 결과 '-겠-'과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네 개의 문법 항목은 모두 이러한 공손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중 '-(으)ㄴ가/나 보다'가 다른 항목에 비해 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화·청자의 관계는 상대방이 화자보다 힘을 가지는 것이거나 힘의 격차가 없지만 서로 모르거나 아직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확인되었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화자가 상대방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상대방 정보 영역 존중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노지니, 2004: 10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손 전략은 평서문뿐만 아니라 확인의문문으로도 실현될 수 있음은 관찰되었다.[114]

(79) 가. ㄱ: 저어, 수강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ㄴ: 그러지요. 수강신청을 한 번도 <u>해보지 않았나 보죠?</u>
나. ㄱ: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지난주에는 쫌 방송을 쉬게 됐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일이 많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ㄴ: 역시 연말이라는 그런지 일이 굉장히 <u>많으신가 봐요</u>.
다. ㄱ: 아까의 그 일행분이셨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땐 이래저래 생각할 것이 많아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ㄴ: 아닙니다. 괜한 신세를 져서.
ㄷ: 두 사람은 <u>구면인 모양이군</u>.

(79가)와 (79나)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는데도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위해 확인의문문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불확실하게 표현한다. (79다)에서 화자는 'ㄱ'과 'ㄴ'의 선행 대화를 통해 둘이 구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ㄹ/ㄴ/는 모양이다'

113) 김동욱(2000: 178-179)에서는 공손(정중함, politeness)과 관련되는 문제로 '정보의 관할권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화자는 상대방의 '관할권'에 속한 정보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관할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므로 단정적 표현을 추측 표현으로 대신함으로써 서로의 관할권을 지켜준다. '관할권'은 이혜용(2003)에서 '정보 영역'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의 '관할권'이나 '정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극적인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4) 선행연구와 달리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확인의문문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풍자하거나 빈정거리는 불손 전략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뭉치에서 관찰하였다.

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지켜 준다. '-(으)ㄴ가/나 보다'가 이러한 전략으로써 선호되는 것은 이 문법 항목이 가지는 객관성과 직결된다.

한편 사용 비율이 낮지만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는 또한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두 문법 항목은 어미 '-은데(요)'와 결합되는 형태로 즐겨 쓰이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80) 가. ㄱ: 디자인 예쁘다. 잘 나왔어. 마지막으로 틀린 것 없나 잘 검토해 보고.
ㄴ: 예. 그런데 대리님,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나. ㄱ: 제가 20대부터 산행을 시작해서 한 10 몇 년을 꾸준히 다녔고요. 그러면 웬만한 산은 다 갔다고 보면 될 거예요.
ㄴ: 우리나라 산은 거의 다 가보신 듯한데요. 혹시 해외에 히말라야 뭐 원정 같은 그런 건 생각 있어요?

(80가)에서 화자가 책상에 놓여 있는 대리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을 목격하는데도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 '-은데(요)'는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여 문장의 끝을 분명히 맺거나 단정 짓지 않는 효과가 생겨 공손을 나타내기도 한다(유혜령, 2010: 398). (80나)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선행 발화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잘 알고 있는 상대방에 관한 사태를 '-(으)ㄹ/ㄴ/는 듯하다'로 불확실하게 발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지켜 준다.

(3) 부정적 의도 완화

화자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대할 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 불확실한 앎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의도를 완화시켜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려고 한다(윤정화, 2014: 96-97).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ㄴ/는 듯하다'는 부정적 의도 완화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는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를 사용하여 '아니다', '어렵다'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는 명제의

사실성을 낮추어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의도를 약화시켜 공손을 드러낼 수 있다.

(81) 가. ㄱ: 내일 아침에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고 바로 GT로 가봐요. 이번 일 마무리될 때까지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작업을 해줬으면 하던데.
ㄴ: 그쪽에 상주하면서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 ㄱ: 저녁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ㄴ: 그것은 좀 어려울 듯해요.

(81가)에서 화자는 상사의 지시에 대해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도를 단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마치 수락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윤은미, 2004: 125). (81나)에서 화자는 '-(으)ㄹ/ㄴ/는 듯하다'를 사용하여 '어렵다'의 쓰임으로 표현된 부정적인 명제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는 의도를 부드럽게 전달한다.

또한 화자는 '-(으)ㄹ/ㄴ/ 것 같다'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거절이나 반대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공손을 나타내기도 한다.

(82) ㄱ: 야구 개막 막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가가지고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치킨 먹고 막 맥주랑 해가지고 같이 놀래?
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누구 집 가가지고 티브이 경기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82)에서와 같이 화자가 친구인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을 서로를 위한 제안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반대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4) 공감하기

화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충족시켜 존중을 드러낼 수 있다.[115] 말뭉치 분석 결과 '-겠-'과 '-(으)ㄹ/

ㄴ/는 것 같다'는 화·청자가 힘의 격차가 없으며 서로 강한 친밀감을 가지거나 원래 그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친밀감의 표출이 필요한 발화 상황에서 '공감하기'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으)ㄹ/ㄴ/는 것 같다'의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화자는 '-겠-'을 '공감하기'의 전략으로 사용할 때 다양한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감정이입을 통해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거나(황주하, 2013, 2015), '-(으)면 좋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도 역시 같은 바람을 표현하여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손을 나타낸다(정미진, 2014: 97).

(83) 가. ㄱ: 내가 지각을 한 적 있단 말이야. 근데 그날 데뷔 첫날이라 폴라로이드도 번호를 뽑았는데 하필 내 번호가 뽑혔더라고 나 그때 진짜 울고 싶었어.
ㄴ: 너 참 속상했겠다.
나. 다음 주 금요일에 일 학년 딸 아이 다진이의 첫 운동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달리기 일등도 하고 잘 달렸는데 이번에도 일등하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 달리기 진짜 일등 하면 좋겠다.

(83가)에서 화자는 팬미팅에 대해 속상한 일을 겪었던 친구의 심정을 추측하고 공감하여 말한다. (83나)에서 화자는 청중이 보내 준 글을 읽고 딸이 첫 운동회에서 일등을 하기를 바라는 상대방의 욕구를 인정하면서 자신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여 상대방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겠-'은 '-(으)ㄹ/ㄴ/는 것 같다'에 비해 '공감하기'의 전략으로 훨씬 더 선호 되는 것은 '-겠-'이 가지는 추측 근거의 현장성과 주관성의 실현 방식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본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자신의 내적 지각 정보나 기억으로부터 자신이 느끼거나 경험했던 심적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주관성이 실현되는 데에 비해 '-겠-'은 화자가 현장에서의 직·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 상대방이나 제삼자의 심적 상태를 추측하는 과정에 자신의 감정이 동반되어 주관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

115) 이는 리치(Leech, 1983: 132)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공감을 최대화하라'라고 제시하는 '공감 격률(Sympathy Maxim)'에 해당되기도 한다.

(5) 위로하기

화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강한 확실성을 가지고 표현하여 상대방의 근심이나 불안감을 줄여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거나 격려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유지·증진시켜 줄 수 있다. 말뭉치 분석 결과 화·청자가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이 서로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나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친밀감의 표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는 '위로하기'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4) 가. ㄱ: 코로나 땜에 회사 차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계속 쉬었잖아. 그나마 7월 달부터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풀려가지고 오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일을 해야 월급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너는 좋겠다 나보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버니까
ㄴ: 형도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리고 형은 컴퓨터 같은 거 잘하니까 하면은 금방 할 거야.
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에요. 성격 좋고 어디를 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듣는데 정작 여자들은 몰라주네요 흑흑흑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간 네 알아보는 여자가 딱 나타날 거예요.

(84가)에서 화자는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잘 못 버는 상황에 대한 친구의 걱정을 알게 되고 긍정적인 미래의 상황이 곧 다가올 것임을 강한 확실성을 가지면서 표현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84나)에서 아나운서는 청중이 보내 준 글을 읽고 '자신이 괜찮은 남자라고 알아봐 주는 여자가 없다'는 상대방의 고민을 느끼면서 그러한 여자가 나타날 것임을 강하게 확신하며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위로한다.

'-(으)ㄹ 것이다'가 '위로하기'의 전략으로 잘 사용되는 것은 이 문법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확실성 정도 영역에 선호되는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상대방의 불안감을 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116]

116) '-(으)ㄹ 것이다'가 '위로하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손혜옥(2016ㄱ: 114-115)에서는 화자에게 내면화된 정보, 즉 주관적인 지식에 근거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화자의 막연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달리 황주하(2013: 240)에

2.3.1.2. 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사용될 때 전략의 유형과 유형별 분포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24> 화용적 변별점: 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

화자 겸손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축소 표현	화자 사태	221	6.77	11	0.70	0	0.00	6	2.82	7	4.89	0	0.00
	제삼 사태	573	17.55	245	15.51	177	14.01	29	13.61	21	14.68	4	4.65
잘못을 인정하기		16	0.49	0	0.00	0	0.00	0	0.00	4	2.80	0	0.00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제삼 사태에 대한 축소 표현'으로 쓰일 수 있으며 그 사용 비율이 앞서 살펴본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손 전략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쓰이는 양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축소 표현

화자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전달할 때 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을 기대한다. 이때 화자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내용에 대해 상대

서는 '-ㄹ 것이다'는 확실성이 강한 경우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쓰임이 확장되어 어떤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화용적 기능으로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손혜옥(2016ㄱ)에서와 같이 화자가 자신이 추측한 내용에 대한 낮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위로는커녕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황주하(2013)의 입장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방도 그렇게 수용하게 하려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드러내는 단언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나 압박감을 주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불확실한 앎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축소 또는 약화하여 발화 내용을 겸손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부담을 줄여 공손을 드러낸다(홍승아, 2020: 99).[117] 말뭉치 분석 결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이러한 전략으로 낮지 않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문법 항목은 축소 표현으로 쓰이는 구체적인 양상에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겠-'이 축소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118] 첫째, '-겠-'은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119]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청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조심스럽게 제시하여 공손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종, 2001; 안윤미, 2007).

(85) 가. ㄱ: 그래서 좀 달리 말하자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u>다양성이지 않겠습니까?</u>
ㄴ: 그렇죠 그렇죠.
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하면 생명과학 투를 선택한 학생들은 <u>불리하겠죠?</u>

(85가)에서 화자는 확실한 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측하여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85나)에서 화자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

117) 홍승아(2020: 99-100)에서는 화자의 겸양화를 통한 공손 표현을 '화자 겸손화 표현', '발화 내용의 겸손화 표현', '울타리어 첨가 표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추측성 표현은 우회적인 성격을 갖는 완곡/간접적인 표현으로서 '발화 내용의 겸손화'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물론 앞서 살펴본 상대방 존중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써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사용도 발화 내용에 대한 축소나 약화 효력을 나타내지만 발화 내용이 청자와 관련되어 주요 논의 대상이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연관되지 않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약화하는 축소 표현과 구분된다.

118) '-겠-'의 실현 형태가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삼 사태에 대한 축소 표현	비격식적 구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문어		격식적 문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간접인용)+가능성	12	0.76	37	2.34	3	0.19	55	3.48
수사의문문	9	0.57	94	5.95	10	0.63	23	1.46
-(으)면 좋-	28	1.77	1	0.06	0	0.00	0	0.00

119) 그중 '-겠-'이 '-지 않-' 등 부정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반어의문문은 61회(3.86%)로, '-지'와 결합하여 쓰이는 확인의문문은 55회(3.48%)로 나타났다.

화·청자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전달한다. 축소 표현으로서 수사의문문에 쓰이는 '-겠-'은 격식적 구어에서 가장 많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사용역에 따른 사용 경향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단언보다 질문 형식의 진술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담화 상황에서 더 유효하기 때문이다.

둘째, '-겠-'은 가능성 표현 '-(으)ㄹ 수 있다/없다'와 직접적으로 결합하거나 간접인용 표현[120] '-다고/라고 하-'가 선행되어 '-다고/라고 할 수 있겠다'의 형태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1] 후자는 화자 자신의 의견을 인용 표현을 통해 마치 남의 목소리처럼 표현하여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객관화하는 것으로서 전자보다 화자의 목소리가 더욱 완화된 느낌으로 전달된다(유혜령, 2010: 397; 이윤진, 2015: 143).

(86) 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대병원 인권센터가 앞으로 어떤 성과와 족적을 만들어 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나. 이러한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키지루시유업 사내에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는 두 번의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86가)에서 화자는 명제 내용에 '-(으)ㄹ 수 있겠다'의 형태를 사용하여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86나)에서 화자는 '-라고 할 수 있겠다'의 형태를 통해 명제 내용이 자신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 입장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말한다. 수사의문문과 달리 이러한 형태는 격식적인 문어에 더 많이 실현되었음은 확인되었다.

셋째, '-겠-'은 '-(으)면 좋겠다'의 형태로 쓰여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축소하여 표현함으로써 정보 수용에 대한 상대방의

120) 이때의 간접인용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아닌 필자의 평가나 판단을 다시 반복하는 '자기인용구문'이다(신영주, 2011: 49). 박나리(2009: 54-56)에서는 자기인용이 객관성 획득을 위해 필자가 간접적 혹은 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1) '-겠-'이 가능성 표현과 직접 결합되는 형태(58회, 3.67%)와 '간접인용+가능성 표현'과 결합되는 형태(49회, 3.10%)가 비슷한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부담을 줄여 주고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7) 국민들도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난민들로 하여금 문화의 교류 성장 또 경쟁력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난민들에 대하여 잘해 줬으면 좋겠어.

(87)과 같이 화자는 국민들이 난민들을 잘해 주는 사태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약화시켜 이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부담을 덜해 준다. 이러한 쓰임은 비격식적 구어에서 많이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는 축소 표현으로 쓰일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문법 항목은 대체로 '(-다고/라고 하-) -ㄹ 수 있다', '필요하다' 등 판단형용사, 그리고 당위성 표현 '-어야 하-/되-'와 결합하여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고 추측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보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2]

(88) 가. 그 점에서 이 책은 그 실험이 성공적이든 실패로 끝나든 역사와 대중의 만남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방식을 창안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과감한 모험심과 도전심을 가지고서 경쟁과 부딪쳐서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강한 집념. 인내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인재 육성시에도 전문 지식과 더불어 건전한 사업마인드와 도덕성, 윤리의식을 함께 겸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88가)에서 화자는 간접인용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명제 내용과의 심리적 거리를 두고 가능성 표현과 '-(으)ㄹ 것이다'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실성 정도를 약화시킨다. (88나)와 (88다)에서 화자는 판단형용사 '필요하다'와 당위성 표현 '-어야 하-'에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를 결

122) 언어사용역에 따른 '-(으)ㄹ 것이다'와 '-(으)ㄹ 것 같다'의 실현 형태 및 형태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축소 표현		비격식적 구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문어		격식적 문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으)ㄹ 것이다	(간접인용)+가능성	3	0.24	6	0.48	0	0.00	77	6.10
	판단형용사	4	0.32	0	0.00	1	0.08	37	2.93
	-어야 하/되-	0	0.00	2	0.16	0	0.00	20	1.58
-(으)ㄹ 것 같다	판단형용사	68	2.08	46	1.41	3	0.09	29	0.89
	(간접인용)+가능성	22	0.67	31	0.95	1	0.03	11	0.34
	-어야 하/되-	15	0.46	22	0.67	0	0.00	4	0.12

부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123]

한편 주목될 만한 것으로서 '-(으)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나 자신의 느낌 또는 감정 등을 발화할 때 명제 내용을 축소하여 겸손하게 발화하는 데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었다.[124] 이때 명제 내용이 경험에서 오는 개인적 느낌이나 생각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박선현, 2009: 40) 화자가 단언이 아닌 '-(으)ㄴ/는 것 같다'를 통해 명제 내용을 완곡하게 진술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89) 가. 나는 완전 진짜 나이 차이를 따지고 따지는 편인 거 같아.
나. 체리 베이스에다가 콜라 섞어서 먹었던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마케팅 문제였는지 너무 안 팔려갖고 빨리 단종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다. 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설거지 알가와 피자 알바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한결 더 신나지고 활기차지는 것 같습니다.

화자는 (89가)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 (89나)에서 맛있는 음식이 빨리 단종된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 (89다)에서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한 개인적 느낌, (89라)에서 노래를 들은 후 자신의 느낌을 '-(으)ㄴ/는 것 같다'를 통해 약화시킴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특정 표현과 결합되

123)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위성 표현 '-어야 하-/되-'와 결합하여 '행위 수행 부담 완화'의 전략으로 쓰이는 데 '-겠-'은 '-(으)ㄹ 것이다'보다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방과 무관한 사태의 발화 내용에 대한 축소 표현으로 쓰이는 데에는 '-(으)ㄹ 것이다'는 '-겠-'에 비해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으)ㄹ 것이다'가 높은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데 선호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행위 요구가 부담이 큰 것이므로 확실성 정도가 높은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부담 완화에 있어서 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24) '-(으)ㄴ/는 것 같다'가 말뭉치에서 화자 사태에 대한 축소 표현으로 총 221회(6.77%)로 사용되었으며 비격식적 구어에서 183회(5.60%), 격식적 구어에서 20회(0.61%), 비격식적 문어에서 18회(0.55%), 격식적 문어에서 0회로 나타났음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선현(2009)에서의 그것과 일치한다. 박선현(2009: 39-40)에서는 실제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화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즉 화자 내부의 상태를 진술할 때 '-(으)ㄹ/ㄴ/는 것 같다'를 고빈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정형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격식적 문어에, '-(으)ㄴ가/나 보다'는 격식적 구어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0) 가.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듯하다.
나.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주고도 선의로 줬다는 궤변이나 수억원을 탈세하고도 일시적 방송은퇴 선언이라는 각본에 짠듯한 변명은 신선함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더욱 질타의 강도가 커지는 모양이다.
다. 결국 지영 씨가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도 누가 그랬는지를 알고 있었나 보죠?

(90가)에서 저자는 당위성 표현에 '-(으)ㄹ 듯하다'를 결부하여 사용함으로써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완화시킨다. (90나)에서 저자는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통해 명제 내용을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동시 객관화한다. (90다)에서 화자는 '-(으)ㄴ가/나 보다'가 쓰이는 확인의문문을 사용하여 명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으)ㄴ가/나 보다'도 '-(으)ㄴ/는 것 같다'와 비슷하게 구어에서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를 축소하여 발화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5] 하지만 이때의 명제 내용은 대부분이 화자의 장점이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으)ㄴ/는 것 같다'와 상이하다. 이는 '-(으)ㄴ가/나 보다'가 상대적으로 주관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어 화자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91) 가. 아이, 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이 방면으로 소질이 있나 봐요.
나. ㄱ: 여름을 좋아하면 청춘이죠.
ㄴ: 하~ 저는 아직 청춘인가 봐요.

125) '-(으)ㄴ가/나 보다'가 화자 자신 사태에 대한 축소 표현으로써 총 8회(5.59%)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격식적 구어에서 2회(1.40%), 격식적 구어에서 5회(3.50%), 비격식적 문어에서 1회(0.70%)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화자가 (91가)에서 자신이 요리에 소질을 가지는 것을, (91나)에서 자신이 아직 청춘인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화자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자는 '-(으)ㄴ가/나 보다'를 통해서 정보 내용을 축소하면서 객관화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 '-(으)ㄴ/는 것 같다'가 쓰이면 명제 내용의 확실성 정도가 여전히 축소되지만 주관성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겸손의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2) 잘못을 인정하기

화자는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그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손상시킴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드러내기도 한다(윤정화, 2014: 117). 그런데 본래 이러한 상황은 화자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단정적으로 발화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큰데 왜 불확실한 앎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이로 인한 자신의 체면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뭉치 분석 결과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기'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으)ㄴ/는 것 같다'에 비해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문법 항목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으)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자신과 강한 친밀감을 가지는 상대방에게 누를 끼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맥락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미안하다'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와 달리 '-(으)ㄴ가/나 보다'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누를 끼친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상대방과 덜 연관되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맥락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화·청자가 서로 모르거나 갖는 친밀감이 중립적인 정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2) 가. 부모님께 언제 말씀드릴 건가요?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 ㄱ: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군요.

(92가)에서 화자는 약혼했다가 부득이 파혼해야 하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92나)에서 화자는 사람을 잘못 알아봐서 상대방을 부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공손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수 자체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은 '-(으)ㄴ/는 것 같다'에 비해 실수 인정으로 인한 화자 자신의 체면 손상에 대한 완화 의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2.3.1.3. 상대방 체면 손상을 통한 불손 전략

다음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자가 자신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려는 불손 전략으로 사용되는 양상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Ⅲ-25> 화용적 변별점: 상대방 체면 손상을 통한 불손 전략

상대방 체면 손상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불손 전략	8	0.25	13	0.82	4	0.32	1	0.47	3	2.10	4	4.65

말뭉치 분석을 통해 '-(으)ㄹ/ㄴ/는 듯하다'를 제외한 다섯 개 문법 항목은 불손 전략으로 쓰일 수 있으며 그중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으)ㄴ가/나 보다'의 분포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불손 전략의 실현 양상에는 문법 항목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우선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겠-',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여 공손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불손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짓 공손'[126]의 전략으로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3) 가. ㄱ: 보고 싶었어요. 선배, 보고 싶었어요!
ㄴ: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잊어버린 모양이지? 그렇게 쉽게 그런 소리가 나와?
나. ㄱ: 혜진 씨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앞으로도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ㄴ: 신혜진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미 다 자랐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올려다보려면 목 아파요.
ㄱ: 풋, 이게 종이 씨 매력인가 봐요.
다. ㄱ: 외로운 아이야. 당신이 더 외롭게 만들면 용서하지 않겠어.
ㄴ: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라. ㄱ: 내 손에 이렇게 잡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보았겠지? 평소에 감히 나에게 손찌검을 하더니 오늘 어디 한번 맛 좀 보아라.

(93가)에서 화자는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이는 확인의문문을 사용하여 겉으로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여 공손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명제 내용을 강하게 긍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꼬는다. (93나)에서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불확실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연적인 상대방에 대한 비꼼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93다)에서 화자는 부정적인 내용을 불확실하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대방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을 나타낸다. (93라)에서 화자는 명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한다.

이와 달리 '-(으)ㄹ 것이다'는 높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데 선호되는 것으로서 화자가 상대방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일부러 손상시켜 불손의 의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6) 이영래(2006)에서는 불손 전략('반공손전략')의 한 유형으로써 풍자 또는 거짓 공손은 화자가 공손전략을 써서 FTA를 하나 그 공손전략이 표면적인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94) ㄱ: 해성이 아빠, 욕하지 마세요. 당신답지 않아요.
ㄴ: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다만 냉철한 이성으로 악을 지배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것뿐이야. 너 같은 짐승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다.

(94)에서와 같이 화자가 상대방이 악을 지배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닌 짐승임을 강한 확실성을 가지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여 불손을 나타낸다.

2.3.2.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다음은 매체와 격식성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분포의 경향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 말뭉치 전체를 대상으로 분포 빈도와 분포율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표Ⅲ-26> 화용적 변별점: 언어사용역-매체와 격식성

언어사용역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체	구어	1371.0	83.98	515.4	65.24	191.0	30.25	11.7	10.97	49.6	68.60	1.9	4.40
	문어	261.6	16.02	274.5	34.75	440.5	69.75	95.0	89.03	22.8	31.54	41.3	95.60
격식성	격식	439.5	26.92	386.2	48.89	340.9	53.98	26.5	24.84	33.5	46.33	6.7	15.51
	비격식	1193.1	73.08	403.7	51.10	290.6	46.02	80.2	75.16	38.8	53.67	36.5	84.49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언어사용역 분포 양상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들 문법 항목은 매체에 따라 구어에서의 분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와 문어에서의 분포율이 보다 높은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어에서 선호되는 집단 가운데는 '-(으)ㄹ/ㄴ/는 것 같다'가 80%가 넘는 분포율로 나타나 서로 비슷한 분포율을 가지는 '-겠-'과 '-(으)ㄴ가/나 보다'와 큰 차이를 보이며, 문어에 선호되는 집단 가운데는 분포율이 90%정도에 이른 '-(으)ㄹ/ㄴ/는 듯하다'와 '-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으)ㄹ 것이다'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격식성에 있어서는 '-(으)ㄹ 것이다'를 제외한 다섯 개 문법 항목은 모두 비격식적 사용역의 분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으)ㄹ 것이다'의 격식적 사용역의 분포율은 비격식적 사용역의 그것과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비격식적 사용역의 분포율이 70%가 넘어 비격식적 사용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겠-'과 '-(으)ㄴ가/나 보다'는 격식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보였다.

이어서 언어사용역별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Ⅲ-27>과 같다.

<표Ⅲ-27> 화용적 변별점: 네 가지 언어사용역

언어 사용역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비격식적 구어	9954	60.97	2071	26.22	652	10.32	25	2.34	197	27.25	7	1.62
격식적 구어	3756	23.01	3084	39.04	1258	19.92	92	8.62	298	41.22	12	2.78
비격식적 문어	1977	12.11	1967	24.90	2254	35.69	777	72.82	191	26.42	358	82.87
격식적 문어	639	3.91	778	9.85	2151	34.06	173	16.21	37	5.12	55	12.73

'-(으)ㄹ/ㄴ/는 것 같다'는 일상대화와 같은 비격식적 구어에서의 분포율이 가장 높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사용역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분포율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분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겠-'과 '-(으)ㄴ가/나 보다'는 격식적 구어에서의 분포율이 가장 높으며 비격식적 구어와 비격식적 문어에서의 분포율이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그 뒤에 이는 점에서 분포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문법 항목이 격식적 구어에서 선호되는 것은 '-겠-'이 다양한 형태로서 다양한 공손 전략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과 '-(으)ㄴ가/나 보다'가 낮은 주관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으)ㄹ 것이다'는 신문 기사나 보고서와 같은 격식적 문어에서의 분포율이 비격식적 문어에서의 그것보다 조금 낮지만, 격식적 문어라는 동일 언어사용역에서 보았을 때는 이 문법 항목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ㄹ 것이다'가 격식적 문어에서 선호되는 것은 이 문법 항목이 가지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론 방법, 낮은 주관성, 높은 확실성 정도의 의미적 특성들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개인적 생각에 대한 논리적 기술과 사건이나 사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이나 논평이 요구되는 격식적 문어의 특성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소설과 같은 비격식적 문어에서의 분포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으)ㄹ/ㄴ/는 듯하다'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저자나 작중인물의 추측을 묘사하는 데 잘 쓰이는 반면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어떤 장면에 대한 지각 정보로부터의 저자나 작중인물의 추측을 서술하는 데 더 많이 쓰이는 점에서 차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소결론

지금까지 말뭉치 기반 연구를 통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통사·의미·화용적 변별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세 가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차원에서의 세부 측면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차이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앞서 포착한 통사·의미·화용적 변별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Ⅲ-28>과 같다.

<표Ⅲ-28> 말뭉치 기반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

영역				-겠-	-(ㅇ)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통사적 차원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인칭	1,2인칭; (2인칭: 의문문)	1인칭	1,2,3인칭; (2인칭: 의문문; 3인칭: 소설)	1,2,3인칭; (2인칭: 의문문; 3인칭: 소설)	1인칭	1인칭
			외현	×	×	1,2,3 인칭	3인칭	×	×
		명제 주어	1인칭	높음	낮음	가장 높음	중	중	가장 낮음
			심리 술어 + 1인칭	○: 지식 정보로부터 화자 내적 상태 표현(-(으)면 좋-/괜찮-/감사하-); '심리술어+어서+죽-'; (판단형용사)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표현	△: (판단형용사)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표현	○: 화자 현재/과거/미래의 내적 상태 추측; 지식 정보로부터 화자 내적 상태 표현(-(으)면 좋-/괜찮-); '심리술어+어서+죽-'; (판단형용사)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표현	△: (판단형용사)명제 내용에 대한 판단 표현; 내적 지각으로부터 화자 내적 상태 표현;	×	×
			심리 술어 + 2,3인칭	○: 현장 지각으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공감하기')	△: 지식 정보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 현장 지각으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지식 정보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 저자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경험주인 작중인물이 내적 지각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것을	○: 경험주 겉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구어, 작중인물	○: 경험주 겉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소설)

						경험주 겉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경험주 내적 상태 추측;	기술함. (소설)	대화)	
	어미 후행	-었-		×	△: 소설	○	○: 소설	×	○: 소설
		-더-		△('-더라')	×	△('-더라')	○('-더니')	△('-더라')	○('-더라')
		-구나/-네		○	×	○	○	○	○
		-지		○(가장 높음)	△(아주 낮음)	△	○	○	○
		의문문	일반	○	×	○	△(아주 낮음)	×	×
			수사	○: 확인의문문; ○: 반어의문문; △: 감탄의문문	△: 자문의문문 (문어, '-은가' 결합형);	△: 확인의문문; △: 반어의문문;	△: 확인의문문	○: 확인의문문	○: 확인의문문
	'-(으)면' 선행절	지각 정보		△(아주 낮음)	△(아주 낮음)	△	△	△	△
		비현실 상황		○('-(으)면 좋/되다)	○	○	○	×	×
		반사실 상황		△	○	△	△	×	×
	어휘 표현 공기	양태 부사	틀림없이	×	△	△	×	×	×
			확실히	×	×	△	△	×	×
			분명히	△	○	△	△	×	×
			아마	○	○	○	○	○	○
			어쩌면	△	△	△	△	×	×
		비한정 부사		×	×	○	○	×	×
		1인칭표현		△	△	○	△	△	△
	추측	지각	직접/	○	△	○	○	○:	○:

의미적 차원	근거	정보	간접적	(발화 현장과의 인접)	(가장 낮음)			화맥에서 명시됨	화맥에서 명시됨
			내적	△: '심리술어+어서+죽-'	×	○: 내적 지각으로부터 화자 내적 상태 표현; '심리술어+어서+죽-';	○: 작중인물이 내적 지각으로부터 자신의 내적 상태 추측에 대한 저자의 서술(소설);	△: 화청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화맥에 명시됨	△: 화청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화맥에 명시됨
		지식 정보		○: '-겠지(요)' 형태; '-겠지만 ~ -ㄹ 것 같다/ㄹ 것이다/단문';	○ (가장 높음)	○: 지식 정보로부터 화자 자신에 관한 사태 추측	△	△: 기억, 화청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화맥에 명시	△: 기억, 화청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화맥에 명시
	추측 방법	연역적 추론 방법		○: 전제를 지각 사태나 가정된 사실에 적용한 결과 추측	○: 전제를 지각 사태나 가정된 사실에 적용한 결과 추측	○: 관형사형 어미 '-ㄹ/을'과 결합 형태	관형사형 어미 '-ㄹ/을'과 결합 형태	×	×
		가추적 추론 방법		△: 발화 현장의 언술 정보를 통해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과거/현재 사태 추측('-겠지'의 형태)	△: 발화 현장의 언술 정보를 통해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과거/현재 사태 추측	○: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과 결합하는 형태	○: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과 결합하는 형태	○: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태 추측	○: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태 추측
	주관성			강	약	강	중	중	약
	확실성	상		△	○	△	△	×	×

	정도	중	○	○	○	○	○	○
		하	△	△	△	△	×	×
화용적 차원	상대방 존중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 소망; 제안; 허용; 의무 진술	△: 제안; 허용; 의무 진술	○: 소망; 제안; 허용; 의문 진술	×	×	×
		정보 영역 존중	×	×	△	△	○	○
		부정적 의도 완화	△	×	○	△	×	×
		공감하기	○	×	△	×	×	×
		위로하기	×	○	×	×	×	×
	화자 겸손 공손 전략	축소 표현	○: 수사의문문 (인용)+가능성; '-(으)면 좋겠다'	○: (인용)+가능성; 판단형용사; 당위성 표현; 화자 느낌 진술	○: 판단형용사; (인용)+가능성; 당위성 표현	○	○: 화자 자신 평가 진술	△
		잘못을 인정하기	×	×	○(+친밀감)	×	○(0친밀감)	×
	불손 전략		△	△	△	×	○	○
	언어사용역 분포		구어, 격식~비격식	문어, 격식~비격식	구어, 비격식	문어, 비격식	구어, 격식~비격식	문어, 비격식

(사용 비율: 높음 ○; 낮음 △; 사용되지 않음: ×)

Ⅳ. 집합적 사례연구 기반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 양상

1. 연구 실행 과정

1.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정보

사례연구의 의의는 선택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에 달려 있다. 통계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정량적 연구에서 ‘확률적 표본선정(probability sampling, 단순 무작위 표본선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분석적 일반화를 도모하는 사례연구에서는 ‘의도적(purposive) 표본선정’을 사용한다(Merriam, 1998: 84; Yin, 2014: 90).

본 연구는 학습을 통해 연구 항목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모두 학습한 고급 중국인 학습자로 사례의 범위를 한정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째, 정보 최대화의 기준이다. 이는 선정된 사례는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화하는 사례이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연구에 호의적이고, 초기 자료에 대해 기꺼이 논평해 주는 대상 또는 자료의 질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야 함을 의미한다(Stake, 1995; 김성훈, 2001). 사례연구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으로 진행되므로 연구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연구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생각을 되도록 많고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는 연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성실한 참여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성격과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가지는 친밀도와 직결된다. 따라서 연구자가 알고 있는 학습자나 연구공동체의 추천이나 소개를 받은 학습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균형성과 다양성의 기준이다. 이는 선정된 사례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한 유형의 사례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례'(신상근, 2014: 150), 또는 '편차가 많이 나는 사례들'(Merriam, 1998: 90)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박민신(2017ㄱ)에 따라 학습자 문법 지식의 체계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육 내용으로 제공받은 명시적 문법 정보와 한국어 실생활 의사소통에서 접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입력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 한국어 교육 과정이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졌는지 한국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이루어졌는지의 학습 배경과 한국의 거주 기간 두 요인에 서로 차이를 가지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사례선정 방법인 '편리한 표본선정'과 '네트워크 표본선정'[127]을 통해 연구자 본인이 아는 학습자, 연구 공동체에서의 동료 연구자의 추천이나 소개를 받은 학습자,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추천, 소개를 받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분석적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례 수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인(Yin, 2014: 121)에서는 필요한 사례 수는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실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론이 간단하고 확실성을 지나치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 2~3개의 사례가 충분할 수 있으나 이론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면 5~6개 혹은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Ⅱ장에서의 선행연구 검토와 Ⅲ장에서의 말뭉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다차원적인 변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별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최소 5개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포화(saturation) 상태로 도달하였다는 '자료 포화'가 표본 수의 적절성 지표가 된다(楊莉萍 외, 2022: 5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들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데 더 이상 새로운 변별점 또는 변별 전략이 나타나지 않음을 가리키는 '주제 포화(thematic saturation)'와, 그러한 변별점의 의미와 변별점 간의 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의 포화를 가리키는 '의미적 포화(meaning

127) '편리한 표본선정'은 시간, 위치, 연구 장소나 참여자의 사용 및 참가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네트워크 표본선정'은 연구 참여자나 참여그룹에게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는 것이다(Merriam, 1998: 87).

saturation)'를 사례 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128] 하지만 자료 포화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해서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과정적인 것, 즉 순환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포화 여부를 확인해서 표본 추출의 중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7명→3명→2명'의 사례 추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주제 포화와 의미적 포화에 도찰하였음을 검증한 후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129] 집합적 사례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 <표Ⅳ-1>과 같다.

<표Ⅳ-1> 집합적 사례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한국어 학습 배경	직업	학습 기간	거주 기간
㉮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전공,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학습, 한국 대학 석사 졸업, 박사 수료	박사 수료 (국어학 통사론 전공)	10년	6년 9개월
㉯	중국 대학 학부 2학년 수료 후, 한국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4-6급 과정 이수, 한국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학	학부 재학 (광고홍보학 전공)	1년 6개월	1년 2개월
㉰	중국 대학 학부 한국어전공, 한국 대학 석사 수료	석사 수료 (한국어 문법교육 전공)	8년	3년 1개월
㉱	중국 대학 학부 졸업 후 한국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3-7급[130] 이수, 한국 대학 석사 재학	석사 재학 (한국어 문법교육 전공)	4년	10개월
㉲	중국 대학 학부 한국어전공, 교환학생	석사 재학	5년	1년

128) '자료 포화'는 최초 '범주의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인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로서 글레이저·슈트라우스(Glaser·Strauss, 1967)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질적 연구의 발전에 따라 자료 포화의 개념은 '데이터 포화', '주제 포화', '의미적 포화' 등 여러 형식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주제 포화는 수집된 자료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의미적/이론적 포화는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중점을 둔다(楊莉萍 외, 2022). 의미적 포화와 이론적 포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후자는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에 적용되는 데 비해 전자는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에서 자료 포화를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Hennink et al., 2017).

129) 楊莉萍 외(2022: 5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추출과 면담을 계속 진행하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질적 연구는 결코 연구 자료의 궁극적인 수집에 목적이 있지 않아 개념이나 이론의 발전 또는 검증을 이루는 데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으로 9개월간 한국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 3-5급 이수	(국어학 형태론 전공)		2개월
㉮	중국 대학 학부 한국어전공,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131]	학부 졸업 예정 (한국어 전공)	4년	-
㉯	중국 대학 학부 한국어전공,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	학부 졸업 예정 (한국어 전공)	4년	-
㉰	중국 대학 학부 졸업 후 한국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2-6급 이수, 한국 대학 석사 입학	석사 수료 (미술학 전동)	5년	4년
㉱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전공 학사, 석사 졸업, 한국 대학 박사 입학,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	박사 재학 (한국어 문법교육 전공)	8년	2년
㉲	중국 대학 학부 한국어전공,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	학부 재학 (한국어 전공)	3년	-
㉳	한국의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 1-5급 이수	학부 재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4년 11개원	5년
㉴	한국의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 3-5급 이수, 한국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학하고 졸업한 후 석사 입학	석사 재학 (의료경영학 전공)	6년	5년 6개월

또한 한국어 학습 배경과 한국의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 <표Ⅳ-2>와 같이 연구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다.

<표Ⅳ-2> 한국어 학습 배경 및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연구 참여자 구분

한국 거주 기간 / 한국어 학습 배경	2년 미만	2년 이상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 ㉯, ㉲, ㉲	㉭, ㉱, ㉱
한국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	㉯, ㉱	㉰, ㉳, ㉴

130) 연구 참여자 ㉱가 '연구급'이라고 하는 '7급' 과정은 쓰기 교육에서는 '논문 어떻게 쓰는지, 연구 방법 뭐가 있는지', 말하기 교육에서는 '좀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한 '발표나 토론', 듣기 교육에서는 '신문을 듣는 것', 읽기 교육에서는 '소설, 시, 산문, 그리고 사회, 경제에 관한 내용을 읽는 것'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석사 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서 ㉱에게 '석사 과정을 적응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다.

131) 중국 대학 한국어전공 학부생은 보통 2학년 수료 후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연구 참여자 ㉮, ㉯, ㉲는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험이 없다.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한국어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1급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를 제외하며 나머진 네 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국내에서 스스로의 독학이나 사설 언어교육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어 학습 경험을 어느 정도로 가진 것이다.

1.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1:1 대면 또는 비대면 반구조적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은 과제 수행, 구두 보고(verbal reporting)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구체적인 변별 양상을 명시화한다. 면담 과정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유도하기 위해 네 가지 유형의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제 목록과 수행 과정은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면담에 제시된 과제 목록 및 수행 과정

과제			문항 수
A	・한국어 학습 배경, 유사 문법 항목의 학습 및 사용 경험 등		20문항
B	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통사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진위형 문항을 PPT 슬라이드로 제시한다. 학습자가 문장을 읽고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며 잘못된다고 판단된 문항을 옳게 고치고 그 이유나 근거를 명시적으로 자기 보고하도록 한다.	53문항
C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1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의미적 변별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대화나 텍스트 형식의 선다형 문항을 PPT 슬라이드로 제시한다. 학습자가 연구 항목으로 이루어진 6개 선택항 중 담화 상황에 어울린다고 판단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한 후, 선택하지 않은 선택항에 대한 이유나 근거, 선택한 여러 선택항 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자기 보고하도록 한다.	36문항
D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2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화용적 변별점을 드러낼 수 있는 담화 상황(화・청자 관계, 발화 장면, 발화 의도 등)을 포함한 대화나 텍스트 형식의 선다형 문항을 PPT 슬라이드로 제시한다. 학습자가 연구 항목으로 이루어진 6개 선택항 중 담화 상황에 어울린다고 판단한 하나 또는	30문항

		여러 개를 선택한 후, 선택하지 않은 선택항에 대한 이유나 근거, 선택한 여러 선택항 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자기 보고하도록 한다.	

그중 과제 B, C, D는 Ⅲ장에서 말뭉치를 통해 도출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을 토대로 설정된 출제 기준에 따라 문항이 구성되었다.[132] 문항 개발에 있어서는 말뭉치 용례, 인터넷 자료 그리고 한국어 교재 예문을 참고하였다. 개발한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이자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선생님 세 분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검토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 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문항 수행이 끝난 직후 학습자가 문항 수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구두 보고'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는 기법(김신혜, 2020: 76)으로서 과제 수행 시점과 보고 시점 간의 간격 최소화가 자료 수집의 원칙 중의 하나(Brown·Rodgers, 2009)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두 보고가 끝난 다음 학습자가 보고한 내용을 정교화하여 그들의 지식 양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탐색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대면 면담의 경우는 아이폰 '음성 메모기(voice memos)'를 사용하여 녹음하며, 비대면 면담의 경우는 '줌(zoom)', '텐센트 회의(tencent meeting)'와 같은 원격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녹화하였다. 한편으로는 과제 수행, 구두 보고와 더불어 학습자가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나 학습 자료에 제시된 문법 정보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학습한 문법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 '방법론적인 삼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에 의한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2명 연구 참여자와의 1:1 심층 면담은 2022년 6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54회에 거쳐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기간과 시간을 제시하면 다음 <표Ⅳ-4>와 같다.

132) 출제 기준과 이에 의한 문항의 구성은 부록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Ⅳ-4> 연구 참여자별 면담 일정 및 시간

연구 참여자	면담 기간 (차례 수)	면담 시간
㉮	2022년 6월 2일 - 6월 6일 (3차례)	7시간 3분 7초
㉯	2022년 6월 4일 - 7월 11일 (5차례)	8시간 57분 2초
㉰	2022년 6월 11일 - 7월 4일 (5차례)	9시간 6분 25초
㉱	2022년 6월 13일 - 7월 11일 (4차례)	6시간 42분 33초
㉲	2022년 6월 17일 - 7월 19일 (5차례)	10시간 12분 20초
㉳	2022년 6월 18일 - 7월 9일 (7차례)	12시간 54분 41초
㉴	2022년 6월 20일 - 7월 14일 (5차례)	10시간 37분 56초
㉵	2022년 7월 25일 - 7월 29일 (4차례)	7시간 41분 47초
㉶	2022년 7월 25일 - 8월 2일 (4차례)	6시간 23분 1초
㉷	2022년 7월 25일 - 7월 31일 (4차례)	7시간 54분 9초
㉸	2022년 8월 20일 - 8월 26일 (4차례)	6시간 47분 3초
㉹	2022년 8월 21일 - 8월 26일 (4차례)	7시간 21분 35초

실제적으로 과제 수행, 구두 보고,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면담[133]의 실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 C: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1】

가: 오늘 만든 김치 맛이 어때? 엄마가 감기 걸려서 맛을 못 봤어. 나: (김치를 먹으면서) 좀 **(맵다)**. ①맵겠어요 ②매울 거예요 ③매운 것 같아요 ④매운 듯해요 ⑤매운가 봐요 ⑥매운 모양이에요 (C3)

㉱: 매운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약간 좀 자신의 느낌, 그리고 완곡하게 추측하는 거, 좀 매운 것 같아. 마지막 세 개 왜 선택하지 않느냐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되게 빨간 국물을

133) 면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각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중국어나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두 언어를 섞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메타언어로서의 명시적 지식과 분석적 지식으로서의 명시적 지식이 다른 것이며(Ellis, 2004) 학습자가 언어에 대해 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으로 인해 분석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말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음(Hu, 2002)을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문법 지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참여자가 발언한 핵심적인 중국어 어휘나 표현의 경우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그것과 대응하는 한국어 어휘나 표현을 바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Ⅳ장에서 연구 결과 작성에 필요한 면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

보고 뭐뭐 보니까 뭐뭐 모양이다 그러면 뒤의 세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연: '듯하다'도 앞에 '뭐뭐 보니까' 있어야 돼요?

㉲: 어 '듯하다'는 제가 보통 좀 문어적인 상황에서 써요. 이런 일상대화에서 선택하지 않아요. 이유 잘 모르겠어요.(웃음)

연: 1번과 2번은요?

㉲: 먹으면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느꼈잖아요. 근데 '겠다'와 '을 거다'는 약간 추측의...느낌이 더 강해요.

연: 매운지 아닌지 이미 알았으니까?

㉲: 추측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네. '을 것 같다' 그 추측의 느낌이 좀 약해요.

연: 추측이라기보다 네가 말했던 그 '불확실', '완곡'?

㉲: 맞아요. 맞아요.

연: 그럼 네가 아까 말한 거 빨간 김치를 보고 이때 '맵겠어요', '매울 거예요'가 가능해요?

㉲: 그러면 제가 사용할 것 같아요. '좀 맵겠어요'. 아마 앞의 두 개를 쓸 것 같아요. (㉲-2-C-6)[134]

이와 같이 면담이 끝날 때마다 녹취한 녹음이나 녹화 파일은 한글 파일(.hwp)로 전사한 후 초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해석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말 그대로 코드명으로'(in vivo codes, 김신혜, 2020: 114) 코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보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 Stake, 1995: 172)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학습자 문법 지식과 이론문법에서 체계화된 학문적 지식 사이의 접면과 상이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Ⅲ장에서 도출한 변별점을 그대로 코드(prior codes)로 사용하여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인식하고 사용하는 변별점을 범주화하였다. 이에 수렴되지 못한 새로운 변별점은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코드(inductive codes)를 만들어 내어 이를 독립적인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처럼 사례 내와 사례 간 분석을 거침으로써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변별점

134) 괄호에서의 일련번호 '㉲'는 연구 참여자, '2'는 면담 차례 수, 'C'는 과제 유형, '6'은 문항 번호를 의미한다. 단, 과제 A와 구성원 검토(MC)의 경우는 문항 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표시되지 않는다.

과 이에 따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 양상을 도출하였다.

2. 다차원적 변별점에 따른 학습자의 변별 양상

집합적 사례연구는 연구 결과를 작성할 때 사례별로 결과를 기술할지 주제에 따라 결과를 구성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변별 양상에 나타난 공통적이면서 상이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주제별, 즉 변별점에 따라 학습자의 지식 양상을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문적 지식과 대응하여 학습자의 변별 양상은 또한 통사·의미·화용적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2.1.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2.1.1. 주어 인칭 제약: 명제 주어

명제 내용에 표현되는 사태나 사건의 주어를 나타내는 명제 주어의 인칭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통사적 변별점이다. 명제 주어가 1인칭으로 쓰일 수 있는지, 즉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이론적 연구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다. 말뭉치 분석 결과와 같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명제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쓰일 수 있지만 분포율과 사용 맥락에 차이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으)ㄹ/ㄴ/는 것 같다'가 명제 주어 인칭 제약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식하였으며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선택하는 데 명제 주어 인칭 제약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5]

---

135) 12명 연구 참여자가 모두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해 학습 경험이 있지만 학습한 내용을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명시적·암시적 지식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각각 의미적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와 비슷하다고 인식하며 두 문법 항목이 주로 문어에 쓰이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2.1.1.1. 1인칭 제약: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명제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1인칭 주어 제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에 의한 직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래 <표Ⅳ-5>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검증하고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표Ⅳ-5>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1인칭 명제 주어 제약

인식(1)		능동적인 변화	인식(2)
1인칭 불가/어색함	㉯, ㉰, ㉱, ㉲, ㉳, ㉴ (한국어 경험)	㉯, ㉰, ㉲, ㉳: 과제나 언어 경험을 통한 인식 수정	1인칭 가능
		㉴: 과제와 언어 경험을 통한 모순 발견, 의문 생김	인식 수정 실패
		㉱: 접한 용례 회상, 인식 수정, 원인 탐구	의외성, 놀람, 새롭게 알게 됨→1인칭 가능
	㉵, ㉶ (모국어 지식: '모양'-'模樣, ...的樣子')	㉶: 문법서 명시적 정보(1인칭 불가), 인식 확인, 원인 탐구	타인에 의한 간접적 근거→1인칭 불가
1인칭 가능	㉮, ㉯, ㉰, ㉷ (한국어 경험)	㉮, ㉯: 과제를 통한 인식 확인	1인칭 가능
		㉯: 문법서 명시적 정보(1인칭 불가), 인식 수정, 원인 탐구	모국어 지식: '보다'-'看起來怎么怎么樣' →1인칭 불가
		㉷: 과제를 통한 인식 확인, 원인 탐구	예전에 몰랐던 것을 갑자기 인식하게 됨 →1인칭 불가

12명 연구 참여자 가운데 ㉯를 비롯한 8명이 면담 초기에 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B)를 수행했을 때 직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이는 문장들이 비문이라고 판단하고 명제 주어가 1인칭일 때 두 문법 항목의 사용이 안 되거나 어색하다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보고하였다.

• 내가 그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은이랑 헤어지지 않았나 봐. (B2) •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여울에는 또 너무 추운데 나는 그걸 못 버텨서 두 계절이 제일 싫은가 봐. (B32) • 나 오늘 머리가 아픈 모양이야. (B38)

그런데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이어진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한 문항을 맞닥뜨리며 자신의 직관으로 1인칭 주어가 쓰이는 해당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인식에 모순이 생기게 되어 후속 과제나 접한 용례를 통해 그 모순을 검증함으로써 원래의 인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생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 아, 오랜만에 산에 올라오니 속이 시원하다! 나: 형, 나 좀 잡아 줘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안 좋아지는데요. 나 (고소공포증이다). ①고소공포증이겠어요 ②고소공포증일 거예요 ③고소공포증인 것 같아요 ④고소공포증인 듯해요 ⑤고소공포증인가 봐요 ⑥고소공포증인 모양이에요 (C13)

(95) ㉰: 이거('-(으)ㄹ/ㄴ/는 모양이다') 자신에 대한 추측에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B-16) (중략) 근데 이거는 자기랑 연관성이 강하지 않은 일을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그니까 얘('-(으)ㄴ가/나 보다')가 자신을 추측할 때 사용될 수 없어요. (㉰-2-B-36) (중략) 음... 맞네, 얘('-(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안 되지만 근데 얘는 되네! '나 고소공포증인가 봐요'. (㉰-2-C-13) 얘('-(으)ㄴ가/나 보다')는 1인칭에 쓸 수 있어요. (㉰-2-C-15)

㉮: '가 봐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 자신의 일이니까요. '가 봐요'는 아까 말한 거처럼 '얘가 도착했나 봐요' 약간 다른 사람의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는 내 추억이잖아요. (㉮-2-C-7) (중략) '나 봐요' 1인칭도 가능해요. 약간 평소에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애요. '나 뭐뭐 인가 봐요', '내가 미친가 봐요' 이런 거(웃음) '내가 미쳤나 봐요', 네. (㉮-2-C-13)

(95)에서와 같이 ㉰는 문항 C13과 같은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가 1인칭 주어에 쓰이는 게 가능함을 발견하며 후속 문항들을 통해 다시 검증한 후 '-(으)ㄴ가/나 보다'가 1인칭 명제 주어에 쓰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였다. ㉮는 자신의 새로운 인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미쳤나 봐요'와 같이 자신이 접한 용례를 떠올려 보았다.

반면 아래 (96)에서 보이듯이 ㉲는 이들 연구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문항 C13의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며 심지어 ㉮가 상기한 용례를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의 인식을 따라갔다.

(96) ㉲: 5번은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인가 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1인칭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거의 이거('-(으)ㄴ가/나 보다)를 1인칭에 쓰지 않아요. 이거 '뭐 뭐 인가 봐요' 정말 1인칭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연: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 네. 다른 사람에 대해 추측할 때 쓴다고 생각해요. (㉲-2-C-13)
(후략)
연: 드라마에서나 평소에는 '나 미쳤나 봐' 같은 걸 들어본 적 있어요?
㉲: 응!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곤란해요. '나 미쳤나 봐.' 저도 쓰는데요 (웃음).
연: 그리고 예를 들며 '나 어제 너무 취했나 봐.' 같은 거. 어, 이 문법은 1인칭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제약이 있어요.
㉲: 제약이라면...나 자신에 대한...'미쳤나 봐'...(침묵6초) 모르겠어요(웃음). (㉲-2-C-19)

㉲는 자신이 가지던 인식과 자신의 직관이 충돌될 때 의심이 생기며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으)ㄴ가/나 보다'가 왜 1인칭 주어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답을 찾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식을 바꾸기만 하며 '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앞서 4명에 비해 ㉲가 탐구를 시도하는 자세가 매우 고무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참여자들은 '-(으)ㄴ가/나 보다'나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1인칭 명제 주어 제약에 대한 인식이 단지 개별적인 경험이나 용례에만 국한되며 다른 상황에도 전이 가능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특정한 용례에 따라 쉽게 바뀌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식의 불안정은 아래 (97)에서와 같이 1인칭 가능에서 불가로 변하는 연구 참여자 ㉮에게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식을 변하게 한 요인이 용례가 아니라 학습 자료에서 제시된 명시적인 문법 정보이었다.

(97) 연: '나 보다'가 자신의 일에 대한 추측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돼요. 돼요. 음...예를 들어 그 '내가 그 일을 또 꿈꿨어요.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나 봐.' 이런 상황, 맞아요, 그냥 나도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거. 갑자기 '어? 나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나 봐', 네. (㉮-1-B-32)
(중략) 근데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 주어가 '나'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연: 그러면 너의 생각은?
㉮: 약간...확실히...제가 그때 왜 1인칭이 된다고 했죠?(웃음) 음, 저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글자로 번역하면 '看起來怎么怎么樣(보아하니 어떠어떠하다)', '나 보다'잖아요(웃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측하는 것 같아요. (㉮-2-MC)

㉮는 '-(으)ㄴ가/나 보다'가 1인칭 주어에 쓰일 수 있다는 자신의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 자료를 찾아보았다. 자료에 제시된 문법 정보를 엄격한 규칙으로 인식하여 원래의 인식을 뒤집었으며 '-(으)ㄴ가/나 보다'가 자연스럽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직관을 포기하고 규칙을 단호하게 따라가게 되었다. 이처럼 지식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기 전에 규범적인 문법 정보가 학습자들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이는 연구 참여자 ㉯의 인식 양상에서도 확인되었다.

(98) ㉯: 그 예문 위에서 '-는가 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추측에 사용될 수 없다고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나 지금 자고 있나 봐.', '우리 지금 자고 있나 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분석해 봤는데요. 이 문법은 그...보는...객관적인 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정보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어요. (㉯-2-B-50) 5번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면...근데 아니야아니야! 5번 안 할래요. (㉯-2-C-13)

(98)에서 보이듯이 ㉦는 ㉣와 같이 명시적 문법 정보를 절대적인 규칙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도 문법 규칙에 의존하고 선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와 ㉦는 모두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에서부터 1인칭 명제 주어의 제약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 ㉤와 ㉧는 자신의 한국어 경험이나 접한 용례로부터 '-(으)ㄴ가/나 보다'가 1인칭 주어에 대한 추측에 쓰일 수 있는 원인을 모색하고 언어 현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99) ㉤: '내가 갔나 봐.', '내가 배탈이 났나 봐.', 내가 뭐...에? 되는 것 같은데. (㉤-1-B-2) (중략)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봐.', 어 되네! 어 왜지?(웃음)
연: 어떤 상황에서 '좋아하나 봐'를 쓸 수 있는데요?
㉤: 뭐랄까... 놀람, 의외성(웃음), 약간 내 상상 이외, 내 예상에서 벗어나는 느낌. 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봐.' 이런 상황에서 가능해. (㉤-2-B-32) 여기 '익숙해졌나 봐요' 약간 이 말을 할 때 화자가 '어? 나 익숙해졌나 봐.' 약간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약간 새로운 알게 된 그런 느낌이 나. (㉤-4-C-16)

㉧: 추측인데 너는 왜 자신의 일을 추측하지? 1인칭에 대한 추측 자체가 좀 안 좋아, 안 맞아. (중략) 근데 5번도 추측인데 내가 왜 선택했지?(웃음) (㉧-2-C-7) '나 고소공포증인가 봐요'. 걔가 그런 줄 몰랐네 (웃음).
연: 아까 '굉장한 추억이었던가 봐요.' 기억나죠?
㉧: 이렇게 말하면 걔가 예전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 지금 갑자기 중요성을 인식했어. 이럴 때는 그 자신에 대해서도 돼. 여기는... 어, 내가 예전에 몰랐어, 근데 증상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나 고소공포증인가 봐'. (㉧-2-C-15)

(99)에서와 같이 ㉤는 자신이 접한 용례로부터 '-(으)ㄴ가/나 보다'가 1인칭 주어에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놀람', '의외성'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로 사용 맥락의 특성을 스스로 규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는 화자가 자신에 대해 추측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보고하였다가 자신이 해당 맥락에서 왜 직관에 의해 '-(으)ㄴ가/나 보

다'를 선택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어진 면담에서 답을 찾아가서 화자가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인식하게 되는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개별적인 용례들로부터 사용 맥락의 공통점을 귀납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언어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도출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1.2. 1인칭 또는 3인칭 제약: '-겠-', '-(으)ㄹ 것이다'

명제 주어 인칭 제약은 '-겠-'과 '-(으)ㄹ 것이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선택에도 변별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두 문법 항목이 '추측' 외에 '의지'의 용법도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모두 초급 단계에서 '의지'의 용법을 '추측'보다 먼저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두 문법 항목은 '추측'을 나타낼 때는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쓰이며 '의지'를 나타낼 때는 주어가 1인칭으로 쓰인다는 제약 정보가 교재에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겠-'과 '-(으)ㄹ 것이다'는 선행용언이 형용사나 동사인데도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과거 상항, 화자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미래 상황 또는 비현실·반사실 상황에서 명제 주어가 1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다.

12명 연구 참여자 가운데 ㉮는 과제 수행의 전 과정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할 때 명제 주어 인칭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구두 보고의 내용이 없었다. 다른 11명의 경우는 다음 <표Ⅳ-6>에서와 같이 8명은 '-겠-'이나 '-(으)ㄹ 것이다'가 1인칭 명제 주어인 경우에[136], 3명은 오히려 '-(으)ㄹ 것이다'가 3인칭 명제 주어인 경우에 쓰일 수 없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을 수정하거나 맥락을 통해 인칭 제약의 현상을 탐구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가 존재하였다.

136) 하지만 8명 연구 참여자도 그중의 3명은 '-겠-'과 '-(으)ㄹ 것이다'를 모두 1인칭 주어의 제약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나머지 5명은 두 문법 항목 중의 하나만이 그러한 제약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표Ⅳ-6>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겠-', '-(으)ㄹ 것이다'의 명제 주어 인칭 제약

인식(1)		능동적인 변화	인식(2)
1인칭 불가/어색함	㉮, ㉯, ㉰ (명시적 교육: 1,2인칭 '의지'; 3인칭 추측)	과제를 통한 모순 발견, 원인 탐구	㉯: 자신에 대한 가정의 상황→1인칭 가능
	㉱, ㉲, ㉳, ㉴, ㉵ 한국어 경험)		㉳, ㉴: 화자의 의도가 들어 있는 경우 →1인칭 가능
3인칭 불가/어색함	㉶, ㉷, ㉸ (한국어 경험: '-(으)ㄹ 것이다')	-	-

먼저, 3인칭 명제 주어에 대해 추측할 때 '-(으)ㄹ 것이다'가 쓰일 수 없거나 어색하다고 인식한 3명의 연구 참여자에 주목하자. 그들은 모두 '-(으)ㄹ 것이다'가 가지는 추측의 용법에 비해 '의지'의 용법이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과제 B의 문항들이 비문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으)ㄹ 것이다'가 3인칭 주어에 대한 추측에 쓰일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 영희가 잘 웃지도 않는 걸 보니 회사 일이 많고 힘들 거야. (B17) • 저는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B48)

(100) ㉶: '것이다'는 주어 제약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추측할 수 없어. 자신에 대한 추측만 가능해. (중략) '-(으)ㄹ 것이다 아마 주관적 추측?
연: 주관적 추측?
㉶: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추측.
연: 아~ 1인칭을 말하는 거야?
㉶: '내가 할 것이다.', 뭔가 의지가 들어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헷갈렸나? (㉶-1-B-17)

㉸: 너무 이상해요. 이거 안 되죠. 음...왜냐면 이거 '-ㄹ 거예요'는 예를 들어 '제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추측, 3인칭에 이거를 쓸 수 없죠. (㉸-2-B-48)

(100)에서와 같이 ㉮와 ㉲는 '-(으)ㄹ 것이다'가 쓰이는 문장에서 명제 주어가 1인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스스로 상기한 용례가 모두 '추측'이 아닌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으)ㄹ 것이다'가 가지는 '추측'과 '의지'의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는 문항 '서준이는 믿을 만한 친구니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거야.'와 같은 문장이 3인칭 주어 '서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반대로 ㉰를 비롯한 8명 연구 참여자는 명시적 문법 정보나 자신의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겠-' 또는 '-(으)ㄹ 것이다'가 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일 때는 '의지'를 나타내며 3인칭일 때는 '추측'을 나타내는 명시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과제를 수행할 때는 동일한 연구 참여자가 똑같이 1인칭 주어에 대한 추측의 맥락이지만 문항에 따라서 명시적 지식에 기대어 두 문법 항목을 배제하기도 하고 직관에 의해 두 문법 항목을 선택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 문항 C15와 같은 맥락은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 상황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이때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장 자연스럽고 '-겠-'은 '-겠지'의 형태로 쓰일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 ㉰와 ㉯는 (101)에서와 같이 1인칭 제약에 의해 각자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가: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롯데월드에 가서 놀았지?
나: 어, 아마 그날 우리 밤새도록 (놀았다).
①놀았겠어 ②놀았을 거야 ③놀았을 것 같아
④놀았을 듯해 ⑤놀았나 봐 ⑥놀았던 모양이야 (C15)

(101) ㉰: 애('-겠-')는 우리와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없죠.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경우에. (중략) 이게 1인칭과 2인칭으로 쓸 때 의지를 표현하고 3인칭으로 쓸 때 추측을 표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3-C-15)

㉯: '-을 거야'를 쓰려면 뭐랄까 약간 2인칭 아니면 3인칭. 1인칭은 좀 어색해. (중략) 자신에 대해서 추측 표현을 쓸 때 '-을 거야'를 안 쓰지. '-나 봐' 아니면 '-을 것 같아', '아마 내가 먹었을 거야', '내가 갔

을 거야', 어색해. (㉮-4-C-15)

그런데 아래 문항 C34와 같이 화자가 반사실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추측하는 맥락에서는 ㉰와 ㉮가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다. 이때의 선택은 온전히 연구 참여자의 직관에 따른 것이며 명시적 지식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적인 과제 수행 결과를 보면 문항 C15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한 연구 참여자는 각각 3명과 4명인 데 비해 문항 C34에서 두 문법 항목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는 각각 8명과 11명이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다'가 반사실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추측에 쓰이는 것에 대해 더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나: 당연하지.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엄마랑 해외해서 (여행하고 있다). ①여행하고 있겠어 ②여행하고 있을 거야 ③여행하고 있을 것 같아 ④여행하고 있을 듯해 ⑤여행하고 있나 봐 ⑥여행하고 있을 모양이야 (C34)

한편, 몇 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이러한 명시적 지식과 직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식하여 스스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02) ㉱: 이 두 개('-겠-', '-(으)ㄹ 것이다')의 공통점은 추측을 나타낼 때 주어가 반드시 3인칭여야 돼요. 1, 2인칭이면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2-MC) 이 상황은 좀 명확해요. 그냥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의 일을 추측하는 거, 자신의 일이지만 내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 가정하는 거니까 여전히 추측이에요. (㉱-3-C-26) 여기도 가정이에요. 그 상황을 미리 설정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행하고 있겠다 이런 거예요. (㉱-3-C-34)

㉳: 어머! 저 2번 하고 싶어요. 아까 ('-(으)ㄹ 것이다'의 1인칭 제약) 다 얘기했는데(웃음). 근데 사실 제가 저를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2번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가 그 일을 너무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3-C-34)

(102)에서 ㉮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문항에서 주어가 1인칭인데도 자신이 '-겠-'과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에 주의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문항들 간의 맥락적 특성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가정한 상황에서의 '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1인칭 주어에도 '-겠-'과 '-(으)ㄹ 것이다'가 쓰일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는 오히려 해당 맥락에서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이해하였다.

지금까지 명제 주어 인칭 제약에 대한 학습자들의 변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에 쓰일 수 있는 맥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국어 경험이나 마주치는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적 직관에 의해 제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자신의 기존 인식과 충돌되는 상황에 부닥칠 때 그 인식이 쉽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의 정교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로 형성된 인식도 단지 불안정한 정보로서 단기기억에 저장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법 정보를 맥락화된 지식으로 전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에 쓰이는 맥락의 특성을 교육 내용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인식 과정은 곧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의 유연성과 인식주체로서의 능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맥락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형성 과정은 내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안에 활용될 가치가 큰 것이다.

2.1.2. 어미 후행 제약: '-었-', '-더-', '-구나/네', '-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한 통사적 제약의 차이는 그동안 이론적 연구에서 '추측'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한국어 교재에서는 명시적인 문법 정보의 제시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

만 용례와 같은 입력 정보에 의한 암시적인 제시가 대부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받은 명시적인 교육이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암시적 지식, 해당 어미와 '추측'과 의미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대한 분석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어말어미 '-었-'이 '추측' 문법 항목에 후행할 때 추측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겠-', '-(으)ㄴ가/나 보다'는 추측시를 발화시에 한정하여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었-'이 이에 후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외에 '-(으)ㄹ 것이다'는 비격식적 문어에서 '-었-'이 극히 낮은 비율로 후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었-'이 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 <표Ⅳ-7>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겠-'이 가지는 '-었-'의 후행 제약을 명확하게 학습한 ㉲를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이 모두 해당 제약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한국어 경험에 의해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었-'의 후행을 허용하는 것과 '-(으)ㄹ 것이다'가 이에 제약받는 것에 대해 올바른 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겠-'과 '-(으)ㄴ가/나 보다'가 '-었-'의 후행에 가지는 제약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만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Ⅳ-7>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 제약

<table>
<tr><th colspan="2">인식(1)</th><th>능동적인 변화</th><th>인식(2)</th></tr>
<tr><td rowspan="4">후행 불가</td><td>㉲
(명시적 교육: '-겠-')</td><td rowspan="4">㉰: 과제를 통한 의문 생김, 원인 탐구</td><td rowspan="4">㉰: '-었-'이 '추측' 문법 항목에 선행할 때와 후행할 때의 의미 차이</td></tr>
<tr><td>㉰, ㉱, ㉳
(한국어 경험: '-겠-')</td></tr>
<tr><td>㉮, ㉰, ㉲, ㉴
(한국어 경험: '-(으)ㄴ가/나 보다')</td></tr>
<tr><td>연구 참여자 전원
(한국어 경험: '-(으)ㄹ 것이다')</td></tr>
<tr><td>후행 가능</td><td>연구 참여자 전원
(한국어 경험: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td><td>-</td><td>-</td></tr>
</table>

그러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겠-'과 '-(으)ㄴ가/나 보다'가 '-었-'에 선행하여 쓰이는 문항 B4와 B48에 대해서 해당 문장을 옳은 것으로 잘못 판정하거나 그 문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와 ㉲를 제외한 대부분 연구 참여자가 선어말어미 '-었-'이 '추측' 문법 항목에 후행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해하지 않아 '-었-'의 선행과 혼동한 것이다.

• 일찍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었어요. (B4)
• 통화 내용이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전화한 사람은 남자인가 봤어요. (B48)

(103) ㉰: 음, 맞는 거예요.
연: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요?
㉰: 현재에 서서 그때는 좀 일찍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 '있겠었어요.'
연: 아~ 현재의 시점에서?
㉰: '-았/었/였' 과거형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 (㉰-1-B-4)

㉰: 이거 맞아요.
연: 여기 과거 시제가 붙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 음...큰 문장에서 말하면은 그...에? 근데 작은 문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아...어떻게 고민이에요(웃음). 왜냐면 그 통화가 이미 끝났잖아요. 전화할 때를 말하기 때문에. (㉰-1-B-11)

㉱: 이거 시제 좀 헷갈려요. 아까 앞에 오면...
연: '었'이 앞에 오는 거?
㉱: 네. 근데 여기 얘('-었-')가 또 뒤에 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 네가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음...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그거 앞에 붙으면 앞의 그 단어의 과거에 대한 추측이고 뒤에 붙으면 이 추측이 과거의 추측이에요. 맞죠? (㉱-2-C-4)

㉮: '겠었' 안 돼. '겠었' 이렇게 쓸 수 없어 순서가 달라. (중략) 명확한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그 순서. 과거 시제가 앞에만

올 수 있는 거. (㉮-1-B-4) 안 돼. 확실해. '남자인가 봐', 과거 시제를 붙일 수 없어. 아니면 '남자였나 봐'. 전화했을 때를 생각하면 '인가 봐'. 현재 생각하면 '였나 봐'. (㉮-1-B-11) '솟겠었다' 안 돼. (중략) 앞에 오면 이 동작이 완성됐는지 약간 상 범주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오면 시제 범주. 그니까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 상대 시간. 상대 시제. 과거에 일어났다는 거. 음. '솟을 것이었다' 이상해. '솟는가 보았다' 안 돼. '솟는 모양이었다' ok~ (㉮-3-C-4)

(103)에서 ㉰는 선어말어미 '-었-'이 과제 시제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지만 문항 B4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는 '-겠었-'의 형태를 '-었겠-'의 형태와 동일하게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태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었다. 그 후에 문항 B11에서 '-었-'이 '작은 문장(小句子, 즉 내포문)이 아닌 '큰 문장(大句子, 즉 모문)'에 쓰이는 것을 지각하고 고민에 빠졌는데 '-었-'의 선행과 후행을 의미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서 ㉱는 문항 B4와 B11을 모두 틀린 것이라고 판정하고 자신의 한국어 경험으로 봤을 때 '-었-'이 '-겠-'과 '-(으)ㄴ가/나 보다'의 '앞에만 올 수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명확히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다형 문항을 수행할 때는 '-었-'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앞에나 뒤에 오는 선택항을 맞닥뜨려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가 오직 형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통사적 제약이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며 그것을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 '-었-'의 선행과 후행에 의미적인 차이를 수반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의미의 차이를 스스로 알아채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한편 ㉱보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는 교재에 제시된 용례나 '듣거나 말하는 과정'을 통해 '-었-'이 '추측' 문법 항목에 후행하는 '구조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러한 점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가지는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변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었-'의 선행과 후행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더-'는 '-었-'과 달리 발화시가 아닌 화자의 경험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화자가 지각을 통해 얻은 인식을 나타낸다. 어미 '-더라'가 '추측' 문법 항목에 후행하는 것은 화자가 추측시에 서서 그때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표현한다. 따라서 '-겠-', '-(으)ㄴ가/나 보다'가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더-'의 후행을 허용한다. 또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가운데

‘-(으)ㄹ 것이다’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그 뒤에 ‘-더-’가 올 수 없는 유일한 항목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한국어 경험에 의하거나 자신이 이해하는 ‘-더-’의 의미가 ‘추측’과 의미적으로 어울리는지에 의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더라’의 결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아래 <표Ⅳ-8>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으)ㄹ/ㄴ/는 것 같다’가 ‘-더라’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에 대해 보다 올바르고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겠-’과 ‘-(으)ㄹ 것이다’가 ‘-더라’와의 결합에 제약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가 소수이며 ‘-(으)ㄴ가/나 보다’가 ‘-더라’와 결합할 수 없다고 잘못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가 절반을 넘었다.

<표Ⅳ-8>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 제약

인식(1)		능동적인 변화	인식(2)
후행 불가	㉮, ㉯, ㉳, ㉴ (한국어 경험: ‘-(으)ㄹ 것이다’)	-	-
	㉰ (‘-더라’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지식: ‘-(으)ㄹ 것이다’)		
	㉱, ㉯, ㉰, ㉲, ㉵, ㉶, ㉳ (한국어 경험: ‘-(으)ㄴ가/나 보다’)	㉯: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경험에 의한 인식 수정	㉯: ‘-더라’와 결합 가능
후행 가능	㉭, ㉶, ㉳ (한국어 경험: ‘-겠-’)	-	-
	㉰를 제외한 11명 (한국어 경험: ‘-(으)ㄹ/ㄴ/는 것 같다’)	-	-

아래와 같이 문항 B9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으)ㄹ 것이다’가 ‘-더라’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하고 두 문법 항목 중의 하나를 삭제하거나 ‘-(으)ㄹ 것이다’를 ‘-(으)ㄹ 것 같다’ 또는 ‘-겠-’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문장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왜 ‘-(으)ㄹ 것이다’가 ‘-더라’와 결합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3명의 연구 참여자는 ‘-더라’가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추측’과 서로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형

태와 의미를 연관시켜 설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얼마 전에 중국집에서 약초 맛 짬뽕을 적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더라고. (B9)

(104) ㉮: 이게 '-르 거' 왜 여기서 추측? '-더-'는 회상을 나타내는 거잖아? (침묵5초) 앞에 추측이 올 수 있나? 추측과 쓸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잣말: '있겠더라고')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1-B-9)

㉯: 음...'-더라고', 음...회상. 여기서 사실 회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 회상과 앞에 오는 추측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 네. 약간 이미 추측을 하는데 왜 회상을 써요? 그전에 그때의 추측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약간 이런 의문이 있어요.
연: 그러면 만약에 '있을 것 같더라고' 아니면 '있겠더라고'로 바꾸면은?
㉯: 근데 '있을 거더라고'와 비슷하잖아요(웃음). (㉯-1-B-9)

그런데 (104)에서 보이듯이 ㉮는 '추측'과 '회상'이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점에서 '-(으)르 것이다'와 '-더-'가 같이 쓰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가 '있겠더라고'를 상기하면서 '있을 거더라고'의 문법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는 ㉲도 있었다. 한편 ㉯는 과거에 이루어진 추측에 대한 회상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며 '-(으)르 것이다'와 비슷하게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으)르 것 같다'와 '-겠-'도 '-더라'와 결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떤 언어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순전히 언어 경험만으로 그 구조에 대한 지식을 생성한 경우에는 그 지식이 오직 해당 구조에만 국한되며, 언어 경험조차 결여된 경우에는 지식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으)ㄴ가/나 보다'와 '-더라'의 결합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양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7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다형 문항 C29를 수행할 때 아래 (105)에서의 ㉰와 같이 해당 언어적 경험이 없는 바람에 '-(으)ㄴ가/나 보다'와 '-더라'의 결합이 이상하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05) ㉮: '활동하나 봐'는 ok, '활동하나 보더라' 안 돼. '-나 보다'와 '-더라' 같이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4-C-29)

㉮: 내가 그때 그 결합을 본 적 없어서 그 답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나 봐' 뭐였지?
연: '-더라'?
㉮: 오오, 그거였어! 어느 날에 드라마 봤을 때 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야. (㉮-5-MC)

㉮는 4차 면담이 끝나고 나서 드라마를 통해 '-(으)ㄴ가/나 보다'와 '-더라'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었으며 5차 면담에서 연구자에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과연 ㉮가 두 문법 항목의 결합에 대해 잘 이해하였는지가 의문이 된다.

다름으로 종결어미 '-네'와 '-구나'는 화자가 발화시의 지각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추측' 문법 항목과 결합할 때 화자가 발화시에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자신의 새로운 인식으로 표현한다. '-(으)ㄹ 것이다'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서 유일하게 '-네', '-구나'와 결합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역시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이나 종결어미의 의미와 '추측'이 의미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대한 분석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 참여자 모두가 명시적인 교육을 받아서 '-네'와 '-구나'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감탄'과 '추측'이 의미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거구나. (B13)
•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정말 여러 문제가 생길 거네요. (B27)

위와 같이 문항 B13과 B27에 대해서 ㉰를 비롯한 5명 연구 참여자는 '추측에 대해 왜 감탄을 하는지' 모른다며 '-구나'와 '-네'를 삭제하면서 문장

을 수정하였다. 반면 ㉮를 비롯한 6명 연구 참여자는 직관에 의해 두 문항이 맞는 것이라고 판정하고 연구자의 추가 질문에 대해 '추측'과 '감탄'이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지'는 '-네', '-구나'와 반대로 명제 내용에 표현된 정보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앎'을 나타낸다. 이뿐만 아니라 '-지'는 화자가 청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기지가정'을 전제로 한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가운데 '-(으)ㄹ 것이다'만 '-지'와 결합되어 쓰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전원이 '-지'를 '화자가 이미 확신한 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겠지'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으)ㄹ 것이다'와 '-지'의 결합에 대해서 그들은 '-겠-'과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해 '-(으)ㄹ 것이다'가 '-지'와 결합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거나, '의지'나 '미래'로 쓰이는 '-(으)ㄹ 것이다'가 '-지'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추측'으로 쓰이는 '-(으)ㄹ 것이다'도 '-지(요)'와 결합될 수 있다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하루 쉬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죠? (B22)
가: 아까 도서관에 갔더니 자리가 없었어. 내일은 토요일인데 사람이 많을까?
나: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사람이 (많다).
①많겠지 ②많을 거지 ③많을 것 같지
④많을 듯하지 ⑤많을 건가 보지 ⑥많을 모양이지 (C8)

(106) 연: '-지'는 평소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음, 우리, 아니, '오늘도 수업이 있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지')를 '對吧?(맞죠?)'의 의미로 이해해요. '너도 갈 거죠?' 맞죠?(웃음) (㉯-1-B-22)

㉰: '-르 것 같다'가 추측을 표현할 때 앞의 두 개('-겠-', '-(으)ㄹ 것이다')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지'는 이거 '-지'가 있으면 화자의 어떤 확신, 확실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ㄹ 것 같다'와 같이 쓰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C-8)

㉮: ‘많을 거지.’(웃음) 아마 ‘거’와 ‘-지’는 제가 자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돼요. ‘많겠지’도 돼요. ‘많을 것 같지’...아니야 안 돼. 기말이면 도서관에 사람이 꽉 차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정(斷定)의 의미가 있어요. 너 이런 경험을 가지는데 기말이 될 때마다 사람 많고 스터디 룸도 예약할 수 없는 거(웃음). 음 그래서 좀 추단(推斷)의 의미가 있어요. (㉮-2-C-8)

(106)에서 ㉯는 ‘너도 갈 거죠?’와 같이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할 때 ‘의지’로 쓰이는 ‘-(으)ㄹ 것이다’와 ‘-지’가 결합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익숙해졌기 때문에 ‘-(으)ㄹ 것이다’가 ‘추측’으로 쓰이는 문항 B22를 옳은 문장이라고 판정하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12명이 모두 문항 B22의 문법성에 대해서 ㉯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한편, ㉰와 ㉮는 ‘-(으)ㄹ 것이다’가 ‘-겠-’과 같이 높은 확실성을 나타낸다는 인식으로 인해 문항 C8과 같은 추측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많겠지’와 ‘많을 거지’를 함께 선택하였다. ㉰, ㉮와 동일하게 인식한 연구 참여자가 7명이 더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과 어미의 결합 제약을 판단하고 있으며, 직관이 부재한 경우 어미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언어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습자들에게 의해 형성된 암시적 지식도 크게 제한되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해당 어미와 ‘추측’ 문법 항목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지식조차 매우 제한적인 상태 하에 이에 따른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사용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어미와의 결합에 가지는 통사적 변별점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의 구안에 있어서는 통사적 특성이 의미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과 학습자들이 형태보다 의미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문법 형태에 대한 학습자들의 단순한 기억이 아닌 온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통사적 차이와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서의 의미적 차이와 유의미하게 연관 지으면서 문법 정보를 구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1.3. 문장 유형 제약: 일반의문문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의미적 특성상 평서문에 잘 쓰이며 청유문과 명령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의문문에 쓰일 때에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중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만이 상대방의 추측을 물어보는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137] 하지만 앞서 Ⅲ장에서 밝혔듯이 두 문법 항목이 일반의문문에 쓰이는 비율은 1%가 조금 넘는 것으로만 나타났다. 교재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의문문 사용 제약에 대해 용례만으로 문법 정보를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낮은 사용 빈도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문법 정보가 교재에서 명시되지 않는 만큼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해 받은 명시적인 교육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Ⅳ-9>에서 보이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2명이 ‘-(으)ㄹ 것이다’에 대해서만 관련 교육을 명시적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여 모두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의문문 사용 제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것이었다.

<표Ⅳ-9> 통사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일반의문문 사용 제약

인식 양상		
사용 가능	㉮, ㉱, ㉲를 제외한 9명 (한국어 경험)	‘-(으)ㄹ/ㄴ/는 것 같다’
	㉱, ㉲, ㉳를 제외한 9명 (한국어 경험)	‘-겠-’
사용 불가	㉯, ㉵ (명시적 교육)	‘-(으)ㄹ 것이다’
	㉮, ㉵ (한국어 경험)	‘-(으)ㄹ/ㄴ/는 모양이다’
	연구 참여자 전원 (한국어 경험)	‘-(으)ㄴ가/나 보다’

137) 이에 비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수사의문문에 쓰일 수 있으며 특히 ‘-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분포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문문에서는 이들 문법 항목이 공손 또는 불손 전략으로 쓰이는데 이에 대해 2.3.1에서 다루겠다. 여기에서는 일반의문문의 사용 제약에 초점을 맞춘다.

‘-(으)ㄹ 것이다’는 그것이 ‘의지’나 ‘미래’를 나타낼 때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반면 ‘추측’을 나타낼 때 일반의문문에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통사적 제약은 ‘-(으)ㄹ 것이다’의 여러 용법을 구분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으)ㄹ 것이다’를 이와 비슷하게 세 가지 용법을 동시에 가지는 ‘-겠-’과 구분해 주는 중요한 변별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명시적 교육을 받았음으로 정확하게 변별하고 있는 ㉰와 ㉮를 제외하여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추측을 묻는 일반의문문에서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유진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B3)

(107) ㉰: 틀린 거예요. 음...애(‘-(으)ㄹ 것이다’)가 평서문에서 쓰는 거예요. 추측을 표현할 때 평서문에서. 저라면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할 것 같아요. ‘-ㄹ 것 같아’.
연: 의문문에서 안 되고 평서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 네. 3인칭일 때 평서문이고 1인칭도 평서문. 음 2인칭은 약간 그냥 단순히 의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2인칭일 때는 (㉰-1-B-3)

㉮: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틀렸어. 일단 틀린 거고(웃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쉼표라면 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문제 없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연: 의문문이라서 안 되는 거야?
㉮: 음, 안 돼. ‘갈 수 있어?’,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돼. (㉮-1-B-3)
(중략) 약간 의문문에서는 미래 아니면 의지를 나타내는 거.
(㉮-4-C-26)

(107)에서 ㉰와 ㉮는 ‘-(으)ㄹ 것이다’가 ‘추측’을 나타낼 때 평서문에만 쓰이며 의문문에 쓰일 때 ‘단순히 의문’이나 ‘미래’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문항 B3에서 ‘통과할 수 있을 거야?’를 ‘통과할 수 있어?’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로 수정하였다. 이처럼 초급에서 학습한 문법 정보가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학습자의 문법 사용에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그러한 통사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의 5명은 문항 B3이 맞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중 ㉮가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해 통사적 유사성을 오인하는 양상이 눈에 띄었다.

(108) ㉮: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난 그거 그 무슨 '-것 같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 두 문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것이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이 두 문법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연: 그래서 여기서 '있을 것 같아?'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돼요. (㉮-1-B-3)

㉮는 자신의 한국어 경험에 의해 '-(으)ㄹ/ㄴ/는 것 같다'가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138]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으로서 '-(으)ㄹ 것 같다'와 '-(으)ㄹ 것이다'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과제 B를 수행하기 전에 보고하였다. ㉮가 바로 이러한 의미적 유사성으로부터 '-(으)ㄹ 것이다'도 일반의문문에서 사용 가능함을 유추하는 것이었다.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법 항목들이 통사적으로도 유사성을 가지겠다는 이러한 인식 양상이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서도 발견되었다.

• 너는 내년에 삼성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관중이 많이 오겠어? (B46)

(109) ㉱: 이거('-겠-') 의문문에서 쓸 수 있을까?(웃음) '관중이 많이 오겠어?' '많이 오겠어?'. '-겠-', 의문문에서 사용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연: 고치면?
㉱: '올 거야?' 근데 '-거야'가 '-겠다'와 비슷한 의미잖아요.
연: '-(으)ㄹ 것이다'가 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 네...확실하지 않아요. (㉱-1-B-46)

138) 이는 ㉮가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일반의문문에 쓰이는 과제 B의 문항에 대해 해당 '추측' 문법 항목을 모두 '-(으)ㄹ/ㄴ/는 것 같다'로 수정한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는 면담 초기에 '-(으)ㄹ 것이다'가 자기가 사장 자주 사용하는 '추측' 문법 항목이라며 문항 B3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문항 B46을 맞닥뜨렸을 때 ㉲는 (109)에서 보이듯 일반의문문에서 '-겠-'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의미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식된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망설이게 되어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지 못하였다.[139]

이들 연구 참여자가 지식의 부재로 인해 '추측'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를 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겠-'이나 '-(으)ㄹ 것 같다'와 똑같이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은 문항 C26에 대한 그들의 문법 선택 양상을 통해 다시금 확인될 수 있었다.

가: 너 더위 잘 타잖아. 만약에 여름만 있는 나라에 살게 된다면 너 (ㄱ: 괜찮다)?
나: 덥기만 한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덥고 습하기까지 하면 진짜 (ㄴ: 힘들다).
ㄱ: ①괜찮겠어 ②괜찮을 거야 ③괜찮을 것 같아
④괜찮을 듯해 ⑤괜찮을 건가 봐 ⑥괜찮을 모양이야 (C26)

문항 C26의 (ㄱ)은 상대방의 추측에 대한 화자의 질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겠-'과 '-(으)ㄹ 것 같다'의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와 ㉳를 포함한 5명 연구 참여자는 '괜찮을 거야'를 '괜찮겠어' 또는 '괜찮을 것 같아'와 함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참여자 전원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가지는 일반의문문 사용 제약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식에 의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아이가 합격할 건가 봐? (B18)
• 유진이가 회사를 그만둘 모양이야? (B24)

그런데 그들은, 전원이 문항 B18이 비문이라며 '-(으)ㄴ가/나 보다'를 '-

139) 문항 B46은 본래 상위 주어 제약에 대해서 개발된 것이지만 3명의 연구 참여자가 문장 유형 제약의 면에서 해당 문장이 비문법적인 것임을 판단하였다.

겠-’이나 ‘-(으)ㄹ 것 같다’ 또는 ‘-(으)ㄹ 것이다’로 수정하는 만큼 ‘-(으)ㄴ가/나 보다’의 일반의문문 사용 제약에 대해 강한 직관을 가지는 반면, 4명만 문항 B24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과 같이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그러한 통사적 제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언어사용역과 사용 빈도의 차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비해 ‘-(으)ㄴ가/나 보다’를 더 빈번하게 접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주목될 만한 것으로서 ㉮, ㉰, ㉶를 제외한 대부분 연구 참여자들이 추측이 화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 ‘추측’ 문법 항목이 일반의문문에 쓰일 때 상대방의 추측에 대한 화자의 물음을 나타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110) ㉶: 이거 안 돼. 이 문법은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어. 왜냐면 만약에 의문문으로 쓰면 ‘네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야. 화자의 추측이 아니고. 여기 청자의 추측을 물어보는 거잖아. 청자의 추측을 물어볼 때 ‘모양이다’를 쓸 수 없어. (중략)
연: 고친다면?
㉶: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애? (㉶-2-B-24)

㉬: 우리 아이가 합격할... 합격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의문이고 추측이 아니에요.
연: 아~ 의문문에 쓰이면 추측을 표현하는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추측을 물어볼 수 없어요?
㉬: 어~ 어! 맞네! 지금까지 거의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추측을 묻는 거 아니니까 음... (㉬-1-B-18)

(110)에서 ㉶는 ‘추측’ 문법 항목이 쓰이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아닌 상대방이 추측의 주체가 되어 화자가 상대방의 추측을 묻는 것을 나타낸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반면 ㉬는 추측을 화자인 ‘내가’ 하는 것이라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으)ㄹ 것 같다’가 의문문에 쓰일 때 ‘추측’이 아닌 ‘의문’을 표현한다며 무엇에 대한 의문인지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의문문에 쓰일 때 받는 통사적 제약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의문문에 쓰이는 빈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의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반드시 명시적인 문법 정보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낮은 빈도로 인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그러한 용법을 접하고 암시적 지식을 생성하는 것을 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용법을 입력을 통해 암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일반의문문에서의 사용이 극명하게 제약되는 문법 항목의 경우는,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한 통사적 변별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인 문법 정보로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2.2.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2.2.1. 추측 근거

추측 근거는 추측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 그동안 이론적 연구에서 '추측' 문법 항목들의 핵심적인 의미 변별 기준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한국어 교재에서도 개별 '추측' 문법 항목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명시적인 문법 정보로서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 정보의 유형에 있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서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Ⅲ장에서 밝혀졌다.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추측 근거의 특성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구분과 선택에 작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문법 항목에 따라서 추측 근거의 특성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식되는 유표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인식적으로 가장 유표적이고 '-(으)ㄹ/ㄴ/는 것 같다'는 그 뒤에 이으며 '-겠-'과 '-(으)ㄹ 것이다'는 가장 무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1.1. 근거 존재, 간접적인 것, 객관적 사실, 공통으로 가지는 근거: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추측 근거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면담 초기부터 두 문법 항목이 '근거가 있는 추측'에 쓰이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래 <표Ⅳ-10>에서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명시적 문법 정보나 개인적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인 데 비해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한 인식은 '모양'의 어휘적 의미를 바탕으로 모국어 지식을 적용하여 추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면담 진행 과정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와의 대조를 통해서 단순히 추측 근거가 존재하는 데서 '간적접인 것', '객관적 사실' 또는 '공통으로 가지는 근거'가 요구되는 것으로 수정되고 정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Ⅳ-10>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ㄴ가/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추측 근거

<table>
<tr><th colspan="3">인식(1)</th><th>능동적인 변화</th><th>인식(2)</th></tr>
<tr><td rowspan="3">근거가 있는 추측</td><td>'-(으)ㄹ/ㄴ/는 모양이다'</td><td>연구 참여자 전원
(모국어 지식:
'모양'-'...的樣子')</td><td rowspan="3">8명 연구 참여자: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와의 대조를 통한
인식 수정</td><td>㉦:
간접적(객관적)인 것</td></tr>
<tr><td rowspan="2">'-(으)ㄴ가/나 보다'</td><td>㉯, ㉦, ㉷
(명시적 정보)</td><td>㉰, ㉱, ㉲, ㉳, ㉴,
㉷: 객관적 사실</td></tr>
<tr><td>나머진 9명
(경험/용례)</td><td>㉵: 공통으로
가지는 근거</td></tr>
</table>

아래 (111)에서 ㉳와 ㉦는 모두 모국어에 의한 '모양'에 대한 의미 이해로부터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근거가 있거나 어떤 모습을 보고 추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었다. 반면 '-(으)ㄴ가/나 보다'에 대해서 ㉳는 접한 용례, ㉦는 과거에 배웠던 명시적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법 항목이 근거가 있을 때 추측하는 데 쓰인다고 인식하였다.

(111) ㉮: ‘-나 보다’는 근거가 있는 추측인 것 같아요. (㉮-1-B-18) 이거 항상 앞에서 근거를 나타내는 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추측해요. (㉮-2-B-22) ‘모양이다’, 그 ‘가 보다’랑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什么样的样子(어떠한 모습)’. (㉮-3-C-1)

㉯: 예전에 어떤 관용 표현을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뭐니까 뭐뭐 나 보다’. 그래서 앞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을 뜻하죠. (㉯-1-B-2) ‘모양’은 우리의 중국어와 연결해 보면 어떤 모습이나 보는 것으로 추측해야 될 것 같아요. (㉯-1-B-6) ‘-(으)ㄴ가/나 보다’ 약간 좀...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추측해요. 기억나는데 그때 문법을 배웠을 때 선생님이 특히 설명했어요. (㉯-1-B-18)

실은 ‘-(으)ㄴ 걸 보니(까)...-(으)ㄴ가/나 보다’의 패턴으로 쓰이는 용례로부터 ‘-(으)ㄴ가/나 보다’의 근거 특성을 추론하는 연구 참여자가 총 5명이 있었으며 그들은 심지어 ‘땅이 젖은 걸 보니까 어제 비가 왔나 봐.’와 같이 용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보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에서는 모두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근거 특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시적 정보가 그들에게 망각되었으며 과거에 접했던 특정한 용례가 기억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용례나 제한적인 언어 경험에 기반한 직관이 연구 참여자들의 문법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아래와 같이 화자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맥락에 대해 5명 연구 참여자가 화자가 발화한 내용에 근거를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원인으로 ‘-(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하지 않았다.[140]

140) 이 문항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이 다시 부산에 가겠다는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경우는 ⑤번과 ⑥번의 사용이 적절하며 상대방이 결혼식 때문에 부산을 구경하지 못했다는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경우는 ①번의 사용이 적절하다.

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부산에 가려고요. 나: 부산이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가지 않았어요? 가: 그때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서 구경을 거의 못했어요. 나: 그때 좀 (아쉬웠다). ①아쉬웠겠네요 ②아쉬웠을 거네요 ③아쉬웠던 것 같네요 ④아쉬웠던 듯하네요 ⑤아쉬웠나 보네요 ⑥아쉬웠던 모양이네요 (C2)

(112) ㉮: 이 문장 자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너 슬픈 걸 보니까' 이런 서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겠다' 하면 돼요.
연: 앞에 뭐가 있어야?
㉮: 뭐뭐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다.
연: 동일한 문장 안에서?
㉮: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말하면 그냥 '아쉽겠다'라고 해요 저는 보통 이렇게. (㉮-2-C-2)

㉯: 이거('-(으)ㄴ가/나 보다) 보통 앞에 한 마디 아니면 반 마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근거가 있는 반 마디. 쉼표가 있는 그런 거. (중략)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연: 반드시 동일한 문장에서 나타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 반드시 그 문장,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문장도 돼요.
연: 근데 반드시 한 사람이 말하는 거여야 해요?
㉯: 네. 맞아요. (㉯-3-C-2)

㉰: '아쉬웠나 보네요'... 얘는 근거가 없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을 뿐인데요. 음, 그래서요.
연: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 네. 이거 간접적인 거니까요. 내 자신의 경험으로 추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만약에 이 친구가 朋友圈(중국의 SNS)에서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아쉬웠나 보네요.'라고 제가 할 것 같아요. (㉰-2-C-2)

(112)에서 ㉮는 '-(으)ㄴ가/나 보다'를 학습할 때 교사가 '-(으)ㄴ/는 걸 보니'가 선행하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 주었던 경험 때문에 하나의 문장에 해당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으)ㄴ가/나 보다'를 배제하였다. ㉯는

㉮와 조금 다르게 근거 정보가 반드시 동일한 발화에 나타나야 할 필요가 없지만 화자가 반드시 추측과 함께 그 정보를 발화해야 함을 인식함으로써 '-(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는 상대방의 이야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는 맥락을 추측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가 그러한 정보가 화자가 시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들은 '간접적(間接的)'인 것이기 때문에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가 시각 정보와 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각각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라고 보고 '-(으)ㄴ가/나 보다'가 시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맥락에 더 익숙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전형적인 맥락을 나타내는 용례에 의해 목표 문법 항목의 특징적인 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쉬운 이해와 장기적인 기억을 도울 수 있으나 문법 항목이 가지는 쓰임을 학습자들이 협소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기계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접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확인하였듯 한국어 교재에서 바로 추측 근거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모양이다'를 구분하고 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마다 동일한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112)에서 ㉰가 '자산의 경험'으로 간주한 시각 정보를 '간접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113) ㉳: '-는가 보다'는 앞에 어떤 간접적인 거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보거나 들은 거, 그냥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非親身經歷)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그런 거. (중략) 그리고 '모양이다'는 '나 보다'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도 간적접이고 객관적인 그런 제가 본 어떤 거를 통해 느낀 거예요. (중략) 그때 책에서 비교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농구를 잘하지 못하는 걸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나 보다'를 쓰고 하나는 '-는 것 같다'를 썼어요. '-나 보다'를 쓰는 상황은 제가 직접 그 사람과 농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걔가 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추측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그 사람과 농구를 하고 나서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2-B-50)

㉦는 1차면담에서 '-(으)ㄴ가/나 보다'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쓰지 못해요.'라고 토로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문법서에 제시된 예문을 통해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의 차이를 스스로 귀납하여 2차면담에서 (113)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 이해한 '간접적'인 것은 화자가 추측된 사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보거나 들은 것을 통해 그 사태를 추측하는 것으로서 ㉮가 이해한 '간접적'인 것과 아예 다르다. 이처럼 동일한 용어가 가지는 의미적 중의성으로 인해 아래 (114)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가 혼란을 겪게 되었다.

(114) ㉰: 그 사람은 김치를 먹고 계속 물 마시고, 그리고 부채질하고 그러면 '아~ 매운가 봐요'. 그러면 아~ 이제 알겠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보고 내가 추측하는 거, 그리고 '매운 것 같아요'는 내가 직접 먹고 본 다음에 추측하는 거, 어 (중략) 음...뭐랄까, 직접적인 경험? 에? 잠깐만. 다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입김을 부는 걸 보면 이거 직접적인 경험 아니야? 직접적인 근거? 좀 혼란스러운데(웃음). (㉰-3-C-5)

㉰는 전공 스터디에서 증거성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근거와 간접적인 근거의 개념을 접하게 되어 '내가 보는 것 또는 들은 것'을 '직접적인 근거'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화자가 추측된 사태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근거의 직·간접성에 따라 '-(으)ㄴ가/나 보다'와 '-(으)ㄴ/는 것 같다'를 구분하려다가 갑자기 혼란에 빠져 버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추측 근거에서 가지는 차이를 명제적인 문법 정보로 제시할 때 기술의 단순성을 위해 사용되는 메타 어휘나 표현은 그 의미가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141] 특히 심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학습자의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맥락 속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시사한다.

㉰, ㉦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와 대조함으로써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일 때 추측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주관적인 상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등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어

141) 2.2.4.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추측 근거가 되는 정보와 추측된 내용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이해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객관진리(客觀眞理)'와 자신이 보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알려 준 것, 그리고 '이미 안 사실(已知的事實)'을 가리킨다.

주목될 만한 것은 그들이 아래와 같이 화자가 내적으로 지각한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맥락에서 그러한 내적 지각 정보를 화자 자신이 확신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으)ㄴ가/나 보다'나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가: 한국에 살면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진 게 없어요? 나: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에는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익숙해지다). ①익숙해졌겠어요 ②익숙해졌을 거예요 ③익숙해진 것 같아요 ④익숙해진 듯해요 ⑤익숙해졌나 봐요 ⑥익숙해진 모양이에요 (C16)

(115) 연: 이게 네가 말한 객관적인 것이 아니지 않아요?

㉰: 음...근데 이런 거 이런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략) 개 자기도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되게 확신해요. (㉰-3-C-16)

㉱: 그...사실적인 근거. 오래 살아서 외국에 있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고 이런 약간 되게 확실한 근거예요. (㉱-3-C-16)

연: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어요.'라는 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인 거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거, 내가 쇼핑할 때 뭐뭐 이런 객관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2-C-16)

(115)에서 ㉰와 ㉱는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다'는 화자만이 내적으로 지각 가능한 정보를 화자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반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이는 추측에 요구되는 '간접적'인 근거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서 바로 객관적인 근거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

와 같은 맥락에서 두 문법 항목을 배제하게 되었다.

앞서 말뭉치 분석에서 밝혔듯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 특히 '-(으)ㄴ가/나 보다'는 근거가 내적 지각 정보나 기억인데도 화자가 그것을 일종의 사실처럼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서 명시할 때도 잘 쓰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가 아래와 같은 문항에서 왜 직관적으로 '-(으)ㄴ가/나 보다'가 사용될 수 없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근거의 공유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눈에 띄었다.

가: 어렸을 때 키웠던 동물 중에 제일 정이 갔던 게 뭐야? 나: 다 정이 갔지. 근데 다른 것보다 거북이가 내가 처음 키웠던 거여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다). ①남겠어 ②남을 거야 ③남는 것 같아 ④남는 듯해 ⑤남는가 봐 ⑥남는 모양이야 (C36)

(116) ㉮: '-는가 봐'를 쓸 때 한 말이 더 있어야 돼. (중략) 예를 들어 '기억에 남는가 봐. 내가 뭐뭐뭐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더라.' 어, 어떤 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돼. (중략) 그래서 여기 '남는가 봐.'라고 할 수 없잖아. 왜냐면 네가 청자랑 얘기할 때 청자가 너랑 이렇게 공통으로 인지, 그 공감(共感)할 수 없으니까.
연: 청자가 나랑 같은 근거를 인지할 수 없단 말이야?
㉮: 맞아. 맞아. 그런 공통으로 가지는 그런 인식, 근거. (㉮-4-C-36)

(116)에서와 같이 ㉮는 온전히 화자의 기억으로부터 추측하는 맥락에서 '-(으)ㄴ/는 것 같다'가 쓰일 수 있는 반면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불가한 이유를 탐구하며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으)ㄴ가/나 보다'가 쓰일 때 추측 근거가 화·청자가 '공통으로 가지는 근거'로서 화맥에 나타나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근거가 있는 추측'에 쓰인다고 설명하거나 '직/간접적', '객관적 사실' 등과 같이 근거 정보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에 비해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근거의 측면에서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추측 근거의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면 이 문법 항목의 사용 맥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2.1.2. 근거 무표성, 근거 없이 찍어, 자신의 느낌과 기억, 자신의 경험: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측 근거에 상당히 유표적이며 제약받는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대조적으로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는 근거의 무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지식 정보나 내적 지각 정보가 모두 물리적인 외부세계가 아닌 화자 자신의 인식체계에 존재하기만 하며 화맥에 명시되지도 않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확실성 정도에 크게 의존하여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를 구분하고 선택하였는데 세 문법 항목, 특히 '-겠-'과 '-(으)ㄹ 것이다'가 가지는 추측 근거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래 <표Ⅳ-11>에서와 같이 면담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직접 발화를 만들어서 이들 문법 항목이 추측 근거 면에서 가지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표Ⅳ-11>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의 추측 근거

<table>
<tr><th colspan="2">인식(1)</th><th>능동적인 변화</th><th colspan="2">인식(2)</th></tr>
<tr><td rowspan="3">근거 무표성</td><td>㉮, ㉲, ㉶: '-(으)ㄹ/ㄴ/는 것 같다': 근거 없이 추측;</td><td rowspan="3">과제와 직접 만든 용례를 통한 탐구, 인식 형성</td><td>'-(으)ㄹ/ㄴ/는 것 같다'</td><td>㉱, ㉵, ㉷, ㉻: 자신의 느낌, 모호한 기억 (↔완곡, 낮은 확실성)</td></tr>
<tr><td>연구 참여자 전원: '-(으)ㄹ/ㄴ/는 것 같다': 근거 제약 없는 '만능' 문법</td><td>'-(으)ㄹ 것이다'</td><td>㉱, ㉵, ㉷, ㉼: 자신의 경험 (↔높은 확실성)</td></tr>
<tr><td>연구 참여자 전원: '-겠-'과 '-(으)ㄹ 것이다'의 근거 특성 인식 불분명</td><td>'-겠-'</td><td>㉮, ㉰, ㉲, ㉳, ㉷, ㉼: 자신의 느낌, 감정 (↔공감, 높은 확실성)</td></tr>
</table>

연구 참여자 전원이 면담 초기부터 '-(으)ㄹ/ㄴ/는 것 같다'를 추측 근거에 제약받지 않아 모든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능(萬能)' 문법 항목이라고 일치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를 비롯한 3명의 연구 참여자는 이 문법 항목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에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는 어떠한 정보가 추측 근거가 될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수용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17) ㉰: 이거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음...느낌으로, 그냥 찍어, 瞎猜. (㉰-1-A-16) (중략) 이 두 개('-(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는 정보가 전혀 없을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찍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C-3)

㉱: 근거라는 거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거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같은 거.
연: 그럼 느낌으로 추측한다면 느낌도 근거라고 봐요?
㉱: 네. 그거도 근거죠. (중략) 어떻게든 다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는 것 같다'는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근거가 객관적인 거도 되고 주관적인 거도 돼요. 다 돼요. (㉱-2-C-10)

㉲: 사실적인 상황 아니면 내가 보는 실제 상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을 근거로, 나의 추측, 나의 상상, 뭐 나의 믿음 이런 거. (㉲-2-C-1)

(117)에서와 같이 ㉰는 화자의 '생각', '느낌'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오직 화자가 내적으로만 가지는 것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와 ㉲는 이러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지만 일종의 근거라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정보의 내재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를 근거 면에서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대조되는 한 집단으로 구분하면서 세 문법 항목의 근거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5명 연구 참여자가 아래와 같이 직감, 느낌 등 화자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 상황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겠-'이나 '-(으)ㄹ 것이다'를 '-(으)ㄹ/ㄴ/는 것 같다'와 같이 선

택하였다.

가: 오늘 면접 있지? 응원할게! 파이팅! 나: 야, 나 오늘 눈 뜨는 순간부터 느낌 너무 좋았어. 왠지 면접을 잘 (보다). ①보겠어 ②볼 거야 ③볼 것 같아 ④볼 듯해 ⑤볼 건가 봐 ⑥볼 모양이야 (C11)
가: 저 사람 알아요? 나: 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보다). 얼굴이 낯설지 않아요. ①봤겠어요 ②봤을 거예요 ③본 것 같아요 ④본 듯해요 ⑤봤나 봐요 ⑥본 모양이에요 (C23)

(118) ㉮: 이거 근거인 것 같은데 완전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1번을 선택해요. '너무 좋았어' 때문에(웃음). 그리고...3번 할 거예요. (㉯-5-C-23)

㉰: '볼 거야'도 돼요. 여기 근거가 없지만 근거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3-C-23)

(119) ㉱: '봤을 거예요'하고 '본 것 같아요'. (중략) 이렇게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서 '봤을 거예요'를 선택했어요. (㉱-3-C-23)

㉯: 음, 여기 약간...자신의 그런 느낌으로 추측하는 거 같아요. '봤겠어요'도 선택하고 싶어요. (㉯-5-C-23)

(118)에서 ㉮와 ㉰는 문항 C11에 대해서 각각 '주관적인 느낌'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추측 근거로 보며 '-겠-'과 '-(으)ㄹ 것이다'를 잘못 선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119)에서 ㉱와 ㉯는 문항 C23에 대해서 각각 근거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화자의 느낌으로 추측하는 것에 의해 '-(으)ㄹ 것이다'와 '-겠-'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를 비롯한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이러한 맥락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만을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며 아래 (120)에서와 같이 이 문법 항목이 '자신의 느낌(自我感受)'이나 '모호한 기억'을 바탕으로 추측할 때 사용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정보의 특성을 '완곡(委婉)'이나 '낮은 확실성(确定性)'과 의미적으로 연결시

키기도 하였다.

(120) ㉱: 여전히 직관으로는 '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느낌뿐인데 어디서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또 약간 모호한 기억이니까 더 완곡하게 말해야 돼요. (중략) 하나는 자신의 느낌이고 하나는 과거에 대한 모호한 기억. 말할 때는 좀...그렇게 확실(肯定)하게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3-C-23)

㉮: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제일 적당한 거. 음, 기억이라고 하면 약간 모호성, 불확실한 거. (중략) 모호성이 높은 것에서 확실성이 낮은 걸 도출하고 나서 이 문법을 선택했어. 약간 이런 관계. (㉮-3-C-23)

㉯: 왠지 면접 잘...볼 것 같아. 이거 좀 완곡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냥 느낌, 느낌상. (중략) 왠지 면접을 잘 보겠어, 잘 볼 거야. 이 두 개 안 돼요. 너무 확실해요. (㉯-2-C-11)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면담 진행에 따라 자신의 인식을 점점 명확하게 함으로써 '-겠-'과 '-(으)ㄹ 것이다'가 '자신의 경험(經歷, 經驗)'을 바탕으로 하는 추측에 쓰이는 것이라고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는 아래와 같이 여러 문항들에 부딪히면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한 근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 김서준 이 짜식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나: 아직 (자고 있다). ①자고 있겠어 ②자고 있을 거야 ③자고 있는 것 같아 ④자고 있는 듯해 ⑤자고 있나 봐 ⑥자고 있는 모양이야 (C3)
가: 리사는 미국에 도착했을까? 나: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분명히 (도착했다). ①도착했겠어 ②도착했을 거야 ③도착했을 것 같아 ④도착했을 듯해 ⑤도착했나 봐 ⑥도착한 모양이야 (C6)
가: 아까 도서관에 갔더니 자리가 없었어. 내일은 토요일인데 사람이 많을까?

나: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사람이 (많다).			
①많겠지	②많을 거지	③많을 것 같지	
④많을 듯하지	⑤많을 건가 보지	⑥많을 모양이지	(C8)

(121) ㉮: 자고 있을 거야. 1번은 그냥 넘어갔네(웃음). 자고 있겠어, 좀 이상한데. 자고 있나 봐, ok. 자고 있는 것 같아, ok.
연: '전화 안 받고'가 추측의 근거?
㉮: 그치. 근거 중의 하나지. 하나.
연: 또 하나는 뭐지?
㉮: 또 하나는 개 평소의 이런 일상생활의 규칙(生活起居的規律).
연: 너에게는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 저번에 뭐 '자신의 경험'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음, 보는 것과 들은 것.
연: 그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해 줄 수 있어?
㉮: 자신의 경험...음... 이게 내가 보는 것, 에? 약간 겹치는 것 같지 않아? 네가 보는 것도 네 경험이고 들은 것도 네 경험인데. 그럼 합쳐서 '자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
연: 그럼 네가 말한 그 '규칙'은 어떤 거야?
㉮: 두 번째 거. 자신의 경험. 왜냐면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약간 네가 어떤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물에 대한 이런 인지 같은 걸 강화했어. 이런 인지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 약간. (㉮-3-C-3)

㉮: '분명히 도착했을 거야'(웃음). '도착했겠어'...아닌 것 같은데...(후략)
연: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추측할 때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해?
㉮: 자신의 경험?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보거나 들은 거 아니야. 얘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 그냥 예전의 이런 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에 가면 몇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인지를 통해서. 근데 '도착했나 봐'...아~ 알겠다. 만약에 쓰려면 상황을 바꿔야 되고 그냥 한 번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 약간 일회성 그런 느낌.
연: 얘('-(으)ㄹ 것이다)는 여러 번?
㉮: 맞아. (㉮-3-C-6)

㉮: '사람이...많겠지', ok. '많을 거지', '많을 거다'. 약간 미래의 느낌인데.
연: 여기서도 그 사람의 경험?

㉮: 그 자신의 경험. 여러 번에 그런 현상을 관찰했어. 기말고사 될 때마다 사람이 많은 거. 이런 여러 번의 관찰을 통해 얻은 인지. (㉮-3-C-8)

㉮는 처음에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의한 추측에 필요한 근거로 '보는 것과 들은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화자 자신의 경험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으)ㄹ 것이다'나 '-겠-'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추측 상황에서 추측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자신의 경험'임을 발견하고 그러한 '경험'은 화자가 과거의 여러 번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일종의 '인지'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보는 것과 들은 것'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구별하기 위해 각각 '여러 번'과 '일회성'과 같이 직접 특징지어 주었다.

실은 모든 연구 참여자가 위와 같은 문항을 수행할 때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으며 해당 맥락에서 추측 근거로 삼는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 '경험',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이 비슷하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단지 특정 문항에 한해서 보고하기만 하는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이며, ㉮와 같이 적극적인 탐구를 통해서 그것을 일종의 지식의 형태로 점차 수렴하게 되는 연구 참여자가 4명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121)에서 보이듯이 ㉮가 위와 같은 문항들의 맥락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모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직관적으로 느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 말뭉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겠-'은 지식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상황에서는 '-겠지'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특징적인 반면 '-(으)ㄹ 것이다'는 '-지'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처럼 분명한 직관을 가지는 연구 참여자가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문항에 한해 '-겠-'과 '-(으)ㄹ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의 사용이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거나 그 사용의 부자연스러움조차 느끼지 못해서 두 문법 항목을 함께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겠-'은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 추측할 때도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서 '-(으)ㄹ 것이다'와 차별된다. 이는 이론적 연구에서 근거의 '현장성' 또는 '즉각적인 추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전

원이 아래와 같이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얻은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 타인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문항에 대해 '-겠-'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같이 강한 직관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6명 연구 참여자는 아래 (122)에서 보이듯이 '-겠-'이 다른 문법 항목에 비해 화자 자신의 강렬한 '느낌(感受)', '감정(情感)'을 가지는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感同身受)'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가: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여자를 보고) 와... 저 언니 진짜 (춥다). 나: 맞아.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①춥겠다 ②추울 거다 ③추울 것 같다 ④추울 듯하다 ⑤추운가 보다 ⑥추운 모양이다 (C1)

(122) ㉮: '춥겠다' 약간... '가'라는 사람이 저 언니에 대해 그 사람이 반드시 추운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공감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2-C-1)

㉯: 1번은 조금 말투가... 감정이 너 강한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아프겠다.' 이렇게 써요.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느낌이에요. (㉯-1-C-1)

㉰: '춥겠다' 좀 약간...감정이 그 '추울 것 같다'보다 더 강렬한 그런 거예요.
연: 감정? 화자의 감정?
㉰: 네. 그냥 나의 느낌. (㉰-2-C-1)

그러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7명 연구 참여자는 '-(으)ㄹ 것이다'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선택한 것이 조금 놀라운 일이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겠-'과 '-(으)ㄹ 것이다'가 추측 근거 면에서 가지는 차이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자신의 한국어 경험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직관만 형성한 것일 뿐이었다. 이에 주목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불완전한 직관을 이용하여 그들이 두 문법 항목 간의 차이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두 문법 항목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겠-'이 심리술어가 함께 쓰여 발화 현장의 지각 정보로부터 상대방 현재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것

과 '-(으)ㄹ 것이다'가 '-(으)면'에 의한 가정적 사실이 전제되는 상황에 쓰이는 것에 대해 암시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3) 연: '피곤하겠어'에 대해 발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 아 너는 그...너 야근을 해서 '진짜 피곤하겠어'.
연: 내가 야근을 했다고 너한테 알려 준 다음에?
㉮: 맞아요. 맞아요. 야근을 해서 그래서 제가 '피곤하겠어'라고.
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피곤할 거야'도 쓸 수 있어요?
㉮: '겠'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으니까요. (웃음) (후략)
연: 두 번째 거('피곤할 거야')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 예를 들면...제가...시험을 위해서 이틀 동안 밤 새워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너는 '아 너 그러면(那樣的話) 피곤할 거야.'라고 약간... (㉮-3-C-27)

연: '너 많이 피곤하겠다'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 음, 뭐랄까 진짜 그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는 거 보고 '피곤하겠다'라고 해요.
연: 그럼 '피곤할 거야'도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 이거는 약간...그가 계속 일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너 좀 쉬어. 그렇지 않으면(不然的話) 너 많이 피곤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3-C-27)

(123)에서와 같이 ㉮와 ㉯는 '-겠-'은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정보로부터 현재의 어떤 상황을 추측할 때 쓰이는 데 비해, '-(으)ㄹ 것이다'는 '밤을 새워 공부하면 피곤하다', '쉬지 않으면 피곤하다' 등과 같이 화자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로부터 그것을 '-(으)면'에 표현되는 가정적 사실에 적용하여 미래의 상황을 추측할 때 쓰이는 것에 강한 직관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연구 참여자는 '-겠-'과 '-(으)ㄹ 것이다'의 근거 차이를 맥락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통해 명시적인 지식으로 도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하였듯이 추측 근거의 '현장성'이나 '즉각적인 추측'이라는 특성이 '-겠-'과 '-(으)ㄹ 것이다'를 구분하는 데 적용되 수 있지만 여러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데 부족하다.

(124) ㉯: (김치가) '맵겠어요', '매운가 봐요', '매운 모양이에요' 이 세 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걸 보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크게 숨을 내쉬는 걸 보고. (중략) '매울 거예요'는 어떤 상황에서 더 적절하냐면 으 엄마가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이때 제가 '아 고추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매울 거예요' 이런 거. (㉯-3-C-5)

(124)에서 ㉯는 '-(으)ㄹ 것이다'의 사용 맥락을 '-겠-'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겠-'은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동일한 사용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겠-'이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추측 방법에 가지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추측 근거의 공통점으로 인해 혼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혼동 양상은 앞서 문항 C1과 같은 맥락에서 5명 연구 참여자가 '춥겠다'와 '추운가 봐'를 동시에 선택한 것에서도 관찰되었다. 직접적인 지각 정보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지각 정보로부터 추측하는 맥락에서도 '-겠-'과 '-(으)ㄴ가/나 보다'를 함께 선택한 연구 참여자가 6명으로 나타났다.

가: 너 오늘 좀 늦게 왔네.
나: 엄마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
가: 아침부터 (바빴다).
①바빴겠네 ②바빴을 거네 ③바빴을 것 같네
④바빴을 듯하네 ⑤바빴던가 보네 ⑥바빴던 모양이네 (C12)

(125) ㉯: '바빴겠네' 약간 뭐랄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좀 바쁘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바빴던가 보네요'는 좀 음... 그냥 시간이 이렇게 배정되면 좀 '바빴던가 보네요'. (㉯-2-C-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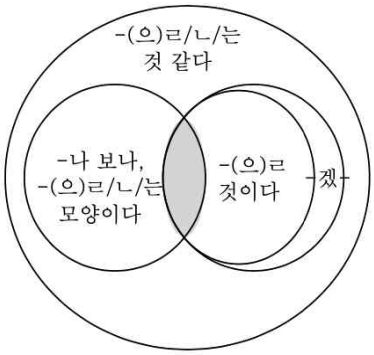
㉮: 여기 '바빴던가 보네'와 '바빴겠네' 저는 이 두 개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자연스러워요. (㉮-2-C-12)

㉰: '아침부터 바빴겠네' 그리고...'아침부터 바빴을 거네', '바빴을 거네' 이것도 돼요. 1번과 2번은 다 단정. '바빴던가 보네' 이것도 돼요.

이거는 사실이 있는 추측이에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C-12)

(12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겠-'과 '-(으)ㄴ가/나 보다'가 추측 방법에서 가지는 차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두 문법 항목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거나 확실성 정도, 사실적인 근거 등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의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두 문법 항목을 변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으)ㄹ 것이다'를 '-겠-'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으)ㄴ가/나 보다'와 함께 선택한 연구 참여자도 3명이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이 추측 근거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양상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도식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Ⅳ-1>과 같다.

변별점	변별 양상	개별적 특성	혼동
추측 근거		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근거 유표성, 간접적인 것, 객관적 사실	①-③ ①-②
		② '-(으)ㄹ/ㄴ/는 것 같다': 근거 무제약, 자신의 느낌, 모호한 기억	①-③-④
		③: '-겠-': 자신의 느낌, 감정	③-④
		④: '-(으)ㄹ 것이다': 자신의 경험	

<그림Ⅳ-1>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근거

2.1.2. 추측 방법

추측 방법은 화자가 추측 근거를 인식하여 추측할 때 취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전제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연역'과 관찰된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형성하는 '가추'로 분류된다. '-겠-'과 '-(으)ㄹ 것이다'는

연역에 쓰이고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가추에 쓰이며 '-(으)ㄹ/ㄴ/는 것 같다'는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추측 방법에 다르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재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면담과 학습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Ⅳ-12>에서와 같이 이에 대해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추측 근거와 추측하는 내용 간의 관계를 인식하며 이에 의해서 '-겠-', '-(으)ㄹ 것이다'와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구별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면담 진행에 따라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연구 참여자도 1명이 존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측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던 8명 연구 참여자 중의 2명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표Ⅳ-12>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방법-추측 근거와 추측 내용의 관계

<table>
<tr><th colspan="2">인식(1)</th><th>능동적인 변화</th><th>인식(2)</th></tr>
<tr><td rowspan="2">긴밀한 관련성</td><td>㉮, ㉶
('-겠-', '-(으)ㄹ 것이다': 긴밀한 관련성 필요;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긴밀한 관련성 불필요)</td><td rowspan="4">과제와 직접 만든 용례를 통한 탐구, 인식 형성</td><td>㉰, ㉷: 개별적 인식
'-(으)ㄴ가/나 보다':
'근거(결과)-내용(원인)'</td></tr>
<tr><td>㉰
(㉮, ㉶와 반대)</td><td rowspan="2">㉱: 대조적 인식
'-(으)ㄹ 것이다':
'근거(원인)-내용(결과)';
'-(으)ㄴ가/나 보다':
'근거(결과)-내용(원인)'</td></tr>
<tr><td>인관 관계</td><td>㉯
(암시적 지식)</td></tr>
<tr><td>인식 부재</td><td>나머지 8명</td></tr>
</table>

앞서 추측 근거에 따른 변별 양상에서 분석하였듯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추측 방법의 차이를 모르고 추측 근거의 공통점으로 인해 아래 문항 C1과 같은 상황에서 '-겠-'과 '-(으)ㄴ가/나 보다'를 적절한 것으로 함께 선택하였다. 그들과 달리 연구 참여자 ㉮, ㉰, ㉶는 추측 근거와 추측 내용이 긴

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의해 두 문법 항목을 변별하여 문항 C1에서 '-(으)ㄴ가/나 보다'를 배제하였다. 하지만 ㉮는 긴밀한 관련성 여부에 의한 변별 결과가 ㉱, ㉲와 정반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여자를 보고) 와... 저 언니 진짜 (춥다). 나: 맞아.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①춥겠다 ②추울 거다 ③추울 것 같다 ④추울 듯하다 ⑤추운가 보다 ⑥추운 모양이다 (C1)

(126) ㉱: 그 추운 거, 애가 떨고 있는 걸 이미 봤어요.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 아니면 행동에 근거하고 추측. 근데 앞의 두 개('-겠-', '-(으)ㄹ 것이다')는 어...더...광범한 추측. 근거는 다 있는데 달라요. 뒤의 두 개('-(으)ㄴ가/나 보다', '-(으)ㄴ/ㄹ/는 모양이다')는 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거, 관련성 높다. (㉱-2-C-1)

㉲: 짧은 치마를 입으면 반드시 추울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는 떨어야 그 사람이 추운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확실히. 네. 왜냐면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객관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단어로 바꿔야 돼요. 음...이거랑 이거랑 결합하는 추측과 결합하는 동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연: 추측과 결합하는 동사? '춥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 네네. (㉲-2-C-1)

㉮: 짧은 치마를 입는 거. 이 근거와 그의 추측, '춥겠다'라는 추측과 그 연관성이 매우 강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확실성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연: '추운가 봐'는?
㉮: '저 언니 추운가 봐.' 음... 예를 들어 그 사람이...추운가 봐. 소름이 돌았어(웃음). 아니면 손으로 계속 팔을 만지는 거. (㉮-3-C-1)

(126)에서 ㉱는 문항 C1에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쓰이지 못하는 원인이 두 문법 항목의 추측 근거가 그 여자가 '떨고 있는' 것과 같이 추측 내용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겠-'과 '-(으)ㄹ 것이다'를 그러한 관련성이 높은 근

거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는 '짧은 치마를 입는 것'과 '떨고 있는 것'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추측의 근거라고 보며 '-(으)ㄴ가/나 보다'에 의한 추측에 요구되는 후자는 '춥다'라는 추측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는 오히려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라는 근거가 추측 내용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 ㉰와 반대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올바른 명시적 교육 없이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한 변별적 인식이 크게 상이할 수 있다. 이는 추측 근거와 내용이 되는 사태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 하는 것이 정도의 문제이므로 개인마다 그것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바람에, 동일한 연구 참여자인데도 자신이 마주치는 특정 맥락에서 추측 근거와 내용이 갖는 긴밀성 정도에 대한 지각이 또한 다를 수 있다. 이에 의한 문법 항목의 선택은 아래 문항 C25에 대한 ㉱의 선택 양상에서 보이듯이 정확성이 장담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 어제 가수 티나가 페이스북에서 동물을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되겠대. 진짜 대단해.
나: 나도 일곱 살까지는 동물들이 불쌍해서 고기 아예 안 먹었거든.
가: 진짜? 지금 잘 먹잖아.
나: 지금은 잘 먹지. 그때 엄마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마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강제로 고기를 먹이기 시작했어.
①들었겠어 ②들었을 거야 ③들었던 것 같아
④들었던 듯해 ⑤들었나 봐 ⑥들었던 모양이야 (C25)

(127) ㉱: 마지막 두 개('들었나 봐', '들었던 모양이야')는 절대 선택 안 해요.
연: 뒤의 그거 근거가 아니에요?
㉱: 이거 관련성이 너무 약해요(웃음). (㉱-4-C-25)

문항 C25는 화자가 엄마가 강제로 고기를 먹였다는 결과적 지각 사태로부터 그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될 만한 사태를 추측하는 맥락으로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는 두 문법 항목이 요구하는 근거가 추측 내용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127)에서와 같이 그 관련성이 '너무 약하다'

는 이유로 두 문법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는 ㉦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 ㉤와 ㉥는 바로 문항 C25를 통해서 '-(으)ㄴ가/나 보다'가 쓰이는 추측 맥락에서 추측 근거와 내용이 결과와 원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터득하게 되었다.

(128) ㉤: '-나 봐'는 약간 사실 이 추측과 이런 이런 현상 사실 인과관계가 있어. (중략) 추측의 내용부터 이 결과를 얻었는데 근데 뒤의 이 문장은 사실 근거이기도 해.
연: 갑자기 이런 생각?
㉤: '그래서'를 봐서 어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ok 라는 생각이 들었어. (중략)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보다'는 약간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추측과 결과 원인관계.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지켜보고 이런 관계의 보편성이 있는지 지켜보고. (㉤-4-C-25)

㉥: '-나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추측이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일 수 있고 일어난 일을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발생의 원인. 그리고 음 여기서 바로 엄마가 이미 강제로 고기를 먹였어 이를 바탕으로 그....왜, 그 원인을 추측해요.
연: 그러니까 화자가 이미 일어난 일을 추측하는 거고 추측의 근거는 엄마가 고기를 먹였다는 거. 맞아요?
㉥: 네. 이게 이미 결과예요. 그 사람이 원인을 추측하는 거예요.
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 이 문항 그리고 예전에 봤던 예문이 생각났어요. (㉥-3-C-25)

(128)에서 ㉤와 ㉥는 문항 C25의 상황에서 '-(으)ㄴ가/나 보다'가 적절하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접속부사 '그래서'로부터 자극을 받아 처음으로 '-(으)ㄴ가/나 보다'의 의미적 특성을 추측 근거와 내용의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가설을 세워 보았다. 그러한 가설을 타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접한 다른 용례나 한국어 경험을 머릿속에서 회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오직 '-(으)ㄴ가/나 보다'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을 뿐이며 이와 다른 문법 항목이 그러한 인과관계에서 가지는 차이를 대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와 ㉥는 각각 '들었을 거야'와 '들었겠어'를 '들었나 봐'와 함께 선택하였다.

곧 이어지는 문항 C27에 대해 ㉮와 ㉲가 '-(으)ㄴ가/나 보다'에 대한 가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확인하는 모습도 관찰하였다.

가: 너 많이 (피곤하다). 눈이 너무 충혈됐는데.			
나: 요즘 잡을 잘 못 자서 그래.			
①들었겠어	②들었을 거야	③들었던 것 같아	
④들었던 듯해	⑤들었나 봐	⑥들었던 모양이야	(C27)

(129) ㉮: 아까 그 인과관계와 좀 연관이 있나? 그니까...피곤해서 눈이 충혈됐다. '너 많이 피곤한가 봐'. 그래서 눈이 너무 충혈됐는데... 어? (침묵5초) 아~ 그니까 뒤에 눈이 많이 '충혈됐잖아'라고 바꾸면 ok! 이 '그래서'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 보다'를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3-C-27)

㉲: 충혈됐잖아요. 이미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추측해요. 1번도 가능해요? 왜냐면 또 생각났는데 뭐 밥을 먹으러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음식을 보고 '맛있겠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겠-' 약간 '看起來怎么怎么樣(보아하니 어떠어떠하다)'의 의미. 여기서도 '看起來很累(피곤해 보인다)의 뜻인 것 같아서요. (㉲-3-C-27)

(129)에서 ㉮는 추측 내용과 근거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인식하여 추측과 근거를 나타내는 화자의 선·후행 발화 사이에 '그래서'의 삽입이 적절한지에 따라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 맥락은 '선행 발화(추측)-후행 발화(근거)'와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는 '-겠-'의 추측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거 정보의 유형이 같은 경우 '-(으)ㄴ가/나 보다'와 '-겠-'을 중국어 표현 '看起來怎么怎么樣'과 동일하게 대응함으로써 혼동이 일어났다.

그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연구 참여자 ㉬는 문항 C21과 직접 만든 발화를 바탕으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으)ㄹ 것이다'와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추측 방법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유진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더라. 나: 그래? 추석인데도 시험 때문에 집에 (못 갔다). ①못 갔겠어 ②못 갔을 거야 ③못 간 것 같아 ④못 간 듯해 ⑤못 갔나 봐 ⑥못 간 모양이야 (C21)

(130) ㉮: '추석인데도 시험 때문에 집에 못 갔을 거야.' 좀 적절하지 않아요.
연: 그러면 네가 직접 상황을 만들어 보면은?
㉮: 음...예를 들면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유진이가 집에 갔어?' 나는 '밖에 비가 많아서 집에 못 갔을 거야.' 이렇게.
연: 그래서 너의 추측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 비가 많이 와서.
연: 그래서 걔가 집에 못 갔을 거라고 추측하죠?
㉮: 네...그러면...하나는 집에 못 갔다고 추측하고 하나는 시험 때문에 집에 못 갔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거도 달라요.
연: 그 근거와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 아래는 약간...음...반대로 추측. 왜 못 갔어. 잠깐만...첫 번째는 원인이랑 그거, 비가 많아서 아 어려워요...어 이거 원인...원인이 가져오는 결과, 아래는 이미 결과를 아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반대로 추측해요(反推) 이렇게. (㉮-3-C-21)

(130)에서 ㉮는 해당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적절한 데 반해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두 문법 항목이 가지는 추측 방법의 차이를 ㉮가 직접 탐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구자가 '집에 못 갔을 거야.'라는 발화의 사용 맥락을 ㉮가 직접 만들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는 두 문법 항목이 쓰이는 맥락을 비교함으로써 '-(으)ㄴ가/나 보다'가 이미 아는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반대로 추측하는 데 쓰이며 '-(으)ㄹ 것이다'가 원인으로부터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추측하는 데 쓰이는 변별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외에 눈에 띄는 연구 참여자로서 ㉰가 추측 방법이라는 변별점에 대해 모국어 화자의 문법 지식에 근접하는 수준의 암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일련의 문항에 대한 ㉰의 문법 선택과 이에 대한 구두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항 C2와 같은 맥락에서 추측 근거와 방법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 따라 '-겠-'과 '-(으)ㄴ가/

나 보다'가 다르게 선택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연구 참여자로서 주목받을 만하다.[142]

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부산에 가려고요.			
나: 부산이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가지 않았어요?			
가: 그때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간 거라서 구경을 거의 못했어요.			
나: 그때 좀 (아쉬웠다).			
①아쉬웠겠네요	②아쉬웠을 거네요	③아쉬웠던 것 같네요	
④아쉬웠던 듯하네요	⑤아쉬웠나 보네요	⑥아쉬웠던 모양이네요	(C2)

(131) ㉰: 1, 2, 5, 6번 모두 되는 것 같아요(웃음).
연: 5번과 6번은 왜 된다고 생각해요?
㉰: 음 왜냐면 앞에 정보가 있어요 사실. '가'가 왜 다시 한 번 가고 싶은지 그때 결혼식 갔을 때 구경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가'가 사실 좀 아쉬워했던 걸 증명하는 거죠. (후략)
연: 1, 2번은 5, 6번과 의미적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같은 의미예요?
㉰: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 그러면 1, 2번을 사용할 때 네가 말한 그 '정보'가 뭐예요?
㉰: 바로 앞의 거 아니에요? 부산에 가지 못한 거. 아니. 구경 못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산에 갔는데 구경 못했어요. (㉰-2-C-2)

㉰: 3, 4, 5, 6번 다 돼요.
연: 여기 5번과 6번을 선택한 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 추석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 그 사람이 시험 때문에 집에 못 갔다고 추측해요.
연: '집에 못 갔겠다.'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어 보면은?
㉰: 막차를 놓치...놓쳤어요. '집에 못 갔겠다.' (㉰-3-C-21)

㉰: 3, 4, 5, 6. '너 많이 피곤하겠어'...(침묵7초) 만약에 이거 앞에 오면 쓸 수 있어요. '나 요즘 계속 잠을 잘 못 잤어.' 그 다음에 '너 많이 피곤

142) 문항 C2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선택 결과와 구두 보고를 보면 ①과 ⑤(또는 ⑥)를, ②와 ⑤를 동시에 선택한 연구 참여자가 각각 5명과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선택된 문법 항목들을 변별하지 못하여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연: 이때 '너 진짜 피곤할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3-C-27)

(131)에서 보이듯이 ㉰는 앞서 살펴본 다른 연구 참여자들처럼 해당 변별점을 메타언어로 명시화하지 못하였지만, 각 문항의 맥락과 자신이 만든 상황에서 특정 '추측' 문법 항목이 쓰일 때 화자가 무엇을 추측 근거로 삼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태를 추측하는지를 모두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의 변별 양상을 분석하면서 연구자에게 하나의 의문이 찾아오게 되었다. 왜 그들이 용례를 통해서 '-겠-' 또는 '-(으)ㄹ 것이다'에 의한 추측 과정을 '-(으)ㄴ가/나 보다'에 의한 그것만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아래 (132)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가 추측 근거와 내용의 관계를 인식할 때 겪은 혼란에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듯하였다.

(132) 연: 그러니까 떨고 있는 것과 짧은 치마를 입는 것, 이런 객관적 사실, 이 근거와 '춥다'는 추측 내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 맞아요! 꼭 있어야 돼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를 보면 인과관계인 것 같아요. 그 떨고 있는 것과 짧은 치마. 에? 근데 짧은 치마도...진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왜냐면 짧은 치마도 그걸 초래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그렇게...정확하지 않아요. 음...오히려 '직접', 이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3-C-1)

㉱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으)ㄴ가/나 보다'가 '떨고 있는 것'과 같이 추측 근거와 '춥다'와 같은 추측 내용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겠-', '-(으)ㄹ 것이다'와 구분하였다. 그러한 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인과관계라고 보고하였다가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춥겠다'나 '추울 거다'의 원인이 된다고 순간적으로 지각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 추측 근거와 추측 행위 자체를 각각 원인과 결과와 자연스럽게 대응하여 추측 행위와 추측 내용(즉, 명제 내용)을 혼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추측 근거와 내용이 결과와 원인의 관계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전제→결과’에 따른 연역적 추론 과정은 ‘근거(원인)→추측(결과)’과 같이 추측 행위의 수행 과정 자체와 일치된 논리에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더 당연하고 무표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결과→원인’에 따른 가추적 추론 과정은 추측 행위의 수행 과정과 반대된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유표적인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유표적인 추측 과정에 대해 더욱 뚜렷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추측 방법이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한 정보로부터의 추측과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통해 얻은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의 경우, 근거 유형이 동일함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겠-’과 ‘-(으)ㄴ가/나 보다’를 추측 방법에 따라 변별하지 못하여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답으로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용례로부터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추측 방법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연구 참여자가 존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러한 학습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쓰이는 추측이 어떠한 추측 방법에 따른 것인지를 비교하는 것은 개별 항목의 특성과 비교 항목의 차이를 모두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할 때는 근거와 내용의 관계에 비해 ‘원인으로부터의 결과 추측’, ‘결과로부터의 원인 추측’과 같이 추측 과정 면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정보를 이해할 때 겪을 혼란을 줄일 수 있다.[143]

2.1.3. 추측 결과: 확실성 정도

확실성 정도란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건이나 사태가 사실임에 대한 화자

143) 실제로 연구자가 전체적인 면담이 끝난 직후에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다원적인 변별점을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추측 과정을 통해 추측 방법의 차이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들은 ‘아~ 이렇게 말하면 더 명확하네요! 그 직접적인 관계보다.’(㉮), ‘갑자기 생각이 명확해졌어요!’(㉯) 등과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의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 그동안 이론적 연구에서는 이를 ‘추측’ 문법 항목 간의 중요한 의미적 변별점으로 다루었는데 교재에서는 관련 문법 정보가 찾아지기 어렵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확실성 정도가 추측 근거나 방법과 긴밀하지만 비(非)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습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Ⅲ장에서 밝혔듯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양태부사 ‘아마’와 공기하여 확실성 정도 ‘중’의 의미영역에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인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다른 문법 항목에 비해 ‘분명(히)’와 공기하여 확실성 정도 ‘상’의 의미영역에 분포하는 비율이 극히 높으며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는 ‘어쩌면’에 의한 확실성 정도 ‘하’의 영역에 낮은 비율로 분포하기도 한다. 이는 화자가 양태부사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할 확실성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확실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 사이에 확실성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추측의 강약/강도(强度)’, ‘가능성의 차이’, ‘정도성 높낮이(程度性高低)’ 등 다양한 메타용어로 ‘확실성 정도’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문법 항목마다 확실성 정도의 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식되는 유표성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Ⅳ-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확실성 정도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다 유표적인 데 비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5명에게만 확실성 정도가 인식되는 것으로 덜 유표적이다. 이는 이들 문법 항목이 추측 근거의 면에서 가지는 인식적 유표성 정도의 차이와 상반된다.

<표Ⅳ-13>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결과-확실성 정도

<table>
<tr><th colspan="3">인식(1)</th><th>능동적인 변화</th><th>인식(2)</th></tr>
<tr><td rowspan="2">‘상’</td><td rowspan="2">‘-겠-’,
‘-(으)ㄹ 것이다’</td><td>㉮, ㉯, ㉱, ㉲
(‘의지’, ‘미래’의 의미)</td><td rowspan="3">면담 과정에서 추측 근거에 대한 변별적 인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인식 형성</td><td rowspan="2">㉰, ㉳, ㉴, ㉵, ㉶:
‘자신의 경험’→
‘높은 확실성 정도’</td></tr>
<tr><td>나머지 8명
(한국어 경험)</td></tr>
<tr><td>‘중’</td><td>‘-(으)ㄴ가/</td><td>㉮, ㉯, ㉰, ㉴, ㉵</td><td>㉱: ‘사실적 근거’→</td></tr>
</table>

	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추측 근거, 한국어 경험)		확실성 정도 = '-겠-', '-(으)ㄹ 것이다'
				㉥: '확실한 근거'→ 확실성 정도 > '-겠-', '-(으)ㄹ 것이다'
'하'	'-(으)ㄹ/ㄴ/는 것 같다'	㉰ (추측 근거)		㉲, ㉳, ㉴, ㉵: '자신의 경험', '모호한 기억'→ '낮은 확실성 정도'
		나머지 11명 (한국어 경험)		

확실성 정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겠-'과 '-(으)ㄹ 것이다'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두 문법 항목이 '확실한(确定/肯定的) 추측', '확실성/가능성(确定性/可能性)이 큰/강한/높은 추측'을 나타낸다고 일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하는 '확실한 추측'이란 화자가 '자신의 추측에 대해서 확신(肯定)한다'거나 '자신이 추측한 내용이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8명 연구 참여자는 '-겠-'과 '-(으)ㄹ 것이다'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인식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4명은 '-겠-'과 '-(으)ㄹ 것이다'가 가지는 '의지'나 '미래'의 의미에서 그러한 인식이 유래된 것으로 보였다.

(133) ㉮: '많을 거지', '많겠지'. 1번, 2번 할래. 화자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당연한 거잖아. (중략) 내가 문장을 판단할 때 내 직관에서 추측이랑 의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왜 자꾸 '확신'이라 그랬냐면 확신이 당연히 의지에 대한 거지. 근데 이 확신하는 일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모르잖아. 그러면 추측이기도 하지. (㉮-2-C-8)

㉶: 두 문법('-겠-', '-(으)ㄹ 것이다')은 자체 이 '-겠다'는 자신의 의지 결심(意志决心)을 표현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그...추측할 때도 나의 목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연: 그래서 더 확실한 거라는 게 그들이 다 의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 응응, 맞아요. 맞아요. (㉶-2-C-5)
연: 처음부터 1, 2번이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냥 스스로 느

끼는 거예요?
㉦: 네, 의지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느꼈어요. (㉦-3-C-34)

(133)에서 ㉮는 '의지'의 의미영역에서 '확신'이 내포되어 있으며 '의지'와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추측'도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겠-'과 '-(으)ㄹ 것이다'가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도 '확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는 '-겠-'과 '-(으)ㄹ 것이다'가 '의지', '미래', '추측'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지'와 '미래'의 의미를 '추측'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두 문법 항목이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도 화자의 확실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추론하였다.

한편, ㉰를 비롯한 5명 연구 참여자는 면담 진행 과정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가 가지는 추측 근거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분명해짐으로써 확실성 정도를 추측 근거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134) ㉰: 이 근거와 추측하는 그 내용, 둘 사이에 강한 그런 실선(實線)관계가 있는지. 만약 이 선이 점점 희미해지면 그럼 확실성 낮음, 반면에 높음. (중략) 너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네가 어떻게 규칙 같은 그런 걸 추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추측. 그니까 너는 많은 일을 경험했고 예를 들어 어떤 일은 이 원인부터 이 결과를 얻었어. 거의...99프로 이런 결과야. 그러면 내가 다시 이러한 원인을 만날 때 내가 이 원인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5-MC)

㉨: 기말이면 도서관에 사람이 꽉 차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정(斷定)의 의미가 있어요. 너 이런 경험을 가지는데 기말이 될 때마다 사람 많고 스터디 룸도 예약할 수 없는 거(웃음). 음 그래서 좀 추단(推斷)의 의미가 있어요.
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할 때 더 확실한 거야?
㉨: 네, 맞아요. 더 확실한 편이에요. (㉨-2-C-8)

(134)에서 ㉰는 추측 근거가 추측 내용과 강한 관련성을 가질 때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이라며 '-겠-'과 '-(으)ㄹ 것이다'가 화자가 자신의 '여러 번

경험'으로부터 추출한 '규칙'에 의한 추측에 쓰이는 점에서 그 결과가 높은 확실성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도 '-겠-'과 '-(으)ㄹ 것이다'가 화자의 경험으로부터의 추측에 쓰이는 것이므로 확실성 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인식한 것이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으)ㄹ/ㄴ/는 것 같다'가 '-겠-', '-(으)ㄹ 것이다'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아주 불확실한 표현', '가벼운(輕微的) 추측', '확실성이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식하였다. 추측 근거의 특성으로부터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를 제외하며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한국어 경험에 의한 일종의 느낌으로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앞서 추측 근거에 대해 분석한 바와 같이 면담 진행에 따라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으)ㄹ/ㄴ/는 것 같다'가 화자의 '느낌'이나 '모호한 기억'에 근거하는 추측에 쓰이는 특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추측 근거의 특성에서 확실성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해석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해서 추측 근거를 가장 유표적이고 핵심적인 변별점으로 인식하고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와 같이 확실성 정도의 측면에서 뚜렷이 변별하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두 문법 항목의 확실성 정도를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 문법 항목이 '-(으)ㄹ/ㄴ/는 것 같다'에 비해 확실성 정도가 높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는 반면 '-겠-', '-(으)ㄹ 것이다'와의 확실성 정도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135) ㉰: 음...애('-(으)ㄴ가/나 보다')의 그 추측의 근거성(根据性), 아니면 추측의 그거 더 강해요. '-ㄴ 것 같다'보다. 애('-(으)ㄴ가/나 보다')는 애('-(으)ㄹ/ㄴ/는 것 같다')보다 근거가 더 충분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얻은 추측의 가능성도 애보다 더 강해요. (㉰-2-C-15)
연: 1번과 5번은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 애(-겠-)는 애('-(으)ㄴ가/나 보다')보다 추측의 확실성 더 강해요. 이거(-겠-). (㉰-3-C-22)

㉱: 근데 머릿속의 경험도...뭐랄까요, 가능성 좀 강한 거고 사실적 근거가 있는 거도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느 거 더 강한지 잘 모르

겠어요. 근데 이 두 개('-(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추측 그 가능성이 틀림없이 그거('-(으)ㄹ/ㄴ/는 것 같다')보다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3-MC)

㉯: 음 그 음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ㄴ가 보다'와 '모양이야'는 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혹시 이번 기말시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요? (㉯-4-C-8) '-것 같다'는 그 추측 강도가 이 두 개('-(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만큼 그렇게 확실(肯定)하지 않아요. (㉯-4-C-10) 산이 높아서 기운이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월이 되자마자 단풍이 빨개지고 모든 곳의 단풍이 다 10월이면 빨개진다고 할 수 없어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연: 그래서 '-나 보다', '모양이다'의 정도가 더 높아요? '-겠-', '-을 거예요'보다?
㉯: 네. 맞아요! (㉯-5-C-31)

(135)에서 ㉮는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확실성 정도에 대해 추측 근거의 충분 여부에 의해 '-(으)ㄹ/ㄴ/는 것 같다'의 그것보다 높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느낌에 의해 '-겠-'과 '-(으)ㄹ 것이다'의 확실성 정도보다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반대로 ㉯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확실한 근거'를 요구하는 점에서 두 문법 항목이 나타내는 확실성 정도가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모두의 그것보다도 높다고 변별하였다. 이외에 ㉱는 또한 추측 근거의 특성과 관계지어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의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으)ㄹ/ㄴ/는 것 같다'에 비해 높은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일치하게 변별하는 반면 '-겠-'과 '-(으)ㄹ 것이다'와의 정도 차이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높은 확실성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 양태부사와의 공기 관계에 의해 '추측' 문법 항목들의 확실성 정도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도 해당 양태부사와 '추측' 문법 항목이 확실성 정도의 면에서 의미적으로 어울리는지에 따라 그들의 공기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분명히'를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와 '-

(으)ㄴ가/나 보다'가 공기하여 쓰이는 문항 B25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장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6명은 (136)에서의 ㉮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에 비해 확실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 '-(으)ㄹ 것이다'로 바꾸는 데 반해 나머지 6명은 ㉲와 같이 '분명히'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추측' 자체와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으)ㄹ 것이다'와의 공기도 불가능하다며 '추측' 문법 항목을 삭제하여 단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고쳤다.

• 저기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언니인가 봐요. (B25)

(136) ㉮: '분명히'... 이게 틀린 거지. 그거랑 관계가 있잖아. 이런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 확실성이 더 강한 추측 표현과 같이 써야 돼. '-ㄴ가 봐'는 그거 아니잖아. 정도성 좀 약해. 그니까 이거는...모든 추측 표현에서 확실성이 좀 높지만 근데 '분명히' 나오면 더 명확한 확실성을 더 표현하는 추측 표현과 같이 써야 돼. 이럴 때 '-ㄴ가 봐요' 안 돼.
연: 고치면은?
㉮: '우리 언니'...'우리 언니일 거야'. 이렇게 고칠 수 있어. (㉮-2-B-25)

㉲: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 '분명히'가 아주 명확해요. 뒤에서 추측의 어미가 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아요. 충돌. 하나는 확실한 거 하나는 추측이니까. 이 문장에서 추측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연: 만약에 '우리 언니일 거예요'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 '일 거예요'도 추측이죠.
연: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네. 뒤에서 그냥 '이다'. 긍정문(肯定句)으로 고쳐요. (㉲-2-B-25)

이는 해당 양태부사와 '추측' 문법 항목의 공기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으)ㄹ 것이다'와 '아마'가 함께 쓰이는 문항 B45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문법성 판단과 자기보고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 양태부사와 '추측' 문법 항목과의 공기와 관련하여 12명 연구 참여자 가운데 ㉰만 '아마'와 여러 '추측' 문법 항목과 공기 가능한 것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문항 B45가 정문이라 판정하며 (137)에서의 ㉯,

㉮와 같이 ‘아마’와 ‘추측’ 문법 항목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가장 많이 접한다고 보고하였다.

• 아마 철수가 이 일을 했을 거야. (B45)

(137) ㉯: 이것도 맞아요.
연: ‘아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요?
㉯: ‘應該, 大概(아마)’.
연: 평소에 자주 써요?
㉯: 자주 써요 ‘아마’.
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 아니요.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꺼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아마 있을 걸.’ 이런 느낌. (㉯-2-B-45)

㉮: 음음음. 이거 맞아. 그냥 너무 많이 봐서. ‘아마’가 가장 많이 본 거. (㉮-3-B-45) 세상에 이게 ‘아마’ ‘-을 거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웃음).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 ‘엄마랑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을 것 같아’ 이것도 가능해(웃음). (침묵6초) 아~ 근데 만약에 ‘아마’를 붙이면 이거...그 확실성을 낮춰 줄 수 있어.
연: ‘아마’를 붙이면 ‘-을 거야’의 확실성을 낮춰 준다고요?
㉮: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쓰지 않으면 ‘나는 엄마랑 여행하고 있을 거야’라고 할 때 확실성 강한 거. ‘아마’가 붙으면 이 ‘-을 거야’의 확실성을 낮춰 줬어. 맞아. (㉮-4-C-34)

여기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분명히’보다 확실성 정도가 낮은 ‘아마’가 왜 확실성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 ‘-(으)ㄹ 것이다’와 함께 잘 쓰이는지에 대한 ㉮의 탐구 양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는 ‘분명히’와 ‘-(으)ㄹ 것이다’가 모두 높은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아마’와 ‘-(으)ㄹ 것이다’, ‘아마’와 ‘-(으)ㄹ/ㄴ/는 것 같다’의 공기가 모두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져 지식에 균열이 생기게 돼서 언어 현상에 대한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마’의 사용이 ‘-(으)ㄹ 것이다’에 의한 높은 확실성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형성하게 되었다.

2.1.4. 추측 결과: 주관성

언어 표현의 의미로서 주관성은 화자가 해당 표현에 기술되는 객관적 장면을 해석하는 데 자신의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 즉 자신의 흔적을 언어 표현에 남기는 주관화 기제를 통해서 실현된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추측의 주체를 문장에 비명시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그 쓰임 자체가 주관성을 지니지만 의미·통사적 특성으로 인해 각각은 '추측'을 더 주관적으로 표현하거나 덜 주관적으로 즉,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성의 의미는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교재에서만, 또한 '-(으)ㄹ/ㄴ/는 것 같다'나 '-(으)ㄹ/ㄴ/는 듯하다'에 대한 개별 문법 항목의 의미 정보에서만 메타용어로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추측' 문법 항목이 가지는 주관성 의미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전원이 모두 명시적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래 <표Ⅳ-14>에서와 같이 그들 중의 8명은 주관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이에 의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주관적'과 '객관적'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크게 세 관점에서 해당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44] 그러한 개념적 이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관성의 인지언어학적 개념과 접면이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Ⅳ-14> 의미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추측 결과-주관성

변별 양상	
㉮, ㉯, ㉰, ㉱, ㉲, ㉳: 추측 근거에 따른 주·객관성	객관성: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주관성: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
㉴: '화자의 태도'에 따른 주·객관성	객관성: '-(으)ㄹ/ㄴ/는 모양이다'
	문항마다 주·객관성에 대한 판단이 다름: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 '나의 느낌 포함'에 따른 주관성	주관성: '-겠-'

144) 연구 참여자들이 주관성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의미적 변별점을 인식하는 것과 같이 면담 진행에 따라 자신의 인식을 검증하거나 수정하는 등 능동적인 변화 양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추측 근거의 특성에 입각하여 주관성을 이해하는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그들은 모두 추측 근거의 존재가 필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요구하는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보다 객관적인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로 근거 없이 추측하거나 '자신의 느낌/경험/생각'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데 쓰이는 나머지 문법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인식하였다.

(138) ㉰: 저는 '-ㄹ 것 같다'를 쓸 것 같아요.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을 표현해요. '나는'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 (중략) 얘보다는 애('-(으)ㄴ가/나 보다') 좀 객관적이에요. (중략)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저도 잘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얘가 우는 걸 보니까 남친이랑 헤어졌나 봐' 이거. 앞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연: 여기는 '정보'가 없어서?
㉰: 응응,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B-7) (중략) 이거('-(으)ㄹ 것이다')는 그냥 주관적인 추측. 예를 들면 걔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걔한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연: 주관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 (㉰-2-B-42) (중략) 이 두 개('-(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 두 개('-겠-', '-(으)ㄹ 것이다')는 주관적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2-C-2)

㉱: '-것 같아'는 주관적이고 '-나 봐'는 객관적인 것 같아요. (중략) 자신의 느낌을 통해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물이 좀 맵다거나 시험이 어렵다고 할 때 매운지 아닌지 어려운지 아닌지 이거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느낌에 강하게 의존하는 거니까 '-은 것 같다' 이런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서 주관적이에요. (㉱-2-C-10) (중략) 뒤의 두 개('-(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되게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추측, 앞의 두 개('-겠-', '-(으)ㄹ 것이다')는...너무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 없고 음 뭐랄까 약간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사실인 것 같아요.
연: 주관적인 사실?
㉱: 네네. 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2-C-13) 근거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 그 문장 전체가 더 객관적으로 보여요. (㉱-3-MC)

㉮: 주관적인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연: '-을 것이다'가 표현하는 추측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측이라면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 여기서는 주관적이에요. 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연: 왜 여기가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 자기가 추측하죠.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 그러면 어떤 거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 객관적...그 뭐지 'ㄴ/은' 뭐 '보다' 그거는 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주 앞에 한 말이 있는데 근거예요. 그리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객관적인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2-B-22)

(138)에서와 같이 ㉰, ㉱, ㉮는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의한 '추측'이 근거 정보가 문장에서 제시됨으로써 온전히 화자인 '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명제 내용에 표현된 사건이나 사태의 실현을 겨냥하는 '힘'이 순전히 화자의 개념화에 있지 않아 추측 근거로서의 다른 요인에 분산되어 있다는 탄도체의 잠재력 강화에 따른 객관화와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는 1인칭 상위 주어의 쓰임을 주관성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연구 참여자로서 눈에 띄었다. ㉰는 (138)에서 보이듯이 '나는 이번에 일본 팀이 1위를 할 건가 봐.(B7)'에서 '주관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상위 주어 '나는'이 화자가 해당 추측을 하게 하는 근거 정보를 요구하는 '-(으)ㄴ가/나 보다'와 같이 쓰이는 것이 잘못된다고 판정하고 '-(으)ㄴ가/나 보다'를 '-(으)ㄹ/ㄴ/는 것 같다'로 수정하였다.[145]

그뿐만 아니라 ㉰는 아래 (139)에서와 같이 1인칭 표현 '내가 보기에는'의 사용도 주관성의 의미와 연관지어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146] 이와 달

145) 1인칭 상위 주어의 외현에 대한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7명의 연구 참여자는 1인칭 상위 주어가 쓰이는 문장을 '-다고 생각하다'가 결여된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1인칭 상위 주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4명의 연구 참여자는 그러한 문장을 '나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서술어가 생략된 구어 발화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맞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146) 상위 주어와 마찬가지로 1인칭 표현의 쓰임을 주관성의 의미와 연결시키면서 이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공기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가 또한 ㉰밖에

리 연구 참여자 ㉯는 1인칭 표현을 주관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인식하기도 하였지만, 화자가 추측을 행할 때 실제로 삼는 근거 정보가 주관적인 것인가에 의해 언어 표현의 의미를 판단하기 때문에 추측을 언어화할 때 근거 정보를 숨기고 1인칭 표현을 더함으로써 주관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내가 보기에는 서준이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B23)

(139) ㉰: 음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걔가 지금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편이죠. '내가 보기에는'이 있기 때문에.
연: 아~ 애가 있을 때 주관적이라고 생각해?
㉰: 네.

㉯: 약간 이 사람의 추측이 좀 객관적인 거여야 하는데 근데 또 '내가 보기에는'이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연: '내가 보기에는'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해?
㉯: 네.
연: 그러면 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 왜냐면 그 사람이 서준이가 열심히 하는 걸 봤잖아요. 예를 들면 서준이가 매일 10시, 11시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추측. (중략) 그냥 추측의 내용과 그거
연: 추측의 내용과 이 문법 항목('-(으)ㄹ/ㄴ/는 것 같다')?
㉯: 맞아요. 응!
연: '-ㄹ 것 같다'가 좀 주관적인 거?
㉯: 주관, 맞아요.
연: 서준이가 매날 9시, 10시까지 공부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 좀 객관적인 근거.
연: 그럼 고치려면? 객관적인 걸로 고치려면?
㉯: 음...(침묵7초) '모양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양이다'. (㉯-2-B-23)

(139)에서 보인 바와 같이 ㉯는 화자가 '서준이'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없었다.

하는 것을 추측하는 데 그 사람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 정보를 근거로 삼는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추측'이 보다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관성을 나타내는 '-(으)ㄹ/ㄴ/는 것 같다'의 사용이 틀린다고 판단하여 객관성을 나타내는 '-(으)ㄹ/ㄴ/는 모양이다'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추측'을 보다 주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실제로 추측 근거가 객관적인 것인데도 그것을 문장에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며 화자가 추측 주체임을 명시하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구 참여자 ㉮가 주관성과 객관성을 '화자의 태도'로 보며 화자가 해당 '추측'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면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매우 명확하게 보고하였다. 이런 인식은 추측 근거 면에서 주관성을 바라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이 쓰이는 각 맥락에서 해당 '추측'이 주관적 또는 객관적 의미를 표현하는지에 대한 ㉮의 판단은 온전히 자신의 감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0) ㉮: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객관적인 느낌이 나. 에? '소질이 있나 봐', 약간 주관적인 느낌. 음...잠깐만.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왜 객관적인 느낌이 나지? 근데 확실히 '-ㄴ 것 같다'는 '-나 봐'에 비해 더 객관적인 느낌, '모양이다'는 객관적. (㉮-3-C-10) (중략) '아마 놀았을 거야' 약간 나를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느낌. 그니까 현재의 '나'와 그때의 '나'를 아예 다른 개체로 분리하는 느낌. (㉮-4-C-15) (중략) '너 많이 피곤한 모양이야' 화자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아. 그냥 눈이 충혈되는 현상을 봤을 뿐인데 '-ㄴ 것 같아' 약간 너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는 느낌. (㉮-4-C-27)

㉮는 면담 초기부터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객관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으)ㄹ/ㄴ/는 것 같다'는 주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140)에서 보이듯이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한 ㉮의 인식이 면담을 거쳐 변하지 않는 반면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 것이다'의 주·객관성에 대한 인식이 문항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걸 보면 요리에 소질이 (있다).(C10)’와 같이 근거 정보가 명시되는 맥락에서도 ‘있는 것 같아’가 ‘있나 봐’보다 더 객관적이며, ‘어, 아마 그날 우리 밤새도록 (놀았다).(C15)’에서 ‘놀았을 거야’가 쓰일 때 객관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는 보고에서 ‘추측’의 주·객관성 의미에 대한 ㉮의 판단이 오직 일종의 감일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는 ‘춥겠다’, ‘아쉬웠겠네요’ 등과 같이 ‘-겠-’이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 타인의 ‘느낌을 공감하는(感同身受)’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겠-’이 쓰이는 ‘추측’에 ‘나의 느낌(感受)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주관성에 대한 인식은 ‘심리술어+-겠-’에 의한 추측에 하나의 추측 근거로서 화자의 심리적 호소력이 개입되는 관찰 배열에 따른 주관화와 일치한다.[147]

화용적 변별점에 대한 과제 D의 수행 전까지 ‘주관적’, ‘객관적’과 같은 용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4명에게 “주관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의미적 차이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라고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들이 모두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을 제외하며 연구 참여자 ㉯가 자신의 이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연한 내용은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141) ㉯: 아니, 추측 이 일은 원래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추측 문법을 판단할 때 주관 객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중략) 제가 생각하는 주관과 객관은 제가 이 말을 말할 때 제 생각이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지. 근데 분명히 다 저의 생각이니까 어떻게 객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4-MC)

(1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는 추측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 자신의 생각으로서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인간의 인식행위로서의 추측과 그러한 행위가 언어화되는 ‘추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앞서 살펴본 연구 참여자 ㉰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 양상은 주관성에 의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147) 앞서 2.2.1.2.절에서 확인하였듯 ㉬와 같이 ‘-겠-’이 ‘자신의 감정/느낌’을 나타낸다고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가 5명이 더 있었다. 그런데 ㉬만이 이에 의해 주관성 의미를 인식한 것이 다소 의외롭다.

변별을 교육하기 전에 언어 표현의 의미로서의 ‘주관성’과 ‘객관성’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주관성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나름의 사고방식에 따라 주관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측 근거, ‘자신이 하는 추측 부각’, ‘나의 느낌 포함’ 등으로 이해되는 주관성은 모두 ‘나’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주관화에 따른 주관성 개념과 맥이 통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추측 근거에 의한 주관성에 따르면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객관적이며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를 비롯한 나머지 문법 항목들이 주관적이라고 쉽게 이분할 수 있는데 이들 문법 항목이 사용 맥락에 따라 객관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중적 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제 생각에는/시험에 합격한 걸 보니 서준이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와 같이 추측 근거의 명시 여부에 따라 ‘-(으)ㄹ/ㄴ/는 것 같다’가 추측을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잘할 수 있을 거야.’와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으)ㄹ 것이다’가 가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의 쓰임에 따라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측을 표현할 때의 주관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언어 표현의 의미로서 주관성이 실현되는 원리와 1인칭 주어, 1인칭 표현, 심리술어 등 주관성의 실현 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 화용적 변별점에 따른 변별 양상

2.3.1. 공손 및 불손 전략의 실현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추측’의 의미로부터 확장해 나가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거나 손상시키는 다양한 곤손 또는 불손 전략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의미적 차이로 인해 이들 문법 항목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데에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전략적인 용

법은 앞서 Ⅱ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으)ㄹ/ㄴ/는 것 같다'의 '완곡' 기능, '-겠-'의 '공감하기' 기능 그리고 '-(으)ㄹ 것이다'의 '위로하기' 기능을 제외하여 대부분이 교재에서 입력 정보를 통해 암시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시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의 이러한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만 보다 잘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면담 초기부터 '-(으)ㄹ/ㄴ/는 것 같다'가 화자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용법에 대해서 '완곡(委婉)'이라는 메타용어로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추측'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 (142)에서와 같이 '-(으)ㄹ/ㄴ/는 것 같다'가 '완곡'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의도에 대해서는 화자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기'거나 '예의' 또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42) ㉲: 약간 자기겸손의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분명히 사실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 약간 자신의 말투를 좀 완곡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MC)

㉳: 화자가 말할 때 뭐랄까 청자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너무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화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신의 어떤 겸손성, 완곡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2-B-32)

㉴: '싫은 것 같아'...추측이 아니에요. 어...약간...(중략) '같아'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할 때 안 좋아하면 그냥 안 좋아한다고 근데 그들은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중략) 뭔가 사용하면 더 예의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웃음)
연: 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
㉴: 그냥 완곡하게 부드럽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1-B-32)

연구 참여자들은 '완곡'을 '추측'과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으)ㄹ/ㄴ/는 것 같다'가 '완곡'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것은 이 문법 항목이 '추

측'으로 쓰일 때 확실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것과 직결된다고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실성 정도가 연구 참여자들이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를 선택하여 다양한 발화 의도를 표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연구 참여자는 화·청자의 관계를 인식하며 친구인 경우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으)ㄹ/ㄴ/는 것 같다'에 비해 확실성 정도가 높다고 생각된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으)ㄹ 것이다'를 선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143) ㉰: '부산에 가 보는 것도...좋을 거야'.
연: 만약 친구가 아니고 선배라면?
㉰: '괜찮을 것 같아'(웃음), 교수님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웃음). (㉰-5-D-1) (중략) '나을 거야' 친구니까. 사실 '나을 것 같아'도 돼. 근데 '나을 거야'는 관계가 친한 친구, '나을 것 같아'를 쓸 수 있긴 한데 우리 좀 소외한 느낌. (㉰-5-D-21)

㉱: 친구라면...'괜찮겠어, 괜찮을 거야'라고 할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좀 완곡하게 말할 거예요. (㉱-3-D-1) (중략) '좋겠어'는 약간 '좋을 거야'보다 더 공식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거 완전 일상대화인데 그리고도 친구 사이니까. (후략)
연: 2번과 3번은 여전히 확실성 차이?
㉱: 네네. 왜냐면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좀 고민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을 거야' 이런 느낌, 그냥 정성껏 요청하고 상대방이 오길 바라는 이런. (㉱-4-D-11)

(143)에서 보이듯이 ㉰는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요청을 제안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상황과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반대의 의도를 제안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에서 친구라는 화·청자의 관계를 인식하여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다. ㉱는 상대방에 대한 요청을 제안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며, 요청을 자신의 소망 사항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를 인식하여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 대신 '-(으)ㄹ 것이다'를 요청의 의도

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선택하였다.

이처럼 '-(으)ㄹ 것이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선호는 이 문법 항목이 높은 확실성 정도라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화·청자 관계에 무관하게 간접 요청 화행이나 간접 거절 화행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으)ㄹ 것이다'와 '-겠-'이 '좋다, 낫다, 괜찮다' 등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쓰이는 데에서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겠-'은 심리술어와 잘 결합하여 쓰일 수 있어 화자의 심리적 호소력을 추측 과정에 개입시켜 주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으)면 좋겠다'나 '-하는 게/것도 좋겠다/낫겠다/괜찮겠다'의 형태로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한편, ㉯, ㉱와 같이 '-겠-'의 이러한 용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화자가 강의에서 청중에게 조언하는 맥락에 대해서 격식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실성 정도로 인해 '-겠-'의 사용이 '강제성'을 나타낼 수 있다며 '-(으)ㄹ/ㄴ/는 것 같다'를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반해 ㉲는 '공식적'인 발화 장면과 화·청자 관계를 인식하면서 '의견을 주는 거기는 하지만 전문가이니까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겠-'을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겠-'은 상대방이 처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충족시키는 공손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를 비롯한 9명 연구 참여자는 강한 직관을 가지고 관련 문항 D23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하였다. 반면 3명의 연구 참여자는 아래 (144)에서의 ㉯와 같이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된 '-(으)ㄹ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144) ㉯: '진짜 힘들 거예요'. 공감해야 하니까. (중략) '힘들 거예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말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연: 더 확실해서?
㉯: 맞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5-D-23).

이와 달리 '-(으)ㄹ 것이다'가 '공감하기'의 기능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높

은 확실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안을 줄이며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증진시켜 주는 공손 전략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12명 연구 참여자가 모두 높은 확실성 정도라는 의미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거나 '위로'나 '격려'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높은 확실성 정도와 객관성이 요구되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가능성 표현 '-ㄹ 수 있다'나 당위성 표현 '-어야 하다'와 결합하여 저자의 주장이나 생각을 약화함으로써 겸손을 나타내는 '축소 표현' 또는 '헤지 표현'으로 잘 쓰이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으)ㄹ 것이다'가 구어보다 문어에 더 많이 쓰인다고 일치하게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서의 맥락으로 구성된 문항 D20에 대해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으)ㄹ 것이다'가 어떠한 의도나 기능으로 쓰이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는 ㉲밖에 없었다.

※상황: 나는 전공과목의 기말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다)**.
①노력해야겠다 ②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노력해야 할 것 같다 ④노력해야 할 듯하다 ⑤노력해야 할 건가 보다 ⑥노력해야 할 모양이다 (D2)

(145) ㉲: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간...논문에서 자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 '-어야 할 것이다' 이런 패턴?
㉲: 네. 이런 패턴 자주 봐요.
연: 그러면 왜 논문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쓰이는 걸까요?
㉲: 왜냐면 자신의 관점이잖아요. 보고서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서술(闡述)이니까 그래서...뭐랄까...음...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거 그리고 상의의 여지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논문도 그냥 자신의 이 방면의 관점만 보여 주잖아요. 네,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4-D-20)

㉯: 그러면은 2번 더 적절해요. 근데 사실 저는 보통 그냥 서술을 쓰는 거예요. 추측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여기 추측도 추측이 아닌 것 같은데 완곡도 아니고 뭐랄까...그냥 이런 사실을 서술하는 느낌이에요. (㉯-7-D-20).

㉰: 이거는 무조건 2번이죠(웃음).
연: 다른 거는 안 되나요?
㉰: 네. 우선 3번 같은 거는 보고서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구어라서. 근데 여기 보고서잖아요. 네가 쓰는 건데(웃음) 약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을 것이다'를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 음...왜 그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 언제 '한다'로 끝내는 게 좋을지 언제 '-을 것이다'로 끝내는 게 좋을지 잘 몰라요.
(㉰-4-D-20)

(145)에서 ㉱는 자신의 언어적 경험을 통해서 논문에서 '-어야 할 것이다'와 같은 표현 패턴이 흔히 쓰이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패턴의 사용 의도까지 자신의 주장과 상이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주장에 대한 '엄격한 태도'와 '상의의 여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는 보고서에서 '-(으)ㄹ 것이다'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기도 하나 그 원인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는 '-(으)ㄹ 것이다'의 이러한 화용적 기능에 대한 명시적 교육도 언어적 경험도 없는 바람에 격식적 문어에서 다른 '추측' 문법 항목에 비해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기만 하며 그 원인도 모르고 자신이 실제로 해당 맥락에서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외에 '-겠-'과 '-(으)ㄹ 것이다'는 격식적 문어에서 '-라고/다고 할 수 있다'와 결합하여 저자의 주장을 마치 남의 목소리처럼 자신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고 표현함으로써 겸손함을 나타내는 축소 표현으로 잘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신문 기사의 맥락으로 구성된 문항 D30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9명은 '-(으)ㄹ 것이다'가 격식적 문어에 선호된다는 인식으로 '-겠-'이 쓰이는 선택항을 배제하는 반면 3명은 한국어 경험을 통해 '-라고/다고 할 수 있겠다'의 패턴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해당 선

택항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래 (146)에서의 ㉮와 같이 단지 해당 패턴의 사용이 가능한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화용적 기능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46) 연: 이런 패턴('-라고 할 수 있겠다')'이 자주 보는 거기 때문에?
㉮: 그치. 그치. 이런 패턴 자주 이렇게 같이 쓰지. 근데 뭐 특별한 기능이 있나? 화용적인 기능 있을까? '할 수 있겠다' 그냥 관용표현 뿐인데 굳이 추측, 굳이 추측 의미는 없는 것 같아. (㉮-5-D-30)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 양상은 그들이 '공손'을 '-(으)ㄹ/ㄴ/는 것 같다'에 의한 '완곡'만으로 협소하게 생각해서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공손'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모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정 표현에 비추어 봤을 때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바로 확실성 정도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으로 인해 아래 문항 D5와 같이 화자가 자신과 친밀감을 가지는 여자 친구에게 사과하는 상황에서 6명의 연구 참여자가 확실성 정도가 낮은 문법 항목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로 '-(으)ㄹ/ㄴ/는 것 같다'를 배제하였다.

※상황: '가'는 여자 친구 '나'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가: 예진아, 어젠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나: 너 다시 나 혼자 두고 가기만 해! 난 절대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①심했겠어	②심했을 거야	③심했던 것 같아	
④심했던 듯해	⑤심했던가 봐	⑥심했던 모양이야	(D5)

(147) ㉯: 제 생각에는 '심했던가 봐'를 하면은 먼저 어떤 현상을 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했던가 봐'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진지한 태도로 사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의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을 것 같다' 좀 정도가 약해서 그리고 좀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어떤 현상을 봐야 말할 수 있는 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지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사과하는 거뿐이에요. (㉮-5-D-5)

㉯: 만약 '심했던 것 같아' 쓰면 약간...자기가 심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음...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가 심했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내가 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연: 이 문법이 확실성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 네네. 맞아요. (후략)
연: 그래서 2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법이 좀 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 음음. 그리고 약간 '심했을 거야'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6-D-5)

흥미로운 점은 그들 중의 3명은 '-(으)ㄴ가/나 보다'를 선택하고 다른 3명은 '-겠-'이나 '-(으)ㄹ 것이다'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전자에 해당한 연구 참여자들은 (147)에서의 ㉮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가 어떤 현상을 근거로 전제하고 확실성 정도가 '-(으)ㄹ/ㄴ/는 것 같다'보다 높은 것으로서 사과할 때 화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객관성 의미를 모르거나 그러한 의미적 특성이 이 문법 항목이 전략적으로 쓰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론될 수 있었다. 후자에 해당한 연구 참여자들은 ㉯와 같이 단순히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겠-'이나 '-(으)ㄹ 것이다'가 추측 방법 면에서 가지는 의미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용적 전략으로 쓰이는 데 확실성 정도 외에 추측 근거의 특성과 주관성이 또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으)ㄴ가/나 보다'가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에게 화자가 상대방과 덜 연관되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는 맥락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쓰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반면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쓰여 주관성을 나타내는 '-(으)ㄹ/ㄴ/는 것 같다'의 사용은 적절

하다. 이러한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인식한 4명의 연구 참여자는 앞서 ㉯와 아예 반대로 문법 항목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 ㉰: '어제 내가 너무 심했던가 봐'(웃음) 여자 친구가 다시 어 '퉤!' 약간 '퉤!' 모양인 것 같은 약간 이런 말을 하면 팰 수도 있어 이 남자. (중략)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고 약간 좀 약간 약 올리는 느낌? 에? 약간 약간 뒤바뀐 느낌이 드는데. '-ㄴ 것 같다' 더 주관적이고 '-ㄴ가 보다' 확실히 더 객관적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좀 객관성.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려면 진지하게 사과하는 걸 보여 줘야지.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마음을 안 담아서 그냥 사과하는 거 말고. (㉰-5-D-5)

그들은 (148)에서의 ㉰와 같이 '-(으)ㄴ가/나 보다'가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과의 맥락에서 쓰이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으)ㄴ가/나 보다'가 화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맥락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선택 양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와 같이 확실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6명의 경우는 '-(으)ㄹ/ㄴ/는 것 같다'를 보다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택하는 반면 ㉰와 같이 주관성을 잘 인식하는 4명의 경우는 '-(으)ㄴ가/나 보다'를 상대방의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는 객관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겸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객관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수사의문문에 쓰여 상대방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손 전략으로 활발히 쓰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7명의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손 전략의 사용 필요성과 객관성에서 정보 영역 존중으로의 용법 확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실제로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이미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잘못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3명의 연구 참여자는 해당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무례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완곡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해당 맥락에서 공손 전략의 사용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객관성의 차이로 인해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정보 영역 존중의 전략으로 쓰일 때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상대방과 관련된 사태를 발화하는 맥락을 제외하며 대부분 연구 참여자에게 공손 전략의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또 하나의 상황 맥락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화자가 자신의 사태나 경험에서 오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발화하는 것이었다. 이때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화자가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여 명제 내용을 축소하고 겸손하게 발화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관한 문항 D28을 수행할 때 모두 ‘-(으)ㄴ/는 것 같다’가 쓰인 선택항을 응답하였다. 하지만 해당 맥락에서 ‘-(으)ㄴ/는 것 같다’가 어떠한 의도로 전략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가 4명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상황: ‘가’는 친구 ‘나’와 연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 너도 연애 많이 해 봤잖아. 연애하면서 힘든 점이 있어?			
나: 나는 약간 누구랑 사귀는 거 자체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힘들다)**.			
①힘들겠어	②힘들 거야	③힘든 것 같아	
④힘든 듯해	⑤힘든가 봐	⑥힘든 모양이야	(D28)

(149) ㉮: 여기서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어. 추측 표현을 안 써도 되고 ‘그 부분에서 힘들어’. 근데 나라면은 ‘힘들어’라고 안 하고 ‘힘든 것 같아’라고 할 것 같아. ‘그 부분에서 힘든 것 같아’.
연: 왜 그거를 쓰는 거야?
㉮: 당연히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게 있어. 만약에 상대방이 이 부분이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5-D-28)

㉯: ‘그 부분에서 힘든 것 같아’.
연: ‘그 부분에서 힘들어’라고 바로 하면 안 되나요?
㉯: 음, 뭐랄까요...(침묵10초) 설명하지 못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연: 근데 너는 평소에 이렇게(‘힘든 것 같아’) 써요?
㉯: 네(웃음).
연: 어떤 참여자가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힘들게 느꼈지만 상대방은 나랑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 아~ 이해했어요! 나 이제 이해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물어

보는데 연애할 때 힘든 점이 뭔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아~ 나 이거 이해했어요. (중략) 두 사람이 모두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좀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관점이니까.
(㉮-4-D-28)

㉲: 여기서 완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웃음).
연: 그냥 바로 '이 부분에서 힘들어' 이렇게?
㉲: 네.
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불확실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저도 잘 몰라요(웃음). (㉲-5-D-28)

그들은 (149)에서의 ㉰와 같이 실제로 해당 맥락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할 줄도 알고 왜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 발화 의도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를 비롯한 6명 연구 참여자는 실제로 해당 맥락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였다. 반면, ㉲를 비롯한 2명의 연구 참여자는 문항 D28과 같이 화자가 자신에 관한 사태를 발화하는 맥락에서 그것을 완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려는 불손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객관성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확인의 문문에서 종결어미 '-지(요)'와 결합하여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빈정거리거나 비난하는 기능으로 잘 쓰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에게만 객관성의 의미에서 불손의 기능으로의 용법 확장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외에 8명 연구 참여자는 해당 맥락에서 '-(으)ㄴ가/나 보다'의 사용이 상대방을 은은하게 비꼬는 의미로서 단지 직관적으로 느껴질 뿐이며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나머지 3명의 연구 참여자는 역시 해당 맥락에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비난이나 질책을 전달해야 한다며 확실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으)ㄹ/ㄴ/는 것 같다'가 겸손을 나타내는 '완곡'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 담화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공손' 또는 '불손'에 대한 공감과 해당 전략이 적절하게 쓰이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화용적 전략으로 쓰이는 데 각 문법 항목마다 가지는 여러 의미적 특성이 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문법 항목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알아챌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손'과 '불손'의 개념적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과 의미로부터 화용적 전략으로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용법 확장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2.3.2. 언어사용역에 따른 분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언어사용역 분포에 서로 상보적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개별 문법 항목이 선호되는 언어사용역에 관한 정보가 이들 문법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의미적 유사성의 정도가 높은 '-겠-'과 '-(으)ㄹ 것이다'와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 그리고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언어사용역 분포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는 자신이 사용했던 교재에서 언어사용역 분포가 명시적인 문법 정보로 제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기억이 부재하며 대신에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자신의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관련 지식을 생성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겠-'과 '-(으)ㄹ/ㄴ/는 것 같다'가 구어에 많이 쓰이며, '-(으)ㄹ 것이다'와 '-(으)ㄹ/ㄴ/는 듯하다' 그리고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문어에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으)ㄴ가/나 보다'가 선호되는 언어사용역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0) ㉮: '-듯하다' 더 그런 문어체? 그런 느낌 있어요. (중략) 이거 '-듯하다'

가 되게 문어적인 느낌. (㉯-3-C-4) (중략) 쓰기 책에서 그냥 음...근데 책에서도 뭐 이거 문어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냥 고쳐 쓰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 '할 것 같아'를 다 '할 것이다'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같다'는 구어, '것이다'는 문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D-20)

㉱: 약간 소설에서 '-듯하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C-4) 사실 '-겠어', '-거야', '-가 봐', '같아' 다 자주 쓰는 거예요. 근데 구어에서는 '-듯하다'와 '모양이다' 진짜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이 두 개('-(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좀 문어적인 편인 것 같아요. (㉱-3-C-36) 기사문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는 제가 아마 다 이거('-(으)ㄹ 것이다')를 선택할 것 같아요. (㉱-4-D-22)

㉲: 1번('-겠-'), 3번('-(으)ㄹ/ㄴ/는 것 같다') 먼저 빼야 돼요. 왜냐면 약간 이...문어와 어울리지 않아요. '솟는가 보았다', 이거 좀 잘 모르겠고, 나머진 세 개('-(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진짜 문어에서 자주 보는 거예요. (중략) 문어에서는 약간 '-는 모양이다'가 진짜 문어적인 그런 거.
연: '-듯하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 네, 그냥 왜냐면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 구어에서 잘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문어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2-C-4)

(15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접하는 입력으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언어사용역 분포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 형성 양상이 인식주체로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작용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언어 경험에 기반한 직관이 큰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예컨대, '-(으)ㄴ가/나 보다'에 대해서는 ㉱와 같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해당 문법 항목을 워낙 잘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으)ㄴ가/나 보다'가 구어에 많이 쓰인다는 인식을 가지는 반면 그러한 언어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 ㉲와 같이 해당 인식이 부재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는 소설에서 '-(으)ㄹ/ㄴ/는 듯하다'를 많이 접하는 경험에 기반하여 '공시문', '기사문' 등과 같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으)ㄹ/ㄴ/는 듯하다'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말뭉치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으)ㄹ/ㄴ/는

듯하다'는 보고서, 신문 기사 등과 같은 격식적 문어에서도 보다 높은 비율로 쓰이는 것이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겠-'이 구어에 선호된다는 인식으로 문어 텍스트로 구성된 선다형 문항에 대해 모두 '-(으)ㄹ 것이다'나 '-(으)ㄹ/ㄴ/는 듯하다'를 선택하고 '-겠-'을 제외하였으며 '-겠-'이 격식적 문어에서 '-라고/다고 할 수 있겠다'의 형태로 빈번히 쓰이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소설은 문어이기 때문에 논문보다 그 격식성이 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일상구어'에 비해 더 '공식적'인 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6명의 연구 참여자는 구어를 '일상구어'와 '회의', '강연', '발표', '방송', '인터뷰', '기자회면' 등과 같이 더 '공식적'인 구어나 '격식체' 구어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구어에 선호되는 문법 항목 중에서 '-겠-'을 이러한 구어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의 4명은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으)면 좋겠다'를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으로서 명시적으로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랑 같이 가면 (좋다).'와 같이 친구를 요청하는 비격식적 구어 발화 상황에서 사용이 적절한 '좋겠어'를 배제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직관을 바탕으로 언어사용역에 따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직관은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충분한 언어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의 공백이 존재하여 선택하기 어렵거나 가장 선호된 언어사용역을 제외한, 해당 문법 항목이 잘 쓰이는 다른 언어사용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언어사용역에 따라 용인가능성이 높은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으로서 다양한 언어사용역을 보여 주는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역 정보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사용 경향이라는 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Ⅴ. 학습자 변별 양상에 기반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 내용 구안

그동안의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는 학습자 현재의 문법 지식을 파악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교육 내용의 구안에 구체적인 참조 기준을 제공해 주기 어려워 보인다. 그 결과, 학습자가 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보를 자신의 인지적 조작에 따라 이해하고 그것을 기존의 지식과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간과되어, 미리 체계화된 학문적 지식이 교육 내용의 구안에 지배적인 참조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지식을 간결하게 기술하는 결과물을 보여 주는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구안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법 지식 체계와 무관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에게 비활성화된 '죽은 지식'으로만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Ⅳ장에서 고찰한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기반으로, Ⅲ장에서 체계화한 변별 정보를 학습자의 지식 내면화에 지향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한다.

1. 교육의 목표

문법은 언어 운용의 원리이며 다양한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구본관, 2017).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교육은 한국어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핵심적인 영역이며 문법 교육의 목표인 "문법 능력의 향상"(구본관, 2017: 37)이 한국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어 학습자에게 길러 주어야 하는 '문법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아래와 같이 문법 능력의 정의들을 살펴보자.

가.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언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구본

관, 2010).

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가지는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과 탐구 능력, 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한국어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며,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의 언어의 다양한 층면에서의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구본관, 2017).[148]

이를 통해서 문법 능력은 크게 문법 지식의 활용 능력, 탐구 능력, 그리고 태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알 수 있다. 우선 '문법 지식의 활용 능력'은 문법 능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핵적인 부분으로서 학습자가 문법의 형태·통사·의미·화용적 특성이 명제적으로 기술된 문법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의미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이는 학습자가 명제적 지식과 이를 운용하는 방법적 지식,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내면화된 암시적 지식까지 모두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법 능력(즉, 문법 지식)의 신장은 한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인 만큼 유사 문법 항목 교육도 응당히 이에 지향해야 한다.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유사 문법 항목이 갖는 다양한 층면에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담화 상황과 자신의 의도에 맞는 문법 항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탐구 능력'은 국어 문법 교육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관찰, 분석, 설명 등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최웅한, 2009). 그런데 이는 한국어 문법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래와 같은 연구 참여자 ㉮의 이야기에 주목하자.

㉮: 나는 문법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 음 문법에 대해 민감하고. (중략) 고급에 갈수록 이 문법과 이거랑 비슷한 문법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그들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고 싶어질 거거든. 그리고 문법마다 가져오는 약간 뭐랄까 어감 같은 것? 그런 어감은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너의 이해와 네

148) 구본관(2017)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문법 능력을 바탕으로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정의하였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 능력에 있어서의 '탐구 능력'과 '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가 읽은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중략) 그 바탕(교사의 설명)에 다가 자신의 인지와 이해를 더하는 단계도 있어. 그거는 네가 읽거나 들은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어감의 차이에 대한 지각(感知)이 필요해. 그 어감은 스스로 개발해야 돼. (㉮-1-A)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는 언어 경험을 통한 문법 지식 체계의 재구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습자이다. 이는 위와 같은 면담 내용에서 보이듯 뛰어난 언어적 민감도, 노출된 언어 입력 정보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 그 입력 정보에서 문법의 쓰임에 대한 사고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개발과 발달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삶에서 언어의 본성과 역할에 감응(sensitivity)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Donmall, 1985: 7; Van Lier, 1991: 532 재인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언어, 특히 언어 속에서 문법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와 사용, 즉 첫 번째 '문법 지식의 활용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능력의 함양은 유사 문법 항목 교육에 있어서 유난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 ㉮가 위와 같이 강조하였듯이 문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사 문법 항목이 쓰일 때의 '어감(語感)' 차이도 스스로 느낄 수 없어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변별하자고 할 의도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법 탐구 능력이 세 번째 요소인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태도'는 국어 교육에서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구본관, 2010: 189)를 말하며 그러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은 국어 문법 교육 목표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문법 능력에 포함되지 않으며[149] 한국어교육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또한 다를 수 있다.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로서 '태도'는 손다정(2018: 61)에서 "문법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국어를 더 풍성하게 하며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 이러한 목표에서는 문법이 가진 의사소통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유사 문법 항목 교육

149) 본 연구에서는 구본관(2010: 190)의 관점을 따라 한국어교육에서도 역시 '태도'를 '문법 능력'에서 제외하며 두를 모두 교육 목표로 본다.

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통해 그러한 문법 항목들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분포되고 사용되며 일정한 체계성을 가진다고 학습자에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문법의 '이해 가능성'을 깨달아서 문법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한국어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또 다른 '태도'로 내세우고자 한다. 이는 아래 연구 참여자 ㉥를 비롯한 많은 학습자가 늘 문법을 외워야 하고 외우면 되는 '규칙'이나 '공식'과 동일시하는 데서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

> 연: 문법을 배우는 게 지루해요?
> ㉥: 사실 너무 지루해요. 어느 언어든 문법이 다 지루해요 사실. 근데 한국어는 특징 하나 있는데 문법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예문을 여러 가지를 외우면 돼요. 약간 좀 공식 같아요. 그냥 그 공식을 대입하고(套進去) 쓰면 돼요. (㉮-1-A)

이처럼 문법이 의미와도 연관되며 그러한 '공식'에 논리가 들어 있어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문법 학습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문법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문법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목표를 다음 <표Ⅴ-1>과 같이 확립한다.

<표Ⅴ-1>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목표

교육 목표		세부 내용
문법 능력 향상	문법 지식 활용 능력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통사·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 탐구 능력	자신이 노출되는 한국어 입력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해당 맥락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쓰임과 그에 따른 의미 전달을 의식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문법 태도 함양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가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며 문법 항목 간 쓰임의 차이도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유사 문법 항목의 학습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2.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교수학적 변환

언어 연구자가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문법이 실재하는 맥락에서 탈맥락화를 통해서 학문적 지식(scholarly knowledge)[150]을 도출하고 체계화한다.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교육 내용의 기반이 되지만 그 자체가 교육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이 '교수학적 변환(Didactic Transposition)'을 거쳐야 한다.

교수학적 변환 이론은 수학 지식이 학습자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왜곡, 훼손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 해결책에 대한 모색에서 수학교육자 세바야르(Chevallard, 1985, 1988)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수학, 지리 등 교과 지식 연구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보슈·가스코뉴(Bosch·Gascón, 2006)과 윈슬로(Winsløw, 2011)는 학문적 지식이 그것이 학습자에게 제시될 때까지 거치는 변환 단계와 단계별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박민신(2019)에서는 한국어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단계[151]를 세분화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표Ⅴ-2> 한국어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단계(박민신, 2019: 122)

지식의 유형	지식 구성의 주체	실현태	교수학적 변환의 유형
학문적 지식 (scholarly knowledge)	국어학자	문법서, 논문	외적 교수학적 변환
	한국어교육학자	교육 문법서, 논문	
가르칠 지식 (knowledge to be taught)	교육과정/교재 개발자	교재, 교육과정, 지도서	
	교사	수업지도안	내적

150) '지식'이라는 개념에 대해 김호정(2010)에서는 교재나 교사를 통해 전달되는 명제적 지식이 인식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이해나 구조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단편적인 문법 '정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본 연구도 이 관점에 찬동한다. 다만 교수학적 변환을 논의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식(knowledge)'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51) 박민신(2019)에서 '단계'가 아닌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지식→가르칠 지식'과 같이 개별 변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선택', '구성', '맥락화', '개인화' 등을 변환 '과정'이라고 본다.

가르친 지식 (taught knowledge)	교사	교실 담화	교수학적 변환
학습된 지식(learned, available knowledge)	학습자	학습자의 언어 생산물	

<표Ⅴ-2>에서와 같이 학자들에게 의해 체계화된 학문적 문법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구성된 문법 지식으로 전이될 때까지 몇 단계의 교수학적 변환이 일어난다. 또한 해당 변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실 밖인지 안인지에 따라 크게 '학문적 지식→가르칠 지식'의 외적 변환과 '가르칠 지식→학습된 지식'의 내적 변환으로 구분된다.

단계별 들여다보면 학문적 지식이 먼저 교육과정 입안자와 교재 개발자에 의해 교재나 지도서에서 구현된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변환은 한국어교육에서 각 교육 기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재별로 제시된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교재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자나 교수·학습 상황, 그리고 개인의 경험 등에 따라 수업지도안의 형태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설계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에 준비된 가르칠 문법 지식은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가르친 지식으로 다시 한 번의 변환을 거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가르친 문법 지식은 학습자에게 학습된 문법 지식으로 전이되고 변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속 강조해 왔듯이 수업에서의 이러한 가르친 문법 지식이 그대로 학습자에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는 개인의 인지방식과 내적 작용에 의해 가르친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구조화한다. 최웅환(2009: 330)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의 문법 지식 변환을 '학습적 변환'이라고 부르며 교수학적 변환과 구분한 바가 있다. 또한 학습적 변환에서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이해·수용하는 과정이 문법 지식의 교육 내용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최웅환, 2009: 330; 김중수, 2010: 163-164). 그래서 수업에서 가르친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변환 과정이 교사가 내적 교수학적 변환을 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교사 주도의 내적 변환만이 학습자의 문법 지식 변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 교수학적 변환에도 그것을 중요한 교육적 근거로 요구한다. 왜냐하면 외적 변환의 결과로서 가르칠 지식이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을 뒷받침해 주는 참

조 문법 지식임과 동시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에게도 참조 문법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학문적 지식에서 가르칠 지식으로의 외적 교수학적 변환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 지식이 교수학적으로 변환될 때 거치는 구체적인 변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손다정(2018)은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크게 '교육 내용 지식의 지위 부여'와 '교육 내용으로 제시'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과정별 세부 내용을 다음 <표Ⅴ-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Ⅴ-3> 한국어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손다정, 2018: 29)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	세부 내용	설명	변환의 결과
1. 교육 내용 지식의 지위 부여	선택	체계화된 지식 가운데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선택	교육 과정, 교재, 교사의 설명에 제시됨. [목차 등]
	구성	선택된 지식을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구성	
2. 교육 내용으로 제시	맥락화	학습자가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식이 존재하는 맥락을 형성	교육 과정, 교재, 교사의 설명에 제시됨. [설명 등]
	개인화	학습자가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 제공	교육 과정, 교재, 교사가 제공하는 활동에 제시됨.[연습 문제 등]

<표Ⅴ-3>에 따르면 '교육 내용 지식의 지위 부여'와 '교육 내용으로 제시'는 각각 지식의 선택과 구성, 지식의 맥락화와 개인화의 하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환 과정들은 각 교수학적 변환 단계에서 단계별 지식의 유형이나 교수학적 의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진행 양상이 다르겠지만 모두 진행이 된다.

한국어 문법 지식의 외적 교수학적 변환 단계에서 각 변환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우선 변환 과정의 시작점으로서 문법 지식의 '선택'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으로서 가르칠 '문법 항목'을 선택·구성하고 학습 단계에 따라 교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지식은 유형화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교육한다(이미혜, 2005).[152]

152)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문법 항목(grammar entries)'은 한국어 "문법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항목"이라고 이미혜(2005: 40)에서 정의되고 있다.

문법 항목이 선정된 후 항목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일정한 구성의 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문법 지식의 '구성' 과정이다. 이처럼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선정되고 구성되면 곧 학습자에게 제시될 형태로 변환되어야 할 과정에 접어든다. 이때 문법 지식은, 명시적 지식 설명이나 실제 사용 상황의 제시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그 지식이 존재하는 상황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 과정과 효율적인 연습 활동과 과제의 제시에 의한 '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화와 개인화의 과정은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술한 학습자의 '학습적 변환' 과정,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과정과 직결된다고 본다. 김호정(2010: 14-23)에 따라 교재나 교사로부터 주어진 문법 정보가 학습자의 문법 지식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이해되는 '의미화'와 학습자의 현 지식 체계와 통합되는 '구조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맥락화·개인화 과정뿐만 아니라 문법 지식의 선택·구성 과정부터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성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법 항목과 의미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문법 항목들이 각각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조직은 학습자가 문법 정보를 순환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구(旧) 지식과 신정보의 반복적인 (재)구조화와 문법 정보에 대한 의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Ⅳ장에서 도출한 학습자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 변별 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과 '교육 내용의 맥락화 및 개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Ⅲ장에서 연구자가 체계화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을 가르칠 교육 내용으로 변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항목은 단일 형태소로 구성된 것으로부터 복합 형태로 구성된 관용구나 문장까지 다양하다.

3.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을 단순히 비교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별적 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된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교육은 또한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일부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 항목 중심의 변별적 교육과 개별 항목 중심의 나선형 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느 한 쪽의 교육이 다른 한 쪽의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양 쪽의 교육 내용의 구성이 서로 다른 한 쪽의 그것을 고려 사항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개별 '추측' 문법 항목과 비교 '추측' 문법 항목으로 나눠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개별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은 그동안 모든 한국어교육학적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아직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 비교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의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과 위계화를 함께 논의하겠다.

3.1.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및 위계화

3.1.1. 개별 항목의 선정

본 연구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으로 묶인 여섯 개의 '추측' 문법 항목은 교수·학습의 실제성(교육용 자료 중복도)과 실용성(빈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정된 교육용 문법 형태이며 실제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 없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적절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준거는 문법 체계[153], 빈도, 기능 등이 있다. 그중 문법 체계는 '문법 내적 준거'라고도 하며 빈도와 기

153) '문법 체계'에 대해서 방성원(2004)에서는 "구체적인 국어 문법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전 단계의 학습에 걸쳐 가능하면 균형 있는 문법 자료를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법 체계의 균형성'이라고 하였다. 더 많은 내용은 김유정(1998), 방성원(2004), 양명희·석주연(2012) 등을 참조할 것.

능은 ‘문법 외적 준거’에 해당한다(양명희·석주연, 2012). 그런데 ‘기능’은 교육 자료 선정의 일환으로서 학습자 요구, 교육과정의 목표, 교재의 단원 구성을 위한 상황, 주제의 선정 등을 통괄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민현식, 2009). 이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가 도모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다. 또한 이미혜(2005: 52)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문법 항목들이 구성되어 오랫동안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문법 항목의 선정 작업보다 이미 구성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등재된 개별 문법 항목의 선정,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법 체계와 더불어 빈도와 학습자 문법 지식 구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에 대해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표Ⅴ-4>는 검토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에서 선정, 구성한 추측 문법 형태가 포함된 문법 항목들을 교육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Ⅴ-4> 한국어 교재: ‘추측’ 문법 요소가 포함된 문법 항목

단계	A	B	C
초급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2A-4); A/V-았으면/었으면 좋겠다(2A-4); A/V-(으)ㄹ 거예요(2A-5); V-(으)ㄴ 것 같다(2A-6); A/V-(으)ㄹ 것 같다(2A-7); A/V-겠-(2A-8)	-(으)ㄹ 것이다(1-11); -(으)ㄹ 것 같다(2-3); -는/(으)ㄴ 것 같다(2-4); -는 게 좋겠다(2-8); -겠-(2-9); -았/었/였으면 좋겠다(2-15)	-을/ㄹ 것 같다(1-2-18); -는/은/ㄴ 것 같다(1-2-18); -겠다[2](2-1-2); -었으면/았으면/였으면 좋겠다(2-1-4); -을/ㄹ 거예요[2](2-1-6)
중급	A-(으)ㄴ가 보다, V-(으)ㄴ가/나 보다, N인가 보다(3A-4); A-(으)ㄴ 모양이다, V-는 모양이다, N인 모양이다(3B-12); A-(으)ㄴ 듯하다, V-는 듯하다(4A-9)	-(으)ㄴ가/나 보다, -(으)ㄴ가 보다(3-7); -듯하다(4-6)	-었을/았을/였을 것이다(3-1-7); -나/은가/ㄴ가 보다(3-1-7); -는/은/을 모양이다(3-2-20); -었/았/였던 것 같다(4-1-3); -겠지요(4-1-6); -으려나/려나

			보다(4-2-18)
고급	-	-	-는/은/ㄴ 듯하다(5-2-18)
단계	D	E	F
초급	-겠-(1-2-12); -(으)ㄴ/는/(으)ㄹ 것 같다(2-1-7); -(으)ㄴ/는/(으)ㄹ 모양이다(2-2-14);	-V/A-겠(1-7); V-(으)ㄹ 것이다(1-13); V·A-(으)ㄹ 것 같다(1-15); V·A-(으)면 좋겠다(1-18); V-(으)ㄴ가/나 보다/A-(으)ㄴ가 보다/N-(이)ㄴ가 보다(2-1)	-ㄹ/을 거예요(1-10); -ㄴ/은/는/ㄹ/을 것 같다(1-13); -ㄴ/은/는/ㄹ/을 것 듯하다(2-12)
중급	-(으)ㄴ가/나 보다(3-2-9); -았/었으면 좋겠다(3-2-12)	-았/었/였던 것 같다(3-8); -(으)ㄴ/는/(으)ㄹ 모양이다(3-9); -아/어/여 죽겠다(3-11); -(으)면 좋을 것 같다(4-5); -지 않으면 -ㄹ/을 것 같다(4-8); -는/(으)ㄴ/(으)ㄹ/던 것 같다(4-9)	-ㄴ/는/은가 보다(4-10)
고급	-	-을/는/은 듯하다(5-1)	-려나/으려나 보다(고급1-10)

<표Ⅴ-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재마다 이들의 문법 항목 목록이 동일하지 않으며 '추측' 문법 형태를 포함한 문법 항목의 수도 서로 상이하다. 다음으로 항목의 선정·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교재 D에서 '-(으)ㄹ 것이다'를, 교재 F에서 '-겠-'을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사용 빈도가 문법 항목의 선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인정받는 준거인데 말뭉치에서의 사용 빈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두 문법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교재 D에서 '미래'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으)ㄹ 거예요'를 개별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고 교재 F에서 심지어 '-겠-'을 '의지', '기동상', '미래'의 용법별로 세 개의 문법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두 교재가 어떤 기준에 의해 '추측'을 나타내는 두 문법 형태를 배제하였는지 모른다.

둘째, 첫째와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겠-'과 '-(으)ㄹ 것이다'에 대해 한국 교재는 이들을 용법별로 개별 문법 항목으로 분화하는 반면 중국 교재는

이들을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문법 형태는 쓰이는 의미가 다름에 따라 받는 통사적 제약도 다르다. 이들을 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게 되면 학습의 부담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재 E, F에서와 같이 교육 내용이 용법에 따라 균형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여 '의지'와 '미래'에 치우치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많은 학습자가 '추측'의 용법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거나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 두 문법 항목을 선택했는데도 그것을 '의지'로 인식하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의미·통사적 제약에서 서로 다른 경우 용법별로 다의적 항목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강현화, 2016: 76).

셋째, '추측' 문법 형태가 포함된 구형이나 문장형을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는 교재가 대부분이며 교재마다 선정된 항목이 상이하다. 우선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5종 교재에서 설정되고 있다. 이는 해당 형태가 '희망·바람'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획득하고 상황에 따라 간접요청화행으로 기능하며 높은 빈도(16.27%)로 쓰인다고 고려한 것으로 보여 항목 선정의 타당성을 가진다.[154] 그러나 이에 비해 '-는 게 좋겠다', '-아/어/여 죽겠다', '-(으)면 좋을 것 같다', '-지 않으면 -ㄹ/을 것 같다'는 '추측'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점에서[155] 해당 구성의 고정성을 인정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들 항목의 선정은 교재의 단원 구성을 위한 상황, 주제, 기능 요소 등의 선정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여시에서 논외로 한다.

한편으로 '-았/었/였을 것이다', '-겠지요', '-았/었/였던 것 같다'를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교재도 있다. 이들 항목은 모두 '추측' 문법 형태와 다른 문법 형태가 결합한 구성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여전히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 교재에서 '-었을 것이다'를 '-(으)ㄹ 것이다'의 명시적인 통사 정보나 용례 등 암시적인 문법 정보로, '-겠지(요)'와 '-았/었/였던 것 같다'

154) 강현화(2016)에서 의존(성) 명사를 포함하는 문형을 한국어교육용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중 의존명사의 고유 의미 기능과 다른 특정한 의사소통 기능적 의미 획득과 빈도에 의한 문형의 고정성 인정이 본 연구에서 추측 문법 형태가 포함된 문법 항목의 선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155) 말뭉치 사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는 게 좋겠다'는 0.70%, '-아/어/여 죽겠다'는 0.95%, '-(으)면 좋을 것 같다'는 0.92%, '-지 않으면 -ㄹ/을 것 같다'는 0.09%로 나타났다.

를 암시적인 문법 정보로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겠지(요)'를 따로 선정, 구성하는 것이 '추측'으로서의 '-겠-'에 대한 개별 항목의 교육과 다른 '추측' 문법 항목과의 변별적 교육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Ⅱ장 교재 분석에서 확인하였듯 '-겠-'은 현장 지각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만으로 초급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Ⅲ장 말뭉치 분석 결과와 같이 '-겠-'이 지각·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모두 쓰이고 그것에 따라 종결어미들과의 결합적 제약이 달라지며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의 경우 '-겠지(요)'의 형태로 아주 높은 비도(23.73%)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는 언어 경험에 의해 '-겠지(요)'의 형태에 대해 정확한 직관을 형성하였지만 왜 그렇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임을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급의 문법 항목으로서 '-겠지(요)'를 설정하는 것은 학습자가 추측 근거에 따른 '-겠-'의 세부 의미와 이에 따른 통사·화용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겠지(요)'를 명시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그 전에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된 '-겠지(요)'의 문법 지식을 검증하고 정교화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급에서 '-겠지(요)'의 학습을 계기로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한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가 모두 초급에서만 학습되기 때문에 변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적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았/었/였던 것 같다'는 보다 높은 빈도(14.52%)로 쓰이지만 '-(으)ㄴ 것 같다'와 '-았/었/였던'에 대한 선수 학습을 통해 의미의 유추가 용이하고 다른 '추측' 문법 항목이 가지지 않는 형태적 특징이 아니다. 이는 교육과정에 따라 항목의 선정이 유연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변이형을 가지는 문법 형태에 대해서 변이형들을 각각 문법 항목으로 따로 설정하는 교재도 있고 하나로 제시하는 교재도 있다. 강현화(2016: 76)에서는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고 단순히 활용형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에 따른 '-(으)ㄹ/ㄴ/는 것 같다'의 변이형으로서 '-(으)ㄹ 것 같다'와 '-(으)ㄴ/는 것 같다'는 단순히 시제의 차이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분석에서 확인하였듯 추측 근거와 방법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미적 차이로 인해 각 변이형과 유사 관계를 이루는 '추측' 문법 항목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의 각 변이형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으려나/려나 보다'가 문법 항목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형태는 시제의 차이를 제외하여 '-(으)ㄴ가/나 보다'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0.83%)도 낮기 때문에 개별 항목으로 설정하여 학습 부담량을 더해주는 것보다 용례나 과제를 통한 암시적인 교육이 경제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을 위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구성을 아래 <표Ⅴ-5>와 같이 제안한다.

<표Ⅴ-5>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구성

문법 형태	문법 항목
-(으)ㄹ/ㄴ/는 것 같다	① -(으)ㄹ 것 같다; ② -(으)ㄴ/는 것 같다;
	③ -았/었/였던 것 같다(선택 항목)
-겠-	① -겠-; ② -겠지(요)
-(으)ㄹ 것이다	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①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① -(으)ㄹ/ㄴ/는 모양이다

3.1.2. 개별 항목 교수 순서의 위계화

이 절에서는 앞서 선정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교수 순서에 대한 위계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의 위계화 준거는 항목 선정 준거이기도 하는 문법 체계, 빈도, 기능 외에 난이도/복잡도, 일반화 가능성 등이 있다. 문법 항목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항목의 위계화도 교육과정 구성, 특히 단원 상황, 주제,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결국 절대적인 위계화 기준이 없으며 위계화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어떠한 것을 위계화 준거로 삼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준거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도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빈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난이도를 고려하는 데 이의가 없다.

사용 빈도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해당 문법 항목의 실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중요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말뭉치에서 '추측' 문법 항목들이 사용되는 빈도를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Ⅴ-6>과 같다.

<표Ⅴ-6>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말뭉치 사용 빈도

문법 항목	-(으)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겠-	-(으)ㄹ 것 같다	-겠지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빈도	1712	1263	1223	1079	357	213	143	86

'난이도(difficulty)'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의 복잡한 정도"를(장채린·강현화, 2013: 109) 일컫는 '복잡도(complexity)'와 동일한 것으로서 문법 항목이 내적으로 가지는 형태·의미·통사·화용적인 복잡도를 가리킨다.[156] 유사 문법 항목으로 분류된 문법 항목들의 위계화에 있어서는 난이도/복잡도가 작용될 필요가 있다.[157] Ⅲ장 말뭉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문법 항목의 내적 복잡도를 산정해 보도록 한다.[158] 통사·의미·화용적 복잡도는 각각 통사적 제약, 의미, 화용적 기능이 많은가를 기준으로[159] 해당 제약, 의미, 기능이 있으면 숫자 '1'로, 없으면 '0'으로 값을 부여한다. 값을 합산함으로써 항목별 내적 복잡도를 수치로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Ⅴ-7>과 같다.

156) 난이도를 넓게 이해하면 학습자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워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 큰 한계를 가진다.

157) 김제열(2001)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면 학습 부담량이 작은 것이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학습 부담량이 작은 것은 난이도/복잡도가 낮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양명희·석주연(2012)에서는 "난이도는 주로 같은 의미 기능을 하는 유사한 문법 항목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적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158) '-겠지'는 이미 종결어미가 결부된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화용적으로 단순하면서 통사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복잡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므로 산정에서 제외한다.

159) 본 연구에서는 김유정(1998: 30)에 따라 변이형의 교체와 관련된 형태적 복잡도를 제외한다. 또한 복잡도 기준은 장채린·강현화(2013)을 따르지만 이 논의에서 다룬 모든 하위 기준을 다 적용하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산정 대상으로 삼은 문법 항목에 따라 각 기준의 중요도와 적용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표Ⅴ-7>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내적 난이도

문법 항목	-(으)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겠-	-(으)ㄹ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난이도	12	18	15	10	12	18	16

<표Ⅴ-6>과 <표Ⅴ-7>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내적 난이도와 사용 빈도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대체로 '-(으)ㄹ 것 같다', '-(으)ㄴ/는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는 초급 중·후반에서,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중급 초·중반에서, '-(으)ㄹ/ㄴ/는 듯하다'는 중급 후반 또한 고급 초반에서 배정되는데 빈도가 일차적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으)ㄹ 것이다'는 복잡도가 높지만 사용 빈도가 높고 지식 정보로부터의 전형적인 연역적 추측의 의미와 '위로하기'의 화용적 기능이 이 문법 항목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의 해결과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의사소통"[160]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초급에서 교수·학습해야 한다. 이외에 문법 항목의 구어성과 문어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으)ㄹ/ㄴ/는 듯하다'가 '-(으)ㄴ가/나 보다'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고 복잡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뒤에 교수되는 것은 바로 '-(으)ㄴ가/나 보다'가 구어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더 유용한 항목이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으로 "가장 무표적이고 학습의 응용 효과가 큰 것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김유정, 1998: 32)는 일반화 가능성이 또한 문법 항목의 위계화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겠-'은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Ⅲ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른 문법 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화용적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법 항목을 초급에서 배정하는 것은 후속 문법 항목의 생성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학습자의 인지에 있어서 가추적 추론 과정에 비해 전제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론 과정이 더욱 무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으)ㄴ/는 것 같다'를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의 뒤에 배열하는 것이

160) "국체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용 연구"(2017)에서 제시한 등급별 총괄 목표를 참고할 것.

적절하다. 반면 추측 근거에서 무표적인 '-(으)ㄹ 것 같다'는 가장 먼저 제시하면 항목 간 유사성으로 학습자가 '-겠-'과 '-(으)ㄹ 것이다'의 학습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문법 항목의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교수 순서에 대한 위계화를 제안하면 다음 <표Ⅴ-8>과 같다.

<표Ⅴ-8>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교수 순서 위계화

단계	초급	중급	고급
세부 순서	① -(으)ㄹ 것이다 ② -겠- ③ -(으)ㄴ/는 것 같다 ④ -(으)ㄹ 것 같다	⑤ -겠지 ⑥ -(으)ㄴ가/나 보다	⑦ -(으)ㄴ/ㄹ/는 듯하다 ⑧ -(으)ㄹ/ㄴ/는 모양이다

<표Ⅴ-8>에서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고급의 문법 항목으로 배정하는 것은 변별적 교육이 학습의 전 단계에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대부분 교재에서처럼 두 문법 항목을 중급 후반에서 다루는 것도 무방하다. 그리고 중급과 고급으로 위계화한 항목들의 세부 순서는 사용 빈도에 의한 것이다.

3.2.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교육 내용 구성

개별 문법 항목의 교육은 어떤 문법 항목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교수·학습에 중점이 놓인다고 하면 비교 항목 중심의 변별적 교육은 유사 관계를 갖는 문법 항목들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교수·학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학습한 개별 문법 항목들을 서로 연관지어 보다 거시적으로 문법 체계에 대한 지도를 그리도록 할 수 있는 동시 개별 문법 항목에 대한 지식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3.2.1. 비교 항목의 선정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적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구성에 앞서 변별 대상으로 비교 항목이 될 만한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Ⅱ장에서 논의하였듯 문법 항목들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발생적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동시에 기반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선정된 비교 항목은 이미 Ⅱ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Ⅲ장과 Ⅳ장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항목 선정의 적절성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다시 아래와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151) 초급: • ‘-(으)ㄹ 것 같다 : -(으)ㄹ 것이다’(E)
• ‘-(으)ㄴ/는 모양이다 : -(으)ㄴ/는 것 같다’(D)
중급: • ‘-(으)ㄴ가/나 보다 : -(으)ㄴ/는 것 같다’(A, B, D)
• ‘-(으)ㄴ/는 모양이다 :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것 같다’(A)

우선 중급의 목표 항목으로 학습하는 ‘-(으)ㄴ가/나 보다’나 ‘-(으)ㄹ/ㄴ/는 모양이다’와 초급에서 학습한 ‘-(으)ㄴ/는 것 같다’를 비교 항목으로 선정한 교재가 대부분이다. 말뭉치 연구를 통해서 세 문법 항목은 지각·지식 정보로부터의 가추에 쓰일 수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면서 근거 정보의 세부 유형에 따른 분포와 근거 정보의 공유성, 주관성, 화용적 특성 등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는 것임은 밝혀졌다. 학습자들은 ‘-(으)ㄴ/는 것 같다’를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의 의미를 포괄하여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으)ㄹ/ㄴ가/나 보다’나 ‘-(으)ㄴ/는 모양이다’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상황 맥락에서 ‘-(으)ㄴ/는 것 같다’만을 선택하거나 이들 문법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맥락에서 각 문법 항목의 쓰임에 따라 표현되는 의미와 전달되는 발화 의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학습자가 극소수이었다. 한편으로 학습자들은 의미적 유사성에 비해 언어사용역의 유사성을 더 우선적으로 인식하여 ‘-(으)ㄹ/ㄴ/는 모양이다’를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것 같다’와 일차적으로 구분하고 ‘-(으)ㄴ가/나 보다’와 ‘-(으)ㄴ/

는 것 같다'를 더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에 대한 변별 양상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발생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미적 구별이 올바른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으)ㄴ/는 것 같다'와 '-(으)ㄴ가/나 보다'에 대한 변별이 필수적이며,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한 '-(으)ㄹ/ㄴ/는 것 같다'와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에 대해서는 언어사용역에 따른 변별을 한 후 각 문법 항목의 특성을 부각하도록 세밀한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비해 초급에서 집중적으로 학습되는 문법 항목인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에 대한 변별을 다루는 교재가 E밖에 없다. 이는 한국어를 메타언어로 하는 교재와 교실의 경우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대한 고려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 숙달도 자체가 초급 단계에서 변별적 교육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변별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선정이 아닌 제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측' 문법 항목과 관련되는 '근거', '주관성', '확실성', '완곡' 등 개념들이 인간의 삶에서 편재하는 것인데 사례연구에서 관찰하였듯 학습자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연구자가 놀라운 정도로 상당히 발달된다.

'-겠-',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는 모두 연역적 추측에 쓰이는 것으로 추측 방법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추측 시작 근거가 되는 정보의 유형, 통사적 제약, 화용적 기능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으)ㄹ 것이다'의 경우 통사·의미·화용적으로 모두 심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겠-'과 '-(으)ㄹ 것 같다'와 차별된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세 문법 항목이 화자의 '경험'이나 '느낌'에 기반한 추측에 쓰이거나 근거가 없는 추측에 쓰일 수 있는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확실성 정도를 가장 핵심적 변별점을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고급 학습자인데도 '-겠-'이나 '-(으)ㄹ 것이다'의 용법을 확대하여 '-(으)ㄹ 것 같다'만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오용하거나 '-(으)ㄹ 것이다'가 받는 통사적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혼동이 초급에서 중·급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문법 항목의 교육과 비교 항목의 변별적 교육의 병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서 '-겠-'과 '-(으)ㄴ가/나 보다'를 비교 항목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문법 항목은 각각 연역적 추측과 가추적 추측에 쓰이는 것으로서 추측 방법에서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사례연구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추측 방법에 비해 추측 근거가 학습자들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변별하여 선택하는 데 더욱 강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 현장의 직·간접적 지각 정보를 시작 근거로 삼는 추측 근거의 공통점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겠-'과 '-(으)ㄴ가/나 보다'를 같은 용법을 갖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추측 방법에 대한 인식 부재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학습의 결여에서 기인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별 '추측' 문법 항목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혼란이 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급에서 두 문법 항목의 변별적 교육은 '-겠-'에 대한 나선형 학습과 '추측'이라는 의미 범주의 체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을 위해 변별 대상이 될 만한 비교 항목의 선정을 다음 <표Ⅴ-9>와 같이 제안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구성 방식을 따라 목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이와 비교될 만한 선수 학습된 문법 항목을 비교 항목으로 한데 묶어 제시한다.

<표Ⅴ-9> 개별 항목의 위계화에 따른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

단계	개별 항목	비교 항목
초급	① -(으)ㄹ 것이다	
	② -겠-	
	③ -(으)ㄴ/는 것 같다	
	④ -(으)ㄹ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 -(으)ㄹ 것이다 : -겠-
중급	⑤ -겠지	-겠지 : -(으)ㄹ 것이다 : -(으)ㄹ 것 같다
	⑥ -(으)ㄴ가/나 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겠-
고급	⑦ -(으)ㄴ/ㄹ/는 듯하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⑧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표Ⅴ-9>에서 보이듯이 비교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변별적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비교 항목의 수는 2~3개로 제한한다. 또한 한국어 문법에 대해 아직 감이 잡히지 않은 매우 초기에서는 학습자들이 개별 항목을 배우

는데도 공들여야 하는데 변별적 교육까지 더하면 심리적 부담이 생겨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하여 '-겠-'과 '-(으)ㄹ 것이다'를 비교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3.2.2. 비교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비교 '추측' 문법 항목이 선정되면 이를 중심으로 한 변별적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 항목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를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한다.[161]

(152) 첫째, 비교 항목 간의 공통점과 변별점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비교 항목 간의 다차원적인 공통점과 변별점을 보여 주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비교 항목을 발화 상황에 맞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문법 교육 내용은 이론적 영역에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명제적(혹은 명시적) 정보와, 실천적 영역에서 그러한 지식의 실행을 보여 주는 절차적(혹은 암시적) 정보와, 그 지식을 사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과제(task)를 포함한다(김호정, 2010; 박민신, 2019). 변별적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도 역시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의 세 가지 원리는 바로 각 구성 요소와 대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내포한다. 우선 변별적 교육이라고 해서 비교 항목 간의 변별점만 제시한다고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통점의 존재를 전제해야 변별이라는 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비교 항목 간의 공통점도 문법 정보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명희(2016)에서는 "유사점을 먼저 기술한 후,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을 유사 문법 항목의 첫 번째 기술 원칙으로 설정한 바가 있다. 교육용 자료를 보면 비교 항

161)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는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 즉 '무엇'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의 문제는 맥락화와 개인화를 포함한 교육 내용의 제시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2.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목이 무엇 때문에 유사한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학습자가 변별적 교육을 받기 전에 해당 문법 항목들을 서로 유사하다고 이미 인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항목들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공통점을 먼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측하거나 짐작할 때 쓴다.”(교재 A)와 같이 문법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휘 차원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떠한 사태로부터 그 사태의 발생 원인을 추측하는 데 쓴다.’와 같이 세부 의미 또는 맥락 차원의 의미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이 문법 항목 간의 정확한 변별에 더욱 유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미적 공통점과 변별점은 모두 세부 의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통사·의미·화용 등 다차원에서 비교 항목의 공통점과 변별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문법의 기본적인 구성 틀(Larsen-Freeman, 2003)에 부합하는 동시 Ⅱ장, Ⅲ장, Ⅳ장의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한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이 의미적 차원을 위주로 교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항목이 통사적인 제약과 화용적 기능 면에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말뭉치 분석에서 확인되었으며 학습자들이 항목 간의 의미적 공통점을 통사·화용적 측면까지 확대하여 잘못 사용하는 모습도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비교 항목에 대한 온전한 변별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별 특성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원리는 비교 항목 간의 공통점과 변별점이 사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표상하는 방법으로 ‘용례’[162]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 정보를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맥락화와 연관되기도 한다.

> ㉯: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니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음 이거 객관 사실을 말할 때 쓴다고 설명해요. 뭐 하늘의 태양 이런 거 말할 때 ‘-니까’를 쓴다고 하늘에 해가 있으니까 뭐뭐 어떻다 이런 거예요. (중략) 그 다음에 ‘-아/어/여서’도 설명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아/어/여서’를 쓴다고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거라고 대체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제가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잖아요. (㉯-1-A)

162) 박민신(2017ㄴ: 57)에 따라 용례란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맥락화된 문장 혹은 담화를 말한다.

위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제적인 변별 정보만으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비교 항목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그러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어떤 문법 정보가 명시적으로 학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망각되었는데 특정한 용례는 학습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그러한 용례나 연구자가 제시한 맥락으로부터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점을 스스로가 귀납적으로 유추하고 언어로 명시화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암시적 정보는 명시적 정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교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학습자가 명제적 정보와 절차적 정보를 결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유의미한 과제나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수학적 변환에서의 개인화 과정과 직결되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교재에서는 비교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은 명제적 정보와 용례의 제시에 그치고 연습이나 활동은 개별 문법 항목만을 대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직접 실행하는 과정이 결여되는 경우 비교 항목의 변별점과 맥락에 따라 비교 항목이 어떻게 다르게 선택되는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설사 이해했을지라도 학습자가 정말 해당 맥락에서 적절한 문법 항목을 사용할 것인지가 보장되지 않는다.[163] 다른 한편에서는 과제나 활동의 실행 결과로서 문법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출력은 다시 새로운 입력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과제를 통해서 자신이 해당 맥락에서 어떤 '추측' 문법 항목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였는지 왜 그렇게 선택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법 지식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모습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비교 항목의 사용을 위한 활동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163) 김호정(2007: 324-325)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명제적 지식(즉, 문법 규칙을 아는 지식)과 절차적 지식(즉, 문법 규칙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아는 지식)을 연계하는 과정이 부재한 경우 그러한 지식이 자동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4. 교육 내용의 맥락화 및 개인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적 교육을 위한 비교 항목 교육 내용이 구성되면 그러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교육 내용의 제시는 교육 내용의 지위를 부여받은 학문적 지식을 학습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는 맥락화와 개인화 과정을 거친다. 이에 이 절에서는 맥락화와 개인화로 나누어 각 과정과 관련되는 내용 구성 요소로서 명시적인 변별 정보와 용례의 제시 방향과 활동의 설계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4.1. 맥락화를 위한 명시적 변별 정보와 용례 제시

명시적인 문법 정보와 목표 문법 항목이 쓰이는 용례는 각각 학습해야 할 문법 지식이 무엇인가와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과 간접적인 표상으로서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진정한 의미화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맥락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말뭉치 연구와 집합적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을 명제적 변별 정보와 용례로 변환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53) 첫째, 기술의 단순성에 비해 정보 전달의 명확성과 이해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비교 항목의 변별점을 설명한다.

(ㄱ) 중의성을 지녀 다양한 의미적 해석이 가능한 메타 용어 대신 교사는 물론 학습자도 인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서 기술한다.

(ㄴ)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는 경우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도식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비교 항목의 변별점을 암기가 아닌 이해 가능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다차원적 변별점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설명한다.

셋째,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변별점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용례를 제시한다.

(ㄱ) 비교 항목의 교체 가능성만 보여 주는 문장 용례 대신 되도록 온

전한 상황 맥락이 담겨지는 여러 유형의 용례를 제시한다.
(ㄴ) 고정된 형식이나 특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용례 대신 비교 항목이 실제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한다.

위와 같이 첫째와 둘째는 명시적 변별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셋째는 용례와 관련된 것이다. 다음으로 각 제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한다.

4.1.1. 비교 항목에 대한 명시적 변별 정보

그동안 한국어 교육문법의 기술은 기술 내용의 단순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니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습자의 제한적인 한국어 구사력과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능력을 잘못 대등시킴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진단한다.

연: '추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 보통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추측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1-A)
㉯: 그냥 어떤 단서를? 일단 발견해야 되고 그거를 따라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추측하는 것 같아.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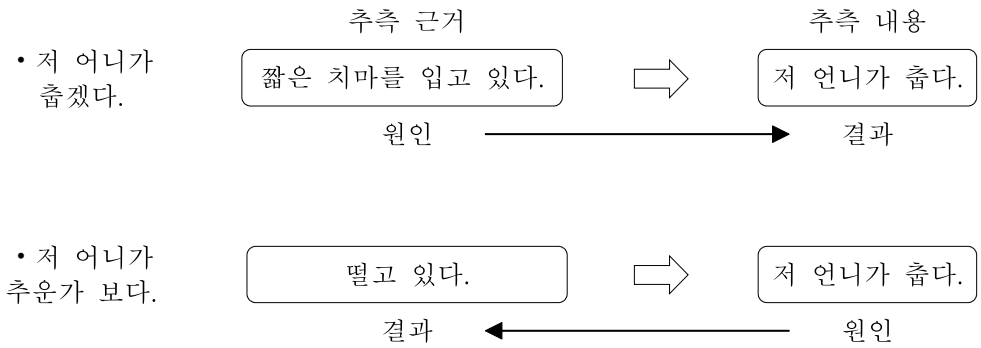
연: 그러면 어떤 걸 자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 그 뭐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거,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면 보는 거. (㉰-3-MC)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만큼 한국어를 능숙히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위와 같은 면담 내용에서 뚜렷이 보이는 바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매우 논리적으로도 디테일하게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등과 같이 개념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기보다는 성인 학습자의 인지능력을 충분히 살려서 문법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개념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개개인마다 하나의 인식주체로서 개인적 경험이나 사고방식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다. 앞서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근거', '경험', '간

접적' 등과 같이 의미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개념들이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명제적 변별 정보를 기술할 때 이러한 메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전제', '정보' 등과 같이 학습자의 인식상 중의성을 덜 지니는 용어를 채택하거나 '과거의 여러 번 경험을 통해 얻은 일반적인 인식 또는 규칙'과 같이 그 개념적 의미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언어로의 기술에 의한 정보 전달이 한계를 가질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마지막 면담이 끝난 직후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변별점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는 단계를 밟았다. 그런데 처음에 추측 방법에 대해서 연구자가 말로 설명하고 나서 연구 참여자들이 그러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이는 Ⅳ장에서 분석하였듯 '근거-추측 행위' 간의 인과관계와 '근거-추측 내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적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즉각 지각하여 아래 <그림Ⅴ-1>과 같이 도식으로 설명 방식을 바꾸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도식을 보자마자 바로 의혹이 풀리게 되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림Ⅴ-1> 추측 방법에 대한 도식화

이처럼 순전히 글로 표현될 때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적인 도식을 활용하여 해당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효율적인 제시 방식이 될 수 있다.

비교 항목에 대한 변별 정보는 통사·의미·화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차원적인 변별점을 서로 분리된 명제 형태가 아

닌 연관성을 가져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슨-프리먼(Larsen-Freeman, 2003)이 제안한 언어 형식의 세 영역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층위에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간의 의미적 차이가 통사적 차이와 화용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역으로는 그러한 의미적 변별점이 통사·화용적 변별점이 존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말뭉치 분석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를 보면 특히 문법 항목이 가지는 통사적인 특성에 대한 문법 정보가 마치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존재하는 공식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손다정(2018: 40)에서 지적한 바로 공식화한 것을 위주로 제시하는 바람에 학습자들이 그러한 공식이 도출된 논리적 유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해당 공식을 여타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실패한 교수학적 변환 유형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서 집합적 사례연구 참여자들이 '-겠-'과 일련의 종결어미가 결합되는 형태에 대해 강한 직관을 가지기는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바람에 다른 '추측' 문법 항목과 해당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양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 연구 참여자들이 언어 현상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왜 '-(으)ㄴ가/나 보다'가 화자 자신에 대한 추측에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 발견, 높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가 왜 양태부사 '아마'와 자주 함께 쓰이는지에 대한 ㉯의 탐구, 그리고 자기가 왜 '-겠-'과 '-(으)ㄴ가/나 보다'가 종결어미 '-네', '-구나'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의 의문 등과 같이 학습자들은 언어 현상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 항목의 다차원적 변별점을 서로 연관시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 이상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가'까지 그 이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법 항목 자체의 내적 속성과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문법 정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미화와 구조화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

4.1.2. 맥락 속에서의 변별점 이해를 위한 용례

한국어 교재를 보면 중·고급 단계에서 문법 항목에 대한 명시적 기술 정보가 없이 용례만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될 수 있다. 그만큼 문법 교육에서 용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례는 비교 항목의 변별 정보를 기술하는 설명 부분에서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예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교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변별을 위해 구성된 모든 텍스트를 포함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서 흔히 하는 질문의 하나는 '그러면 저 문법 항목은 이 문장에서도 쓸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문법 항목의 사용은 단지 문장 안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관여한다.

(154) 가. (걸으면서 기운을 느끼고)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
나. (저기 꽃이 다 피어 있는 걸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나 봐.
다. (내일 곧 입춘이네.) 날씨가 따뜻해지겠다.
라. ㄱ: 주말에 원피스를 입고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날씨면 어떻게...
ㄴ: (내일 곧 입춘이니까) 날씨가 따뜻해질 거야. 입어도 돼.
ㄴ': (주말이면은 왠지)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아. 입어도 되지 않을까?

위의 (154)와 같이 '날씨 많이 따뜻해지다'라는 명제 내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만을 보면 '추측' 문법 항목들이 모두 교체가 가능하지만 각 문법 항목의 사용에 따라 화자의 추측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달라진다. (154가)에서는 화자가 기운을 느끼면서 하는 추측, (154나)에서는 화자가 꽃이 피어 있는 상황을 보고 가추에 따라 하는 추측, (154다)에서는 화자가 달력을 보고 내일이 입춘이 되는 것을 지각하여 연역적 방법으로 하는 추측을 나타낸다. 그리고 (154라)에서는 화자 (ㄴ)은 '입춘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지식 정보를 아는 사실에 적용하여 연역적 방법으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동시 상대방의 걱정을 덜해 주는 반면 화자 (ㄴ')는 온전히 직감으로 추측하여 강한 확실성을 나타내지 않아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효과

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문체가 바뀌면 '-(으)ㄹ/ㄴ/는 듯하다'나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의 문장에서 유사 문법 항목이 대치될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나 발화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교 항목의 변별점에 대한 학습자의 의미화를 돕기 위해 맥락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용례가 반드시 대화 형식을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박민신, 2017ㄴ: 262). (154나)와 같이 사용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충분하며 (154가)나 (154나)와 같이 괄호를 통해서 맥락 이해에 꼭 필요한 정보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장 용례는 목표 문법 항목이 초점화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간결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154라)와 같이 담화 상황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놓여야 문법 항목의 의미·기능적 특성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경우 문장 용례의 제시가 유용하지 않다. 요컨대 비교되는 문법 항목이 쓰이는 맥락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용례의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앞서 명제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용례는 학습자들이 명제적 정보에 기술되는 특정한 변별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교 항목이 서로 분리된 문맥에서 쓰이기 때문에 응집된 하나의 문맥에서 화자의 그때그때의 발화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실제 의사소통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을 비교 항목이 같이 쓰이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 위해 한 문맥에서 비교 항목의 변별점을 보여주는 텍스트 용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재에서 각 단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범 대화와 같은 교육용 용례도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맥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유사 문법 항목이 함께 드러나는 용례는 찾아지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선수 학습한 유사 문법 항목인 '-(으)ㄹ 것 같다', '-겠-', '-(으)ㄹ 것이다'가 동일한 문맥에 나타나는 용례가 발견되었다.

(155) 유키: 친구가 옷을 사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윤아: 동대문 시장이 어때요? 거기에 물건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아요.
유키: 시장은 너무 복잡해서 친구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윤아: 동대문 시장 근처에는 큰 할인 매장도 있어요.
유키: 그래요? 할인 매장이 쇼핑하기가 더 편하겠어요.
윤아: 거기는 항상 세일하는 곳이니까 싸고 좋은 상품이 많을 거예요.
(교재B, 2-1-18)

(155)에서 보이듯이 세 문법 항목이 공통적으로 전제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측에 쓰이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기능을 가진다. '-(으)ㄹ 것 같다'는 친구인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겠-'은 상대방의 선행발화에서 출발하는 즉각적인 추측을 표현하며, '-(으)ㄹ 것이다'는 화자의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확실성이 높은 추측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담화에서 유사 문법 항목이 어떻게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지를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용례는 후속 단원에서 암시적인 입력 정보로서 제시되는데 오히려 학습자들이 선수 배웠던 개별 문법 항목의 지식을 다시 상기하면서 세 문법 항목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변별 정보를 명시하는 문법 설명 부분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 집합적 사례연구 참여자들이 '-(으)ㄴ/는 걸 보니(까) ... -(으)ㄴ가/나 보다.'와 같은 고정적인 표현 패턴 또는 추측 근거를 나타내는 내용과 추측을 나타내는 내용이 화자에게 한꺼번에 발화되는 특정 패턴에 대해서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재에서나 교사가 '-(으)ㄴ가/나 보다'가 가지는 추측 근거의 특성을 전형적이며 제한적인 용례에 의해서만 맥락화해 주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로 보면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근거 정보가 화맥에서 명시되는 특성을 지니는 '-(으)ㄴ가/나 보다'는 앞서 (154나)를 제외하면 아래 (156)과 같이 사용 맥락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156) 가. 이 집 진짜 유명한가 봐.
나. ㄱ: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ㄴ: 그러게. 이 집 진짜 유명한가 봐.
다. ㄱ: 이 집 진짜 유명한가 봐.

ㄴ: 뭐가?
ㄱ: 봐봐. 인터넷 평점이 높은데다가 리뷰가 5000이야.
라. 근데 이 집 진짜 유명한가 봐. 그래서 유진이가 그때 나한테 여기 꼭 한 번 오라고 했어.

'-(으)ㄴ가/나 보다'와 마찬가지 '-겠-'도 실제 사용 양상이 다양하며, 추측 근거와 추측 방법에 크게 제약받는 '-(으)ㄹ 것이다'도 '-(으)니까', '-(으)면', '-아/어도' 등 연결어미로 이끄는 선행절을 통해 근거 정보를 명시하는 맥락뿐만 아니라 화자의 인식체계에만 있는 지식 정보를 숨겨서 추측 내용만 발화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이처럼 비교 항목이 가지는 변별점, 특히 미묘한 의미적 변별점을 학습자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전이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제 사용 양상을 보여 주는 용례를 통해 그 변별점을 충분히 맥락화해야 할 것이다.

4.2. 개인화를 위한 유의미한 활동 설계

히버트(Hiebert, 1990)는 개인화 과정을 위한 활동을 기계적 활동과 비기계적 활동으로 나누어 인식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깊은 생각 없이 공식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자동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실행 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숙고(reflection)'를 위한 것이다(손다정, 2018: 28 재인용).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변별적 교육에서는 기계적 활동에 비해 비기계적 활동은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비교 항목을 잘 변별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활동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57) 첫째, 학습자들이 비교 항목의 변별점을 직접 발견하고 그것을 개인의 방식에 따라 지식의 형태로 수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활동을 설계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산출을 통해 비교 항목에 관한 자신의 중간언어 체계를 확인하고 모국어 화자나 다른 학습자의 그것과의 차이를 알아차려서 자신의 문법 지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설계한다.

앞서 변별점에 대한 명제적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례를 통해 변별점을 맥락화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연역적 제시라고 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용례로부터 비교 항목의 변별점을 직접 도출하도록 한 후 명제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귀납적 제시라고 하겠다. 앞서 교육의 목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신이 노출된 언어 입력에서 특정 문법 항목의 사용을 주목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는 문법 탐구 능력도 학습자들에게 길러 주어야 하는 문법 능력이다. 이러한 탐구 능력은 고급 학습자에게 유난히 필요한 것이지만(방성원, 2003: 147) 이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은 고급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선수 학습한 문법 항목과 유사한 문법 항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중급 단계에서 비교 항목 간의 변별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학습자들의 문법 탐구 능력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별점에 대한 맥락화 과정과 정반대로서 발견 활동은 탈맥락화 과정을 통해 변별점을 다른 상황에 전이될 수 있는 형태로 수렴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비교 항목의 변별을 위한 발견 활동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다. 우선 비교 항목 간의 변별점을 발견할 만한 용례들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별점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유도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활성화시켜 변별점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변별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전자는 학습자 개인의 내적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변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학습자 간의 비계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164] 소그룹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 활동만 있으면 학습 능력이 보다 뛰어난 학습자가 주도가 되는 바람에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습자는 변별점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듯 학습자

164) 이는 비고츠키가 주장한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근접발달영역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과 성인의 도움이나 능력 있는 동료의 협동 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를 가리키며(Marysia, 2004) 개인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내적 발달이 일어난다. 하지만 교사나 모국어 화자와 같이 학습자보다 능력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의 목표어 능력을 가지는 학습자도 서로에게 비계 도움을 줄 수 있다(Donato, 1994).

들은 개인마다 사고방식이나 한국어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용 맥락에 대한 해석이나 동일한 변별점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개인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발견이 완료된 후 학습자들이 서로의 발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 개인이나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식이 역시 정확성의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이 끝난 후에 발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변별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적 차원의 발견 활동 이외에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비교 항목을 직접 선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 차원의 산출 활동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출 활동은 산출 행위의 발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지식의 재구조화를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명시적인 교육이나 자신의 한국어 경험 등을 통해 이미 비교 항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지식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출력에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과제 수행은 학습자들이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가운데 해당 맥락에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왜 그 맥락에서 자기가 해당 문법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숙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바로 학습자들에게 이들 문법 항목의 변별점에 대한 자신의 문법 지식에 대한 확인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로는 자신의 지식과 모국어 화자나 다른 학습자의 지식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계 활동의 형식이 필요하다. 개인이 산출한 내용을 다른 학습자의 그것, 또는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언어 입력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법 지식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지식 체계의 재구조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정확한 변별과 적절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추측은 인간의 인식 과정에 편재하는 것으로서 범언어적으로 표상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은 그 수효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의미 구분이 어려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 그런데 변별 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른 판단이 주관적 분석 방법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마다 종종 상이한 부분이 보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외부자적 관점으로만 학습자의 문법 지식 양상을 파악하는 바람에 이론적 연구 성과를 교육의 장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학습자가 인식주체로서 가지는 능동적인 작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 항목으로서의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적 가치가 높은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과 선정된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 판정 과정을 거쳤다. ‘추측’ 문법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반영한 교육용 자료의 중복도와 실용성을 반영한 말뭉치 사용 빈도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유사성을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의미적 유사성의 판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선어말어미의 위치에서 나타나 주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종결표현으로 쓰이는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총 여섯 개의 문법 항목을 ‘추측’ 유사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Ⅱ장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어 양태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하위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인식양태와 증거성, 의외성의 범주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을 ‘확실성 정도’, ‘정보의 출처’, ‘정보의 내면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립하였다. 이어서 인식양태의 의미영역에 해당되는 ‘추측’의 개념적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추측’이 ‘확실성 정도’에서 할당하는 의미적 영역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점차 학술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유사 문법 항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성에 의한 유사 문법 항목의 유형 분류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사 문법 항목의 교육에 대해서 언어 사용의 정확성 향상, 표현력의 신장, 파편적인 문법 지식의 정교화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밝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문법 항목 간의 변별을 위한 다차원적인 변별 정보 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지식으로서 그동안 ‘추측’ 문법 항목의 변별을 위해 이론적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변별 기준과 그에 따른 변별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 교육용 자료에 제시된 문법 정보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론적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타당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한 지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변별 기준의 타당성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판단 결과의 불일치 등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용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문법 정보가 개별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있어 비교 항목 중심의 변별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교 항목은 물론이고 개별 항목의 교육 내용도 의미 정보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통사·화용 정보가 주목받지 못하며, 의미 정보는 추측 근거의 특성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이론적 연구 성과가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과 비교 항목의 문법 정보는 특정적이고 전형적인 예문만으로 맥락화되며 연습이나 과제는 개별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학습자의 온전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내용의 맥락화와 개인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Ⅲ장에서는 교육 내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다차원적인 변별점에 대해 한국어 말뭉치에 기반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Ⅱ장에서 이론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

로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통사적으로는 상위 주어와 명제 주어를 포함한 주어 인칭 제약,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포함한 어미 후행 제약, 문장 유형 제약, '-(으)면' 선행절 제약 그리고 어휘·표현과의 공기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변별되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의미적으로는 추측 행위의 구성소로서 '추측 근거', '추측 방법' 그리고 확실성 정도와 주관성을 포함한 '추측 결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들 문법 항목 간의 변별점을 포착하였다. 화용적으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이 실제 담화에서 공손·불손 전략으로 사용되는 양상과 언어사용역에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자세히 확인하였다. 이처럼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은 서로 통사·의미·화용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차원에서의 여러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변별 양상을 내부자적 관점으로 고찰하기 위해, Ⅲ장에서 체계화된 다차원적인 변별점을 토대로 개발한 문항에 대한 과제 수행, 구두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포함한 면담을 중심으로 12명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합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에 의해 도출된 문법 지식과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 문법 지식의 접면과 상이함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추측'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며 문법 항목들을 변별하고 선택하는 데 개인적인 한국어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지식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과 지식 구성의 주체로서 가지는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한국어 경험만으로 형성된 지식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전이되지 않아 특정 문법 항목과 특정 사용 맥락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큰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과정에서 과제 수행과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검증하고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능동적인 변화 양상이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또한 통사적인 변별점에 대해 의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탐구하거나 특정 문법 항목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그 문법 항목이 가지는 의미에서 화용적 기능으로 용법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가는 모습도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작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눈

에 띄었다. 이외에 그들이 ‘추측’, ‘주관성’, ‘확실성’ 등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인지하는 양상과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동일한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양상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었다. 이러한 인식 양상은 문법 지식의 내면화에 지향하는 교육 내용의 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와 학습자의 변별 양상에 기반하여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법 지식의 활용 능력’과 ‘문법 탐구 능력’을 포함한 문법 능력의 향상과 문법 태도의 함양 두 가지 방면에서 교육의 목표를 확립하였다. 이어서 학문적 지식에서 교육 내용으로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과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과, 교육 내용의 맥락화 및 개인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은 개별 ‘추측’ 문법 항목과 비교 ‘추측’ 문법 항목으로 나누며 전자에 대해서 문법 항목의 선정·구성과 교수 순서의 위계화에, 후자에 대해서 비교 항목의 선정과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교육 내용의 맥락화 및 개인화는 다시 명시적 변별 정보와 용례의 제시와, 유의미한 활동 설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을 조명해 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의 명확성과 이해의 용이성, 다차원적 변별점 간의 논리적 연계성, 그리고 맥락 속에서의 변별점 이해와 같이 세 가지 구안 방향을 제안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비교 항목의 변별을 위한 발견 활동과 지식의 재구조화를 일으키는 산출 활동과 같이 두 가지 활동 설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의 의미·통사·화용적 변별점을 체계화하고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학습자들의 변별 양상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학문적 문법 지식과 학습자의 문법 지식 사이의 접면과 상이함을 찾아냄으로써 교육 내용의 구안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교육 내용의 구안 방향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측’ 유사 문법 항목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강길호(1994),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공손전략, 한국언론학보 32, 한국언론학회, 9-35쪽.

강민경(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겠-', '-ㄹ 것이-', '-ㄹ 것 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비(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소영(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표지 연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217-236쪽.

강현주(2010), 추측과 의지의 양태 표현 '-겠-'과 '-(으)ㄹ 것이다'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29-53쪽.

강현화(2016), 의존(성) 명사를 포함하는 한국어교육 문법항목 연구-교육용 문법항목 선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63-86쪽.

강현화・이현정・남신혜・장채린・홍연정・김강희(2017), (담화 기능에 따른)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서울: 한글파크.

고광모(2002), '-겠-'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의 발달, 국어학 39, 국어학회, 27-47쪽.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체계에 대한 연구: 선어말어미의 것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5, 국어연구회. [고영근(1989), 先語末語尾에 기댄 叙法範疇,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43-224쪽.]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서울: 탑출판사.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서울: 한국문화사, 247-263쪽.]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고창운(1991), '-겠-'과 '-ㄹ 것이-'의 용법, 겨레어문학,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595-614쪽.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85-218쪽.

구본관(2017),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한국어 문법 교육은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75쪽.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쪽.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영은(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후회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철(1988), 모습의 '겠'과 바탕의 '-을 것', 관악어문연구 1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3쪽.

김동욱(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ㄴ 것 같다', 'ㄴ 듯하다'와 'ㄴ가 보다', 'ㄴ 모양이다'의 의미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35, 국어학회, 171-197쪽.

김미선(1990), 형태소 '-겠-'의 의미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경・장은경(2015), '-겠-'과 '-(으)ㄹ 것이다'의 용법 비교 연구, 시학과언어학 29, 시학과언어학회, 7-30쪽.

김서형(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48쪽.

김성훈(2001), 사례연구방법론을 통한 과학적 추론, 정부학연구 7-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9-239쪽.

김세령(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7, 국어교과교육학회, 93-118쪽.

김신혜(2020), 응용언어학 질적 연구 방법론-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6쪽.

김윤정・변경가(2018), 고등학생 대상 소논문 쓰기 수업 사례 연구-다중사례 연구방법 활용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6, 한국국어교육학회, 85-112쪽.

김은경(2015), 한국어 교육에서 '-겠-'과 '-(으)ㄹ 것이다의 의미와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3, 한국어교육연구학회, 33-52쪽.

김은정・남가영・김호정・박재현(2007), 국어 문법 학습자의 음운에 대한 앎의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42, 언어과학회, 1-25쪽.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 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63-179쪽.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65-91쪽.
김정혜(1997), 양태표현의 '모양이다' 구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제열(2001),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3-229쪽.
김종예(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섭 외(201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김중수(2010), 교수학적 변환 양상 분석을 통해 본 교육 문법의 한 문제, 문법 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157-198쪽.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김진웅(2012), 한국어 증거성의 체계,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01-124쪽.
김진해(2006),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75-104쪽.
김차균(1981), {을}과 {겠}의 의미, 한글 173・174, 한글학회, 65-114쪽.
김춘애(2010), 추측 표현 "-는 것 같다", "-나 보다"의 의미와 기능 및 비교, 중국조선어문, 2010-1, 중국조선어학회, 18-22쪽.
김해연(2011),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5-51쪽.
김형복・김문기(2011), 한국어 문법 '-게 하다'와 '-도록 하다'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345-366쪽.
김형복・김문기(2021), 한국어 유사 문법의 실현과 교체 양상 연구: '-는 법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일쑤이다, -기 쉽다'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42-1, 명지대학교 인문학과연구소, 39-67쪽.

김혜련・전은주(2013), 한국어 요청 화행 교수-학습에 관한 비판적 분석-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학회, 233-259쪽.
김호정(2007), 언어 인식 고양을 위한 문법 교육 요소 및 내용에 관한 고찰-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관점에서-,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317-352쪽.
김호정(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의미 재고,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1-28쪽.
김호정 외(201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국립국어원.
김효신(2007), 완료표현 '-고 말다'와 '-어 버리다'의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신・노지현(2019), 상 보조용언 '-고 있-'과 '-어 있-'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 도입, 제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75-106쪽.
김홍수(1993),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서울: 탑출판사.
남기심(1972), 현대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55~57 合, 국어국문학회, 213-238쪽.
남길임(2011),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국어의 기술,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73-98쪽.
남신혜(2016), 한국어의 가능성 표현에 대한 연구-한국어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새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학회, 399-432쪽.
노미연(2010), 중급학습자를 위한 이유 표현 교수 방안 연구-'-느라고, -길래, -는 바람에'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12, 한국문법교육학회, 203-227쪽.
노지니(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의 통어적 문법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카치 토모나리(2011), 다의성 분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겠-'의 의미구조,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93-1116쪽.
다카치 토모나리(2014), 현대 한국어 문법적 연어의 양태체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혜진(2013), 한국어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 교수 방안 연구-'-겠-'과 '-(으)ㄹ 것-'의 담화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

창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리옌(2017),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표현 비교 연구-의도·희망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29, 국어교과교육학회, 33-56쪽.
명정희(2018), 인식양태 구성들의 비교 연구-판단자와 판단증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99-112쪽.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현식(2009), 한국어교육용 문법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1-130쪽.
박나리(2009), 학술논문의 텍스트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민신(2017ㄱ), 의미 범주 기반 한국어 이유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민신(2017ㄴ),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용례 작성의 원리 연구, 언어와 문화 13-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3-77쪽.
박민신(2018),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지식 체계화 양상 연구, 언어학 연구 49, 한국중원언어학회, 413-435쪽.
박민신(2019),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수학적 변환 양상 연구, 언어와 문화 1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9-143쪽.
박병선(2000), 현대 국어 양태 표현의 변천-서법 내용을 중심으로-, 홍종선 외(2000),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2, 서울: 박이정, 103-130쪽.
박선영(2020), 한국어 의지 표현 교육 내용 연구-문법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현(2009), 추측 표현 '것 같다'의 완곡 기능 연구-구어 전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2018), 한국어 공손성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숙영(2006), 의지 표현들의 의지 정도성 비교-'-겠어요', '-(으)르거예요', '-(으)르개요', '-(으)르게요'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40쪽.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옥숙(1987), 임의적 불확실성과 화자의 주관적 선택- '-겠-'의 화용론-, 한글 198, 한글학회, 105-130쪽.

박은정(2015), 현대 국어 인식 양태 부사의 유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희(2019), 한국어 유사 문법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65-493쪽.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쪽.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語學硏究 4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01-118쪽.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파주: 태학사.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66, 국어학회, 79-107쪽.
박재연(2018), '-겠-'과 '-ㄹ 것이-'의 비대립 환경과 대립 환경, 국어학 85, 국어학회, 113-149쪽.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쪽.
박진호(2011ㄴ), 韓國語에서 証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언어정보연구소, 1-25쪽.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교육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68쪽.
방성원(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 방안-'-다고' 관련 형태의 문법 항목 선정과 배열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10쪽.
배주채(2020), 한국어 문법, 성남: 신구문화사.
배진영・손혜옥・김민국(2013), (말뭉치 기반)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탐색, 서울: 박이정.
배진영・최정도・손혜옥・김민국(2013), (말뭉치 기반)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 2: 명사와 명사구 Ⅰ, 어휘 부류, 서울: 박이정.
서상규・김현정(2005), 구어 말뭉치 설계의 몇 가지 조건, 언어사실과 관점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29쪽.
서정수(1977), '겠'에 관하여, 말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63-87쪽. [서

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85-205쪽.]
서정수(1978), ‘ㄹ 것’에 대하여-‘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어학 6, 국어학회, 83-110쪽.
서정수(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선은희(2003),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추측 범주 ‘-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광수(1984), 국어의 추정적 표현, 한글 184, 한글학회, 53-80쪽.
성기철(1976), 김형규교수 정년퇴임 기년 특집: ‘-겠-’과 ‘-ㄹ 것이-’의 의미 비교, 선청어문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화, 201-210쪽.
성기철(1979), 경험과 추정: ‘-겠-’과 ‘-을 것이-’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4, 문법연구학회, 109-129쪽.
성미선(2009), 한국어 추측표현의 완곡어법 양상과 교육방안, 한양대학교 삭사학위논문.
성채민(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지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호현(2018), ‘-겠-’과 ‘(-을)것이다’의 추정 용법과 주관성에 대하여, 한글 79-3, 661-692쪽.
손남익(2014), 부사 사전, 서울: 역락.
손다정(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세모돌(1989), 행동 부과의 간접 표현, 한국언어문화 7, 한국언어문화학회, 181-206쪽.
손혜옥(2016ㄱ), 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혜옥(2016ㄴ), 한국어 인식양태 표지의 사용 양상, 언어사실과 관점 3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49-285쪽.
송경안(2009), Evidentials in Korean, 언어학 17-2, 대한언어학회, 1-20쪽.
송재목(2007),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9-1, 형태론, 1-23쪽.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27-53쪽.
신상근(2014), 외국어 교육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신영주(2011),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중국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창순(1975), 現代韓國語의 用言補助語幹 ‘겠’의 意義와 用法, 남기심・고영근・이익섭 편(1975), 現代 國語文法, 서울: 계명대학교 출판부, 145-163쪽.
심재기(1981),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안명철(1983), 현대국어의 양상 연구-인식양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윤미(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정의문문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정아(2003), “것”, “터”, “모양”의 양태 의미 연구, 어문론집 47, 민족어문학회, 105-128쪽.
안주호(2004ㄱ), 한국어 추측 표현의 통사・의미 연구, 새국어교육 68, 한국국어교육학회, 97-121쪽.
안주호(2004ㄴ), ‘-는 법이다’류의 양태표현 연구, 國語學 44, 국어학회, 185-210쪽.
양명희・석주연(2012), 한국어 문장 구조 교육을 위한 문법 항목 선정과 등급화, 어문론집 52, 중앙어문학회, 61-84쪽.
양명희(2014), 한국어교사를 위한 문법 교육 내용 기술의 원칙, 어문론집 59, 중앙어문학회, 407-432쪽.
양명희 외(2015),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양명희(2016),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20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2차 춘계 전국학술대회, 137-147쪽.
양명희(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유사 문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 3-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53-278쪽.
양정윤(2014),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지’ 표현 연구-‘-ㄹ래’, ‘-려고’, ‘-ㄹ거야’, ‘-ㄹ게’를 중시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녀(201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엄정호(2005),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파주: 태학사.
염재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언어와 정보, 한국언어정보학회, 9-2, 1-22쪽.
유민애(2012),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상(2020), 韓國語 類似 文法 項目 敎育을 위한 입력 기반 과제 適用 硏究, 어문연구 4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85-417쪽.
유쌍옥(2016),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과 개발 방향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한중인문학회, 189-213쪽.
유창(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과 '의지' 표현의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해준(201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515-538쪽.
유해준(2018), 한국어 교육 유사 문법 개념 연구: 음운・형태・통사・의미・화용적 관계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6, 중앙어문학회, 317-339쪽.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221-258쪽.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43-269쪽.
유혜령(2010), 국어의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377-409쪽.
윤세미(2019), 한국어 의지 표현 교육 방안 연구-한국어 의지 표현 사용역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은경(2006),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종결어미 '-(으)르래, -(으)르게'를 대상으로-, 언어화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1-63쪽.
윤은미(2004),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 비교연구-체면보호를 위한 언어적 장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17-145쪽.
윤정화(2014), 한국어 공손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혜진(2011),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 선정과 등급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관희(2015), 학습자의 지식 구성 분석을 통해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광호(1996), '-겠-'의 의미, 어문학 59, 한국어문학회, 461-480쪽.
이기갑(2006), 한국어의 양태 표현: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담화인지언어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67-83쪽.
이기동(1989), 언어 주관성의 문제, 한글 206, 한글학회, 177-208쪽.
이기용(1977), 짐작의 뜻: '-겠-'과 '-ㄹ 것-'을 중심으로, 합동 연구 발표 논문 요지 Ⅱ, 한글학회.
이기용(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국어학회, 29-64쪽.
이기종(1993), 짐작·추측 구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한남어문학 19,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61-292쪽.
이기종(2001), 우리말의 인지론적 분석. 서울: 역락.
이남순(1981), '겠'과 'ㄹ 것',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3-203쪽.
이남순(1995), '겠'과 'ㄹ것'의 판단론, 大東文化硏究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75-390쪽.
이미혜(2004),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일고찰-양태표현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67-79쪽.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서울: 박이정.
이상숙(202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선경(1986), 서법과 어술행위적 한정 작용: '-겠-'과 '-을 것이'를 중심으로, 한글 193, 한글학회, 105-120쪽.
이선명(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화용 능력 발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 317-339쪽.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이수련(2010), 주관화의 의미 해석-개념화자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27, 우리말학회, 29-52쪽.
이영래(2006), 언어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05-124쪽.
이윤진(2015), 학술텍스트에 나타나는 '-겠-' 결합형 문형의 사용 양상 분석-한국어 논문쓰기 교육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작문연구 25, 한국

작문학회, 127-156쪽.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209쪽.
이준호(2010), TTT 모형을 활용한 추측 표현 교육 연구-“-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247-273쪽.
이지연(2018),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유사 문법 항목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연(2019), 한국어 추측 표현의 화용적 특성 연구-개연의 추측 표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4, 이중언어학회, 417-445쪽.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용(2019),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내용 기술, 어문론집 78, 중앙어문학회, 379-417쪽.
이진주(2021), 한국어 대립 표현 유사 연결어미 교육 내용 연구-‘-지만’, ‘-는데’, ‘-으면서’, ‘-더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필영(1998),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관형구성의 불확실성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9-198쪽.
이필영(2012), 추정과 비추정의 ‘-겠-’의 의미,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109-126쪽.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정・최영롱(2015), 한국어 교육용 연결어미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구어・문어 빈도 및 교재 중복도 등의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강현화 편(2015), 코퍼스 기반 한국어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고사, 117-141쪽.
이형석(2014), 실증연구방법(제2판), 서울: 한경사.
이혜용(2003), [짐작],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정(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태 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동훈(2001),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국어학회,

115-147쪽.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쪽.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쪽.
임재진(1999), 서법 형태소 {-겠-}의 의미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1998),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181-206쪽.
임칠성(1991), 비확정 서술의 '-겠-'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5, 국어국문학회, 121-140쪽.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 한글학회, 587-630쪽.
장경희(1985), 現代國語의 樣態範疇硏究, 서울: 탑출판사.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191-205쪽.
장경희(1998), 서법과 양태, 문법 연구와 자료: 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261-303쪽.
장영희(1994), 접속부사에 대하여, 어문론집 4,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7-154쪽.
장영희(1997), 추측성 부사에 대하여, 語文論集 7,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19쪽.
장채린・강현화(2013), 한국어 교육용 문법 항목 선정 및 복잡도 산정-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9차 전국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07-125쪽.
장채린(2017), 한국어 의지·의도 표현들의 의미 비교-'-겠-', '-을 것이-', '-을게(요)', '-을래(요)'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6, 한국어의미학회, 1-34쪽.
전기호(2006), 어휘 의미를 활용한 유의적 문형 교수 방안-'-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95-413쪽.
전나영(1999), {-(으)ㄴ가/나 보다/-(으)ㄹ/ㄴ/는 모양이다/-(으)ㄹ/ㄴ/는 것 같다/-(으)ㄹ 것이다/-겠다}의 의미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4,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69-198쪽.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국어학회, 125-146쪽.
전혜영(2002),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황경자・이수미・윤영은・전혜영・장인봉(2002), 언어의 의미와 사용, 서울: 태학사, 167-191쪽.
전혜자(2013),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된 문장의 세 가지 특징-구어에서 보이는 현장성, 주체의 고정성 및 전체성에 대하여-, 한글 301, 한글학회, 43-82쪽.
전휘(2020), '-더-'의 주관성과 주관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 '-더라'의 주어 인칭 문제에 대하여, 횡단인문학 6, 횡단인문학, 111-128쪽.
정경미(2016), 한국어 추론 증거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경숙(2012),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 37-4, 한국언어학회, 995-1016쪽.
정단화(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민진(2014), 한국어 공손 표현의 교수학습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미진(2017), 한국어 추측 표현의 화행 실현 양상과 교수학습 내용 연구, 한국어학 76, 한국어학회, 187-211쪽.
정영교(201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태부사 유의어 의미분석과 제시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희(1997), 추측성 부사에 대하여, 어문논집 7,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19쪽.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효은(2008), 한국어 지시 화행과 공손성의 상관관계 연구 - 부탁 화행과 제의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용준(2016), 한국어의 의외성 범주의 실현과 그 양상, 한말연구 40, 한말연구학회, 251-278쪽.
조일영(1994), '-겠-'의 양태적 의미, 어문논집 33, 215-245쪽.
진관초(201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증거성 표지 연구-추론 증거

성 표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정란(2005), 유의표현 '-느라고, -는 바람에, -거든'의 교육문법 정보, 언어와 문화 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79-200쪽.
차현실(1986), 양상술어의 통사와 의미: 미확인 양상술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8, 이화어문학회, 11-34쪽.
최성호(2005), 양상범주론: 연역과 가추,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서울: 한국문화사.
최수정(2022), 한국어 유사 문법 교육을 위한 의미 중심 문법항목 범주화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애넝(201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희망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웅한(2009),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적 변환론,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321-346쪽.
최현배(1937), 우리 말본, 서울: 정음사
탕이잉(2020),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사 문법 항목의 비교 기술 방안 연구-추측 표현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7-172쪽.
탕이잉(2022), 한국어 추측 표현의 주관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주어 제약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103-130쪽.
탕이잉・진영하(2021), 한국어 추측 표현과 양태 부사의 공기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97-324쪽.
하흔흔(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추측 양태 표현 교육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명주(2008), 형식명사 구성의 '추측' 표현 연구, 한성어문학 2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49-174쪽.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한송화(2003), 어휘 사전과 어휘 관계, 언어사실과 관점 12・1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67-294쪽.
한정한・정희숙(2011),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문법 제약-문법적 연어구성을 중심으로-,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1117-1142쪽.
한향화(2016), 인지언어학의 "주관성" 관점에서 본 조선어초급문법 교수,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48-54쪽.
함계임(2016), 인지언어학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의 사용 상황 선정과 의미 제시 순서, 언어와 문화 12-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9-261쪽.
허경행(2011), '-을게'와 '-을래'의 의미-'수용'과 '거부'의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5-233쪽.
허상희(2010),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지이・박경남・박선희(2021), OHE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 방안, 새국어교육 128, 한국국어교육학회, 179-208쪽.
호광수(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서울: 역락.
홍승아(2020), 한국어 공손 표현의 유형별 실현 양상, 언어와 정보 사회 39,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87-108쪽.
홍혜란(2016),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 연결 구성 연구-사용역에 따른 분포 양상과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혜란(2018), 말뭉치 기반 연구의 재탐색-Biber, Conrad & Reppen(199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471-490쪽.
황주하(2013), 담화 분석을 통한 유의 문법 교육-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1-246쪽.
황주하(2015), 상황 맥락을 고려한 한국어 추측 표현 연구-'-것 같다', '-을 것이다', '-겠-'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학회, 365-389쪽.
황주하(2018),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ikhenvald, A. Y.(2004), Eviden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Alan, T.(1985), Tense, aspect, and mood.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80-333.
Auwera, J. · Plungian, V.(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 pp.79-124.

Biber et. al.(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 England / New York: Longman.

Biber, D. · Conrad, S. · Reppen, R.(1998), Corpus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sch, M. · Gascón, J.(2006), Twenty five years of didactic transposition. *ICMI Bulletin* 58. pp.51-63.

Brown, H. D.(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White Plains / NY: Pearson Education. 이홍수・박매란・박주경・이병민・이소영・최연희 공역(2001),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제4판),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Brown, J. D. · Rodgers, T. S.(2009), Doing second language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P. · Levinson, S. C.(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Ed.),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6-311.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 Philadelphia: J.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옮김(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Bybee, J. ·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fe, W.(1986), Evidentiality in English conversation and academinc writing, In W. Chafe · J. Nichols.(Eds.),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pp.261-272.

Chevallard. Y.(1985), La transposition didactique. Grenoble: La pensée sauvage.

Chevallard. Y.(1988), Le concept de repport au savior. Rapport

personnel. rapport institutionnel. rapport officiel. Séminaire de didatique des mathématiques et de l'informatique 108. pp.103-117.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e Hann, F.(1999),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Setting Boundaries, *Southwest Journal of Linguistics* 18, pp.83-101.

DeLancy, S.(1997), Mirativity: The grammatical marking of unexpected information, *Linguistic Typology* 1, pp.33-52.

DeLancy, S.(2001),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 pp.369-382.

Dendale, P. · Tasmowski, L.(2001), Introduction: evidentiality and related notions, *Journal of Pragmatics* 33(3), pp.339-348.

Donato, R.(1994), Collective Scaffolding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 J. P. Lantolf · G. Appel(Eds.), Vygotskian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search 33-56. Norwood, N.J.: Ablex Pub.

Ellis, R.(2004).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2 Explicit Knowledge, *Language Learning, 54(2)*, pp.227-275.

Flach Peter A. · Kakas Antonis C.(2000), Abductive and Inductive reasoning: background and issues, In Flach Peter A. · Kakas Antonis C.(Eds.), *Abduction and induction: essays on their relation and intergr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1-27.

Givón, T.(1982), Evidentiality and Epistemic space. *Studies in Language* 6(1), pp.23-49.

Givó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1, Amsterdam: John Benjamins.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Pub, Co., 이병식・박상옥・김사훈 옮김(2011), 근거 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서울: 학지사.

Halliday, M. A. K.(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J.(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Harmondsworth, pp.140-165.

Hennink, M. M. · Kaiser, B. N. · Marconi, V. C.(2017), Code saturation versus meaning saturation: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7(4)*, pp. 591-608.

Hu, G.(2002),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the utility of metalinguistic knowledge in second language prod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pp.347-386.

Jakobson, R.(1971), Selected Writings 2: Word and Language, The Hague and Paris: Mouton.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Kettemann, B.(1999), On the Role of Context in Syntax and Semantics, In Kettemann, B. · Geong, M.(Eds.), *Crossing Boarders: Interdisciplinary Intercultural Interaction*, Tübingen, pp.105-114.

Langacker, R. W.(1985), Observations and Speculations on Subjectivity, In J. Haiman(Ed.), *Iconicity in Syntax: Proceedings of a Symposium on Iconicity in Syntax*.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09-150.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 역(1999), 인지 문법의 토대: 이론적 선행조건들, 서울: 박이정.

Langacker, R. W.(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나익주 옮김(2005), 개념, 영상, 상징: 문법의 인지적 토대, 서울: 박이정.

Langacker, R. 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De Gruyter, 김종도・나익주 옮김(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박이정.

Larsen-Freeman, D.(2003), Teaching Language: Form Grammar to

Grammaring, Boston: Thomson/Heinle, 김서형・이혜숙・김민희 옮김(2012), 언어교수: 문법에서 문법사용하기로, 서울: 지식과교양.

Lee, H. S.(1991), Tense, Aspect, and Modality: a Discourse-Pragmatic Analysis of Verbal Affixes in Korea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UCLA Doctoral Dissertation.

Lee, H. S.(2015), Modality, In B. Lucien · Y. Jaehoon(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Chichester / West Sussex / England: Wiley Blackwell, pp.245-268.

Leech, G.(1983), Principle of Pragma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Lyons, J.(1977), Semantics Ⅰ,Ⅱ,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ysia, J.(2004), A philosoph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김희숙·문은주 옮김(2011), 외국어 습득 원리의 이해: 비고츠키의 사회문화론과 언어습득, 서울: 한국문화사.

Matlock, T(1989), Metaphor and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s,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5, pp.215-225.

Me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dudy applications in education(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ilishers, 강윤수 외 옮김(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서울: 교우사.

Palmer, F. R.(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홍용희・노경주・심종희 공역(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청지사.

Strauss, S.(2005), Cognitive realization markers in Korean: A discourse-pramatics study of the sentence-ending particles -kwun, -ney and -tela, *Language Sciences* 27, pp.437-480.

Swan, M.(1994), Design criteria for pedagogic language rules. In M. Bygate, A. Tonkyn · E. Williams(Eds.),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New York: Prentice Hall, pp.45-55.

Van Lier, L.(1991), Language awareness: The common ground between linguist and language teacher. In J. E. Alatis(Ed.), *Linguistics and language pedagogy: The state of the art*.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99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528-546.

Willet, T. L.(1988), A Cross-Linguistics Survey of the Grammatic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1), pp.51-97.

Winsløw, C.(2011), Anthropological Theory of Didactic Phenomena: Some Examples and Principles of Its Use in the Study of Mathematics Education, Un Panorama de TAD, CRM Documa, pp.117-138.

Wymann, A. T.(1996), The Expression of Modality in Korean(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ern, Bern, Switzerland.

Yin, R. K.(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옮김(2016),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楊莉萍・元立東・張博(2022), 質性研究中的資料飽和及其判定, 心理科學進展 30(3), 中國科學院心理研究所, pp.511-521.

부 록

【부록1】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의 출제 기준

1.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과제 B) 출제 기준

통사	문법 항목	세부 내용	과제 B	과제 C	과제 D
주어 인칭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평서문에서 추측 주체인 화자가 1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될 수 없다.	7(-(으)ㄴ가/나 보다) 28(-(으)ㄹ/ㄴ/는 모양이다) 48(-(으)ㄹ 것이다) 52(-겠-)	-	-
	-겠-	・의문문에서 추측 주체인 청자가 2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될 수 없다.	46(-겠-)	-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소설에서 추측 주체인 작중인물이 문장에서 3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될 수 있다.	15(-(으)ㄹ/ㄴ/는 듯하다)	4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명제 주어가 1인칭일 때 심리술어와 결합할 수 없다.	32(-(으)ㄴ가/나 보다) 38(-(으)ㄹ/ㄴ/는 모양이다)	5, 9, 26, 35	28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심리술어(판단형용사) '좋다', '괜찮다' 등과 결합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1인칭 명제 주어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36(-(으)ㄴ가/나 보다) 40(-(으)ㄹ/ㄴ/는 모양이다)	-	1, 9, 18, 21

	-(으)ㄹ/ㄴ/는 것 같다	·'-었던 것 같다'의 형태로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1인칭 명제 주어의 과거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1(-(으)ㄹ/ㄴ/는 것 같다)	18	-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심리술어+아(서)+죽-'과 결합하여 1인칭 명제 주어의 현재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으)ㄹ/ㄴ/는 것 같다)	33	-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심리술어(심리형용사) '좋다' 등과 결합하여 '-(으)면' 선행절로 이룩된 가정적 사실의 실현에 대한 1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9(-겠-)	-	6, 11, 26
	-겠-	·심리술어(심리형용사) '감사하다, 고맙다' 등과 결합하여 '-(으)면' 선행절로 이룩된 가정적 사실의 실현에 대한 1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6(-겠-)	-	29
	-겠-, -(으)ㄹ 것이다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화자가 경험주가 겉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2, 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17(-(으)ㄹ 것이다) 21(-겠-)	2, 19, 27	-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지식 정보로부터 2, 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9(-(으)ㄹ/ㄴ/는 것 같다)	30	-
	-(으)ㄹ/ㄴ/는 듯하다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소설에서 저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작중인물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작중인물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5(-(으)ㄹ/ㄴ/는 듯하다)	-	-
	-겠-, -(으)ㄹ/ㄴ/는 것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화자의 현장 지각으로부터 2, 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	1, 12	23

	같다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선어말어미 '-었-, -더-'	-겠-, -(으)ㄴ가/나 보다	·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4(-겠-) 11(-(으)ㄴ가/나 보다)	4, 19	-
	-(으)ㄹ 것이다	·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9(-(으)ㄹ 것이다)	29	-
	-(으)ㄹ/ㄴ/는 듯하다	· 소설에서 연결어미 '-더니'와 결합하여 쓰인다.	47(-(으)ㄹ/ㄴ/는 듯하다)	-	-
종결어미 '-구나/네, -지'	-(으)ㄹ 것이다	· 종결어미 '-구나', '-네'와 결합할 수 없다.	13(-구나) 27(-네)	2(-네), 12(-네), 28(-구나)	-
	-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종결어미 '-지'와 결합하여 쓰이는 비율이 높다.	8(-겠-)	8, 22	14, 19, 25
문장 유형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일반의문문에 쓰일 수 없다.	3(-(으)ㄹ 것이다) 18(-(으)ㄴ가/나 보다) 24(-(으)ㄹ/ㄴ/는 모양이다)	26	-
	-(으)ㄹ 것이다	· 종결어미 '-지'와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22(-(으)ㄹ 것이다)	-	14, 19, 25
	-겠-, -(으)ㄹ 것이다	· 종결어미 어미 '-은가'와 결합하여 답을 요구하지 않는 화자나 저자의 자문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51(-(으)ㄹ 것이다)	-	-
	-겠-, -(으)ㄹ/ㄴ/는 것 같다	·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이때 '-겠-'은 부정사('무슨', '어떻게' 등)와 공기하여 즐겨 사용된다.	30(-(으)ㄹ/ㄴ/는 것 같다) 37(-겠-)	-	3

	-겠-	·부정소 '-지 않-', '아니다'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33(-겠-)	-	8
	-겠-	·부정부사 '얼마나'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며 한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43(-겠-)	-	-
'-(으)면' 선행절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화자의 지각 정보를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2(-(으)ㄹ/ㄴ/는 것 같다)	10, 29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없다.	31(-(으)ㄹ/ㄴ/는 모양이다) 42(-(으)ㄴ가/나 보다)	9, 26, 30	6, 11, 12, 26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과거나 현재와 반대되는 반사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없다.	2(-(으)ㄴ가/나 보다) 16(-(으)ㄹ/ㄴ/는 모양이다)	34	-
공기 어휘·표현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양태부사 '틀림없이'와 공기할 수 있다.	39(-(으)ㄹ 것이다)	-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양태부사 '확실히'와 공기할 수 있다.	53(-(으)ㄹ/ㄴ/는 것 같다)	-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양태부사 '분명(히)'와 공기할 수 없다.	25(-(으)ㄴ가/나 보다) 35(-(으)ㄹ/ㄴ/는	6	-

	모양이다		모양이다)		
	모든 항목	• 다른 양태부사에 비해 ‘아마’와 공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45(-(으)ㄹ 것이다)	15, 17, 25, 34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양태부사 ‘어쩌면’과 공기할 수 없다.	10(-(으)ㄹ/ㄴ/는 모양이다) 29(-(으)ㄴ가/나 보다)	31	-
	-겠-, -(으)ㄹ 것이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비한정 부사 ‘왠지’, ‘어쩐지’와 공기할 수 없다.	14(어쩐지, -겠-) 20(어쩐지, - 나 보다) 34(어쩐지, -(으)ㄹ 것이다) 44(어쩐지, -(으)ㄹ/ㄴ/는 모양이다) 6(왠지, -(으)ㄹ/ㄴ/는 모양이다) 50(왠지, -(으)ㄴ가/나 보다)	11(왠지)	-
	-(으)ㄹ/ㄴ/는 것 같다	• ‘내가 보기에(는)’ 등 1인칭 표현과 공기하는 비율이 높다.	23(-(으)ㄹ/ㄴ/는 것 같다)	13	-

2.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1(과제 C) 출제 기준

의미	세부 의미	문법 항목	세부 내용
추측 근거	직접적 지각 정보	-(으)ㄹ/ㄴ/는 모양이다	• 소설에서 저자나 작중인물이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활발히 사용된다.
		-(으)ㄴ가/나 보다	• 화자의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되는 특징.
		-(으)ㄹ/ㄴ/는 듯하다	• 소설에서 저자나 작중인물이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자신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활발히 사용된다.
		-겠-	• 화자의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발화 현장에 있는 특징이 있다.
		-(으)ㄹ/ㄴ/는 것 같다	• 화자의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으)ㄹ 것이다	•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음.
	간접적 지각 정보	-(으)ㄴ가/나 보다	• 화자의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되는 특징.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이런 맥락에 사용되지만 비율이 낮음.
		-겠-	• 화자의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발화 현장에 있는 특징이 있다.
		-(으)ㄹ/ㄴ/는 것 같다	• 화자의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으)ㄹ/ㄴ/는 듯하다'도 이런 맥락에 사용되지만 비율이 낮음.
		-(으)ㄹ 것이다	• 사용 비율이 극히 낮음.
	내적 지각 정보	-(으)ㄴ가/나 보다	•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되는 특징.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이런 맥락에 사용되지만 비율이 매우 낮음.
		-(으)ㄹ/ㄴ/는 듯하다	• 소설에서 저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에서 작중인문 자신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활발히 사용됨.
		-겠-	•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지각의 결과로서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될 만큼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됨.
		-(으)ㄹ/ㄴ/는 것 같다	• '-(으)ㄹ/ㄴ/는 듯하다'와 같은 용법. • '-겠-'과 같은 용법. •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미확인된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됨.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화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됨.(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쓰임)
	지식 정보	-(으)ㄹ 것이다	・화자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활발히 사용된다.
		-(으)ㄴ가/나 보다	・화자의 기억으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이때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되는 특징. '-(으)ㄹ/ㄴ/는 모양이다'도 이런 맥락에 사용되지만 비율이 매우 낮음.
		-겠-	・'-겠지(요)'로 쓰여 화자의 지식 정보로부터 화청자에게 기지정보가 되는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겠지만'으로 선행절에서 쓰여 지식 정보로부터 당위적인 사실을 이끄며 이를 전제로 후행절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단언을 통해 새로운 사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으)ㄹ/ㄴ/는 것 같다	・화자의 지식 정보로부터의 추측에 사용된다. '-(으)ㄹ/ㄴ/는 듯하다'도 이런 맥락에 사용되지만 비율이 낮음. ・특히 화자의 기억으로부터 화자 자신에 관한 어떤 사태를 추측하는 데 잘 사용됨.(화자 겸손을 통한 공손 전략으로 쓰임)
추측 방법	연역적 추측	-겠-, -(으)ㄹ 것이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되는 사태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 '-ㄹ/을'과 결합되어 전제로부터 결론이 되는 사태를 도출하는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가추적 추측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태를 추측하는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대체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 결합되어 지각된 결과 사태로부터 원인이 될 만한 사태를 추측하는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겠-, -(으)ㄹ 것이다	・발화 현장의 언술 정보로부터 결과 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나 현재의 사태를 추측하는 특정 맥락에서 가추적 추측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때 '-겠-'은 '-겠지(요)'의 형태로 사용된다.
확실성 정도		모든 항목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확실성 '상/중/하'를 나

		타내는 데 두루 사용될 수 있다. • '-(으)ㄹ 것이다': 다른 항목보다 확실성 '상'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확실성 '중'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된다.
주관성	모든 항목	상대적 주관성: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으)ㄹ/ㄴ/는 듯하다'; 상대적 객관성: '-(으)ㄴ가/나 보다',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3.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2(과제 D) 출제 기준

화용		문법 항목	세부 내용
격식성		모든 항목	'-(으)ㄹ 것이다'>'-겠-'>'-(으)ㄴ가/나 보다'>'-(으)ㄹ/ㄴ/는 것 같다'>'-(으)ㄹ/ㄴ/는 듯하다'>'-(으)ㄹ/ㄴ/는 모양이다' 격식성 <----------> 비격식성
매체		모든 항목	'-(으)ㄹ/ㄴ/는 것 같다'>'-(으)ㄴ가/나 보다'>'-겠-'>'-(으)ㄹ 것이다'>'-(으)ㄹ/ㄴ/는 듯하다'>'-(으)ㄹ/ㄴ/는 모양이다' 구어 <----------> 문어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상대방에게 행위 수행을 요구할 때 수행의 여부를 상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며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배려하여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① '-(으)면 좋다/감사하다/고맙다'와 결합하여 행위 수행 요구를 자신의 소망 사항으로 전달하거나, ② '-어도/-하는 게/것도 좋다/괜찮다'와 결합하여 행위 수행 요구를 서로 또는 상대방을 위한 제안으로 표현하거나, ③ '-(으)면/어도 되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④ '-어야 하다/되다'와 결합하여 마치 해당 행위가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을 전달하는 동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킨다. ・'-겠-'은 형태 ①, ③, ④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으며, 형태 ①은 비/격식적 구어에서, 형태 ③, ④는 격식적 구어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형태 ②로 비/격식적 구어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형태 ①, ③, ④로 주로 격식적 구어에서 사용된다. ・'-(으)ㄹ 것이다'는 형태 ①로 사용되지 않으며 형태 ②, ③, ④로 주로 격식적 구어에서 사용되는데 사용율이 매우 낮다.
	정보 영역 존중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상대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말할 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정보 영역을 존중하여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확인의문문의 형태로 쓰일 수 있으며 상대방은 화자와 서로 모르거나 아직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 중립적인 관계.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어미 '-은데(요)'와 결합되는 형태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상대방은 화자보다 힘을 가지거나, 화자와 서로 모르거나 아직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 중립적인 관계.
	공감 하기	-겠-, -(으)ㄹ/ㄴ/는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

		것 같다	을 충족시켜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겠-'의 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때 화·청자가 서로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거나 원래 그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발화 상황이 친밀감의 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로 하기	-(으)ㄹ 것이다	•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화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강한 확실성을 가지고 표현하여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유지·증진시켜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화·청자가 서로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거나 원래 그러한 관계가 아니지만 발화 상황이 친밀감의 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정적 의도 완화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겠-,	•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대할 때 자신의 부정적인 의도를 완화시켜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보호하여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은 친구, 직장 동료 등 사회적 힘이 없거나 부모, 직장 상사 등 사회적 힘이 존재하며 강한/중립적 친밀감을 가진다. •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는 '아니다', '어렵다' 등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결부되는 특징. •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의 반대 의견을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겠-'은 화자의 반대 의견을 수사의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축소 표현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① 가능성 표현 '-ㄹ 수 있다/없다'와 직접 결합하여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② 이러한 형태 앞에 간접인용 표현 '-다고/라고 하다'를 더 삽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마치 남의 목소리처럼 자신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고 객관화함으로써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겠-'은 격식적 구어/문어에서 두 가지 형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으)ㄹ 것이다'는 격식적 문어에서 가능성 표현과 직접 결합되는 형태가 높은 비율로, '-(으)ㄹ/ㄴ/는 것 같다'는 비/격식적 구어에서 가능성 표현과 직접 결합되는 형태가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
		-겠-	• '-겠-'을 사용하여 화자는 ① 격식적 구어에서 수사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청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조심스럽게 제시하여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② 비격식적 구어에서 '-(으)면 좋겠다'의 형태로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축소하여 표현함으로써 정보 수용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주고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 화자는 이들 항목을 ① '필요하다' 등 판단형용사와 결합하거나 ② 당위성 표현 '-어야 하다/되다'와 결합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고 추측만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으)ㄹ 것이다'는 형태 ②로 격식적 문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며, '-(으)ㄹ/ㄴ/는 것 같다'는 형태 ① 비/격식적 구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됨.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ㄴ가/나 보다	•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달할 때 발화 내용을 축소하여 겸손화함으로써 정보 수용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 공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때 '-(으)ㄹ/ㄴ/는 듯하다'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격식적 문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며, '-(으)ㄴ가/나 보다'는 격식적 구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
		-(으)ㄹ/ㄴ/는 것 같다	•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여 화자는 비격식적 구어에서 자신에 관한 사태, 자신의 느낌, 감정 등을 축소하여 발화함으로써 상대방과의 불일치를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으)ㄴ가/나 보다	• '-(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하여 화자는 구어에서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명제 내용을 축소하면서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격식적 구어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다.
	잘못을 인정하기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 '-(으)ㄹ/ㄴ/는 것 같다'를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과 친밀감을 가지는 상대방에게 누를 끼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손을 나타내는 동시 이로 인한 자신의 체면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 '-(으)ㄴ가/나 보다'를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과 모르거나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덜 연관되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여 자신의 체면을 스스로 손상시킴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손을 드러낼 수 있다.
불손 전략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 이들 항목을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과 부정적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려는 불손의 발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때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겠-'은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겉으로 상대방의 정보 영역 존중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명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불손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으)ㄹ 것이다'는 상대방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불손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부록2】 집합적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의 문항 구성

1.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과제 B) 문항 구성

문항	제시 항목	기준	세부 내용	문항 내용	정오
1	-(으)ㄹ/ㄴ/는 것 같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것 같다'는 '심리술어 + -아(서) + 죽다'의 형태로 경험주인 화자 현재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숙제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
2	-(으)ㄴ가/나 보다	'-(으)면' 선행절	'-(으)ㄴ가/나 보다'는 반사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선행하는 문장의 후행절에 활발히 사용된다.	내가 그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은이랑 헤어지지 않았나 봐.	×
3	-(으)ㄹ 것이다	문장 유형 (일반의문문)	'-(으)ㄹ 것이다'는 일반의문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유진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
4	-겠-	선어말어미 '-었-'	'-겠-'은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찍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었어요.	×
5	-(으)ㄹ/ㄴ/는 듯하다	주어 인칭 (2,3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듯하다'는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소설에서 저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작중인물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작중인물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해영은 서준의 가쁜 호흡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듯하다.	○
6	-(으)ㄹ/ㄴ/는 모양이다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왠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비한정 부사 '왠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아, 왠지 방에도 치킨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
7	-(으)ㄴ가/나 보다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외현)	'-(으)ㄴ가/나 보다'는 평서문에서 추측 주체인 화자가 1인칭 상위 주어로서 외현 불가능하다.	나는 이번에 일본 팀이 1위를 할 건가 봐.	×

8	-겠-	종결어미 '-지'	'-겠-'은 종결어미 '-지'와 결합 가능하다.	빨리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곧 들어오겠지.	○
9	-(으)ㄹ 것이다	선어말어미 '-더-'	'-(으)ㄹ 것이다'는 선어말어미 '-더-'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중국집에서 약초 맛 짬뽕을 적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 근데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더라고.	×
10	-(으)ㄹ/ㄴ/는 모양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어쩌면')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양태부사 '어쩌면'과 공기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은 그에게 마지막인 모양이에요.	×
11	-(으)ㄴ가/나 보다	선어말어미 '-었-'	'-(으)ㄴ가/나 보다'는 선어말어미 '-었-'의 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화 내용이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전화한 사람은 남자인가 봤어요.	×
12	-(으)ㄹ/ㄴ/는 것 같다	'-(으)면' 선행절	'-(으)ㄹ/ㄴ/는 것 같다'는 화자의 지각 정보를 나타내는 선행절이 쓰이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있다.	일기예보를 보면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더운 편이 아닌 것 같아.	○
13	-(으)ㄹ 것이다	종결어미 '-구나'	'-(으)ㄹ 것이다'는 종결어미 '-구나'와 결합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거구나.	×
14	-겠-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어쩐지')	'-겠-'은 비한정 부사 '어쩐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어쩐지 그 여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겠어.	×
15	-(으)ㄹ/ㄴ/는 듯하다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인칭/외현)	'-(으)ㄹ/ㄴ/는 듯하다'는 소설에서 추측 주체인 작중인물이 3인칭 상위 주어로 문장에서 외현될 수 있다.	서준은 문자를 보고 해영이 평소의 그녀로 돌아온 듯하여 안심이 됐다.	○
16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면' 선행절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반사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선행하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되지 않는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간 모양이야.	×
17	-(으)ㄹ 것이다	주어 인칭 (2,3인칭+심리술어)	'-(으)ㄹ 것이다'는 심리술어와 결합하여 경험주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태에 대한 지각으	영희가 요즘 잘 웃지도 않는 걸 보니 회사 일이 많고 힘들 거야.	×

			로부터 2,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18	-(으)ㄴ가/나 보다	문장 유형 (일반의문문)	'-(으)ㄴ가/나 보다'는 일반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	네 생각은 어때? 우리 아이가 합격하나 봐?	×
19	-겠-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겠-'은 심리술어(심리형용사) '좋다' 등과 결합하여 '-(으)면' 선행절로 이룩된 가정적 사실의 실현에 대한 1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들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
20	-(으)ㄴ가/나 보다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어쩐지')	'-(으)ㄴ가/나 보다'는 비한정 부사 '어쩐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봐요.	×
21	-겠-	주어 인칭 (2,3인칭+심리술어)	'-겠-'은 심리술어와 결합되어 화자가 경험주가 겉으로 드러난 사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2, 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서준이가 많이 아프겠어. 오늘 밥 한 끼도 먹지 않았어.	×
22	-(으)ㄹ 것이다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으)ㄹ 것이다'는 종결어미 '-지'와 결합하여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	하루 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거죠?	×
23	-(으)ㄹ/ㄴ/는 것 같다	공기 표현 (1인칭 표현)	'-(으)ㄹ/ㄴ/는 것 같다'는 '내가 보기에는' 등 1인칭 표현과의 공기 비율이 높다.	내가 보기에는 서준이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
24	-(으)ㄹ/ㄴ/는 모양이다	문장 유형 (일반의문문)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일반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	지은이가 회사를 그만둘 모양이야?	×
25	-(으)ㄴ가/나 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분명히')	'-(으)ㄴ가/나 보다'는 양태부사 '분명히'와 공기 불가능하다.	저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언니인가 봐요.	×
26	-겠-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겠-'은 심리형용사 '감사하다, 고맙다'와 결합하여 '-(으)면' 선행절로 이룩된 가정적 사태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	미국 유학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좀 많지만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타내는 데 사용된다.		
27	-(으)ㄹ 것이다	종결어미 '-네'	'-(으)ㄹ 것이다'는 종결어미 '-네'와 결합 불가능하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정말 여러 문제가 생길 거네요.	×
28	-(으)ㄹ/ㄴ/는 모양이다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외현)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평서문에서 추측 주체인 화자가 1인칭 상위 주어로서 외현 불가능하다.	저는 그 컴퓨터가 고장 난 모양이에요.	×
29	-(으)ㄴ가/나 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어쩌면')	'-(으)ㄴ가/나 보다'는 양태부사 '어쩌면'과 공기 불가능하다.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봐요.	×
30	-(으)ㄹ/ㄴ/는 것 같다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으)ㄹ/ㄴ/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기만 해.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숨겨 버릴 테니까. 왜? 내가 못 할 것 같아?	○
31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면' 선행절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비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선행하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살게 되면 언어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모양이에요.	×
32	-(으)ㄴ가/나 보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ㄴ가/나 보다'는 경험주인 명제 주어가 화자일 때 심리술어와 결합 불가능하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운데 나는 그걸 잘 못 버텨서 두 계절이 제일 싫은가 봐.	×
33	-겠-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겠-'은 '-지 않-'과 결합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타인에 대한 존중이지 않겠습니까?	○
34	-(으)ㄹ 것이다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어쩐지')	'-(으)ㄹ 것이다'는 비한정 부사 '어쩐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어쩐지 그 사람은 학교에서 일할 거예요.	×
35	-(으)ㄹ/ㄴ/는 모양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분명히')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양태부사 '분명히'와 공기 불가능하다.	형은 분명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모양이에요.	×
36	-(으)ㄴ가/나 보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ㄴ가/나 보다'는 '좋다, 괜찮다' 등 판단형용사와 결합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너도 해산물 좋아하니까 우리 다음에 해산물찜 그런 거 같이 먹으러 가는 것도 괜찮	×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을 건가 봐.	
37	-겠-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겠-'은 부정사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새벽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놀이문화를 접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어요?	○
38	-(으)ㄹ/ㄴ/는 모양이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경험주인 명제 주어가 화자일 때 심리술어와 결합 불가능하다.	나 오늘 머리가 좀 아픈 모양이야.	×
39	-(으)ㄹ 것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틀림없이')	'-(으)ㄹ 것이다'는 양태부사 '틀림없이'와 공기 가능하다.	서준이는 믿을 만한 친구니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거야.	○
40	-(으)ㄹ/ㄴ/는 모양이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좋다, 괜찮다' 등 판단형용사(심리술어)와 결합되어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미술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술사나 철학에 관한 책 몇 권을 읽는 것도 좋을 모양입니다.	×
41	-(으)ㄹ/ㄴ/는 것 같다	주어 인칭 (1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것 같다'는 '-었던 것 같다'의 형태로 경험주인 화자 과거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학교 졸업할 때 남자 친구랑 일본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둘만의 여행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
42	-(으)ㄴ가/나 보다	'-(으)면' 선행절	'-(으)ㄴ가/나 보다'는 비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으)면' 선행절이 선행하는 문장의 후행절에 사용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괜찮아질 건가 봐요.	×
43	-겠-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겠-'은 '얼마나'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며 한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에 사용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
44	-(으)ㄹ/ㄴ/는 모양이다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어쩐지')	'-(으)ㄹ/ㄴ/는 모양이다'는 비한정 부사 '어쩐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경기를 봐야 알겠지만 어쩐지 B팀이 이길 모양이야.	×

45	-(으)ㄹ 것이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아마')	'-(으)ㄹ 것이다'는 양태부사 '아마'와 공기 비율이 높다.	아마 철수가 그 일을 했을 거야.	○
46	-겠-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외현)	'-겠-'은 의문문에서 추측 주체인 청자가 2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 불가능하다.	너는 내년에 삼성이(야구 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관중이 많이 오겠어?	×
47	-(으)ㄹ/ㄴ/는 듯하다	선어말어미 '-더-'	'-(으)ㄹ/ㄴ/는 듯하다'는 연결어미 '-더니'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해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일어서서 나갔다.	○
48	-(으)ㄹ 것이다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외현)	'-(으)ㄹ 것이다'는 평서문에서 추측 주체인 화자가 1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 불가능하다.	저는 오늘 도서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
49	-(으)ㄹ/ㄴ/는 것 같다	주어 인칭 (2,3인칭+심리술어)	'-(으)ㄹ/ㄴ/는 것 같다'는 심리술어와 결합되어 화자의 지식 정보로부터 2,3인칭 명제 주어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지연됐는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선수들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
50	-(으)ㄴ가/나 보다	공기 표현 (비한정 부사 '왠지')	'-(으)ㄴ가/나 보다'는 비한정 부사 '왠지'와 공기 불가능하다.	왠지 어디선가 장미 향이 나는가 봐요.	×
51	-(으)ㄹ 것이다	문장 유형 (수사의문문)	'-(으)ㄹ 것이다'는 어미 '-은가'와 결합되어 답을 요구하지 않는 자문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
52	-겠-	주어 인칭 (상위 주어 외현)	'-겠-'은 평서문에서 추측 주체인 화자가 1인칭 상위 주어로 외현 불가능하다.	나는 곧 비가 오겠다.	×
53	-(으)ㄹ/ㄴ/는 것 같다	공기 표현 (양태부사 '확실히')	'-(으)ㄹ/ㄴ/는 것 같다'는 양태부사 '확실히'와 공기 가능하다.	저 아이가 확실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	○

2.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1(과제 C) 문항 구성

문항	목표 항목	기준		세부 내용	통사적 변별점
		추측 근거	추측 방법		
1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직접적 지각	연역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발화 현장에 존재한다.	3인칭+심리술어
2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간접적 지각	가추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종결어미 '-네'; 2인칭+심리술어
3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간접적 지각	가추	발화 현장의 언술 정보로부터 결과 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나 현재의 사태를 추측하는 특정 맥락에서 가추적 추측에 사용될 수도 있다.	-
4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ㄴ/는 것 같다)	내적 지각	가추	소설에서 저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에서 작중인문 자신의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추측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3인칭 상위 주어; 선어말어미 '-었-'
5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내적 지각	가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가추적 추측에 따라 화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1인칭+심리술어
6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활발히 사용된다.	양태부사 '분명히'
7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기억)	가추	기억으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

8	-겠-	지식	연역	'-겠지(요)'의 형태로 지식 정보로부터 연역적 추측에 따라 화·청자에게 기지정보가 되는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종결어미 '-지'
9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으)ㄹ 것이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으)면' 선행절 (비현실 상황); 1인칭+심리술어
10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직접적 지각	가추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으)면' 선행절 (지각 정보)
11	-(으)ㄹ/ㄴ/는 것 같다	내적 지각	연역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연역적 추측에 따라 미확인된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비한정 부사 '왠지'
12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간접적 지각	연역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발화 현장에 존재한다.	종결어미 '-네'; 2인칭+심리술어
13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내적 지각	가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1인칭 명제 주어
	-(으)ㄹ/ㄴ/는 것 같다	간접적 지각	가추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1인칭 표현
14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직접적 지각	가추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
15	-(으)ㄹ 것이다	지식(기억)	연역	기억으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양태부사 '아마'
16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지식(기억)	가추	기억으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1인칭 명제 주어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17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지식	연역	'-겠지만'의 형태로 선행절에서 쓰여 지식 정보로부터 연역적 추측에 따라 당연한 사실을 이끌며 이를 전제로 후행절에서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를 통해 새로운 사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양태부사 '아마'
18	-(으)ㄹ/ㄴ/는 것 같다	지식(기억)	가추	기억으로부터 가추적 추측에 따라 화자 자신에 관한 어떤 사태를 추측하는 데 활발히 사용된다.	1인칭+심리술어
19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직접적 지각	가추	소설에서 저자나 작중인물이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자신의 가추적 추측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선어말어미 '-었-'; 3인칭+심리술어
20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직접적 지각	연역/가추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겠-', '-(으)ㄹ/ㄴ/는 것 같다'가 사용되며, 가추적 추측에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가 사용된다.	-
21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간접적 지각	가추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
22	-겠-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간접적 지각	가추	'-겠지'의 형태로 발화 현장의 언술 정보로부터 결과 사태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나 현재의 사태를 추측하는 특정 맥락에서 가추적 추측에 사용될 수도 있다.	종결어미 '-지'
23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내적 지각	가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가추적 추측에 따라 미확인된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1인칭 명제 주어
24	-(으)ㄹ 것이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활발히 사용된다.	1인칭+심리술어
25	-(으)ㄴ가/나 보다,	지식(기억)	가추	기억으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화·청자	양태부사 '아마'

	-(으)ㄹ/ㄴ/는 모양이다			에게 공유되는 것으로서 화맥에 명시된다.	
26	-(으)ㄹ/ㄴ/는 것 같다 (-겠-)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으)면' 선행절 (반사실 상황); 2인칭+심리술어; 일반의문문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1인칭+심리술어
27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직접적 지각	가추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2인칭+심리술어
28	-겠-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간접적 지각	연역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해당 정보는 발화 현장에 존재한다.	종결어미 '-구나'
29	-(으)ㄹ/ㄴ/는 것 같다	간접적 지각	가추	직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가추적 추측에 사용된다.	'-(으)면' 선행절 (지각 정보); 선어말어미 '-더-'
30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활발히 사용된다.	'-(으)면' 선행절 (비현실 상황);
31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사용된다.	양태부사 '어쩌면'; 1인칭 명제 주어
32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간접적 지각	가추/연역	간접적 지각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으)ㄹ/ㄴ/는 것 같다'가 사용되며, 가추적 추측에 '-(으)ㄴ가/나 보다', '-(으)	-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ㄹ/ㄴ/는 모양이다'가 사용된다.	
33	-겠-, -(으)ㄹ/ㄴ/는 것 같다	내적 지각	연역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지각의 결과로서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으로 연역적 추측이 될 만큼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1인칭+심리술어
34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	연역	지식 정보로부터의 연역적 추측에 활발히 사용된다.	'-(으)면' 선행절 (반사실 상황); 양태부사 '아마'; 1인칭 명제 주어
35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내적 지각	가추	내적 지각 정보로부터 실재하지 않는 사태가 되는 것으로 가추적 추측이 되는 만큼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1인칭+심리술어
36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지식(기억)	가추	기억으로부터 가추적 추측에 따라 화자 자신에 관한 어떤 사태를 추측하는 데 활발히 사용된다.	-

3.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2(과제 D) 문항 구성

문항	목표 문항	기준	언어사용역		화·청자 관계	
			매체	격식성	힘	친민감
1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②('-것도 괜찮다'와 결합; 제안)	구어	비격식	-	+
2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④('-어야 하다'와 결합; 건의)	구어	격식	+	중립
3	-(으)ㄹ/ㄴ/는 것 같다	불손 전략: 빈정거리기(수사의문문)	구어	비격식	-	-
4	-(으)ㄹ/ㄴ/는 모양이다, -(으)ㄹ/ㄴ/는 듯하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	문어	격식	-	중립
5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잘못을 인정하기(사과)	구어	비격식	-	+
6	-겠-,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①('-(으)면 좋다'와 결합; 명령)	구어	격식	+	중립
7	-겠-	불손 전략: 비난(종결어미 '-지'와 결합된 수사의문문)	구어	비격식	-	-
8	-겠-	공손 전략: 부정적 의도 완화(수사의문문; 의견 반대)	구어	격식	-	+
9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 것이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판단형용사)	구어	비격식	-	+
10	-(으)ㄴ가/나 보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화자 자신에 대한 평가)	구어	격식	-	중립
11	-겠-,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①('-(으)면 좋다'와 결합; 요청)	구어	비격식	-	+
12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③('-(으)면 되다'와 결합; 제안)	구어	격식	+	중립
13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공손 전략: 부정적 의도 완화('어렵다'와 결합; 거절)	구어	비격식	+	+
14	-겠-	공손 전략: 축소 표현(종결어미 '-지'와 결합된 수사의문문)	구어	격식	+	중립
15	-(으)ㄹ 것이다	불손 전략: 비난	구어	비격식	-	-
16	-(으)ㄴ가/나 보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	구어	격식	-	중립
17	-(으)ㄹ 것이다	공손 전략: 위로하기	구어	비격식	-	+
18	-겠-, -(으)ㄹ 것이다,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②('-하는 게 낫다'와 결합; 조언)	구어	격식	-	중립

	-(으)ㄹ/ㄴ/는 것 같다					
19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불손 전략: 비난(종결어미 '-지'와 결합된 수사의문문)	구어	비격식	-	-
20	-(으)ㄹ 것이다, -(으)ㄹ 것 같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어야 하다'와 결합)	문어	격식	-	중립
21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부정적 의도 완화(거절, 제안)	구어	비격식	-	+
22	-(으)ㄹ/ㄴ/는 듯하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	문어	격식	-	중립
23	-겠-,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공감하기	구어	비격식	-	+
24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ㄹ 수 있다'와 결합)	구어	격식	-	중립
25	-(으)ㄴ가/나 보다, -(으)ㄹ/ㄴ/는 모양이다	공손 전략: 정보 영역 존중(수사의문문)	구어	격식	-	중립
26	-겠-,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으)면 좋다'와 결합)	구어	비격식	-	+
27	-(으)ㄹ/ㄴ/는 것 같다, -(으)ㄹ/ㄴ/는 듯하다	공손 전략: 정보 영역 존중(어미 '-은데요'와 결합)	구어	격식	+	중립
28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경험에서 온 화자의 느낌 진술)	구어	비격식	-	+
29	-겠-	공손 전략: 행위 수행 부담 완화 ①('-(으)면 감사하다'와 결합; 부탁)	구어	격식	+	중립
30	-겠-, -(으)ㄹ 것이다, -(으)ㄹ/ㄴ/는 것 같다	공손 전략: 축소 표현('-라고 할 수 있다'와 결합)	문어	격식	-	중립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Contents of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in Korean

Tang Yiy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a direction for the design of teaching contents that promotes the accurate identification and appropriate use of Chinese learners for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in Korean.

In order to select the research items, the items primarily selected by the overlapping grammar items in educational materials and the frequency of using in corpus were classified into similar grammar items according to the semantic similarity determination. Through this, '-keyss-', '-(u)l kes-i-ta', '-(u)l/n/nun kes kath-ta', '-(u)l/n/nun tus-ha-ta', '-(u)n-ka/na po-ta', '-(u)l/n/nun mo-yang-i-ta' were finally selected as 'the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which appear in the position of pre-final ending and be used as ending express.

In Chapter II,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teaching contents of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ve was laid. Frist of all, the 'Modality' in Korean was discussed, the meaning area of the epistemic modality was established, and the conceptual meaning of 'speculation' belonging to the epistemic modality was identified. Next, after discussing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similar grammar items and expressing educational significance,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multidimensional discrimination information was emphasized. Finally, transformation patterns from academic knowledge to teaching contents was identified by reviewing the theoretical studies and considering the grammar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materials carefully.

In Chapter III, in order to accurately capture the multidimensional discrimination points of meaning, syntax, and conversation between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a corpus-based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specific analysis standards prepared whic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n Chapter II.

In Chapter IV, aims to promote an insider understanding of the discrimination patterns of advanced Chinese learners on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a collec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12 study participants.

In Chapter V, in two aspects, the selection and composition of teaching contents, contextu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teaching contents, the direction of the teaching contents for similar grammar items was reexamin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s multidimensional discrimination points of meaning, syntax, and conversation of similar grammar items that express speculation through objective research methods, and examines learners' discrimination patterns from an insider's point of view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knowledge organized by researchers and knowledge composed of learners and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teaching contents.

keywords : Korean language grammar education, speculative grammar items, similar grammar items, modality, corpus-based research, collective case study

Student Number : 2018-31622